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Vol. 1.

Published Semiannually by

The Institute for Biblical Text Research of the Korean Bible Society; August 1997

Table of Contents

• Paper •

[Kor.] Textus Receptus Debate ----- Chang-Whan Park / 11

• Translated Paper •

[Kor.] Translation of a "Introduction" of Novum Testamentum Graece
----- Chang-nack Kim / 34

• Paper •

[Kor.] Studies on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 on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ual Project and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 Cheol-Woo Park / 105

[Kor.] Biblia Hebraica Quinta : Brief Review on Textual Witnesses
----- Kyoung-Rae Kim / 118

[Kor.] A Consideration on the Transmission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Text
----- Kyoung-Rae Kim / 145

[Kor.] Archaeological Research and Bible Translation
----- Se-Jin Koh / 156

[Kor.] Textual Criticism for Revision
----- Young-Jin Min / 178

텍스투스 레셉투스의 정체(正體)

박창환

(전 장신대 교수, 신약학)

1. 이 글의 목적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사랑한다. 아니 참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존중하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어느 성경이 성경이냐고 물으면 대답이 곤란해진다. 많은 신자의 경우 성경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성경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개 번역된 성경에 불과하다. 가령 한국 크리스천의 경우라면, 오늘 흔히 교회 강단에서 읽고, 널리 보급되어 있는 개역한글판(대한성서공회 1961년판)을 성경이라고 말한다. 다른 나라의 크리스천들은 또 그들이 흔히 읽고 사용하는 번역 성경을 성경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통계에 의하면 성경은 2,000여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그 번역들은 조금씩은 내용이 다르고 의미도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그렇게 다른 것은 성경을 번역한 언어가 다르고, 번역자들이 다르고, 번역된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일 큰 원인은 번역 대본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을 대본으로 삼는 경우라든가, 독일어나, 불어나, 라틴어 성경을 대본으로 하고 번역하는 등의 중역(重譯)의 경우에도 많은 차이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가령 원어 성경을 대본으로 하고 번역하는 경우일지라도, 원어 성경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그 많은 상이한 원문 성경을 대본으로 한 번역 성경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존귀한 것으로 믿기에, 힘이 닿는 데까지 그것의 원본에 가까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것을 대본으로 해서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 최고 학자들의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구약 원문 성경이 바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제4판 1990)이며¹⁾, 신약 원문 성경이 네슬레-알란트(Nestle-Aland)의 신약성경그리스어(NOVUM TESTAMENTUM GRAECE

27판, 1993. 이하 NTG로)²⁾와 독일성서공회(Deutsche Bibelgesellschaft)와 연합성서공회(United Bible Societies. 이하 UBS로)가 출간한 그리스어신약성경(The Greek New Testament 제4판, 1993. 이하 GNT로)³⁾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최첨단의 비평판(批評版)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성경을 번역했고 또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위에서 말한 가장 정확한 원문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번역한 것이 표준새번역(1993)이다.

이제 범위를 신약 성경으로 제한하여 생각해 보자. 위에서 언급한 네슬레-알란트(Nestle-Aland)의 NTG나 UBS의 GNT라는 결정적 비평판 성경이 나오기까지의 역사를 더듬어보면, 활자인쇄술이 발명(A.D. 1450)되기 이전의 필사본 시대와 그 이후의 인쇄본 시대로 구분된다(인쇄본 시대에도 손으로 쓴 사본들이 몇 개 있다. 예컨대 소문자 사본 1884, 2318). 신약 성경 원본은 한 조각도 남아 있지 않으며(구약의 경우도 같다), 사본만 해도 5,500여 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같지를 았다.⁴⁾ 인쇄술이 발명된 이래 몇몇 사람이 후기의 몇 개의 사본을 비교하면서 자기 나름의 신약 원어 성경을 인쇄 출판한 것들이 수십 종류 남아 있다. 그 후에 현신적인 학자들이 여러 곳에서 사본들을 발굴 혹은 발견하여 비교 연구하면서, 또 많은 비평판 신약 성경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과 역사 속에, 17세기 초의 인쇄업자였던 엘제비어(Elzevir) 형제가 신약 원어 성경을 출판하면서 초판을 1624년에 내었고, 이어 제2판을 1633년에 내었다. 그 때 그 제2판을 선전하면서 자기들이 낸 신약

1)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는 *Biblia Hebraica Kittel*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BHK의 편집자들인 A. Alt, O. Eissfeldt, P. Kahle, R. Kittel을 말해야 하고, 이어서 BHS의 편집자들인 H. Bardtke, W. Baumgartner, P. A. H. de Boer, O. Eissfeldt, J. Fichtner, G. Gerleman, J. Hempel, F. Horst, A. Jepsen, F. Maass, R. Meyer, G. Quell, Th. H. Robinson, D. W. Thomas, H. P. Rüger, J. Ziegler, K. Elliger, W. Rudolph, G. E. Weil을 들어야 한다.

2) Eberhard and Erwin Nestle을 비롯하여 Barbara and Kurt Aland, Johannes Karavidopoulos, Carlo M. Martini, Bruce M. Metzger가 공로자들이다.

3) 제3판까지의 편집자들은 Kurt Aland, Matthew Black, Carlo M. Martini, Bruce M. Metzger, Allen Wikgren, 제4판의 편집자들은 Barbara Aland, Kurt Aland, Johannes Karavidopoulos, Carlo M. Martini, Bruce M. Metzger이다.

4) 신약 성경 사본이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손으로 다른 용지에 옮겨 쓴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를 크게 나누어 네 가지로 본다. 파피루스에 쓴 것, 가죽 종이에 대문자로 쓴 것, 가죽 종이에 소문자로 쓴 것,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성경 일과표(Lectionaries)가 바로 그 네 가지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파피루스가 98개, 대문자 사본이 301개, 소문자 사본이 2,829개, 일과표가 약 2,200개, 도합 약 5,500개이다(Nestle-Aland NTG, 27판, p 684-713의 부록 참조). 그 5,000여 개가 다 다르다는 말은, 우선 그것들이 다 신약 성경 전체를 담은 것들이 아니고, 많은 겨우, 성경의 일부분만을 담고 있어서, 그것들이 담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다르다는 말이다. 동시에 성경의 같은 부분을 담은 사본 들끼리도,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고, 꼭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성경은 “모두가 수락하는 책”(textum …… ab omnibus receptum)이라고 광고를 내었고, 그 때부터 그 신약 성경을 ‘텍스투스 레셉투스(Textus Receptus)’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그 앞에 나온 것이나 그 후에 나온 여러 인쇄본 성경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1982년에 「새흙정역성서」(The New King James Version)와 *The Greek New Testament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가 트리니티 성서공회(Trinitarian Bible Society)에 의해서 출판됨으로써 스크라이브너(F. H. A. Scrivener)의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according to the text followed in the Authorized Version*(Cambridge, 1881)이 새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됐고, 이렇게 텍스투스 레셉투스(Textus Receptus)가 재판(再版)되면서, 미국을 위시하여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그것들을 대본으로 하여 새로운 번역(1990년에 「새 성경」이 출판됨)을 시도하였고, 소위 ‘말씀보존학회’라는 단체가 주동이 되어 대대적으로 기존 성경 번역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번역 대본인 「새흙정역성서」와 그것의 신약 성경 대본인 텍스투스 레셉투스(Textus Receptus)와 그것이 속해 있는 비잔틴 전통의 본문(그들은 그것을 ‘다수본문 Majority Text’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이 유일한 영감된 번역이요 또 본문이라고 주장한다⁵⁾.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생겼다. 그래서 필자는 ‘텍스투스 레셉투스’의 정체를 밝혀서 그것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신약 원문 성경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얻어 보려는 것이다.

2. 텍스투스 레셉투스(Textus Receptus)의 의미

5) Textus Receptus와 KJV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나머지,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영감된 책을 사본으로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섭리적 방법에 의해서 무오하게 오늘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그레아만 이론에 맞는다는 것이다. 즉 그들이 말하는 Majority Text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무오하게 전달된 text라고 주장한다. 원본이 영감된 것이라면, 그것이 변개되지 않고 전달된 Textus Receptus 역시 영감된 것이라는 논리가 설 것이다. 그러나 Textus Receptus도 많은 변개를 가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무시한 채,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입각하여 사실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데 불과하다. 그들은 또한 KJV도 영감된 번역이라고 강변한다. KJV 번역자들은 다 영감된 사람이라는 것이며, 번역 “전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분별하심이 요구되는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철저한 작업이었다”고 말한다(이송오 지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 말씀보존학회, 1991. p. 179).

‘텍스투스 레셉투스’라는 말은 라틴(Latin)어 술어이다. ‘텍스투스’(textus)는 원래 망(網 web)을 의미하고, 따라서 직물(織物), 구조물(構造物)을 가리킨다.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생각이 얽히고 짜여 있는 글을 가리키게 됐다. ‘레셉투스’(receptus)는 레시삐오(recipio)라는 동사의 수동분사로서 ‘받아진’ ‘수락된’ ‘용납된’(accepted, received)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그 두 단어를 합하면 ‘공인된 글’(Received Text)이라는 말이 될 것이고 좀더 풀어서 ‘공인된 본문’이란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텍스투스 레셉투스’(Textus Receptus)라는 술어의 유래

‘텍스투스 레셉투스’라는 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평범한 보통명사지만⁶⁾ 그것이 지금은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 특정 문헌을 지칭하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미 1번 항목에서 언급한 대로 신약 원문 성경 인쇄본들이 1514년 이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160여 종류 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라이덴(Leiden)의 기업적 두뇌를 가진 인쇄업자 보나벤투라 엘제비어(Bonaventure Elzevir)와 아브라함 엘제비어(Abraham Elzevir)라는 두 형제가 베자(Beza)의 인쇄본(1565)을 거의 닮은 인쇄본을 1624년에 출판했고, 1633에 둘째 판을 내면서 그 서문에다가 그 책을 자랑하는 글을 아래와 같이 넣었다.

“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 in quo nihil immutatum aut corruptum damus.”(Therefore you [dear reader] now have the text received by all, in which we give nothing changed or corrupted = 그러므로 귀하 [친애하는 독자]는 이제 모두에 의해서 수락된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다 변경되거나 잘못된 것을 결코 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엘제비어(Elzevir) 형제가 자기들의 책을 많이 팔기 위하여 상술적(商術的)으로 사용한 말 Textum. . . Receptum이 계기가 되어, 그 이후 그 텍스트 계통의 인쇄본이 100여 종류가 출판되는 동안, 그 인쇄본들을 “유일한

6) 1524-25에 Venice에서 Daniel Bomberg에 의하여 출판된 히브리어 성경을 textus receptus라는 보통명사로 부르는 예가 있다.

참 본문”(the only true text) 또는 “표준 성경”(Standard text)이라는 의미로 수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텍스투스 레셉투스’가 물론 원본 신약 성경이 아니고, 많은 신약 성경 인쇄본 중의 하나를 가리킨 것이며, 1881년 전까지⁷⁾의 구라과의 많은 번역 성경의 대본으로 사용된 텍스트 계통을 통털어 ‘텍스투스 레셉투스’라 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텍스투스 레셉투스’가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원본에 충실하며, 과연 “유일한 참 본문”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한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인쇄업자라면 누구나 자기가 출판하는 책이 많이 팔리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온갖 그럴 듯한 선전을 하기 마련이다. 1633년에 엘체비어 형제가 제2판 신약 원문 성경을 출판하면서 그것이 많이 팔리기 위해서 거창하게 쓴 선전문의 일부를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명사(名詞)인 양 받아들여 온 많은 사람들의 처사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맹랑하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선전에 현혹되고 있기에 ‘텍스투스 레셉투스’의 정체를 밝혀 그들의 꼬임에서 풀려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텍스투스 레셉투스’를 대본으로 하여 번역된 많은 성경들 중, 유독 「영어흙정역」만을 유일 무이의 영감된 번역이라고 고집하고, 그 전과 후에 번역들은 하나 같이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많은 충성된 종들이 이룩한 공로와 노고를 무효화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기에, 어찌서 「영어흙정역」만이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인과 미국인 중, 일부 광신자들의 제국주의적 우월감과, 그들을 맹종하는 사대주의(事大主義)적 신자들의 어리석음이 「영어흙정역」과 텍스투스 레셉투스를 우상화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대다수 신자들의 정상적 사고와 판단을 정죄하고 있기에, 정견(定見)을 밝히고, 극단주의자들의 편견과 오해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4. 텍스투스 레셉투스(Textus Receptus)라는 성경이 생겨나기까지의 역사

4.1. 신약 성경 원본 기록과 그 보존 과정

7) Westcott & Hort가 1881년에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을 내면서, 사본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신약 본문의 진위는 가장 낡은 증거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여러 사람의 글이 모인 것으로, 그 여러 글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 저자들은 각기 교양과 신앙 경력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로써,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각기 성경을 쓸 때, 특정 장소와 시간에,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종이(파피루스 papyrus)와 붓과 잉크를 가지고 썼다. 그들이 글을 쓸 때, 그 글이 성경의 일부분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을 것이며, 또 그들이 대개 가난한 사람들이며, 종이나 붓이나 잉크는 값이 비싸고 귀한 것이어서, 특별한 각오와 결심이 없이는 글을 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즉 더 비싼 가죽 종이(皮紙 parchment, vellum)를 용지로 사용할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그렇게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만큼 귀중한 글을 쓴다는 의식도 없었기에, 그 당시 보통 얻을 수 있는 용지인 파피루스(papyrus =paper)를 사용했던 것이다.

파피루스라는 종이는 애굽 나일 강 가나 습지(濕地)에서 많이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식물(植物)의 내피를, 펴서, 가로 한 겹 세로 한 겹 놓고, 눌러서 말린 것으로, 그 지대의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흔히 사용하던 필기 용지였다. 긴 글을 쓸 때에는 보통 일 척(一尺) 평방 가량의 것을 몇 개라도 이어서 긴 두루마리를 만들어, 거기에 쓰고, 그것을 두루마리로 말아서 수신인(受信人)에게 보내는 것이었다⁸⁾. 하나님의 말씀이 코이네(koine=κοινή) 헬라어라는 평범하고도 통속적인 사람의 말로 기록된 동시에, 그 시대의 가장 평범한 필기 용지인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기록됐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파피루스는 이른바 초지(草紙)여서, 그리고 한국이 자랑하는 한지(韓紙)와 같이 견고하고 지구성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쉽게 끊어지고 꺾어지고 부스러지기 쉬웠다.

가령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을 때의 일을 상상해 보자. 그 편지는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 그 교회 회원들에게 읽

8) Sir Frederic Kenyon에 의하면 적어도 기원전 6세기 이래(혹은 그 이전부터) 헬라 세계에서는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책을 만드는 주 자료였다는 것이고, 70인역(LXX)도 역시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A.D. 1세기의 신약 성경의 여러 책들도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용지로 했었다고 단언한다(*Our Bible and the Ancient Manuscripts*, p.38-39). 그러나 그가 이어서 말하기를 A.D. 제2세기에는, 아니 제1세기부터라도, 그리스 천 공동체에서는 코덱스(codex) 형을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상계서 p.41). 교회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 사본들을 사용하다 보니, 두루마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다. 그래서 곧 파피루스 종이를 말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코덱스 형을 채택한 것 같다. 어쨌든 2세기 이후에 된 파피루스 신약 사본으로 현존하는 것은 다 코덱스 형의 것들이다.

혀졌을 것이고, 따라서 오래지 않아 그 편지는 때가 묻거나, 부러지거나, 끊어지거나 해서, 그것을 새 용지에 옮겨 써야 할 처지가 됐을 것이다. 그것을 옮겨 쓰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정성을 다해서, 원본과 차이가 없는 것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 했을 것이다. 그 시대에는 헬라어 문자가 대문자들만 있었고, 띄어쓰기라는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활자판이 아니고 손으로 쓰는 것이어서 같은 글자라도 모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옮겨 쓰는 사람이 원본을 100% 그대로 옮겨 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연약한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아무 손상도 받지 않고 그 원본이 고스란히 오늘까지 보존되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시지 않으신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왔다는 소문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온 바울의 편지를 읽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그 편지를 베껴오도록 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또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 단계에서만 보더라도 원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필사본이 다르고, 빌립보 교회가 만든 필사본이 또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 27권의 글이 우선은 파피루스에 기록되었고, 오래지 않아 그것들의 필사본이 만들어져야만 했고, 원본들은 얼마 안 가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원본의 대를 잇는 파피루스 필사본들이 점점 많아져서, 각 교회에서 원본 대신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수많은 신약 성경의 파피루스 필사본들이 신약 성경의 일부분 또는 몇 책이 함께 필사(筆寫)되어(어떤 것은 복음서만, 어떤 것은 바울서신만, 어떤 것은 사도행전만, 어떤 것은 계시록만, 어떤 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같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역시 그 용지의 나약성과 보존 기술의 취약성 때문에, 아깝게도 거의 대부분이 자취를 감추었다. 필사본 중 가장 낡은 것이 2세기 상반기(A.D. 125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P₅₂가⁹⁾ 있고, 오늘까지 발견된 98개의¹⁰⁾ 파피루스 사본들 중에는, 제2세기의 것이 한 두 개(P₉₀, P₉₈) 더 있고, 나머지는 제3세기로부터 제8세기 어간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파피루스 사본을 성경으로 읽으면서 자랐다. 그

9) 이것은 지금 영국 Manchester의 John Rylands Library에 소장되어 있다. 요 18:31-34와 37-38의 한 부분이 적혀 있는 사본으로서 Alexandrian 본문 형에 속한다.

10) Nestle-Aland 27판 NTG 부록 689쪽에는 파피루스 사본이 98개로 되어 있고 UBS/GNT 서론 9쪽에는 97개로 소개되어 있다.

러나 파피루스는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필사본이 만들어지면서 낡은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져간 것이다.¹¹⁾

현존하는 90여 개의 신약 성경 파피루스 사본들이 내용에 있어서 꼭 같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¹²⁾, 다소간의 차이와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곧 필사자인 인간들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간의 실수와 때로는 고의적 변개(變改)로 인해서 성경은 초창기부터 원본과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비록 사소한 것이지만) 전달되어 온 것이다.

4.2. 대문자 사본(Uncials)과 소문자 사본(Minuscules)

성경의 귀중성을 깨닫는 교회들은 파피루스 사본들의 나약함과 지구성이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구성이 있고 견고한 가죽 종이로 파피루스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제4세기부터는 가죽으로 된 용지를 사용하여 성경을 필사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파피루스 사본을 사용하는 것보다 몇 배의 지구성과 편리함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대문자 사본의 수가 300개나 되니, 그 수효로 보아서도 98개에 불과하는 파피루스 신약 사본보다 훨씬 지구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문자 사본은 용지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좀체로 그것을 만들기가 어려웠을 것이며, 대문자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단위 지면에 기재되는 내용이 비교적 적으므로 비경제적이었다. 이것이 지금 남아 있는 대문자 사본의 수가 적은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어떤 교회에서는 계속 파피루스 사본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에서는(아마도 분유한 교회) 대문자 가죽 사본을 사용하였다. 결국 두 가지 종류의 사본이 공존하는 시대가 제7세기 내지 제8세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교회의 수가 점점 늘고, 성경을 필요로 하는 교회나 수도원이나 개인들이 급격히 많아졌기 때문에, 소문자와 필기체가 고안되었고, 가죽 종이를 사용하되, 많은 내용을 빠른 시간에 필사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그 시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1450년에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 즉 제9세기 이래 15세기 중엽까지, 많은 소문자 사본이 만들어졌고, 특히 교회가 많은 지방에서는 많은 소문자 사본들이 필사되어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그 지방이 가지고 있던 사본들이 대거 필사(筆寫)되어, 비슷한 종류의

11) 파피루스 사본들은 보존이 어려워 다수가 사라졌지만, 애굽 사막의 건조한 지방에서 많이 보존되었다가 20세기에 발굴되었다.

12) 주 4번을 보라.

사본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2,800여 개의 소문자 사본들은 제9세기 이후의 것들로서, 원본으로부터 따진다면 몇 십대 후손인 사본들을 필사한 것들이며, 서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뿐 아니라, 고대 사본들과 비교한다면 많은 변개(變改)가 있음을 볼 수 있다.

4.3. 성경일과표(聖經日課表 Lectionaries)

기독교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배의식도 발전하였고, 성경을 균형 있게 봉독하기 위하여, 성경의 여러 부분을 매일 또는 매 주일로 나누어 읽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하루하루 읽어야 할 성경 부분들을 일별(日別)로, 또는 주일별(主日別)로 나누어 기록한 것을 “성경일과표”(聖經日課表 Lectionary)라고 한다. 예컨대 대강절(待降節 Advent) 첫 주일에 사2:1-5; 시122; 롬13:11-14; 마24:36-44를 읽기로 하고 그것들을 한 종이에 모아서 필사본을 만든다. 이런 일과표가 역시 사본의 일종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과표도 약 2,000개가 남아 있어서 원문 비평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것들도 역시 그 각자가 필사되던 시대와 장소에 있던 사본들을 전사(轉寫)한 것으로서, 그것들의 대본(臺本)의 경향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으며, 필사 과정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었다.¹³⁾

4.4. 교부들의 인용구

많은 교부(church fathers 教父)들이 글을 쓰면서 자기들이 볼 수 있었거나, 흔히 들을 수 있었던 사본의 내용을 인용한 것들이 있다. 비록 짤막한 인용일지라도 그들의 인용은 역시 그가 사용한 사본의 필사본으로서, 본문 비평가들이 원본을 찾아가는 과정에 일조(一助)가 될 수 있다. 교부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장소와 시대를 반영하며, 그 지대에 유포됐던 사본들의 성격을 보여주거나 암시해 줄 수 있다. 교부들은 자기가 가진 사본을 자기의 글에 인용하면서 실수로 잘못 전사할 수도 있고, 교의로 수정하는 일도 있었다.

4.5. 고대 역본들(Ancient Versions)

13) 본문비평의 자료는 헬라어 신약 사본, 고대 역본, 교부들의 인용구들을 말하지만, 사본이라는 것은 (註) 4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그리고 성경일과표들, 이렇게 네 가지를 가리킨다.

성경이 처음에는 원어로 유포되었지만, 오래지 않아 신자들의 모국어 또는 상용어(常用語)로 번역되는 일이 생겼다. 구약 성경이 기원전 3세기부터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코이네 헬라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기원전 6세기부터 구약 성경이 아람어로 옮겨져 타르굼(Targum)이 생긴 것도 그 예이다.

기독교가 로마 사회 전역에 퍼져 나가면서, 자연히 성경이 각 지방의 언어로 번역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선은 선교사들이 각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그들에게 복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코이네 헬라어보다도, 더 친숙하고, 더 알아듣기 쉬운 지방말로 성경을 옮겼던 것이다. 우선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시리아(Syria)에서 시리아어 번역이 시도되었고, 다음은 라틴어¹⁴⁾, 그리고 이집트의 콥틱어로 번역되었다. 그 뒤를 이어 고트(Gothic)어, 아르메니아어(Armenian), 조지아어(Georgian), 에티오피아어(Ethiopic), 고대 슬라브어(The Old Slavonic), 아라비아어(Arabic) 등이 줄줄이 나타났다.

이런 고대 역본들은 역시 그 번역이 이루어진 시대와 장소에서 얻을 수 있었던 사본들을 대본으로 해서 번역된 것이므로, 그 역본들을 검토하면 그 배후에 있는 사본들의 성격과 경향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고대 역본들은 원본을 찾아가는 노력에 많은 도움을 준다.

4.6. 신약 성경 사본들의 지방적 경향

기독교가 지중해 연안 각 지방으로 번져 나갈 때, 자연히 신약 성경도 사본이 되어 각 지방에서 읽혀졌다. 교회가 왕성하여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경의 수요(需要)도 늘었을 것이고, 따라서 사본을 만드는 일도 활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기독교 발전사(發展史)를 개관할 때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북 아프리카(칼테지), 로마, 마케도니아(콘스탄티노플), 소아시아(에베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대별(大別)할 수 있으며, 교회 활동이 그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고 뚜렷한 특색을 가지고 발전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 지방에서 만들어져 사용되던 사본들도 자연히 그 지방에 어울리는 성격을 지니게 됐다고 보인다.

14) Old Latin으로 제일 먼저 번역이 시작되었고, 제4세기 말에서 제5세기 초에 걸쳐 Jerome(Hieronimus)에 의하여 Vulgata가 번역되어 종교개혁 때까지 군림하였다. 그 후에도 그것이 전 세계 로마 천주교회의 textus receptus로 사용되어 오다가 제2Vatican 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각 나라와 지방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전횡(專橫)시대가 끝났다.

초창기부터 원본 성경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지방마다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공통되는 것은 필사자들이 다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따라서 다 과(多寡)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필사자의 실수나 고의적 변개에 의해서, 사본들이 예외없이 원본과는 차이가 있는 것들이 됐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5,500여 개의 신약 사본들이 어느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다¹⁵⁾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소위 다수 본문(Majority Text)이라고 해서 절대 다수의 신약 사본이 ‘텍스투스 레셉투스’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 다수를 점하고 있는 비잔틴 계통의 사본들도 서로 어느 하나도 꼭 같지를 않은 것이 사실이어서¹⁶⁾, 어느 하나는 원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필사한 사본은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조금씩은 다 원본에서부터 이탈되고 달라졌다고 말해야 양심적이다.

다만 그 많은 사본들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경향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것들을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본문 비평가들의 결론이다. 최근의 결론을 소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약 사본의 본문형태(text-type)가 네 가지로 크게 나누인다는 것이다. 즉 (1)애굽 형(알렉산드리아 형), (2)서방 형(Western)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3)(전부터 일컬어) 가이사라 형이라고 하는 것, (4)비잔틴 형(Byzantine) 등이다. 엘돈 제이 엡(Eldon Jay Epp)은 다른 기호를 가지고 그것들을 나타낸다. 즉 (1)A-텍스트(“수락된” “accepted”= Byzantine), (2)B-텍스트(Codex B =P⁷⁵-B, 혹은 이집트 형), (3)C-텍스트(B와 D 중간 =P⁴⁵-Codex W(종전의 가이사라 형), (4)D-텍스트(Codex D, 혹은 서방 형“western”)로 분류한다.¹⁷⁾ 모두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A-텍스트(Byzantine)는 제4세기부터 나타난 것으로, 그것을 지지하는 고대 파피루스 사본이나 대문자 사본이 하나도 없다. 즉 제4세기 이전에 필사된 파피루스나 대문자 사본 중 A-텍스트를 뒷받침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다른 세 타입의 텍스트들(B, C, D 텍스트)은 A.D. 200년 경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파피루스 사본들이 그것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1) 거의 초기부터 신약 성경 사본이 지방에 따라서 특이한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고, 대별하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2) 그리고 B, C, D 형의 본문이 A형의 본문보다 먼저 생겨난 것이라는 것, 즉 A형의 본문은 연대적으로 가장 뒤에 형성된 것임을 말해 준다.¹⁸⁾ 그 네 가지

15) 註 4를 보라.

16) 註 4를 보라.

17) Eldon Jay Epp, *Ancient Texts and Versions of the New Testament,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VIII, p. 9.

18) Loc. cit. p. 9

형의 본문들 중 어느 하나, 즉 A형은, 일부 무비판적인 맹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본으로부터 조금도 변개된 것이 없이 순정(純正)하게 남아 있다고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원본에서 이탈했고, 그 변개의 도수가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가장 변개가 심한가, 그리고 변개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원본에 가까운 본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주요한 일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성경의 원본을 보존하실 능력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는 그 원본들을 남겨두시지 않았다¹⁹⁾.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일부 맹신자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당신의 말씀을 무흠하게 보존하셨을 것이고, 비잔틴 텍스트(Byzantine Text, Majority Text)가 바로 그것이라고 억지를 쓴다.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는 거짓말을 가지고 많은 순진한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 셈이다.

성경 사본은 필사자들의 각별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원본으로부터 다소간의 변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5,500여 개의 신약 사본들이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서로 다르며²⁰⁾, 따라서 원본과는 차이가 있는데, 그런 대로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다. 사본 형성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느끼는 필사자들이기에, 일부러 어떤 부분을 빼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시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대개의 경우는 필사자가 설명을 붙이거나, 의견을 붙이거나 해서 점점 길어지고 늘어나는 것이 상례(常例)였다. 그래서 원문 비평의 가장 초보적 원칙은 “짧은 읽기(reading)가 긴 읽기보다 우수하다”이다. 그리고 난해한 부분은 필사자나 독자가 알기 쉽게 풀이하여 바꾸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읽기가 쉬운 읽기보다 우수하다”는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사본은 그 대수(代數)가 늘수록 점점 더 원본으로부터 멀어지고 변개가 늘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본의 연대를 무시할 수 없다. 즉 오래된 사본일수록 가치가 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평 원칙들을 적용하며 검토한

19) 신명기 34:6에 의하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고 그 묘(墓)를 아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큰 공로자인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아직 정정한 모세(신 34:7)를 아깝게도 가난한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을까? 필사의 생각으로 는 모세를 숭배하는 종교가 생길까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일 것이다. 예루살렘 박물관 안에 있는 The Shrine of the Book이라는 집에는 사해 사본 이사야 두루마리와 하박국 주석서가 전시되어 있다. 낡은 성경 사본 몇 개를 전시하고 그것을 “사당”(shrine)이라고 부르는 터이니, 만일 성경의 원본이 한 조각이라도 어디에 있다면,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성경 원본을 남겨두시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

20) 註 4를 보라.

결과 알렉산드리아 형, 즉 애굽 형(Neutral text, **א**, B, Sahidic, Boharic 등)의 본문이 가장 권위가 있다는 것이 정평이다²¹⁾. Western text와 Caesarean text도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면서 상당한 변개와 첨가를 가지고 있지만, 제4세기 이후에 생겨난 비잔틴 텍스트(Byzantine text)는 가장 많은 변개와 첨가를 가지고 있어서, 최악의 사본군(寫本群)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21) Eldon Jay Epp의 논문에 게재된 원문비평 원칙을 소개한다.

A. Criteria related to external evidence.(外證과 관련된 표준들)

1. A variant's support by the earliest MSS, or by MSS assuredly preserving the earliest texts.(가장 이른 사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혹은 가장 이른 본문을 보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2. A variant's support by the "best quality" MSS.(最良質의 사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3. A variant's support by MSS with the widest geographical distribution.(지리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사본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4. A variant's support by one or more established groups of MSS of recognized antiquity, character, and perhaps location - i.e., of recognized best quality.(연대, 성격, 혹은 장소 문제에 있어서 인정을 받은, 하나 혹은 두 개의 확정된 사본(寫本) 군(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B. Criteria related to internal evidence.(內證과 관련된 표준들)

1. A variant's status as the shorter/ shortest reading in the variation-unit.(異讀單位 가운데서 보다 짧거나 가장 짧은 읽기를 취할 것.)

2. A variant's status as the harder/hardest reading in the variation-unit.(이독 단위 중 보다 난해(難解)하거나 가장 난해한 읽기를 취할 것)

3. A variant's fitness to account for the origin, development, or presence of all other readings in the variation-unit.(이독 단위 중 다른 모든 읽기의 起源, 發展, 혹은 出現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읽기를 취할 것.)

4. A variant's conformity to the author's style and vocabulary.(저자의 문체와 어휘에 어울리는 것을 취하라.)

5. A variant's conformity to the author's theology or ideology.(저자의 신학과 이념에 어울리는 것을 취하라)

6. A variant's conformity to Koine (rather than Attic) Greek.(에틱 헬라어보다는 코이네 헬라어에 어울리는 것을 취하라)

7. A variant's conformity to Semitic forms of expression.(셈적 표현 형식들에 어울리는 것을 취하라)

8. A variant's lack of conformity to parallel passages or to extraneous items in the context generally.(병행 구절과 어울리지 않는 것, 혹은 일반적으로 맥락 속에 있는 이질적 사항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취하라)

9. A variant's lack of conformity to OT passages.(구약 구절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취하라.)

10. A variant's lack of conformity to liturgical forms and usages.(儀式의 형식과 용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취하라.)

11. A variant's lack of conformity to extrinsic doctrinal views.(밖에서 온 교리적 견해들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취하라.)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VIII. p. 9

4.7. 인쇄본(印刷本) 시대

문예부흥(renaissance)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구라파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원어로 읽으려는 열심이 생겼다. 1450년 독일인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함으로써, 성경의 사본 시대는 거의 막이 내리고, 인쇄된 성경을 만들려는 경쟁이 생겼으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쇄된 성경을 손쉽게 구하여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중세기 기독교가 라틴어 불가타(Vulgata)를 공인된 성경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헬라어 신약 사본은 특수한 사람들만의 관심거리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문예부흥의 바람이 불고, 인쇄술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원어 성경 인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스페인의 주교 히메네스(Francisco Ximenes de Cisneros, 1437-1517)의 창안으로 이루어진 소위 「여러번역대조성서」(Complutensian Polyglot)라는 방대한 대조(對照) 성경의 제5권에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이 실렸다. 그것이 1514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레오(Leo) 10세 교황의 재가를 얻은 것은 1520년 이후이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1522년까지는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지를 앓았었다.

‘대조성서’(Polyglot) 속에 실린 신약 헬라어 성경이 어떤 사본들을 배경으로 가진 것인지를 확실히 알 도리가 없다. 히메네스(Ximenes)가 레오(Leo) 10세 교황에게 그 성경을 봉헌하면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사본들을 얻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밝히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로 헬라어 사본들로 말하자면 각하의 덕택이 큼니다. 각하께서 사도 도서관(Apostolic Library)에 있는 구약과 신약의 매우 오래된 사본(Codex)들을 보내주셨으니 말입니다. 이 작업에 있어서 그 사본들이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²²⁾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히메네스(Ximenes)는 로마에 있던 사본들을 이용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 사본들이 어떤 것인지, 몇 개나 되는지, 어떤 성격의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

「여러번역대조」(Complutensian) 헬라어 본문이 인쇄본으로서는 제일 먼저

22) Bruce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 98.

된 것이지만, 1522년까지는 그것이 세상에 발표되지 못했었고, 그 틈을 타서 에라스무스(Erasmus) 헬라어 성경이 먼저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됐다. 스위스 바젤의 유명한 출판업자였던 요한 프로벤(Johann Froben)이 스페인에서 진행 중인 Polyglot Bible 소식을 듣자, 그것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자기가 선수(先手)를 쳐서 신약 성경 헬라어 인쇄본을 출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1514년 8월에 그 곳을 방문 중이던 화란의 유명한 학자요 휴머니스트였던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를 설복시켰다. 상당한 보수를 약속받은 에라스무스는 1515년 6월에 다시 바젤에 가서, 인쇄소의 조판을 위하여 신약 성경 사본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신약 성경 전체를 포함한 사본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개의 부분적인 사본들을 참고하며, 나름대로의 수정을 가하여 인쇄소에 넘겼다. 메츠거(Bruce M. Metzger) 박사의 말에 의하면, 에라스무스가 이용한 사본은 바젤 대학 도서관에 있는, 별로 신빙성이 없는 두 개의 사본들이었는데, 하나는 복음서 사본이요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과 서신 사본이었다는 것이다. 그것들이 다 12세기의 것들이었다. 에라스무스는 그 밖의 두세 개의 사본들과 비교하면서 교정을 했다는 것이다. 계시록의 경우는, 그가 입수한 사본이 12세기 것 하나뿐이었고, 자기 친구에게서 빌린 것이었다. 불행히도 그 사본은 마지막 한 장이 떨어져 나가, 여섯 절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라틴 불가타 성경을 대본으로 해서, 그 부분을 역(逆)으로 헬라어로 번역하였다. 그가 번역한 부분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헬라어 사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잘못된 번역이 소위 ‘텍스투스 레셉투스’에는 오늘까지도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이다. 에라스무스는 그 마지막 부분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도 역시 불가타를 대본으로 해서 수정을 가하였다. 그것이 인쇄에 붙여진 지 불과 일 년도 못 되어 1516년 3월 1일에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 수 백 개의 오식(誤植)이 발견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²³⁾

그러나 에라스무스의 성경은 많이 팔렸고, 그 제2판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독일어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되었다. 에라스무스는 초판(1516), 제2판(1519), 제3판(1522)에 이어 제4판을 1927년에 냈는데, 그것은 히메네스의 성경이 공식으로 소개된 뒤의 일이었다. 에라스무스는 학자답게 자기 것과 히메네스의 것을 비교하여 약 90여 곳을 수정하여 제4판을 낸 것이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제5판이 제4판과 대동소이하게 출판되었다. 그것이 1555년이였다.

결국 에라스무스 성경은 5-6개의 소문자 사본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

23) Metzger, *ibid.* pp. 99-100.

이다. 메츠거의 평가에 의하면 비평적 가치에 있어서는 「여러번역대조」(Complutensian) 신약 성경보다 열등하다는 것이다²⁴. 어쨌든 이 에라스무스 성경은 비공식적으로 베니스(Venice), 스트라스부르크(Strasbourg), 바젤(Basle), 파리(Paris) 등지(地)에서 30여 종류나 출판되었다.

에라스무스 헬라이어 신약 성경이 출판된 후에 뒤이어서 많은 것들이 나왔지만, 결국 그것들은 다 에라스무스의 것을 몇 군데 고친 것뿐, 근본적으로는 이 저열(低劣) 한 형태의 헬라이어 성경을 재생한 것에 불과하다. 그 후에 그것이 어떻게 ‘텍스투스 레셉투스’(공인 성경)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불란서 파리의 유명한 출판업자 스테파누스(Robert Estienne, 라틴식으로는 Stephanus)가 파리에서 세 번(1546, 1549, 1550), 제네바에서 한 번(1551) 헬라이어 신약 성경을 출판하였다. 그의 초판과 둘째 판의 본문은 히메네스(Ximenes)의 것과 에라스무스의 것을 혼합한 것이고, 제3판은 에라스무스의 제4판과 5판의 본문을 밀접하게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 제3판은 매 쪽 난외에 14개의 다른 사본들과 히메네스 성경의 읽기(reading)를 소개하고 있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스테파누스의 제3판은 많은 사람에게 의해서, 특히 영국에서, 헬라이어 성경의 표준 본문으로 인정되었었다.

제네바에서 칼빈의 친구이며 그의 후계자였던 성경학자 테오도르 베자(Theodore de Beze, 1519-1605)가 1565년에서 1604년 사이에 적어도 아홉 판의 헬라이어 신약 성경을 출판하였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제10판이 1611에 출판되었다. 그는 보다 양질인 베자 사본(Codex Beza)과 클라로몬타나 사본(Codex Claromontanus)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에 대하여 주(註)에다 언급했을 뿐, 본문을 수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가 출판한 헬라이어 본문은 스테파누스의 제4판(1551)과 별로 차이가 없다. 그가 손을 대지 않은 것은 그 때까지 공인된 것으로 받아들인 전통적 본문과 그것들이 너무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중요한 공적은, 그가 출판한 헬라이어 성경들이 보편화되어 마침내 텍스투스 레셉투스를 고착(固着)시키는 방향타(舵)의 역할을 했다는 일이다. 1611년의 「영어흠정역」 번역자들이 1588-9년과 1598년의 베자 성경을 대본으로 사용했으니, 베자의 공로를 짐작할 수 있다.

1624년에 라이덴의 야심적 인쇄업자 형제 보나벤투라 엘제비어(Bonaventure Elzevir)와 아브라함 엘제비어(Abraham Elzevir)가 헬라이어 신약 성경을 출판했는데, 그것의 본문은 주로 베자의 1565년 판을 취한 것이었다.

24) Metzger, *ibid.* pp.102-103.

그후 1633년에 제2판을 찍으면서 그 서문에다가 자랑삼아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의해서 수락된 본문” 즉 Textus Receptus라는 말을 적었다. 이렇게 해서 스테파누스, 베자, 엘제비어가 출판한 여러 판의 헬라어 본문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참 본문”(the only true text)이라는 칭호를 가지게 되었고, 그 뒤에 나온 판들이 그것을 맹목적으로 답습하였다. 그리고 「영어흠정역」을 위시하여 구라파의 주요 개신교 번역들이 1881년까지 그것을 대본으로 삼은 것이다. 텍스투스 레셉투스에 대해서 너무도 미신적인 존경을 바치는 나머지, 그것을 비평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마치 신성모독이나 되는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5. 비평판 헬라어 신약 성경의 출현

불과 5, 6개의 변질된 후기 소문자 사본들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텍스투스 레셉투스가 약 400년 동안 황포를 부리고 있는 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학자들을 통하여 많은 귀중한 사본들이 발견되었고, 사본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다. 밀(John Mill, 1707), 벤틀리(Richard Bentley, 1720), 벵겔(J.A. Bengel, 1734), 웨스타인(J.J. Wettstein, 1751-1720), 그리스바하(J.J. Griesbach, 1775-1807) 등의 기초 공작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과학적인 본문 비평을 시작한 사람은 락흐만(Karl Lachmann, 1831)이었다. 티센도르프(Constantin von Tischendorf)가 시내 산 사본을 발견한 이래 1841-72에 여덟 판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하였고, 트레글러스(S. P. Tregelles)가 1857-72에 역시 그의 헬라어 성경을 내었으며, 웨스트코트(B.F. Westcott)와 호르트(F.J.A. Hort)가 합작하여 1881-82에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이라는 성경을 출판함으로써 확실히 텍스투스 레셉투스 시대의 종언을 가져왔다. 그 이후에 신약 성경 본문 비평학은 확고부동한 고지를 점령하였고 거의 완벽하다고 할 만한 비평판 원어 신약 성경이 출현하였다²⁵⁾.

6. 본문 비평학적 견지에서 본 텍스투스 레셉투스

25) Westcott & Hort 이후에 여러 개의 비평판 신약 원어 성경이 나왔다. von Soden(1913), Vogels(1922), Merk(1933), Bover(1943), Eberhard et Erwin Nestle et Aland(1898-1993), UBS/GNT(1966-1993) 등이다.

1) 텍스투스 레셉투스는, 그것을 맹종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절대 다수 사본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5,500여 개의 사본이 하나도 같지 않으며²⁶⁾, 비슷한 것이 많다 뿐이어서, 유독 그것만이 영감됐다거나, 그것만이 배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텍스투스 레셉투스는, 아주 후기에 만들어진 소문자 사본 5, 6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비잔틴 형의 본문이다. 비잔틴 형의 본문은 4세기 이후부터 유행한 것이며, 2세기, 3세기의 파피루스나 대문자 사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즉 인위적인 많은 변개(變改)가 발견되는 소위 훼손된 (corrupted) 본문이다.

3) 텍스투스 레셉투스는, 에라스무스가 라틴 불가타를 역(逆)으로 번역한 부분(계시록 마지막 6절)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가 임의로 불가타와 비교하면서 수정한 부분들이 많다.

4) 텍스투스 레셉투스는, 4세기 이래 필사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잡다한 설명구나 해석을 첨가하여 팽창하고 길어진 본문이다. 1551년 로버트 스테파누스라는 출판업자가, 자기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이 잘 팔리게 하기 위하여 절 구분을 하였는데, 확대되고 늘어난 본문을 절로 나누어, 절 수를 매겼기 때문에, 원래는 없던 본문에도 절 수가 붙게 되었다. 비평판 성경은 원본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자연히 내용이 짧고 따라서 스테파누스의 절 구분과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5) 권위 있는 고대 사본들이나 현대의 비평판 성경들이 텍스투스 레셉투스의 본문에서 어떤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개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텍스투스 레셉투스가 원래는 짧던 본문에다가 사람들의 말을 첨가함으로써, 성경을 흐리게 하였다. 물론 보다 명백히 하려고 선의로 첨가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흠을 낸 셈이다.

6) 「영어흠정역」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그것의 권위와 무오성을 주장하는 나머지, 그것의 대본이었던 텍스투스 레셉투스도 권위가 있고 유일한 가치가 있다고 강변한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중에 신중에

26) 註 4번을 보라.

기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누가 번역했든지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다. 번역자의 실력에 따라 번역의 질적 차이가 없을 수 없지만, 아무리 잘된 번역도 100% 정확할 수는 없는 법이어서, 어느 하나만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어째서 하필 영어로 번역된 흠정역만이 완전할 수 있는가 말이다. 그런 생각은 영국인이나 미국인 일부와 사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일부 사람들의 제국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흠정역의 대본인 텍스투스 레셉투스만이 정확무오하다는 연역적 판단은 매우 졸렬하고, 사실과는 천리 만리 동떨어진 것이다.²⁷⁾

7) 텍스투스 레셉투스를 다수본문(Majority Text)이라고 하며, 절대 다수 사본의 지지를 받으니 권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많은 사본을 필요로 하는 지방에서, 자유분방한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사견(私見)을 사본에 넣으며 필사했을 경우, 그 지방에는 원본과는 크게 상거가 있는 확대된 본문이 대거 유포될 수 있다. 이런 경로를 거쳐서 확대된 본문을 가진 사본들이 오늘날 많이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사본의 진위를, 수(數)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이미 진부한 방법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수를 따진다면,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악한 무리의 수가 진리 자체이신 한 분 예수의 몇 백 배가 아니었던가! 진리는 수가 적어도 진리이다. 아니 수가 하나뿐이라도 진리는 진리이다. 텍스투스 레셉투스가 다수본문(Majority text)의 지지를 받으니 권위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8) 비잔틴본문(Byzantine text, Majority text) 지지파의 거장으로 Dean Burgon, Z. C. Hodges 그리고 Farstad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들도 다수본문(Majority Text)과 텍스투스 레셉투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히 Burgon은 다수본문(Majority Text)의 신판(新版)을 내려는 희망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의 조사에 의하면 마태복음에서만도 텍스투스 레셉투스가 다수본문(Majority Text)과 150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비례로 나간다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그 둘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겠는가 말이다.²⁸⁾ 그런데 어떻게 다수본문(Majority Text)과 텍스투스 레셉투스가 정확하고 믿을 만하고 그것들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보존하신 본문이라

27) King James Version이 정확무오하고 완전한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The New King James Version이 나와야 했는가 말이다. 그것도 일종의 변개가 아닌가.

28) Harold P. Scanlin, *The Majority Text Debate: Recent Development*. The Bible Translator, January 1985(vol. 36 no. 1), p. 136-137.

고 주장하는가 말이다.

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The Westminster Confession) 제1장, 제8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하신 것이며, 그의 각별한 돌보심과 섭리에 의하여 순수하게 보존된 것이며 따라서 믿을 만하다. 그래서 모든 종교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그것에다 호소하는 것이다.(필자의 사역)

이 교리를 만들 때(17세기 중반)에는 물론 텍스트스 레셉투스밖에 없었다. 그 후에 많은 사본들이 발견되고, 본문 비평학이 발달하여, 원본에 보다 가까운 본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그런데 오늘의 텍스트스 레셉투스 지지자들이 그 교리를 앞세워 가며 텍스트스 레셉투스만이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時代錯誤)가 아닌가. 사람이 만든 교리가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세 교회의 과오를 답습하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영감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흠하게 보존되었으면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 사항이다. 그러나 텍스트스 레셉투스가 바로 그 무흠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성경 어디에 텍스트스 레셉투스가 유일무오한 성경이라고 했는가 말이다.

10) 「하나님은 오직 한 성서를 쓰셨다(*God Wrote Only One Bible*)」라는 책을 쓴 레이(Jasper James Ray)는 162개의 시험 구절을 선발하여, 현대 비평판 헬라어 성경들과 현대 영어 성경 번역들을 비판하였다. 즉 그가 택한 162 구절에 있어서 현대 성경들이 텍스트스 레셉투스나 영어흠정역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그가 택한 구절들이 현대 성경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들이 나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그가 택한 162구절 중 31개에 있어서 텍스트스 레셉투스가 다수본문(Majority text)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 말은 결국, 어느 하나가 배타적으로 권위가 있거나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아닌가²⁹⁾.

11) 카슨(D. A. Carson)³⁰⁾ 교수의 말을 귀담아 들을 만하다.

29) H. P. Scanlin, *ibid.* p.138. Jasper James Ray, *God Wrote Only One Bible*(Eugene, Ore: Eye Opener,1980),p. 32-70.

비잔틴 형 본문이 텍스투스 레셉투스와 꼭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도 자주 잊어버린다. 텍스투스 레셉투스는 겨우 몇 개의, 비교적 늦은 시대의 사본들을 기초로 한 것이다. 즉 비잔틴 전승을 나타내는 사본들이 수천 개에 달하는데 비하면, (너무 소수의 사본을 근거로 했다는 말이다). 텍스투스 레셉투스가 비잔틴 전승의 사본들을 근거로 했다는 것과, 그 자체를 포함하는 보다 광범한 전승과 꽤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물론 사실이지만, 그 광범한 증거들이 텍스투스 레셉투스 자체의 전승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한 본문 전승 안에 있는 가장 친근한 사본들끼리도 한 장(章 chapter)에 평균 여섯 개 내지 열 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³¹⁾

이만큼 사본들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서로 다르고, 따라서 어느 하나만을 지적하여 그것만은 무흠하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변개가 많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유독 텍스투스 레셉투스만 홀로 권위가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12) 텍스투스 레셉투스와 영어흠정역의 권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될 수 없다”는 명제의 말씀들(고후2:17; 마 13:25; 계22:19; 신4:2; 잠30:6; 요10:35; 눅16:17 등등)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지지하는 성경은 무흠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5,500여 개의 사본이 하나도 같지 않고 다 다른데³²⁾, 그리고 텍스투스 레셉투스도 역시 그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그들의 논리가 성립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한다는 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역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성경의 원본을 보관하지 못했고 또 사본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어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이 하나 같이 불완전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느끼기에 일점 일획이라도 잘못되기를 원치 않는다. 사실 성경 사본들은 세속적 고(古) 문헌들에 비교하면 월등하게 정확도가 높다. 아무리 변개가 심한 사본일지라도 교리를 바꾸게 할만큼 심하게 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본문 비평학자들의 정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이 드디어 글

30)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의 교수

31) D. A. Carson, *The King James Version Debate, a Plea for Realism*(Grand Rapids, Mich.: Baker, 1979).p. 67-68.

32) 註 4번을 보라.

자로 표현되었는데, 사람의 언어는 모두 그 구조가 다를 뿐 아니라 불완전하여, 여러 방언으로 기록되고 번역되는 과정에서, 결코 서로 완전히 일치하거나 완전히 정확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상=말씀이 여러 사본과 번역들 속에 기본적으로 변함없이 보존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고, 보다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 원본을 찾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텍스트스 레셉투스는 기독교회의 매우 중요한 유산 중의 하나이다. 영어흠정역도 훌륭한 번역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원본이나, 절대 무흠한 번역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Nest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7판,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The Greek New Testament, 4판, Deutsche Bibelgesellschaft and United Bible Societies. 1993.

Bruce Manning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A Companion Volume to the United Bible Societies' Greek Testament*(third edition). London:United Bible Societies,1971.

Eldon Jay Epp, *Ancient Texts and Versions of the New Testament*,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VIII. Abingdon Press. Nashville. p.1-9.

Harold P. Scanlin, The Majority Text Debate: Recent Development. *The Bible Translator*, Vol.36. No.1. p.136-140.

D. A. Carson, *The King James Version Debate, a Plea for Realism..* Grand Rapids, Michigan: Baker,1979.

Jasper James Ray, *God Wrote Only One Bible*. Eugene, Ore:Eye Opener, 1980.

이승오, 「하나님께서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다.」 말씀보존학회, 1991.

김재근, 「훼손당한 성경」, 말씀보존학회(Word of God Preservation Society),1994.

Berry Burton, *Let's Weigh the Evidence*, 정동수 역. 안디오크 출판사, 1994.

Sir Frederic Kenyon, *Our Bible and The Ancient Manuscripts*, Harper & Row, 1965.

-----, *The Story of the Bible*, A Popular Account of How it Came to Us. London, John Murray, 1955.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서문

김창락 번역
(한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머리말

<그리스어 신약성서>(*Novum Testamentum Graece*)의 제27판은 원래는 다만 교정 잡은 것들만 담으려 했다. 제26판의 잇따른 여러 교정쇄들은 너무 방대해서 그것들을 모두 일목요연하게 개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제27판은 제26판의 교정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총괄해 넘으로써 그 복잡성에 중 지부를 찍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보다 더 본격적인 개정판을 내야겠다는 원망(願望)이 생겼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서문에 (3쪽 이하)¹⁾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다.

여기서는 다만 이 일에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맨 먼저 신약원문연구소의 동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들은 모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작업에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그들의 고유한 과제를 감당했다. 누구보다도 먼저 밁크(Gerd Mink)와 쾰스터(Beate Köster)를 꼽아야 한다. 개개의 많은 물음에 이 두 사람의 비판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한 기여가 없었더라면 이 제27판 ‘비평본은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며 그 밖의 다른 일들도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다음 동료들은 특히 각각의 특수한 작업 분야에서 활동했다. 빗테(Klaus Witte)는 비평 자료를 원자료에 대조·검증하여 갱신했다. 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는 유나크(Klaus Junack)가 26판에 이루어 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삼았다. 바흐텔(Klaus Wachtel)은 리히터(Wolfgang Richter)와 함께 무엇보다도 파피루스 사본과 대문자 사본의 영역에서 빗테(K. Witte)를 강력히 지원했다. 동방어 번역본들과 관련된 개정 작업은 욱켈(Andreas Juckel:시리아어 담당)과 밁크(Gerd Mink) 및 슈미츠(Franz-Jürgen Schmitz:콥트어 담당)가 맡았다. 하

1) [역자 주] 이 번역 안의 쪽 안내는 그리스어 성경 서문의 쪽이다.

게만(Ute Hagemann)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라틴 교부들과 그리스 교부들의 인용문에 대한 개정 작업을 떠맡았다. 사본목록은 벨테(Michael Welte:파피루스 사본과 대문자 사본 담당)와 퀴스터(B. Köster:소문자 사본 담당)가 확대시키고 정확하게 만들었다. 바흐만(Horst Bachmann)은 벤트(Gustav Wemdt)와 함께 지칠 줄 모르게 복잡한 특별 교정을 맡아보았다. 유스트(Marlene Just) 여사는 산더미처럼 밀어닥치는 어려운 필기 작업을 때로는 촉박한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능숙하게 잘 처리해 냈다.

위에서 거명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신약원문연구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많다. 우리의 충심에서 우리나라오는 감사의 마음이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또 많은 학생 동역자들도 역시 그 사이에 우리 연구소의 일에서 떠나갔다. 학생들은 모두 특히 교부들의 인용문을 검증하고 발췌하는 일에서 그들의 몫을 훌륭히 감당했다. 그들의 헌신적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한다.

로데스(Erroll F. Rhodes)는 서문을 다시 영어로 번역했다. 그에게도 또한 우리의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그는 이 어려운 과업을 그의 본문 비평적 전문 지식으로써 잘 해냈다.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 있는 독일 성서공회와 그 성서 인쇄소는 다시금 조판 작업과 인쇄 작업을 탁월한 방식으로 능숙하게 수행했다. 이 독일 성서공회와 그에 속한 모든 동역자들에게 독자는 고마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약성서 본문 연구의 진흥을 위한 헤르만 재단(Herrman Kunst-Stiftung)과 이 작업의 재정 지원을 담당한 뮌스터(Münster) 대학교에 대해서도 독자는 감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작품을 심사하고 비평한 학자들에게도 역시 감사한다. 우리는 주의해서 그들에서 많이 배웠다. 우리가 모든 사용자와 더불어 그들에게 부탁하는 바는 이 비평본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일에 계속 기여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신약성서의 학문적 연구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부탁하는 바이다.

뮌스터, 1993. 2. 2.

바바라 알란트(Barbara Aland)

쿠르트 알란트(Kurt Aland)

서 문

I. 비평본

1. 비평본의 역사
2. 제27판

II. 비평본의 본문

1. 목표 설정과 방법
2. 본문 안에 사용된 비평 부호들

III. 비평 자료

1. 비평 자료 배열과 부호
비평 부호들
비평 자료의 구성 요소
변이형과 그 증거 표시
증거 제시
비평 자료란에 사용된 기타 약어들
2. 그리스어 사본 증거들
복음서를 위한 상비 증거들
사도행전을 위하여 항상 그리고 자주 인용되는 증거들
바울 서신을 위하여 항상 그리고 자주 인용되는 증거들
일반 서신을 위하여 항상 그리고 자주 인용되는 증거들
요한계시록을 위한 상비 증거들
3. 고대 번역들
라틴어 번역들
시리아어 번역들
콥트어 번역들
그 밖의 번역들
4. 교부들의 인용문
교부의 표시 약어

IV. 외측 난외와 내측 난외의 표시 사항
난외에 표시한 문서의 약어

V. 부록

부록 I: 그리스어 사본과 라틴어 사본의 목록

부록 II: 근소한 차이가 나는 변이형들(*Variae lectiones minore*)

부록 III: 다른 비평본들(*Editionum differentiae*)

부록 IV: 인용되었거나 암시된 것의 출처(*Loci citati vel allegati*)

부록 V: 부호, 기호, 약어(*Signa, Sigla, Abbreviations*)

서 문

1. 비평본

1. 비평본의 역사

<그리스어 신약성서>(Novum Testamentum Graece)²⁾라 이름하는 원문 신약성서의 비평본 초판이 발행된 것은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 1898년이였다. 발행인은 독일 학자 에버하르트 네스틀레(Eberhard Nestle(† 1913)이며 출판은 독일의 뷔르템베르그 성서공회(die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가 담당했다. 1904년에는 이 NTG가 영국성서공회(the British Bible Society)에서도 또한 채택되었다. 그 때부터 이 NTG는 수십만 부나 보급이 되었다. 네스틀레(E. Nestle)는 단순하지만 독창적인 그의 비평본을 내놓음으로써 탁월한 본문을 조성했다. 그는 19세기의 본문 연구의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그의 업적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가 그 작업을 착수했을 때에는 그의 앞에는 티셴도르프(Tischendorf), 웨스컷/ 호트(Westcott/ Hort), 웨이머쓰(Weymouth)³⁾가 각각 제작한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 세 가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이 세 종류의 비평본을 서로 비교하여 그 가운데서 두 종류가 선호한 읽기⁴⁾를 자기의 비평본의 본문⁵⁾으로 채택하고 그 둘과 어긋나는 제3의 읽기를 비평 자료란에 실었다. (웨이머쓰의 비평본은 처음에는 1886년 간행본이 이용되었으나 1901년부터는 바이스[Weiss]⁶⁾의 1894/1900년 간행본이 이용되었다.) 그는 이

2) [역자 주] 아래에서 필요한 경우에 NTG라는 약어로 부르기로 한다.

3) [역자 주] Konstantin von Tischendorf(1815-1874)는 독일인 성서학자이며 시내사본을 발견한 개신교 신학자; Brooke Foss Westcott(1825-1901)은 영국인 신약성서 학자; Fenton John Anthony Hort(1828-1892)는 영국인 성서학자; Richard Francis Weymouth(1822-1902)는 약국인 신약성서 학자. Westcott와 Hort는 합작으로 1881년에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을 내놓았음.

4) [역자 주] 독일어로는 Lesart라는 용어인데 ‘읽기’ 또는 ‘독법’으로 번역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reading 으로 번역되었다. Lesart는 어떤 동일한 곳에 각 사본마다 이렇게 저렇게 적혀 있는 내용을 뜻한다. Variante(‘변체’ 또는 ‘변이형’으로 번역됨)도 어떤 사본에 다른 형태로 적혀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Variante라고 하면 원래적인 것에서 다르게 변형된 것이라는 비평가의 평가가 전제되어 있지만 Lesart라고 하면 어느 Lesart가 원래적인 것인지 아닌지 비평가가 아직 그의 가치 판단을 유보한 입장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5) [역자 주] 여기서 ‘본문’(本文, Text)이라는 용어는 신약성서의 각 문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글의 짜임을 뜻한다.

6) [역자 주] Bernhard Weiss (1827-1918)는 독일인 신약성서 학자.

러한 방식으로 그의 비평본의 본문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의 선배들이 범한 많은 극단적인 결정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연구와 교육에 유용한 하나의 탁월한 작업용(作業用) 본문(Arbeitstext)⁷⁾이 생겨났다. 유용한 작업본문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 네스틀레(Nestle)의 그 후의 모든 후속판들의 한결같은 목표이다.

네스틀레(Nestle)의 아들인 에르빈 네스틀레(Erwin Nestle)는 1927년에 간행된 제13판 비평본에 처음으로 본문비평적 자료⁸⁾를 첨부했다. 그의 부친 에버하르트 네스틀레가 몇몇 대문자 사본(특히 D)을 표시해 놓았을 뿐이었다. 새로 첨부된 이 비평 자료에 근거하여 독자는 본문구성에 대하여 독자적(獨自的)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몇몇 구절들은 또한 그때까지 적용했던 다수결에 의한 결정과 다르게 변경되었다.

1952년의 제21판과 더불어 쿠르트 알란트(Kurt Alland)가 이 비평본의 공동 발행인이 되었다. 에르빈 네스틀레의 소원에 따라서 쿠르트는 본문비평 자료란의 수록 내용을 원자료⁹⁾(Originalen)에 입각하여 검정했으며 새로운 증거 자료를 첨가하여 비평 자료란을 확대했다. 그리하여 이 비평본은 마침내 1963년의 제25판과 같은 모습(Stand)을 띠게 되었다(1963). 이 제25판은 거듭 거듭 인쇄되었다.

50년대 초에 알란트는 에르빈 네스틀레(†1972)의 동의 아래 이 비평본의 본문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 작업은 제26판에서 본문을 새로이 구성하고(Neukonstitution) 비평 자료를 새로이 끼워 넣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것은 20세기에 이룩한 사본 발견의 현황, 특히 초기 파피루스 사본들의 발견을 감안할 때에 시급히 요청되는 일이었다. 1955년에 알란트(K. Alland)는 블랙(M. Black), 메츠거(B.M. Metzger), 위그렌(A. Wikgren)과 더

7) [역자 주] ‘작업용 본문’(Arbeitsstext) 이라 함은 학자들, 성직자들, 신학도들의 전문적, 학문적 연구에 사용되는 성서의 본문을 뜻한다.

8) [역자 주] ‘본문비평적 자료’는 간단히 ‘비평자료’라 부르기도 한다. 독일어로는 textkritische Apparat, kritische Apparat, 또는 간단히 Apparat라 일컫는다. Apparat는 원래 ‘장치, 도구’라는 뜻인데 우리말에서 ‘자료’라는 용어로 이미 그 번역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기로 한다. Apparat는 두 가지 다른 뜻이 있다. 첫째는 ‘비평자료란’을 뜻하며 둘째는 ‘비평자료’를 뜻한다. ‘비평자료란’은 GNT에서 본문란(本文欄) 아래에 있는 이른바 각주란(脚註欄)에 해당하는 자리로서 비평자료들을 실는 난(欄)을 가리킨다. ‘비평자료’는 비평자료란에 실려 있는 증거 자료들, 즉 본문을 결정하는 데 자료로 이용되는 여러 가지 그리스어 사본들, 고대어 번역본들, 교부들의 인용문들 등등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읽기와 변이형들과 그것들을 각각 지지하는 증거들을 가리킨다. 이 곳에서는 두 가지 뜻이 다 내포되어 있다.

9) [역자 주] 여기서 ‘원자료들’이라는 것은 증거 자료의 전거(典據), 즉 그 자료의 원래의 출처를 가리킨다.

불어 새로운 작품인 <그리스어 신약성서>(*the Greek New Testament*)¹⁰⁾의 발행위원으로 초빙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뵈외부스(A. Bööbus)가 뒤이어 가담했고 그 후에 마르티니(C.M. Martini)가 가담했다. 1982년부터는 알란드(B.A. Alland)와 카라비도폴로스(J. Karavidopoulos)가 또한 합세했다. 이 위원회가 목표로 삼은 것은 전세계의 전문적 번역가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선별한 구절에 비평 자료를 첨부한 그리스어 본문의 성서를 마련하는 것이었다(1966년에 제1판, 1968년에 제2판 발행되었음). 독일의 NTG 비평본과 미국의 GNT 비평본을 위한 작업은 오랜 기간 병행해서 진행되었다. 수년간에 걸친 이 위원회의 열성적인 공동작업은 훌륭한 성과를 올렸으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고무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알란드(K. Alland)는 자기의 NTG를 위한 준비 작업에서 마련한 본문 제안을 GNT에 반입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 때 이래로 두 비평본의 본문은 함께 조성되었다. 그리하여 NTG 제26판(1979)과 GNT 제3판(1975)부터 두 비평본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었다.

두 비평본이 설정한 목표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서로 다르다. GNT는 번역자들을 위하여 고안된 것이므로 단지 선발된 곳에서만 비평 자료를 제공한다. 이 비평 자료는 본문 전송의 갖가지 갈래를 현재 알려져 있는 만큼 널리 명시한다. 흔히 문제를 삼는 곳은 현대의 번역작업에서 번역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곳이다. 이렇게 한 것은 번역자에게 여기서 스스로 조사하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려는 것이다. 이와 달리 NTG는 사용자로 하여금 본문 조성(Textgestaltung)을 죄다 비판적으로 재수행(再遂行)해 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NTG는 본문의 전체 범위에 걸쳐서 비평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비평 자료는 특히 초기 전송의 특색을 포착하게 한다. 그러나 비평 자료를 빠짐 없이 완벽하게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일은 무의미하기도 하다(여기에 관해서는 아래 8쪽과 9쪽을 보라).

두 비평본이 공유한 동일한 본문을 연합 성서공회¹¹⁾(the United Bible Societies)가 채택했다. 이 본문은 바티칸과 성서공회 연합회 사이의 합의에 근거하여 모든 새로운 번역본과 개정본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과 사이의 대화라는 견지에서 확실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작업용 본문(Arbeitstext)은 <네스틀레> 비평본의 100년의 전통에 비추어 볼 때에 고정된

10) [역자 주] 아래에서 이 성서는 필요한 경우에 GNT라는 약자로 일컫는다. NTG와 혼동하지 말아야 함. GNT는 세계 연합성서공회(the United Bible Societies)의 주관으로 번역자들에게 편리하게 사용되도록 제작된 그리스어 신약성서이다.

11) 세계 각국의 모든 성서공회를 연합한 기구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성서의 본문을 근거 짓고 확실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렇지만 현재의 제27판을 출판할 때에도 아직도 본문을 변경할 시점이 여러 가지 근거에서 도달하지 아니했다고 판단되었다.

2. 제27판

그리스어 신약성서(NTG) 27판의 목표는 26판의 목표와 변함없이 동일하다. 27판이 목표하는 바는 확정된 본문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이 본문을 스스로 검정해 볼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비평본은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모든 변이형을 비평 자료란의 현재 허용된 틀이 수용할 수 있는 한 완벽하게 담고 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이 비평본은 내용적으로 그리고 수용사적으로¹²⁾ 보아서 중요한 변이형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사용자는 신약성서 본문의 전승 과정에서 변이형 구성의 원칙적 밀도, 이러한 변이형들의 총체적 특성, 이러한 변이형들이 생긴 동기와 원인에 대한 인상을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비평본의 본문은 변경 없이 제26판의 본문 그대로다. 따라서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문단 나누기와 구두점도 또한 변경되지 아니했다. 이것은 가능한 쪽 나누기가 파괴되지 아니하고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 제27판의 본문은 이제까지와 같이 GNT의 본문, 현재로서는 제4 개정판에 나타나 있는 본문과 동일하다. 동일한 본문이 또한 어구색인 사전, 신약성서 사전, 4 복음서 대조성경의 바탕에 깔려 있다.

제27판의 *본문비평적 자료*는 이에 반해서 현저한 변화를 겪었다. 그것은 위에서 지적한 목표를 더욱 성실하게, 유능하게,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기 위해서 비평 자료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수정했다. 비평 자료의 너무 복잡한 표기(예를 들면, 유 5'에서; 롬 15:8'에서)는 더욱 일목요연하게 개관할 수 있도록 고쳤다. 비평 자료를 표시할 곳의 선 발은,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여러 가지 근거에서 그대로 유지했다.

제26판과 비교하여 제27판의 더 이상의 모든 개선점들에 관해서는 다음과

12) [역자 주] '수용사적으로'(rezeptionsgeschichtlich)는 어떤 본문의 특정한 문구나 어떤 사본을 후대의 어떤 지역이나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는 관점에서 묻는 것을 가리킨다. '전승사적으로'(überlieferungsgeschichtlich)와 비슷한 뜻이지만 이것은 전승의 담당자 또는 전승의 과정에 주목한다.

같이 요약해서 보고한다. 이것은 구판 사용자와 신판 사용자에게 이 양판의 차이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개괄적으로 제공해 준다.

비평 자료란에 인용되는 증거 사본의 선밭이 수정되었다. 그리하여 언명이 전체적으로 더 일목요연해졌다. 없어도 되는 것은 삭제했다. 그 대신에 몇몇 새로 채용된 더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보충해 넣었다. 이른바 ‘상비 증거들’(常備 證據)¹³⁾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는 수많은 대문자 사본의 단편들이 감소되었다.

상비 증거들 가운데서 대체로 그 내용 범위가 비교적으로 좁은 몇몇 대문자 사본의 단편들은 더 이상 인용되지 아니했다. 이것들은 그 본문 범위에 있어서 예외 없이 대다수 본문¹⁴⁾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R, 052, 053, 054, 061, 063, 064 (+ 074와 090), 065, 093, 0103, 0104, 0120, 0133, 0134, 0135, 0136 (+ 0137), 0197, 0253, 0255, 0265, 0272, 0273.

괄호 안에 기입한 번호는 그 괄호 앞에 놓여 있는 사본 번호의 일부분으로 동일시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번호를 대표로 인용한다. 이러한 일괄식 결합 방식은 다른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다음 사례를 참조하라: 0100은 현재 / 963; 0114는 현재 / 965; 0276은 현재 / 962). 이전에 사용된 사본 번호가 없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언제나 <부록 I>에 제시된 사본 목록표를 대조해 보라. 거기서 행한 배열 순서는 알란드(K. Aland)가 발행한 <신약성서 그리스어 사본 요약 목록표>(제2판)의 배열 순서와 일치한다.

다음과 같은 대단히 작은 단편들도 또한 제외된다. 이것들은 이 비평본의 비평 자료란에서 코이네¹⁵⁾ 본문을 제공하거나 확실하게 어느 변이형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것들이다.

0174, 0230, 0263, 0264, 0267, 0268.

끝으로 다음과 같은 코이네 소문자 사본들은 더 이상 상시적으로 인용되지

13) [역자 주] ‘상비 증거들’(ständige Zeuge) 이란 증거를 제시할 때에 관련이 있으면 언제나 빠짐없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증거들을 가리킨다.

14) [역자 주] ‘대다수 본문’(Mehrheitstext)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15) [역자 주] ‘코이네’(Koine) 또는 ‘코이네 본문’(Koinetext)에 관해서는 아래에 상세한 설명이 나온다.

아니한다:

28(마, 눅, 요에서)과 1010.

이것들은 제26판에서 **M** 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인용된 상비 증거들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 대신에 일급 상비 증거들으로써, 즉 항상 제시되는 증거들으로써(이점에 관해서는 8쪽 이하를 참조하라) 지금까지 인용되었던 사본에 추가적으로 새로이 인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소문자 사본들이다. 이 소문자 사본들은 그 본문의 질, 연대 또는 발견 장소 때문에 흥미를 끌 수 있는 것들이다.

075(고전, 빌, 골에서), 0277, 0278, 0279, 0281, 0282, 0285, 0289, 0291, 0293, 0294, 0296, 0298, 0299, 0301.

여기에다가 파피루스 사본 P^{90} , P^{91} , $P^{93}-P^{98}$ 과 나아가서 이등급 상비 증거로써(이 점에 관해서는 9쪽을 참조하라)0292가 첨가된다.

소문자 사본들도 본문 구성(Textkonstitution) 또는 본문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처음으로 상비 증거들 가운데 채택된다. 일등급 상비 증거들로 인용되는 것은:

소문자 사본 33, 1739, 1881(바울 서신에서)과 2427;

이등급 상비 증거들로 인용되는 것은:

소문자 사본 579와 2542 및 성구집¹⁶⁾ I 249, I 844, I 846과 I 2211. 그 밖에도 이제는 2495(15세기) 대신에 밀접히 관련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더 오래된 1505(12세기)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을 위하여 이등급 상비 증거들로 인용된다; 2495는 1505와 흥미로운 편차를 보일 경우에만 인용된다. 이 두 사본은 본문의 성격에 있어서 토마스 폰 하켈(Thomas von Hakel)이 616년에 그의 시리아어 번역(이번 제27판에서는 sy^h라는 부호로 인용됨)을 완성할 때에 사용한 헬라이어 대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두 사본의 본

16) '성구집'(Lektionar, 영어로는 lectionary) 은 주일 예배용으로 또는 주간의 매일 매일 읽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서에서 또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에서 필요한 구절들을 발췌해서 모아 놓은 독본이다.

문 형태는 대단히 고대의 것이다.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점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사본들의 읽기가 비평 자료에 제시된 변이형과 아주 조금 편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본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 안에 넣는다(마 25:29의 τ ; 눅 22:34의 ρ 등을 참조하라). 괄호 안에 제시된 증거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씌어 있는지는 <부록 II>(VARIAE LEKIONES MINORES)에 해답이 내려져 있다. 괄호 안에 제시된 변이형 자료를 이렇게 본래 그대로 재생시켜 봄으로써 개개의 변이형 복합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더 선명하게 개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용된 각 상비 증거의 읽기를 이제 정확한 글발대로 표기해 놓았다.

모든 파피루스 사본($P^1 - P^{98}$)은, 그 본문을 선명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인 한, 비평 자료를 제시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특별한 읽기가 모두 제공된다. 파피루스 사본들이 증거하는 중요한 특별한 읽기는 이 전에 발행된 판들에서도 이미 비평 자료를 제시하는 자리에 표기되었었다. 이렇게 하여 파피루스 사본들은, 일반적 소원에 부응하여, 그 내용이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 만큼 풍부하게 인용된다. 말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하여(e silentio) 추론하는 논법을 동원하여 이미 제공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결론을 도출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말하면 파피루스 사본의 중요한 읽기는 모두 표시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¹⁷⁾ 초기의 양피지 대문자 사본들의 경우에는 그것들의 모든 특별한 읽기와 단일한 읽기를 파피루스 사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상세하게 표시하는 것은, 비록 그 사본들이 파피루스 사본들과 동등한 중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비평본의 틀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필기 재료¹⁸⁾가 어느 사본의 중요성을 일차적으로 결정짓는다는 그릇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P^{41} , P^{66} , P^{75} 의 새로운 단편들도 지금까지 표시되지 않던 P^{90} , P^{91} , P^{93} - P^{98} 과 꼭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이 27판에서 처음으로 기입되었었다.

17) [원문의 주 1번] 그러나 여기서도 다음과 같은 범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록 I>에 제시된 파피루스 사본들과 또 파편적인 다른 사본들의 내용물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글자 한 자가 보존되어 있으면 한 절이 존재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8) [역자 주] 여기서 필기 재료라 함은 파피루스나 양피지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대규모의¹⁹⁾ 대문자 사본인 \aleph , B, C, D(05와 06)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수정자들을 가리키는 표시들을 통일시켰으며 이 전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했다. 지금까지 의례히 그랬던 것처럼, 여러 수정자들의 수정 작업을 하나로 총괄해야 했다. 다음과 같은 부호가 사용된다:

\aleph (01): \aleph^1 (4-6세기); \aleph^2 (약 7세기부터); \aleph^c (12세기);
 B (03): B¹ (B와 거의 같은 시기); B² (6/7세기);
 C (04): C¹ (C와 거의 같은 시기); C² (약 6세기); C³ (약 9세기);
 D (05): D¹ (6-7세기); D² (거의 9세기); D^c (12세기);
 D (06): D¹ (거의 7세기); D² (거의 9세기); D^c (연대는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나머지 수정자들보다는 후대이다).

이러한 정보 내용은 알란트(K. & B. Aland) 부부의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제2판, 1989, 322-23쪽에 제시되어 있는 수정자에 대한 상세한 부호 대조표에 일치한다.

라틴어, 시리아어 및 콥트어 번역본들의 표기는 근본적으로 검토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정되었다. 이 경우에 지금까지 이미 통용되던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다. 번역본은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된 그리스어 원문을 번역본으로부터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만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이에 관해서는 22쪽을 보라).

그리스 및 라틴 교부들의 신약성서 인용은 전적으로 새로이 손질되었다. 여기에 큰 변경이 가해졌다. 어떤 본문 형식의 시대와 장소를 확정짓는 것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전승상의 분지(分枝)인 경우에는 본문비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용만을 표기한다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선택의 원칙에 대해서는 31쪽을 참조하라).

끝으로 이 27판에 서문을 새로이 써넣었다. 그것은 필요한 정보를 될 수 있는 대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이 비평본의 사용자들에게 바라는 우리의 소원에 부합되는 일이기도 하다. 본문과 비평 자료를 철저히 읽어라. 이 말은 언제나 유효한 최선의 조언이다. 그렇게

19) [역자 주] '대 규모의 대문자 사본'이라는 것은 신약성서의 문서 전체는 물론이요 구약성서의 문서들도 포함하고 있는 부피가 큰 사본을 가리킨다.

하면 많은 것이 자명해지며 몸에 베게 될 것이다. 참조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이 서문이 더욱 손쉽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비평본의 본문

1. 목표 설정과 방법

비평본을 위하여 본문을 구성하는 기준은 전래적인 방식대로 이른바 내적 기준과 외적 기준이다. 이 두 기준은 언제나 적절하게 결합하여 적용해야 한다. 본문비평의 내적 기준은 주석적 작업을 통하여 끊임없이 개선된다. 주석적 작업은 신약성서 저자들의 사유 방식과 언어 형태를 전반적으로 또는 개개의 곳에서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준다.

외적 기준의 정밀화는 자료의 방대성 때문에 내적 기준의 발전과 보조를 맞출 수 없는 지경이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해명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진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료가 훨씬 빈약했던 시대에 확립된 본문비평사적 원리들이 낡은 것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개개의 증거들과 증거 집단들의 발언 가치는 연이은 연구를 통하여 더 분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최신의 연구 결과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승 이론을 작성하는 것은 아직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비평본의 본문을 변경하지 않은 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요청되는 일이기도 하다.

2. 본문 안에 사용된 비평 부호들

본문 안에 있는 비평적 부호들(◦, □, …, \, 「 등등)은 비평 자료를 지시한다. 이 비평 부호들에 관해서는 비평 자료를 설명하는 문맥에서도 설명이 된다(아래 10쪽 참조). 이 부호들은 에버하르트 네스틀레(E. Nestle)를 후계하는 비평본들이 언제나 사용한 표시들이다. 이 부호들은 비평 자료 안에 있는 변이형들을 간략하고도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다. 이들의 특별한 장점은 독자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호를 보면 어느 부분에 변이형이 있으며 또한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즉각으로 알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면서도 본문만을 읽기 원하는 독자는 읽기의 흐름에 장애를 받지 않고 그 부호를 쉽사리 건너 뛰어 넘어 갈 수 있다.

본문 안의 각괄호([])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은 본문에 수록해야 하는지 비평 자료란에 수록해야 하는지 현재의 지식 수준으로는 본문비평상으로 확실하게 결정지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표시한다(다음은 참조하라. 마 18:19; 행 16:1; 낱말의 위치에 관해서는, 고전 10:20). 이 부호가 붙은 곳들은 언제나 상세한 비평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사용자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문에 채용된 읽기는 일반적으로 발행자의 결단의 경향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실용적 근거에서 비평 자료란에 제시된 증거 자료에 대한 정보도 역시 본문에 채택된 읽기를 언제나 지시한다. 각괄호는 언제나 본문 결정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표시한다!

본문 안의 겹각괄호([[]])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대체로 꽤 긴 본문 부분은 확실히 원래적 본문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본문들은 대단히 이른 전승 단계에서 생성된 것이며 교회사에서 흔히 일찍부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들은 비평 자료란에 옮겨 넣지 않았다.

구약성서의 인용은 이탤릭체로 인쇄했다.

III. 비평 자료

1. 비평 자료 배열과 부호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회중판에는 변이형들의 모든 차이점을 완전하게 담을 수도 없고 본문사적으로 중요한 증거들을 모두 실을 수도 없다. 이 두 가지 일은 대형 비평판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 경우에도 역시 비평 자료를 선발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회중판을 근거로 해서 본문의 역사나 개별 사본들에 대한 특수 연구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교적 좁은 한계에서만 가능하다. 현재의 이 비평본은 사용자에게 무엇보다도 본문 연구를 위한 토대와 본문 구성에 중요한 변이형들의 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넘어서 비평 자료는 본문 구성을 위해서는 단지 간접적으로 중요하지만 본문상의 문제점을 가끔 일깨워 주는 읽기를 풍부하게 기록한다. 그 밖에 좀 덜 중요한 변이형들의 연구를 위한 토대도 역시 수록되었는데 이것들은 토대체 무슨 근거와 동기에서 변이형 구성이 발생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증거 자료에 대한 두 종류의 표시를 구별해야 한다.

*적극적 비평 자료*에는 모든 기본적인 변이형들이 인용된다. 즉 이것들은 본문을 구성하는 데 특별히 중요한 변이형들이다. 즉 *적극적 비평 자료*에는 *지지하는 증거와 반대하는 증거*가 양쪽 다 제시된다. 이 경우에 이 비평본의 본문(=txt)에 대한 증거는 언제나 맨 끝에 나타난다.

*소극적 비평 자료*는 주로 본문사적 또는 본문해명적 관심 때문에 인용되는 증거들이다. 즉 여기에는 *본문에 반대하는 증거*만 제시된다.

그러므로 그리스어 사본들은 그때그때 본문 구성을 위한 중요성에 따라 상이한 정도로 인증(引證)된다. 즉 언제나 또는 자주 또는 가끔씩만 인증된다.

*상비 증거*들은 본문을 구성하는 데 최대의 의미가 부여되는 그리스어 사본들이다. 따라서 그 변이형들은 최대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 사본들이 증거하는 것은 모든 비평적 자리에 고려된다.

*자주 인용되는 증거*들은 우선적으로 본문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거나 내용적으로 흥미있는 변이형을 제공하는 사본들이다.

*가끔 인용되는 증거*들은 근본적인 본문 짜임새에 있어서 코이네(Koine) 본문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본문사적으로 또는 주석적으로 흥미있는 곳에서 코이네 본문과 다른 경우에만 제시된다.

*상비 증거*들은 그 질과 표시 방식에 근거하여 *일등급 증거*들과 *이등급 증거*들로 구분된다.

*일등급 상비 증거*들에 속하는 것은 파피루스 사본들, 비잔틴 코이네 사본과 구별되는 한도에서 대문자 사본들, 그리고 오래된 본문 형태를 제공하는 몇몇 소문자 사본들이다. *이등급 상비 증거*들은 아주 중요한 코이네-대문자 사본들과 일연의 소문자 사본들이다. 이 소문자 사본들은 비잔틴 코이네 사본들의 본문에 가깝지만 본문사적으로 특별한 흥미가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적극적 비평 자료*를 가진 곳에서는 이 *이등급 상비 증거*들을 대다수의 사본들처럼 기호 **M**(=*Mehrheitstext*, 대다수 본문;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14쪽 참조) 또는 *pm*(=*permulti*, 대다수; 같은 쪽 참조)라는 부호를 사용하여 총괄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등급 상비 증거들과 이등급 상비 증거들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적극적 비평 자료*를 가진 곳에서는 언제나 먼저 일등급 상비 증거들이 명확하게 인용되고 이등급 상비 증거들은 **M**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명확하게 인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상비 증거들에 대하여 정보가 완벽하게 제공되는 셈이다.

소극적 비평 자료를 가진 곳에서는 모든 상비 증거들은 변이형이 있을 경우에만 명확하게 인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등급 상비 증거들은 **M**으로 표시된 모든 사본들의 대다수와 동일한 변이형을 증거할 때에 명확하게 인용된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곳에서는 이 이등급 상비 증거들은 이 비평본의 본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소극적 비평 자료를 가진 곳에서도 역시 상비 증거들의 모든 주요한 변이형과 기타 자료들이 충분히 제공된다. 그렇지만 이 곳에서는 빈틈없는 완벽한 정보를 기대할 수 없다.

사본은 그 본문을 관독할 수 있을 경우에만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사본 목록표(<부록 I>)에 상비 증거들의 본문에 상당히 큰 공백들이 있음이 표시되어 있다. 파편들인 경우에는 거기에 적힌 내용이 적극적 표현으로 표시되어 있다.²⁰⁾

사본의 짧은 토막에 나타나 있는 결함들(예를 들면 물로 생긴 얼룩, 희미해진 글씨, 필기재료의 훼손)에 관해서는 지면의 제한 때문에 일일이 표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상비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M**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이 비평본의 본문과 일치하지도 않는다는 결론을 배제할 수 없다.

언제나 인용되는 증거들과 자주 인용되는 증거들의 전체 목록은 아래 16쪽 이하의 III.2에 실려 있다.

비평 부호들

본문과 비평 자료란에는 여러 가지 비평 부호들이 사용된다. 비평 자료란에 표시되어 있는 비평부호는 본문 안에 동일한 부호로 표시된 부분에 대한 찬반 또는 상이점을 증거하는 자료들을 지시한다. 이러한 비평 부호들은 표시된 각 절 단위로, 또는 드물게는 표시된 몇 절 단위로(눅 22:17-20 참조) 끊어서 사용된다. 본문에 사용된 이 비평 부호들은 비평 자료란에 제시된 변이형들의 정확한 소재지와 성격을 표시해 준다. 한 절 안에서 또는 한 단위로 취급된 절들 안에서는 동일한 부호가 거듭해서 사용되지 않는다. 가끔 나타나는 예외 현상은 문맥에서 쉽사리 해명된다(눅 20:25^T 참조). 본문에 표시된 아래와 같은 여러 비평 부호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20) [본문 각주 번호 2] 내용 표시에 있어서는 한 절수는 그 안에 최소한 글자 한 자만이라도 들어 있으면 그 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파편들에서는 정확한 낱말 구성에 대한 추론이 허용되지 않는다.

○ 이 부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낱말이 비평 자료란에 제시된 사본들에서는 탈락되었음을 뜻한다.

□ 이 부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낱말들, 어구, 문장 또는 문들이 비평 자료란에 제시된 사본들에서는 탈락되었음을 뜻한다. \ 표는 탈락된 토막이 끝나는 자리를 표시한다.

┌ 이 부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낱말이 비평 자료란에 표시된 사본에서는 다른 한 낱말 또는 여러 낱말들로 대체되었음을 뜻한다.

┐ 이 부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낱말들이 비평 자료란에 제시된 사본들에서는 다른 낱말들로 대체되었음을 뜻한다. † 표는 대체된 토막이 끝나는 자리를 표시한다.

이 때에 단지 낱말들의 위치 변경만 발생하는 수가 또한 종종 있다. 이 경우에 낱말 구성이 본문에 인쇄된 것과 일치하는 한 비평 자료란에서는 그 낱말들이 이탤릭체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다. 이 숫자는 본문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낱말들의 각각의 위치에 상응한다(마 27:51 참조).

└ 이 부호는 이것이 표시된 자리에, 비평 자료란에 제시된 사본들에서는 한 낱말 또는 여러 낱말들이, 또는 이따금 한 절 전체가 삽입되었음을 가리킨다.

┘ 이 부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낱말들이 비평 자료란에 제시된 사본들에서는 그 어순이 바뀌어졌음을 뜻한다. ² 표는 해당 토막이 끝나는 자리를 표시한다.

위치가 바뀌어진 낱말들의 어순은 비평 자료란에서는 이탤릭체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는데 이 숫자는 본문 안에서 각 낱말이 차지한 위치에 상응한다(마 16:13 참조).

˙ 이 부호는 다른 글자보다 좀 높은 자리에 찍혀 있다. 이 부호는 그 곳에 구두점이 변경되었음을 가리킨다.

˘ 이 부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낱말 또는 단락이 비평 자료란에 표시된 자

리로 옮겨졌음을 가리킨다(눅 6:5; 요 13:8 참조).

동일한 본문 단위 안에서 동일한 종류의 비평부호를 여러 번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호에 점을 찍거나 숫자를 붙여서 서로 구별한다.

○1 ○2 / □1 □2 꺾 꺾1 꺾2 / 꺾 꺾1 꺾2 / 꺾 꺾1 꺾2 / 꺾 꺾1 꺾2 / 꺾 꺾1 꺾2

부호, ○...\¹ 부호, 꺾...¹ 부호는 때때로 여러 절에 걸친 상당히 긴 단락을 포위한다. 이러한 단락의 범위는 해당되는 절 수를 표시하여 나타낸다(눅 3:23-31,38; 4:5-12 참조). 동일한 종류의 다른 변이형들과 겹치는 혼란은 원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사용자는 끝나는 자리 표시를 찾아내야 한다.

비평 자료의 구성 요소

비평 자료는 각 구절 단위로 나뉘어 분배되어 있다. 굵게 인쇄된 둥근 점(•)과 굵게 인쇄된 절 표시 숫자는 이 각 단위에 해당하는 비평 자료의 묶음을 구획 짓는다. 이 구획 안에서는 동일한 비평부호가 같은 모양으로 두 번 나타나지 않는다. 동일한 부호가 두 번 이상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호에 점을 찍거나 숫자를 붙여서 서로 구별되게 한다(이하급 나타나는 예외적 현상에 대해서는 위의 10쪽과 아래 15쪽 참조). 이 한 토막의 비평 자료가 담당하는 본문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한 절이다. 그러나 여러 절에 걸친 긴 변이형이 생긴 경우에는 이 비평 자료의 적용 범위를 그 절수들을 표시하여 나타낸다(눅 22:17-20 참조).

| 표시는 비평 자료를 제시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문제삼던 본문의 그 곳에 대한 비평 자료의 제시가 끝났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이 표시는 본문의 새로운 곳에 대한 비평 자료의 제시가 시작함을 나타낸다. 즉 | 표시는 그 앞뒤에 제시된 비평 자료들이 각각 본문의 상이한 곳에 대한 비평 자료들임을 나타낸다.

| 표시는 본문의 동일한 곳에 대한 상이한 변이형들을 구분해 준다. 이 모든 변이형들은 하나의 변이형 묶음 또는 하나의 변이형 통일체를 이룬다.

$txl(= \text{textus})$ 는 이 비평본의 본문을 지지하는 증거들의 제시가 시작함을 표시한다. 이 약자는 언제나 변이형 묶음 내지 변이형 통일체의 맨 끝자리에 나타난다.

변이형과 그 증거 표시

변이형의 글발은 일반적으로 충실한 형태로 제시된다. 글발을 축약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자체로서 이해될 수 있다. 축약형은 이 비평본의 본문 글발과 연관된다.

다음과 같은 축약형들이 나타난다.

처음 글자들(눅 19:43 Γ 참조)이나 끝 글자들(눅 19:37 Γ , 마 2:23 $\Gamma - \rho\epsilon\theta$ 참조)만이 제시된다. 간혹 변이형의 처음 글자와 끝 글자들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마 1:10 $\Gamma M-\sigma\sigma\nu | \Gamma M-\sigma\sigma\eta$). 긴 첨가가 있는 경우에는 축약형은 언제나 충실한 형태로 맨 첫번에 제시된 변이형의 글발과 연관된다(눅 19:45^T 참조).

세 개의 점(...)은 이 비평본의 본문이 변이형의 글발과 일치하는 경우에 이 비평본의 본문을 대표한다(눅 20:25^T 참조).

어순상의 변이형들은 이탤릭체로 쓴 숫자로 표시된다. 이 숫자는 본문 안의 어순을 지시한다(I = 본문 안의 첫째 낱말 등등). 이와 같이 숫자를 사용하는 방식은 어순변화를 표시하는 자리(^f)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개의 변이형들로 구성된 하나의 변이형 통일체 안에서 그 읽기들 중의 하나가 새로운 낱말 구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숫자를 사용하여 표시한다(요 12:18 Γ 참조). $\Gamma 2 P^{75} | I \kappa$ 이라고 표시한 것은 눅 22:24의 $\delta\epsilon$ και라는 본문에서 P^{75} 는 και만을, κ 는 $\delta\epsilon$ 만을 제공한다는 것을 뜻한다.

단지 특정한 몇몇 경우에 으뜸 변이형에 대하여 하위 변이형이 근소한 차이뿐이라면 이 하위 변이형의 글발이 충실한 형태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이 하위 변이형의 증거가 그때그때 언급된다. 다음과 같은 표시 방식이 적용된다.

어떤 증거들이 그들이 지지하는 변이형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것

들을 () 안에 묶어서 표시한다(마 9:27 ῥ에 있어서는 소문자 사본 700; 마 26:60^T에 있어서는 sy^s; 마 5:36^l에 있어서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괄호 안에서 여러 개의 증거들이 콤마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막 9:17^l에 있어서는 C, W 067 f^{1,13} 2542가 그러하다). 어떤 사본의 최초의 필사자 또는 교정자에 의해서 생긴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필사자를 표시하는 *표 또는 교정자를 표시하는 숫자를 ()로 묶어서 사본 기호의 오른쪽 어깨에 붙인다(마 9:5 ῥ에 있어서는 $\kappa^{(*)}$; 행 12:5^l에 있어서는 D⁽²⁾).

이 괄호를 해제하는 것, 즉 괄호 안에 묶인 증거들의 정확한 읽기는 <부록 II>에 제시되어 있다. 거기서 사용자는 증거들의 완벽한 기록을 입수할 수 있다. 특별히 항상 인용되는 중요한 사본들의 기록도 입수할 수 있다. 변이형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인 경우에는 괄호 안에서 이 변이형의 내용을 표시한다(마 7:21^l; 마 24:48^l 참조).

각괄호 [] 안에는 본문과 구두점에 관계되는 추측 사항을 끼워 넣는다.

본문에 대한 추측인 경우에는 저자를 거명하거나(마 5:6^l 참조) 총괄적으로 <<comm>>(= commentators, 주석가들)으로써 주석가들을 지시하기도 한다(엡 4:21^r 참조). 구두점에 대한 추측인 경우에는(마 2:4의 ¹와 ¹ 참조) 저자를 거명하지 않는다.

증거 제시

변이형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순서는 언제나 동일하다. 맨 처음에 그리스어 사본들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번역본들, 교부들의 인용문들이 잇따른다(이 세 증거 집단들은 콤마(;))를 사용하여 가른다). 그리스어 사본들은 파피루스 사본, 대문자 사본, 소문자 사본, 성구집의 차례로 제시된다. 고대 번역본은 라틴어, 시리아어, 아르메니아어, 게오르기아어, 고트어, 에티오피아어, 슬라브어의 차례로 제시된다.

그리스어 사본들은 그리스어 사본목록에 따른 번호로써 인용된다. 각 사본에 대한 상세한 정보(연대, 소장 장소, 사본의 내용)는 <부록 I>(Appendix I)에 수록되어 있다.

사본번호의 오른쪽 어깨에 붙인 다음과 같은 표시들은 동일한 사본의 상이한 읽기를 지시한다. 또는 ^{vid} 표는 결정의 확실성을 제한한다는 뜻을 표시한

다.

*는 교정을 가한 곳에 있는 원래의 본문을 가리킨다.

^c는 후대 사람에 의한 교정, 때로는 또한 최초의 필사자에 의한 교정을 가리킨다.

^{1,2,3}은 첫째 번, 둘째 번, 셋째 번 교정자를 지시한다.²¹⁾

^{v.l.} (= *varia lectio*)는 그 사본 안에 표시된 하나의 대안적 읽기를 지시한다 (^{v.l.}는 어깨표 ^{txt}에 상응한다.)

^{txt} (= *textus*)는 (어깨표로서!) 어떤 사본에서 하나의 *varia lectio*를 지시하는 읽기를 가리킨다(^{txt}는 ^{v.l.}에 상응한다).

^{mg} (= *in margine*)는 사본의 난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읽기를 가리킨다. 그것은 사본의 본문에 대한 교정으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대안적 읽기(*varia lectio*)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은 것이다.

^s (= *supplementum*)은 어떤 사본의 분실된 낱장들이나 훼손된 부분을 추후에 보충한 것에 입각한 읽기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충된 본문 토막은 상비 증거들에 대한 사본목록(<부록 I>)에 표시되어 있다.

^{vid} (= *ut videtur*)는 어떤 사본이 어느 읽기를 증거하는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붙이는 어깨표이다. 이것은 특히 파피루스 사본이나 재활용 재생 사본²²⁾에 적용된다. 그 사본의 본래의 본문을 이제 명확하게 읽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교정한 것에도 역시 ^{vid} 어깨표를 붙일 필요가 있다. 그러

21) [본문 각주 3] 대문자 사본 **א**, B, C 와 D(05와 06)에 붙인 어깨표 ^{1,2,3c}는 교정자 집단을 가리킨다. (이 집단들에 대한 해명과 연대기적 배열에 대해서는 5*-6*쪽을 보라. K. u.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Stuttgart ²1989, 322-323 쪽 참조.)

22) [역자 주] ‘재활용 재생 사본’ (Palimpsest)은 한 양피지를 두 번 사용한 사본을 가리킨다. 고대에는 양피지가 귀했기 때문에 먼저 쓴 글을 지우고 그 위에 다른 글을 써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신약성서 사본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신약성서의 문서들을 적었던 것을 후대에 지우고 다른 글을 적은 양피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지워진 글을 다시 회생시킨 사본을 가리킨다.

나 ^{vid} 표시는 언제나 고도의 개연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규칙상 그것은 남아 있는 글자들에 근거하여 재생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추론이 한 공백의 단순한 구간으로부터 도출해 낸 것인 경우에는 그 사본이 역시 다른 하나의 전승된 읽기를 지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권리로 인용될 수 없다는 사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다음과 같은 총괄적 부호들을 사용한다(그 가운데서 맨 처음 언급하는 **M**은 특별히 중요하다).

M (= *Mehrheitstext*[대다수 본문], 여기에는 비잔틴 계열의 코이네 본문 [die byzantinische Koine-Text]가 포함됨)은 모든 사본의 대다수 즉 좁은 의미에서 언제나 코이네 사본들의 대다수가 증거하는 변이형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M**은 코이네 본문의 읽기를 가리킨다. 여기에 추가해서 **M**은 그때 그때의 자리에서 코이네와 동일한 읽기를 담고 있는 이등급 상비 증거들의 읽기를 가리킨다. **M**은 자료란의 모든 곳에서 일등급 상비 증거들과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이 사실은 단지 소극적 비판 자료만 제시된 곳에서도 역시, 즉 *txt*(=textus)를 지지하는 증거들을 제시하지 아니한 곳에서도 **M**의 지지를 추론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인용되어 있는 변이형을 **M**이 지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M**의 읽기는 본문과 일치한다.

제25판까지 사용된 **K**(=Koine)라는 부호 대신에 도입한 **M**이라는 부호 사용은 그 옳음이 입증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등급 상비 증거들의 공간절약적 표시를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pm(= *permulti*)은 대다수 본문(**M**)이 두 가지 (드문 경우에는 세 가지) 변이형으로 갈라져 있되 양쪽 모두 수적으로 거의 동일한 강도의 증거가 갖추어져 있을 때에 **M**이라는 부호 대신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pm*이라는 약자는 규칙상으로 대다수 본문이 두 변이형으로 갈라지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 변이형 중의 하나가 *txt*-표시 없이 비평 자료를 제시하는 곳에서 본문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pm*은 단지 한 번만 표시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는, *txt*-표시 없이 **M**-변이형들을 제시하는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읽기를 지지하는 이등급 상비 증거들을 추론해 낼 수 있다.

txt-표시가 기록되어 있는 *pm*-변이형들의 경우에는 모든 이등급 상비 증거들은 명확하게 지칭된다(*txt*-표시가 기록되어 있는 **M**-변이형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어 사본들을 명확하게 지칭하여 제시한 다음에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라틴어 약어들이 뒤따른다. 다음과 같은 약어들은 그 독법의 유포 범위에 대한 인상을 일으켜 준다.

*pc = pauci*는 소수의 사본들을 가리킨다. 이 사본들은 이 곳에서 명확하게 지칭한 사본들 이외에 대다수 본문과 다른 것들이다.

*al = alii*는 (*pc*라고 표시한 경우에 있어서보다도 숫자가 더 많은) 몇몇 사본들을 가리킨다. 이 사본들은 이 곳에서 명확하게 지칭한 사본들 이외에 대다수 본문과 다른 것들이다.

*pm = permulti*는 대단히 많은 사본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대다수 본문에 대한 증거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경우에 사용된다(위에 나온 설명을 보라).

*rell = reliqui*는 *txt*에 대한 증빙으로서 (**M**을 포함하여) 나머지 사본들을 가리킨다(눅 5:39 ° 참조). *rell* 앞에 특별히 중요한 몇몇 증거들을 부각시켜 제시할 수 있다(요 8:16 ° 참조).

비평 자료란에 사용된 기타 약어들

(!) = *sic*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읽기의 글발을 정확하게 재생시켜 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행 24:5¹ 참조).

h.t.(= *homoioteleuton*)는 두 개의 낱말, 어구, 또는 문장의 동일한 끝맺음 때문에 야기된 빠뜨림을 가리킨다(이것은 시각의 건너뛰 작용으로 생긴 현상이다. 즉 필기자가 동일하게 끝나는 낱말들이나 낱말 꼬리를 혼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놓여 있는 본문의 토막을 탈락시켰다).

*add. = addit/-unt*는 ‘첨가하다’를 뜻한다.

*om. = omittit/-unt*는 ‘생략하다’를 것을 뜻한다.

+ -는 *add.*와 *om.* 대신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 부호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시하는 경우에도 이 표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사용된다(롬 16:25-27과 *Subscriptio*를 참조).

pon. = *ponit/-unt*는 ‘두다; 자리를 옮기다’를 뜻한다.

a. = *ante*는 ‘앞에’(=before)를 뜻한다.

p. = *post*는 ‘뒤에’(=after)를 뜻한다.

id./ead. = *idem/eadem*은 ‘동일한 글밭’(=the same wording)을 뜻한다.

ex err. = *ex errore*는 ‘착오로; 필기자의 실수로 생긴’을 뜻한다.

ex itac. = *ex itacismo*는 ‘동일한 발음의 낱말을 혼동함으로써 생긴’을 뜻한다.

ex lat? = *ex versione latina?*는 ‘아마 어떤 라틴어 번역본의 읽기에서 생긴’을 뜻한다.

*bis*는 ‘두 번’(=twice)을 뜻한다. 이것은 비평 부호 바로 다음에 나온다. 이것은 본문에 있는 두 개의 동일한 낱말과 그들의 변이형(들)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그 두 낱말은 예외적으로 동일한 비평 부호가 붙여진다(마 1:9 𐀀; 마 1:10 𐀀 참조).

이 밖의 모든 라틴어 약어는 <부록 V>(Appendix V)에 해명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부호와 지시는 비평 부호 바로 다음에 나온다. 이러한 부호와 지시는 그 뒤에 제시된 변이형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십자표(†)는 25판과 비교하여 현재의 27판의 본문에 변경이 생겼음을 지시한다. 즉 †가 붙여져 있는 변이형은 25판의 본문에 실렸던 것이다(마7:18 𐀀와 𐀀; 마 20:18 𐀀 참조). 이러한 곳에는 언제나 매우 어려운 본문 결정이 문제되고 있다. 사용자는 <부록 III>(Editionum differentiae)으로부터 여타 편집

자들이 이러한 곳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아 볼 수 있다.

*p*는 복음서에 있는 병행절을 지시한다. 이 복음서 병행절은 해당 단락의 난외에 명기되어 있다.

변이형 앞의 괄호 속에 들어 있는 성서 장절은 신약의 다른 문서에 있는 병행절을 직접 지시한다(마 1:25^r에서는 눅 2:7을 지시함). 예를 들어 (22:3) 처럼 괄호 속에 성서의 문서 이름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앞서 표시한 문서 안의 병행절을 가리킨다(행 21:39^f에서는 행 22:3을 지시함). 또 절수만 표시되어 있으면, 그것은 동일한 장 안의 병행절을 가리킨다(마 2:13^f에서는 마 2:12를 지시함).

변이형 앞에 놓여 있는 괄호 안에 구절과 *v.l.*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그 변이형이 아마도 괄호 안에 지시한 구절의 달리 읽기(*v.l.*)에서 유래한 것임을 뜻한다(마 2:13^f 참조. 13절에 제시된 어순 변화의 변이형의 유래가 19절의 별개 읽기에 있음을 지시함).

변이형 앞의 괄호 안에 70인역 성서의 구절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것은 70인역 성서의 본문에 있는 병행 문구를 지시한다(마 2:18^T에서는 렘 38:15 **G**를 지시함).

2. 그리스어 사본 증거들

그리스어 사본들은 본문의 질, 표시 방식, 비평 자료란에서 고려되는 정도에 따라서 네 부류로 구분된다(이 점에 대해서는 8-9쪽 참조).

- a) 일등급 상비 증거들
- b) 이등급 상비 증거들
- c) 자주 인용되는 사본들
- d) 이따금 인용되는 사본들

다음 목록에는 a)-c) 부류에 속하는 사본들을 열거한다. d) 부류에 속하는 사본들은 <부록 I> (Appendix I)의 사본 목록에 표시되어 있다.

(!) 표시로써 강조된 파피루스 사본들과 대문자 사본들은 그 오랜 연령 때문에(그들은 모두 3/4세기 또는 그 이전에 생긴 것이다)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된다.

복음서를 위한 상비 증거들

a) 일등급 상비 증거들

파피루스 사본들

마태복음: $P^1(!)$, P^{19} , P^{21} , P^{25} , P^{35} , $P^{37}(!)$, P^{44} , $P^{45}(!)$, $P^{53}(!)$, P^{62} , $P^{64(+67)}(!)$,
 $P^{70}(!)$, P^{71} , P^{73} , $P^{77}(!)$, P^{83} , P^{86} , P^{96} ;

마가복음: $P^{45}(!)$, P^{84} , P^{88} ;

누가복음: P^3 , $P^4(!)$, P^7 , P^{42} , $P^{45}(!)$, $P^{69}(!)$, $P^{75}(!)$, P^{82} , P^{97} ;

요한복음: P^2 , $P^5(!)$, P^6 , $P^{22}(!)$, $P^{28}(!)$, P^{36} , $P^{39}(!)$, P^{44} , $P^{45}(!)$, $P^{52}(!)$, P^{55} ,
 P^{59} , P^{60} , P^{63} , $P^{66}(!)$, $P^{75}(!)$, P^{76} , $P^{80}(!)$, P^{84} , $P^{90}(!)$, P^{93} , $P^{95}(!)$.

대문자 사본들

마태복음: $\aleph(01)$, A(02), B(03), C(04), D(05), L(019), W(032), Z(035), Θ
 (038), 058, 067, 071, 073, 078, 085, 087, 089, 094, 0102, 0106, 0107, 0118,
 0128, 0148, 0160, 0161, 0164, 0170, 0171(!), 0200, 0204, 0231, 0234, 0237,
 0242, 0249, 0271, 0275, 0277, 0281, 0293, 0298;

마가복음: $\aleph(01)$, A(02), B(03), C(04), D(05), L(019), W(032), Θ (038), Ψ
 (044), 059, 067, 069, 072, 083, 087, 099, 0107, 0126, 0130, 0131, 0132, 0143,
 0146, 0167, 0184, 0187, 0188, 0213, 0214, 0269, 0274;

누가복음: $\aleph(01)$, A(02), B(03), C(04), D(05), L(019), T(029), W(032), Θ
 (038), E(040), Ψ (044), 070, 078, 079, 0102, 0108, 0115, 0130, 0147, 0171(!),
 0177, 0181, 0182, 0239, 0266, 0279, 0291;

요한복음: $\aleph(01)$, A(02), B(03), C(04), D(05), L(019), T(029), W(032), Θ
 (038), Ψ (044), 050, 060, 068, 070, 078, 083, 086, 087, 091, 0101, 0105, 0109,
 0127, 0145, 0162(!), 0210, 0216, 0217, 0218, 0234, 0238, 0256, 0260, 0299,
 0301.

소문자 사본 가족 f^1 과 f^{13} 은 모든 복음서에, 소문자 사본 33도 모든 복음서
 에, 소문자 사본 2427은 마가복음에 인증된다.

$f^1=1$, 118, 131, 209, 1582 *et al.*, cf. K. Lake, *Codex I of the Gospels and
 its Allies*, (Texts and Studies VII/3) Cambridge 1902, reprint 1967.

$f^{13}=13$, 69, 124, 174, 230, 346, 543, 788, 826, 828, 983, 1689, 1709, *et al.*,

cf. K. and S. Lake, *Family 13(The Ferrar Group)*, (Studies and Documents XI) London 1941 [=Mark]; J. Geerlings, *Family 13 (The Ferrar Group)*, (Studies and Documents XIX-XXI) Salt Lake City 1961-1962[=Matthew, Luke, John]; W.H. Ferrar, *A Collation of Four Important Manuscripts of the Gospels*, ed, T. K. Abbott, Dublin/London 1877.

f^1 과 f^{13} 이라는 표시로 총괄된 사본들은 단지 그들의 집단 기호로써 인용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이 가족 중의 개개 증거들이 그들의 가족 그리고 **M** 과 차이가 날 경우에는 따로 따로 떼어서 인용된다(눅 11:25^T 참조. 거기서는 69번 사본이 f^{13} 과 낱말 구성은 동일하지만 어순이 다르다).

f^1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별 규칙이 적용된다. 이 가족의 대표인 1번 사본이 그 가족의 나머지 사본들 및 **M** 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단지 1번 사본만 인용된다. 이 경우에 f^1 이라는 기호는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가족의 나머지 사본들은 **M** 과 일치하기 때문이다(눅 24:53^T 참조).

b) 이등급 상비 증거들

K(017), N(022), **P**(024), Q(026, 누가복음에), Γ (036), Δ (037), 0292(마가복음에), 28(XI, 마가복음에), 565(IX), 579(XIII), 700(XI), 892(IX), 1241(XII), 1424(IX/X), 2542(XIII,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1844(IX), 12211(X).

복음서를 위해서는 자주 인용되는 증거들이 없다. 따라서 이등급 상비 증거들의 수효가 그 대신으로 더 많다.

사도행전을 위하여 항상 그리고 자주 인용되는 상비 증거

a) 일등급 상비 증거들

파피루스 사본:

P^8 , P^{29} (!), $P^{33(+38)}$, P^{41} , P^{45} (!), P^{48} (!), P^{50} , P^{53} (!), P^{56} , P^{57} , P^{74} , P^{91} (!).

대문자 사본:

κ (01), A(02), B(03), C(04), D(05), E(08), Ψ (044), 048, 057, 066, 076, 077,

095, 096, 097, 0140, 0165, 0166, 0175, 0189(!), 0236, 0244, 0294.

소문자 사본 33과 1739.

b)이등급 상비 증거들

L(020), 81(1044), 323(XII), 614(X III), 945(XI), 1175(XI), 1241(XII), 1505(XII).

c)자주 인용되는 증거들

6(XIII), 36(XII), 104(1087), 189(XII), 326(X), 424(XI), 453(XIV), 1704(1541), 1884(XVI), 1891(X), 2464(IX), 2495(XV).

바울 서신을 위하여 항상 그리고 자주 인용되는 상비 증거들

a)일등급 상비 증거들

로마서:

P^{10} , P^{26} , $P^{27}(!)$, P^{31} , $P^{40}(!)$, $P^{46}(!)$, P^{61} , P^{94} ;

κ(01), A(02), B(03), C(04), D(06), F(010), G(012), Ψ(044), 048, 0172, 0209, 0219, 0220(!), 0221, 0278, 0285, 0289;

고린도전서:

P^{11} , P^{14} , $P^{15}(!)$, P^{34} , $P^{46}(!)$, P^{61} , P^{68} ;

κ(01), A(02), B(03), C(04), D(06), F(010), G(012), H(015), I(016), Ψ(044), 048, 075, 088, 0121, 0185, 0199, 0201, 0222, 0243, 0270, 0278, 0285, 0289; 33, 1739, 1881;

고린도후서:

P^{34} , $P^{46}(!)$;

κ(01), A(02), B(03), C(04), D(06), F(010), G(012), H(015), I(016), Ψ(044), 048, 098, 0121, 0186, 0209, 0223, 0225, 0243, 0278, 0285, 0296; 33, 1739, 1881;

갈라디아서:

$P^{46}(!)$, P^{51} ;

⊠(01), A(02), B(03), C(04), D(06), F(010), G(012), H(015), I(016),
Ψ(044), 062, 0122, 0176, 0254, 0261, 0278;
33, 1739, 1881;

에베소서:

$P^{46}(!)$, $P^{49}(!)$, $P^{92}(!)$;

⊠(01), A(02), B(03), C(04), D(06), F(010), G(012), I(016), Ψ(044), 048, 082,
0278, 0285;
33, 1739, 1881;

빌립보서:

$P^{16}(!)$, $P^{46}(!)$, P^{61} ;

⊠(01), A(02), B(03), C(04), D(06), F(010), G(012), I(016), Ψ(044), 048, 075,
0278, 0282;
33, 1739, 1881;

골로새서:

$P^{46}(!)$, P^{61} ;

⊠(01), A(02), B(03), C(04), D(06), F(010), G(012), H(015), I(016), Ψ(044),
048, 075, 0198, 0208, 0278;
33, 1739, 1881;

데살로니가전서:

$P^{30}(!)$, $P^{46}(!)$, P^{61} , $P^{65}(!)$;

⊠(01), A(02), B(03), D(04), D(06), F(010), G(012), H(015), I(016), Ψ(044),
048, 0183, 0208, 0226, 0278;
33, 1739, 1881;

데살로니가후서:

$P^{30}(!)$, $P^{92}(!)$;

⊠(01), A(02), B(03), D(06), F(010), G(012), I(016), Ψ(044), 0111, 0278;
33, 1739, 1881;

디모테전서:

P -;

⊠(01), A(02), C(04), D(06), F(010), G(012), H(015), I(016), Ψ(044), 048,
0241, 0259, 0262, 0285;
33, 1739, 1881;

디모테후서:

P -;

⊠(01), A(02), C(04), D(06), F(010), G(012), H(015), I(016), Ψ(044), 048;
33, 1739, 1881;

디도서:

P³²(!), **P**⁶¹;

⊠(01), A(02), C(04), D(06), F(010), G(012), H(015), I(016), Ψ(044), 048, 088,
0240, 0278;
33, 1739, 1881;

빌레몬서:

P⁶¹, **P**⁸⁷(!);

⊠(01), A(02), B(03), C(04), D(06), F(010), G(012), I(016), Ψ(044), 048, 0278;
33, 1739, 1881;

히브리서:

P¹²(!), **P**¹³(!), **P**¹⁷, **P**⁴⁶(!), **P**⁷⁹, **P**⁸⁹;

⊠(01), A(02), B(03), C(04), D(06), H(015), I(016), Ψ(044), 048, 0122, 0227,
0228, 0243, 0252, 0278, 0285;
33, 1739, 1881;

b)이등급 상비 증거들

K(018), L(020), P(025), 81(1004), 104(1087), 365(XII), 630(XI V), 1175(XI),
1241(XII), 1505(XII), 1506(1320), 2464(IX), 249(IX), 246(IX).

c) 자주 인용되는 증거들

6(XⅢ), 323(XⅡ), 326(X), 424(XⅠ), 614(XⅢ), 629(XⅤ), 945(XⅠ), 2495(XⅤ).

일반 서신을 위하여 항상 그리고 자주 인용되는 증거들

a) 일등급 상비 증거들

야고보서:

$P^{20}(!)$, $P^{23}(!)$, P^{54} , P^{74} ;

κ(01), A(02), B(03), C(04), $P(025)$, Ψ(044), 048, 0166, 0173, 0246;
33, 1739;

베드로전서:

$P^{72}(!)$, P^{74} , P^{81} ;

κ(01), A(02), B(03), C(04), $P(025)$, Ψ(044), 048, 0206, 0247, 0285;
33, 1739;

베드로후서:

$P^{72}(!)$, P^{74} ;

κ(01), A(02), B(03), C(04), $P(025)$, Ψ(044), 048, 0156, 0209, 0247;
33, 1739;

요한일서:

$P^9(!)$, P^{74} ;

κ(01), A(02), B(03), C(04), $P(025)$, Ψ(044), 048, 0245, 0296;
33, 1739;

요한이서:

P^{74} ;

κ(01), A(02), B(03), $P(025)$, Ψ(044), 048, 0232;
33, 1739.

요한삼서:

P^{74} ;

κ(01), A(02), B(03), C(04), $P(025)$, Ψ(044), 048, 0251;
33, 1739;

유다서:

$P^{72}(!)$, P^{74} , $P^{78}(!)$;

κ(01), A(02), B(03), C(04), $P(025)$, Ψ(044), 0251;
33, 1739.

b)이등급 상비 증거들

K(018), L(020), 81(1044), 323(XII), 614(XIII), 630(XIV), 1241(XII), 1505(XII).

c)자주 인용되는 증거들

69(XV), 322(XV), 623(1037), 945(XI), 1243(XI), 1846(XI), 1852(XIII), 1881
(XIV), 2298(XII), 2464(IX), 2495(XV).

요한계시록을 위한 상비 증거들

요한계시록의 사본 전승은 신약성서의 여타 문서들의 사본 전승과 대단히 다르다.²³⁾ 하나의 특이한 성격은 비잔틴적 대다수 사본이 두 갈래의 다른 전승 흐름으로 갈라졌다는 것이다.

M^A : 가이사라의 안드레아가 저작한 계시록-주석서가 달려 있는 많은 수의 사본들

M^K : 본래적 코이네 사본들

M : M^A 와 M^K 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

소문자 사본 2344번과 2377번은 보존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자주 인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본들에 있어서는 침묵으로부터 결론을 추출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a)일등급 상비 증거들

23) [원문의 각주 번호 4번] 다음 저서를 참조하라. J. Schmid, *Studien zur Geschichte des griechischen Apokalypse-Textes* (Bde., München 1955/56).

$P^{18}(I)$, P^{24} , P^{43} , $P^{47}(I)$, P^{85} , $P^{98}(I)$;
 $\kappa(01)$, A(02), C(04), 051, 0163, 0169, 0207, 0229.

b) 이등급 상비 증거들

$P(025)$ 는 M^A 와 다른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인용된다.

046은 M^K 와 다른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인용된다.

1006(XI), 1611(X), 1841(IX/X), 1854(XI), 2030(XII), 2050(1107), 2053(X III),
 2062(X III), 2329(X), 2344(XI), 2351(X), 2377(XI V).

c) 요한계시록만을 위하여 자주 인용되는 증거들은 없다.

3. 고대 번역들

현재의 학문적 회중판 신약성서의 본문비평에 중요하게 이용되는 고대 번역본은 라틴어, 시리아어 및 콥트어 번역본이다. 이 번역들은 직접으로 그리스어 대본으로부터 이른 시기에 번역한 것임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번역들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연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신약성서의 그리스어 본문 전승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 번역들이 차지하는 증거 가치에 대해서 수십년 이래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 가치성이 점점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밖의 나머지 번역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이에 대해서는 아래 29쪽을 보라). 위에서 말한 세 번역은 본문 구성을 규명하는 데 이용되는 중요한 증거들이 된다. 이 번역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번역본에서 본문비평의 증거로 끌어 낼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 즉 그들의 번역 대본으로 사용된 그리스어 사본의 본문을 확실하게 재구성할 수 곳만 인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번역본들이 인용되는 곳은 해당 읽기가 또한 다른 그리스어 증거들이나 다른 독립적 번역 증거들을 통하여 증명되는 곳뿐이다. 오직 드문 경우에만(약 1:17¹ 참조) 번역본이 그리스어 변이형을 증명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제시된다. 그리스어 대본과 번역본의 언어 사이의 언어 구조상의 차이를 주의 깊게 투시해야 한다. 관용구 또는 번역 문체로 말미암아 생긴 차이점들은 증거 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번역본들은 그들의 그리스어 대본의 상세한 내용을 단지 다소 제한된 수준으

로만 재생시킬 수 있다.²⁴⁾ 그러므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번역본은 증거로 제시되지 않는다.²⁵⁾

번역들은 이른 시기의 그리스어 증거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본문비평적 판단을 내리는 데 여전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적힌 그리스어 사본들이 20세기에 대량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번역들의 본문비평적 가치는 이전 시대에 비하여 상대화되었다.

라틴어 번역들

신약성서의 라틴어 번역은 두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2세기부터 생긴 고대 라틴어 번역들이다. 다른 하나는 4/5세기에 그리스어 본문에 입각하여 개정한 번역이다. 이 개정은 제롬(Jerome)의 이름이 관련되어 수행된 것인데 중세기 이래로 불가타(Vulgata, 영어로는 Vulgate) 성서라 불리어진다.²⁶⁾

라틴어 증거들의 인용은 다음과 같은 출판물들에 바탕을 둔다.

복음서에서:

Itala. Das Neue Testament in altlateinischer Überlieferung Nach den Handschriften hrsg. von A. Jülicher, durchgesehen und zum Druck besorgt von W. Marcus-Evangelium² 1970, Bd. III Lucas-Evangelium² 1976, Bd. IV Johannes-Evangelium 1963);

바울 서신에서:

für Eph-Kol Bd. 24/1-2 der Vetus Latina, hrsg. von H. J. Frede, 1962-1971, für 1Thess-Hebr Bd. 25/1-2 der Vetus Latina, hrsg. von H. J. Frede, 1975-1991;

24) [원문의 각주 번호 5번]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저서를 참조하라. K. Aland(Hrg.): *Die alten Übersetzungen des Neuen Testaments, die Kirchenväterzitate und Lectionare* [ANTT 5]. Berlin-New York 1972. B.M. Metzger, *The Early Versions of the New Testament. Their Origin, Transmission and Limitations*, Oxford 1977.

25) [원문의 각주 6번] 드문 경우에 ?표를 붙여서 어떤 결정이 충분히 확실하지 못함을 표한다.

26) [원문의 각주 7번] 고대 라틴어 번역은 아래에서 일괄적으로 'Itala'라는 전래적 개념을 사용하여 지칭한다. 라틴어 번역의 성격과 구조에 대해서는 Beuron *Vetus-Latina*-Institut의 간행물들을 참조하라.

공동서신에서

Bd. 26/1 der Vetus Latina, hrsg. von W. Thiele 1956-1969.

사도행전, 로마서-갈라디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위한 정보는 <부록 I>에 기입되어 있는 사본들의 대조에 근거한다.

라틴어 번역본은 다음과 같은 약자로 인용된다.

it(= Itala)는 고대 라틴어 증거들의 모두 또는 대다수를 총괄한다.

개개의 고대 라틴어 사본들은 재래적인 약자와 문자로 표시된다.²⁷⁾ <부록 I>을 보라. 숫자는 뷰론(Beuron)이 매긴 사본목록 번호이다.

vg(= Vulgata)는 불가타 번역본의 가장 중요한 간행본들이 동일한 그리스어 읽기를 지지하는 경우에 표시된다.

개개의 불가타 간행본은 다음과 같은 약자로 표시된다.

Biblia Sacra Vulgatae Editionis Sixti Quinti Pont Max. iussu recognita atque edita(vg^{cl}= *Editio Clementina*), Rom 1592.

Biblia Sacra Vulgatae Editionis ad concilii Tridentini praescriptum emendata et a Sixto V. P. M. recognita et approbata(vg^s=*Editio Sixtina*). Rom 1590(wird nur bei Abweichung von vg^{cl} genannt).

Novum Testamentum Domini Nostri Iesu Christi Latine Secundum Editionem Sancti Hieronymi, ed. J. Wordsworth, H. J. White *et al.*, Oxford 1889-1954(vg^{ww}= *Wordsworth/White*).

Biblia Sacra iuxta Vulhatam versionem, adiuvantibus B. Fischer OSB cum sociis H. J. Frede, J. Frede, J. Gribomont OSB, H. F. D. Sparks, W. Thiele, Stuttgart 1983(vgst= *Vulgata Stuttgariensis*).

vg^{ms/mss}는 vg와 차이가 나는 몇몇 불가타 사본을 가리킨다.

latt는 전체 라틴어 번역 전승이 동일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하는 경우에 사영된다.

27) [원문의 각주 8번] 이중 언어 대조본인 D(05/06), F(09/010), G(011/012)에 들어 있는 라틴어 본문 d, f, g는 그들의 헬라이어 짝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인용된다.

lat(t)는 전체 라틴어 번역 전승이 단지 몇몇 증거만 예외로 하고 동일한 그리스어 읽기를 증거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예외적인 증거들은 번역본 내적으로 조건지어진 차이를 나타낸다.

lat는 고대 라틴어 번역의 일부와 불가타(Vulgata)가 증거하는 읽기를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시리아어 번역들

시리아어 번역본에는 Vetus Syra(약 3/4세기), Peschitta(약 4/5세기), Philoxeniana(507/08년), Harklensis(515/16년)가 있다. 이들은 번역의 의도가 각각 다르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초기에는 대단히 자유로운 의역이 실시되었으나 나중에는 시리아어의 표현으로는 어색할 정도로 그리스어 대본에 될 수 있는 대로 부합하는 번역으로 나아갔다. 이 번역본들을 그리스어 본문의 증거들로 이용할 때에는 이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후대의 자구적, 형식적 번역이 비교적 가장 자주 인용된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가장 명확하게 그 대본을 재구성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시리아어 번역본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Vetus Syra는 두 가지 사본으로 보존되어 있다. 그 하나는 Syrus Sinaiticus이며 다른 하나는 Syrus Curetonianus이다. 이 두 사본은 본문상의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따로따로 떼어서 인용된다. 그들은 번역 문체가 동일하며 일치점들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사복음서의 가장 이른 시리아어 번역임을 입증한다. Syrus Curetonianus는 Syrus Sinaiticus에 담겨 있는 더 오래된 번역의 개정된 형태를 제공한다. 이 사본들은 다음과 같은 간행본에 의거하여 인용된다.

sy^s(=Syrus Sinaiticus). The Old Syriac Gospels or Evangelion da-mepharresh , being the text of the Sinai or Syro-Antiochene Palimpsest, ed. by Agnes Smith Lewis. London 1910.

이 복음서 사본(4/5세기의 재생 사본)은 다음과 같이 공백이 있다.

마6:10-8:3; 16:15-17:11; 20:25-21:20; 28:7-끝, 막1:1-12; 1:44-2:21; 4:18-41; 5:26-6:5. 눅1:16-38; 5:28-6:11. 요1:1-25; 1:47-2:15; 4:38-5:6; 5:25-46;

14:10-11; 18:31-19:40.

sy^c(=Syrus Curetonianus). *Evangelion da-mepharresh*. *The Curetonian Version of the Four Gospels*, ed. by F. Crawford Burkitt. Cambridge 1904.

D. L. McConaughy, "A recently discovered folio of the Old Syriac(Sy^c) text of Luke 16:13-17:1" *Biblica* 68(1987): 85-88.

이 복음서 사본(5세기의 양피지 사본)도 역시 결함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공백을 보인다.

마8:23-10:31; 23:25-끝까지; -막1:1-16:17 -눅1:1-2:48; 3:16-7:33; 24:44-51 -요1:42-3:5; 8:19-14:10; 14:12-15; 14:19-21,24-26; 14:29-끝까지.

sy^p (=Peschitta). Peschitta는 시리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히 유포된 번역이다. Peschitta에는 비교적 짧은 공동서신들과 요한계시록이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Peschitta는 영국 해외 성서공회의 간행본에 의거하여 인용된다.

J. Pinkerton and R. Kilgour, *The New Testament in Syriac*, London 1920(frequently reprinted).

이 간행본에는 비평 자료가 없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에 지칭한 비평적 간행본의 본문을 채택한다.

Ph. E. Pusey and G. H. Gwilliam, *Tetraevangelium Sanctum iuxta simplicem Syrorum versionem*, Oxford 1901.

이 밖에 Peschitta에 관한 정보는 아래(26쪽) sy^h로 표시된 항목에서 언급한 간행물을 참조하라. ANTT 7, 104-110쪽과 ANTT 14, 47-59쪽에 실린 Aland 및 Aland/Juckel의 글과 서론.

sy^{ph} (= Philoxeniana)는 최초의 단권 시리아어 성서 번역이다. 이것은 507/508년에 Mabbug이 Philoxenos 주교가 번역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통째로 분실되었고 다만 짧은 일반 서신들(벤험, 요이/삼, 운)과 요한계시록이 몇몇 사본으로 보존되어 있다. 이 사본들이 Philoxenia 번역본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쨌든 이것은 6세기의 번역이다. 이것은 다음 간행본에 의거하여 인용된다.

John Gwynn(ed.), *Remnants of the Later Syriac Versions of the Bible*, Part I: *New Testament, the Four Minor Catholic Epistles in the Original Philoxenian Version*, London/Oxford 1909(Amsterdam 1973).

John Gwynn(ed.), *The Apocalypse of St. John in a Syriac version hitherto unknown*, Dublin/London 1897(Amsterdam 1981).

이 밖에 Philoxenia 번역본에 관한 정보는 아래(26쪽) sy^h로 표시된 항목에서 언급된 간행물을 참조하라. ANTT 7, 128-36쪽에 실린 B. Aland의 글과 서론. Philoxenia 번역본은 짧은 일반서신들과 요한계시록 외에는 결국 Philoxenos의 후기 문서에서 끌어 낸 것이다.

sh^h (= Harklensis)는 Harkel의 Thomas가 번역한 것이다. 발행 연도는 616년부터이다. sh^h는 신약성서 전체가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시리아어 번역이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직도 옛 *Editio princeps* 판에 의거하여 인용해야 한다. *Editio princeps* 판에는 본질적으로 New College 333(Bodleian Library, Oxford)이 바탕에 깔려 있다. 편집자 J. White가 착오로 이 New College 333을 Philoxenia 번역본과 동일시켰다.

Sacrorum Evangeliorum versio Syriaca Philoxeniana cum interpretatione et annotationibus(Oxford 1778). *Actuum Apostolorum et Epistolarum tam Catholicarum quam Paulinarum versio Syriaca Philoxeniana cum interpretatione et annotationibus*(Oxford 1779-1803).

White가 대본으로 사용한 사본은 히브리 11:27에서 끝난다. 히브리서의 나머지 부분과 요한계시록은 다음 간행판에 의거해서 인용된다.

R. L. Bensly, *The Harklean Version of the Epistle to the Hebrews Chap. XI.28-XIII.25*. Cambridge 1889.

A. Vööbus, *The Apocalypse in the Harklean version. A facsimile Edition of MS. Mardin Orth. 35, fol. 143r-159v*(CSCO 400/subs. 56), Louvain 1978.

Harkel 번역본의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및 긴 공동서신들은 다음의 새 간행판에 의거하여 인용한다. 이 간행본에는 시리아 교회의 저작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인용들을 포함하여 신약성서의 시리아어 번역 전승의 전체가 기록되어 있다.

B. Aland, in conjunction with A. Juckel, *Das Neue Testament in syrischer Überlieferung I. Die Grossen Katholischen Briefe, hrsg. und untersucht*, ANTT 7, Berlin-New York 1986.

B. Aland, A. Juckel, *Das Neue Testament in syrischer Überlieferung II. Die Paulinischen Briefe, Teil 1: Römer- und 1. Korintherbrief, hrsg. und untersucht*, ANTT 14, Berlin-New York 1991.

Harkel 번역본에는 비평 자료가 들어 있다. 번역자가 비평 부호 또는 난외에 그리스어 본문의 변이형들의 읽기를 제공함으로써 자기가 번역에 사용하는 그리스어 대본과 차이가 나는 것들을 명시했다. 시리아어 번역에 제시된 이 변이형들은 대부분 아마도 *Versio Philoxeniona*(이 점에 대해서는 ANTT 14, 36-39쪽을 보라)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이 변이형들은 다음과 같은 부호를 사용하여 표시된다.

sy^{hmg}는 Harklensis의 난외 읽기를 가리킨다. 이것은 Harkel 번역본의 본문 속에 번역된 읽기와 차이가 나는 그리스어 읽기에 소급하는 것이다.

sy^{h**}는 비평 부호(별표와 metobelos)를 사용하여 Harklensis 본문 안에 포함시킨 읽기를 가리킨다. 그렇게 표시된 읽기는 번역자의 그리스어 대본과 일치하지 않는다.

시리아어 번역본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총괄 기호가 이용된다.

sy는 문제된 곳에 존재해 있는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이 상응하는 그리스어 변이형을 증거한다는 것을 뜻한다. 괄호를 친 것은, 그리스어 사본의 경우에 서처럼(12쪽을 보라), 그들이 증거하는 변이형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sy)는 문제된 곳에 존재해 있는 모든 시리아어 사본들이 상응하는 그리스어 변이형을 증거하되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표시한다.

sy^(p)는 문제된 곳에 존재해 있는 모든 시리아어 번역들이 상응하는 그리스어 변이형을 증거하지만 오직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번역본만이 이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표시한다.

(sy^s), (sy^c) 등등은 괄호 안에 들어 있는 시리아어 번역본이 상응하는 그리스어 변이형과 약간의 차이 있음을 표시한다.

콥트어 번역들

이른바 콥트어는 여러 가지 방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콥트어는 기독교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신약성서의 번역들은 3세기에 시작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방언들이 사용되어 있다.

ac = Akhmimic

ac² = Subakhmimic(=Lycopolitanic)

bo = Bohairic

mae = Middle Egyptian(=Mesokemic)

mf = Middle Egyptian Fayyumic

pbo = Proto-Bohairic

sa = Sahidic

전체 신약성서의 번역은 Sahid 방언과 Bohair 방언으로 된 것이다. 아마도 Faijum 방언과 중부 이집트 방언으로 된 신약성서의 번역본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Sahid 번역본과 Bohair 번역본은 서로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어 사본의 본문으로부터 직접 옮겨진 것이다. 어쨌든 이 두 번역본이 서로 의존함이 없이 어느 범위에까지 나머지 방언들로 생기게 되었는지를 확정할 수 없다.

부가적인 표시를 붙이지 아니한 부호는 각각 그 해당 방언의 사본 전송 전체를 지시한다. ac, ac² 등등.

콥트어 번역본들을 총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총괄 기호가 사용된다.

co는 문제된 곳에 존재해 있는 모든 콥트어 번역본들이 제시된 그리스어 변이형을 증거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Sahid 번역본과 Bohair 번역본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어깨표를 첨가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본들이 제시된 읽기를 대변하는지를 표시한다. Sahid 번역본의 증거는 그 수가 빈약하고 Bohair 번역본의 증거는 그 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일한 어깨표를 붙이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수량은 각각 다르다.

sa^{ms}, bo^{ms}는 한 Sahid 사본 또는 한 Bohair 사본이 제시된 변이형을 증거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sa^{mss}는 둘 또는 그 이상의 Sahid 사본들이 제시된 변이형을 증거한다는 것

을 표시한다.

bo^{mss}는 두 서너 개의 Bohair 사본들이 제시된 변이형을 증거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bo^{pt} (= bo^{partim})은 다섯 또는 그 이상의 Bohair 사본들이 제시된 변이형을 증거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Horner(아래 설명을 보라)가 발행한 간행본에서 총괄 기호(어깨표를 달지 아니한 약자 기호)를 사용하여 같은 소속임을 표시한 모든 Bohair 사본들은 한 개의 증거로 평가된다. Horner가 그들을 구별하는 경우에만 그들은 여러 개의 증거로 간주된다.

bo^{ms/ms} 또는 bo^{mss}가 나머지 Bohair 전승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것은 bo라는 약어으로써 표시된다. bo^{pt}가 나머지 Bohair 전승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bo^{pt}라는 약어으로써 표시된다.

Sahid 전승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증거물의 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다. 그러므로 sa^{ms} 또는 sa^{mss}가 나머지 Sahid 전승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도 역시 sa^{ms} 또는 sa^{mss}로 표시된다.

() 표: 어떤 번역본이 괄호 안에 묶여 있으면 그것은 그 번역본의 그리스어 대본은 그 번역본이 지지하는 변이형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간혹 한 가지 번역본이 동일한 곳에 이러 저러한 여러 변이형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 방법이 사용된다.

bo? sa? 등등: 의문 부호가 붙은 번역본은 제시된 변이형을 아주 확실하게는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한다.

sa? - sa? / bo? - bo? 등등: 한 곳에서 어떤 번역본의 한 가지 표현의 밑바탕에 두 개의 상이한 변이형이 놓여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이 부호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하나의 제3 가능성은 확실하게 배제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마 5:32¹ 참조).

이 표시는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으뜸되는 변이형과 약간의 차이만 있을 경우에는 사용되지 아니한다(본보기로 막 1:1¹ *txt* 참조; 괄호 안에 묶인 종속 변이형인 경우에는 번역본들에 ?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비록 이 번역본들이 또한 그 종속 변이형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콥트어 번역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간행본들과/또는 사본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사히드 방언:

G. Horner, *The Coptic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in the Southern Dialect, otherwise called Sahidic and Thebaic*, 7 vols., Oxford 1911-1924.

R. Kasser, *Papyrus Bodmer XIX, Évangile de Matthieu XIV, 28-XXV III, 20; Épître aux Romains, I, 1-II,3 en sahidique*, Geneva 1962(used for Mt, IV/V cent.).

H. Quecke, *Das Markusevangelium saïdisch. Text der Handschrift PPalau Rib. Inv. Nr. 182 mit den Varianten der Handschrift M 569*, Barcelona 1972(MK, V cent.).

H. Quecke, *Das Lukasevangelium saïdisch. Text der Handschrift PPalau Rib. Inv. Nr. 181 mit den Varianten der Handschrift M 569*, Barcelona 1977(LK, V cent.).

H. Quecke, *Das Johannesevangelium saïdisch. Text der Handschrift PPalau Rib. Inv. Nr. 183 mit den Varianten der Handschriften 813 und 814 der Chester Beatty Library und der Handschrift M 569*, Barcelona 1984(Jn, V cent.).

H. Thompson, *The Coptic Version of the Acts of the Apostles and the Pauline Epistles*, Cambridge 1932: Chester Beatty Codex A/B(Ac and Paul, A ca. 600, B VII cent.).

K. Schüssler, *Die Katholischen Briefe in der kopitschen(sahidischen) Version*, [Pierpont Morgan M 572], CSCO 528/529, Louvain 1991 (Catholic letters, IX cent.)

보하이르 방언:

G. Horner, *The Coptic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in the Northern Dialect, otherwise called Memphitic and Bohairic*, 4vols., Oxford

1898-1905.

아크뮴 방언:

F. Rösch, *Bruchstücke des ersten Clemensbriefes nach dem achmimischen Papyrus der Straßburger Universitäts- und Landesbibliothek mit biblischen Texten derselben Handschrift*, Straßburger Universitäts- und Landesbibliothek mit biblischen Texten derselben Handschrift, Straßburg 1910(Jn, Jas, IV cent.).

아크뮴 방어 방계:

H. Thompson, *The Gospel of St. John according to the earliest Coptic manuscript*, London 1924(Jn, IV cent.).

중부 이집트어:

H.-M. Schenke, *Das Matthäus-Evangelium im mittelägyptischen Dialekt des Koptischen(Codex Scheide)*, Berlin 1981(Mt IV?/V cent.).

H.-M. Schenke, *Apostelgeschichte I, 1-15,3 im mittelägyptischen Dialekt des Koptischen(Codex Glazier, G67)*, Berlin 1991(Ac, V cent.).

중부 이집트 파음방언:

E. Husselman, *The Gospel of John in Fayumic Coptic(P. Mich Inv. 3521)*, Ann Arbor 1962(Jn, IV/V(?)cent.).

원 보하이르 방언:

R. Kasser, *Papyrus Bodmer III, Évangile de Jean et Genèse I-IV,2 en bohairique*, CSCO 177, Louvain 1958(Jn, IV/V(?)cent.).

그 밖의 번역들

아르메니아어, 게오르기아, 고트어, 에티오피아어, 고대 교회계 슬라브어 번역들은 이 비평본에서는 단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용된다. 그런데 그것도 특별히 그들의 증거가 어떤 곳의 복잡다단한 변이형 안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 그러하다(막 16:8 참조). 이러한 처리 방식은 다른 중요한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몇 십년 동안에 아르메니아어, 게오르기아어, 에티오피아어, 고대 교회계 슬라브어 번역본의 몇몇 중요한 특별 간행본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각 언어의 번역 전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완결되지 아니했다. 특히 그리스어 본문 전승에 대한 각 번역본의 관계와 그 번역본들의 생성 과정은 해명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본들의 철저한 인용은 아직 단념하더라도 무방하다. 이 번역본들에는 다음과 같은 간행본들이 중요하다.

아르메니아어:

Yovhannes Zöhrapan, *Astuaca s̄ un c̄ ' Matean Hin ew Nor Ktakaranac'*, IV, Venice 1805.

Fr. Macler, *L'Évangile arménien. Édition phototypique du manuscrit n^o 229 de la Bibliothèque d'Etchmiadzin*, Paris 1920.

Beda O. Künzle, *Das altarmenische Evangelium. Part I. Edition: Part II. Lexikon*, Bern 1984.

게오르기아어:

Robert P. Blake, *The Old Georgian Version of the Gospel of Matthew from the Adysh Gospels with the Variants of the Opiza and Tbet' Gospels, ed. with a Latin translation*(PO XXIV, 1), Paris 1933.

—, *The Old Georgian Version of the Gospel of Mark...* (Po XX, 3), Paris 1928.

—, and Maurice Brière, *The Old Georgian Version of the Gospel of John...*(PO XXVI, 4), Paris 1950.

Maurice Brière, *La version géorgienne ancienne de l'Évangile de Luc, d'après les Évangiles d'Adich, avec les variantes des Évangiles d'Opiza et de Tbet', éditée avec une traduction latine.*(PO XXVII, 3), Paris 1955.

Gérard Garitte, *L'ancienne version géorgienne des Actes des Apôtres d'après deux manuscrits du Sinai(Bibliothèque du Muséon 38)*, Louvain 1955.

K'. Dzocenidze and K'. Daniela, *Pavles epistolet'a k'artuli versiebi*, Tiflis 1974.

K' Lort'kip'anidze, *Kat'olike epistolet'a k'art'uli versiebi X-XIV saukunet'a helnacerebis mihedvit'*, Tiflis 1956.

I. Imnašvili, *Iovanes gamoc'hadeba da misi t'argmaneba. Dzveli k'art'uli*

versia, Tiflis 1961.

고트어:

W. Streitberg, *Die gotische Bibel* (Germanische Bibliothek II, 3), Heidelberg 1908(2nd revised ed. 1919; 5th ed. revised by E. A. Ebbinghaus 1965).

에티오피아어:

Petrus Aethiops, *Testamentum Novum cum Epistola Pauli ad Hebraeos*, Rome 1548.

T. Pell Platt, *Novum Testamentum Domini nostri et Salvatoris Jesu Christi Aethiopice*, London 1830.

L. Hackspill, "Die äthiopische Evangelienübersetzung(Math. I-X)", *Zeitschrift für Assyriologie* 9 (1896)117-196; 367-388.

Rochus Zuurmond, *Novum Testamentum Aethiopice. The Synoptic gospels.*

General Introduction, Edition of the Gospel of Mark(Äthiopistische Forschungen 27), Stuttgart 1989.

J. Hofmann, *Die äthiopische Übersetzung der Johannes-Apokalypse*(CSCO 281/282, script. aeth. 55/56), Louvain 1967.

S. Uhlig and J. Hofmann, *Novum Testamentum Aethiopice. Die Katholischen Briefe*(Äthiopistische Forschungen 29), Stuttgart 1993.

고대 교회 슬라브어:

V. Jagić, *Quattuor evangeliorum codex glagoliticus olim Zographensis nunc Petropolitanus*, Berlin 1879(Graz 1954).

—, *Quattuor evangeliorum versionis palaeoslovenicae codex Marianus glagoliticus*, Berlin 1883(Graz 1960).

J. Vajs, *Evangelium sv. Matouše. Text rekonstruovaný*, Prague 1935.

—, *Evangelium sv. Marka. Text rekonstruovaný*, Prague 1935.

—, *Evangelium sv. Lukáše. Text rekonstruovaný*, Prague 1936.

—, *Evangelium sv. Jana. Text rekonstruovaný*, Prague 1936.

—, and J. Kurz. *Evangelium Assemani. Codex vaticanus 3. slavicus glagoliticus*. 2 vols. Prague 1929/1955.

V. Scepkin, *Savvina kniga*, St. Petersburg 1903(Graz 1959).

Ae. Kalūzniacki, *Actus epistolaeque apostolorum palaeoslovenice ad fidem codicis Christinopolitani*, Vienna 1896.

G. A. Il'inskij, *Slepčenskij apostol XII veka*, Moscow 1912.

D. E. Stefanovic, *Apostolos-Lektionar aus Sisatovac in der Fruska Gora aus dem Jahre 1324*[forthcoming].

R. Kovācević and D. E. Stefanović, *Matičin-Apostol(13. Jn.)*, Belgrade 1979.

Arch. Amfilochij, *Apokalipsis XIV veka Rumjancevskago muzeja* Moscow 1886.

4. 교부들의 인용문

교부들의 글에 인용된 신약성서의 글귀를 근거로 하여 추론하면 그 인용된 본문 유형이 사용되던 시기와 지역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인용문들은 본문의 역사와 본문의 구성을 탐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저술가가 인용한 그 신약 본문을 가능한 한 어떻게 해서든지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 저술가가 즉석에서 자의로 변경한 부분을 알아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비평본에서는 교부들의 인용문을 채택하는 데 두 가지 으뜸되는 기준을 적용했다. 첫째, 인용문은 본문비평 작업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저술가가 인용한 신약성서 본문 바로 그대로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인용하는 저술가의 손에서 생겨난 풀이, 변경, 단순한 변죽올리기는 일반적으로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비평본의 비평 자료란에 수록될 가치가 없다. 둘째, 한 인용문은 분명하게 신약성서의 어느 곳에서 인용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관복음서 분야에서 비슷한 구절들을 맞물려 인용한 것들이나 서로 조화시켜 인용한 것들은 고려되지 아니했다. 사용자는 어떤 개개의 곳에 꼭 필요한 정보가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에도 위의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기는 장점은 제시된 증거에 더욱 더 큰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교부들에 대한 본문비평적 정보 전체를 최신의 학문적 간행본에 의거하여 검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오로지 그리스 교부들과 라틴 교부들만 제시되었다. 시리아 교부들과 콥트 교부들에서 유래한 정보는 언급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증언이 충분히 대변되지도 못했으며 또한 그들의 언명이 그리스어 본문 전승을 규명하는 데 차지하는 가치가 명백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6-8세기에 속하는 몇몇 후기 그리스 교부들도 더 이상 고려되지 아니했다. 선발의 중점은 특별히 중요한 초기 그리스 교부들에게 두었다. 제한적 채택 기준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제공되었다.

이레니우스(Irenaeus)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가 인용한 성서 구절들은 비평 자료가 제시된 모든 곳에 완벽하게 채택되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본문비평적 관점에서 이 교부들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새로이 대조 조사하는 작업이 그 밑바탕에 놓여 있다. 히폴리투스(Hipolytus), 오리게네스(Origenes), 메토디우스(Methodius),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 에피파니우스(Epiphanius)가 인용한 성서 구절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철저하게 제시되었다. 다만 남아 못쓰는 옛 판들 안에 들어 있는 그들의 몇몇 작품들은 여기에서 예외이다. 1739년 그리스어 사본의 난외주에 표시되어 있는 교부들의 읽기들이 새로 채택되었다. 마찬가지로 2세기의 이른 저술가의 인용문들도 명확하게 신원이 밝혀진 본문을 지시하는 한 새로 제시되었다. 부호표에 명시된 나머지 모든 저술가들에 대해서는 매 인용마다 점검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 간행본들에 따라 수정을 했다. 그리고 또한 가능한 한 정보를 증대시켰다. 그러나 회중판 비평성서의 자료란에 이미 허용되어 있는 공간 때문에 여기에 한계가 그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교부들이 인용한 글을 통하여 단지 간접적으로 전해진 저술가들은 그들의 원천을 어깨표로 지시하여 표시된다(Mar[us]/Marcosii^{ir} 참조).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영지주의자 테오도투스(Theodotus)이다. 그는 C1^{exThd}라는 부호로 표시되는데 그것은 Excerpta ex Theodoto라는 그의 저작품 안에 들어 있는 원래의 인용과 클레멘트의 편집자적 가필 사이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마르시온(Marcion)이 기록한 것에서 인용된 것은 누가 인용한 것인지 그 출처를 밝혔다. 즉 그 정보가 테툴리안(Tetullian) 또는 에피파니우스(Epiphanius) 또는 아다만티우스(Adamantius)에게서(Mcion^{T/E/A} 참조) 채용된 것인지를 그때그때 표시했다. 이처럼 본문의 전승을 바로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자는 이로써 어떤 정보의 신빙성에 대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마르시온(Marcion)의 발행물이 어떤 본문을 제공했었느냐는 물음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해명되지 아니했다. 그리스어 신약성서 27판에서는 마르시온(Marcion)에 대한 표시는 위에서 언급한 직접적 원천에만 국한했다. 나머지 그리스 문헌과 라틴 문헌에서 얻어낸 마르시온의 글 인용은 다만 이따금씩 고려했을 따름이다.

라틴 교부들이 인용한 것들도 그리스 교부들의 인용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테툴리안(Tertullian)과 키프리안(Cyprian)은 새롭게 손질되었다. 중요한 인용 자료를 가진 저술가들에게 있어서는 8세기에 이르기까지의 교부들에게서 얻어 낸 정보를 채택했다.

교부들의 인용문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약어들과 부호들이 사용되며 그 뜻은 다음과 같다.

(): 괄호 안에 제시된 것은 그것이 지지하는 변이형과 약간 차이가 있다.

ms.mss.: 그 제시된 변이형을 지지하는 신약성서 사본들의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어떤 교부가 알고 있다.

txt-com: 교부들의 주석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석을 하도록 앞서 놓여 있는 성서 본문(txt)과 주석 부분에 근거하여 구성해 낸 본문의 글발(com)이 구분된다²⁸⁾. 전자를 또한 레마(lemma)라 부르기도 한다.

lem: 이 읽기는 레마(lemma), 즉 잇달아서 제시된 성서 본문에서 나온 것이다. 주석 부분으로부터 이러한 종류의 표시는 그 교부의 성서 본문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된다(이러한 표시가 있는 곳에는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다).

pt/dt(partim/partim): 어떤 교부가 동일한 성서 구절을 여러 번 인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여러 가지 변이형으로 제시한다. 이 양쪽 부호는 서로 서로 보완한다. 그래서 가능한 곳에서는 언제나 둘 다 표시된다.

한쪽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다음 둘 중의 하나이다. 즉 본문 안에 제시된 읽기가 비평 자료란에 제시된 하나의 변이형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또는 그 교부가 이 비평 자료란의 변이형 제시의 틀에 적합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읽기를 더 알고 있기 때문이다.

vid(videtur): 이 부호는 그 교부가 그 제시된 변이형을 *아마도* 증거하는 듯

28) [원문의 각주 번호 9] 이러한 종류의 구별은 주석서에서 자주 마주치게 된다. 잇달아 제시된 성서본문은 그 주석서의 후대의 필사본에서 하나의 다른 형태의 신약성서 본문으로 대치된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므로 주석 부분에서 인용된 것이 그 교부의 성서 본문을 더 신빙성 있게 반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 보인다는 뜻이다. 이러한 표시를 붙여 제공된 정보는 충분히 확실히 근거지을 수 없다.

^{v.l.}(*varia lectio*): 어떤 교부의 사본 전승에서 단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본이 비평 자료란에 제시된 그 변이형을 증거한다.

1739^{mg}: 1739번 그리스어 사본의 난외주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교부의 읽기(예를 들면, 엡 3:18).

교부의 표시 약어²⁹⁾

Acac	아카시우스	Acacius Caesariensis	†366
Ad	아다만티우스	Adamantius	300/350
Ambr	암브로스	Ambrose	†397
Ps Ambr	위(僞) 암브로스	Ps Ambrose	
Ambst	암브로시아스터	Ambrosiaster	366-384
Apr	아프링기우스	Apringius Pacensis	531-548
Arn	(젊은) 아르노비우스	Amobius the Younger	†p. 455
Ath	아디나시우스	Athanasius of Alexandria	†373
Athen	아데나고라스	Athenagoras	a.180
Aug	어그스틴	Augustine	†430
Basil ^{Cl}	바실리데스(클레멘트에 따른)	Basilides according to Clement	II
Bas	가이사라의 바실	Basil of Caesarea	†379
Bas A	앙카라의 바실	Basil of Ancyra	†ca. 374
Bea	베아투스	Beatus of Liébana	VIII
Beda	존엄한 베다	The Venerable Bede	†735
Cass	카시오도루스	Cassiodorus	†p.580
Chr	요한 크리소스톰	John Chrysostom	†407
Cl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Clement of Alexandria	†a. 215
Cl ^{lat}	클레멘트(라틴어 번역에 따른)	Clement of Alexandria, Latin translation	
Cl ^{exThd}	클레멘트(데오도투스에서 발췌된)	Clement <i>ex Theodoto</i>	
Cl ^{hom}	위(僞)-클레멘트의 설교	Ps-Clementine homilies	IV?
2Cl	클레멘트 2서	II Clement	II
Cn	요한 카시안	John Cassian	†ca. 435
Cyp	시프리아	Cyprian	†258
Cyr	시릴(알렉산드리아의)	Cyril of Alexandria	†444

29) [역자 주] ‘†’ 표는 ‘죽은 해’를, ‘ca.’는 ‘대략’을, ‘p.’는 ‘이후’를, ‘a.’는 ‘이전’을 뜻한다.

CyrJ	시릴(예루살렘의)	Cyril of Jerusalem	†386
Didache	12사도의 교훈집	Didache	ca. 100
Did	디디무스(알렉산드리아의)	Didymus of Alexandria	†398
Dion	디오니시우스(알렉산드리아의)	Dionysius of Alexandria	ca. 264/265
Epiph	에피파니우스(콘스탄틴의)	Epiphanius of Constantia	†403
Eus	유세비우스(가이사라의)	Eusebius of Caesarea	†399/340
Firm	피르미쿠스	Firminus Maternus	†p. 360
Fulg	풀겐티우스	Fulgentius	†527?
GrNy	니사의 그레고리	Gregory of Nyssa	†394
Hes	헤시키우스	Hesychius	†p. 451
Hier	제롬	Jerome	†420
Hill	힐라리두스	Hilary	†367
Hipp	히폴리투스	Hippolytus	†235
Ir	이레네우스	Irenaeus	II
Ir ^{lat}	이레네우스 (라틴어 번역에 따른)	Irenaeus, Latin translation	a. 395
Ir ^{arm}	이레네우스 (아르메니아어 번역에 따른)	Irenaeus, Armenian translation	IV/V
Jul ^{Cl}	줄리우스 카시아누스 (클레멘트에 따른)	Julius Cassianus according to Clement	II
Ju	순교자 저스틴	Justin Martyr	†ca.165
Lact	락탄티우스	Lactantius	†p.317
Lcf	루시퍼	Lucifer	†ca.371
Mcion ^{T/E/A}	마르시온(테툴리안, 에피파니 우스, 아다민티우스에 따른)	Marcion according to Tertullian, Epiphanius, Adamantius Marcus	II
Marc	마르쿠스 에레미타	Marcus/Marcosians according to	†p.430
Mar ^{Ir}	마르쿠스(이레네우스에 따른)	Irenaeus	II
MVict	마리누스 빅토리누스	Marius Victorinus	†p.363
Meth	메토디우스(올림푸스의)	Methodius of Olympus	†p.250
Nic	니케타스(레메시아나의)	Nicetas of Remesiana	†p.414
Nil	닐루스(앙카라의)	Nilus of Ancyra	†ca.430
Nov	노바티아누스	Novatian	†p.251
Ophites ^{Ir lat}	오피테스(이레네우스에 따른)	Ophites according to Irenaeus	
Or	오리겐	Origen	†254
Or ^{lat}	오리겐(라틴어 번역에 따른)	Origen, Latin translation	
Or ^s	오리겐 보충물	(이 보충물은 오리겐의 요한 복음 주 석서에 보충해 넣은 긴 성서 본문(요 2:12-25)	

Oros	오로시우스	Orosius	†p.418
Pel	펠라기우스	Pelagius	†p.418
Polyc	폴리갑(서머나의)	Polycarp of Smyrna	†156
Prim	프리마시우스	Primasius	†ca.567
Prisc	프리스길리아누스	Priscillian	†385/386
Prosp	프로스퍼	Prosper	†p.455
Ptol	프톨레미	Ptolemy	a.180
Ptol ^{lr}	프톨레메(이레네우스에 따른)	Ptolemy according to Irenaeus	
Qu	콰드볼트데우스	Quodvultdeus	†ca. 453
Spec	스펙쿨룸 문서(위[僞]-어그스틴 문서)	Speculum, Ps-Augustine	V
Tert	터툴리안	Tertullian	†p.220
Thret	테오도레투스(키루스의)	Theodoret of Cyrrhus	†ca. 466
Theoph	테오필루스(알렉산드리아의)	Theophilus of Alexandria	†412
Tit	티도(보스트라의)	Titus of Bostra	†a. 378
Tyc	티코니우스	Tyconius	†p. 390
Vic	빅토리누스(페타우의)	Victorinus of Pettau	†304
Vig	비길리우스(탐수스의)	Vigilius of Thapsus	†p. 484

IV. 외측 난외와 내측 난외의 표시 사항

외측 난외에 제시된 자료는 신약성서 문서에 있는 병행절들 및 뜻이 같은 표현들을 지시한다. 그 밖에도 그것은 구약성서의 인용구절들 및 암시된 것들을 지시한다. 개개의 문서를 지칭하는 약어는 재래적인 것보다 더 간결하게 만들어졌다.,

난외에 표시한 문서의 약어

I. 구약성서의 문서들

Gn (Genesis, 창세기)

Ex (Exodus, 출애굽기)

Lv (Leviticus, 레위기)

Nu (Numeri, 민수기)

Dt (Deuteronomium, 신명기)

Jos (Josua, 여호수아)

Jdc (Judicum, 사사기)

Rth (Ruth, 룻기)

1Sm (1. Samuel, 사무엘 상)

2Sm (2. Samuel, 사무엘 하)

*(Septuaginta[70인역 그리스어 구약성서]에서는 사무엘 상하를 각각 1Rg [1. Regnorum, 첫째 열왕기], 2Rg [2. Regnorum [둘째 열왕기]]라 부른다)

1Rg (1. Regnorum, 열왕기 상)

2Rg (2. Regnorum, 열왕기 하)

*(Septuaginta에서는 열왕기 상하를 각각 3. Regnorum [셋째 열왕기], 4. Regnorum [넷째 열왕기]]라 부른다)

1Chr (1. Chronik, 역대기 상)

2Chr (2. Chronik, 역대기 하)

*(Septuaginta에서는 역대기 상하를 각각 1. Paralipomenon, 2. Paralipomenon이라 부른다)

Esr (Esra, 에스라)

Neh (Nehemia, 느헤미야)

*(Septuaginta에서는 Esdrae 2:1-10 = Esra, Esdrae 2:11-23 = Nehemia라 부른다).

Esth (Esther, 에스더)

Job (Hiob, 욥기)

Ps (Psalmen, 시편)

Prov (Proverbia, 잠언)

Ecc (Ecclesiastes, 전도서)

Ct (Canticum, 아가)

Is (Isaias, 이사야)

Jr (Jeremia, 예레미야)

Thr (Threni, 애가)

Ez (Ezechiel, 에스겔)

Dn (Daniel, 다니엘)

Hos (Hosea, 호세아)

Joel (요엘)

Am (Amos, 아모스)

Ob (Obadja, 오바댜)

Jon (Jona, 요나)
Mch (Micha, 미가)
Nah (Nahum, 나훔)
Hab (Habakuk, 하박국)
Zph (Zephania, 스바냐)
Hgg (Haggai, 학개)
Zch (Zacharja, 스가라)
Ml (Maleachi, 말라기)

II. 구약성서의 경외전과 위전

3Esr (3. Esra, 셋째 에스라)
4Esr (4. Esra, 넷째 에스라)
*(Septuaginta에서는 Esdrae 1 = 셋째 에스라)
1Mcc (1. Machabaeorum, 첫째 마카비서)
2Mcc (2. Machabaeorum, 둘째 마카비서)
3Mcc (3. Machabaeorum, 셋째 마카비서)
4Mcc (4. Machabaeorum, 넷째 마카비서)
Tob (Tobit, 토비트)
Jdth (Judith, 유딧)
Sus (Susanna, 수산나)
Bel (Bel et Draco, 벨과 용)
Bar (Baruch, 바룩)
EpitJer (Epitel Jeremias, 에레미야의 편지)
Sir (Jesus Sirach, 시락서)
Sap (Sapientia, 솔로몬의 지혜서)
Jub (Liber Jubiaeorum, 희년서)
MartIs (Martyrium Isaiae, 이사야의 순교)
PsSal (Psalmen Salomos, 솔로몬의 시)
Hen (Enoch, 에녹서)
AssMosis (Assumptio Mosis, 모세의 승천)
BarAp (Baruch-Apokalypse, 바룩의 묵시)
ApcEliae (Apokalypse des Elias, 엘리야의 묵시)
(열 두 족장의 유언)

TestRub (Testamentum Rubens, 구벤의 유언)
TestLev (Testamentum Levi, 레위의 유언)
TestSeb (Testamentum Seblons, 스블론의 유언)
Test.Dan (Testamentum Daniels)
TestNaph (Testamentum Naphalis, 납달리의 유언)
TestJos (Testamentum Joseph, 요셉의 유언)
TestBenj (Testamentum Benjamins, 벤자민의 유언)
VitAd (Vita Adae et Evae (아담과 이브의 생애))

III. 신약성서의 문서들

Mt (마태복음)
Mc (마가복음)
L (누가복음)
J (요한복음)
Act (Actus Apostolorum, 사도행전)
R (로마서)
1K (고린도전서)
2K (고린도후서)
G (갈라디아서)
E (에베소서)
Ph (빌립보서)
Kol (고로새서)
1Th (테살로니가전서)
2Th (테살로니가후서)
1T (디모데전서)
2T (디모데후서)
Tt (디도서)
Phm (빌레몬서)
H (히브리서)
Js (야고보서)
1P (베드로전서)
2P (베드로후서)
1J (요한일서)

2J (요한이서)

3J (요한삼서)

Jd (유다서)

Ap (요한계시록)

이 약어는 또한 <부록 I>에서도 사용된다.

이 밖에 다음과 같은 기호들이 있다.

외측 난외에 본문과 상응하는 *병행단락(Parallelperikpen)*과 *관련구절(Einzelverweise)*이 적혀 있다. 병행단락은 좀 더 큰 글자로, 관련구절은 좀 더 작은 글자로 표시되어 있다. 본문의 병행단락 범위는 이탤릭체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마 1:2의 외측 난외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2-17: L 3:23-38

여기서 '2-17'은 마태복음 1장 2-17절을 가리키며 'L 3:23-38'은 누가복음 3장 23-38절을 가리킨다. '2-27: L 3,23-38'이라고 표시된 것은 마 1:2-17과 눅 3:23-38은 병행단락임을 뜻한다.

마 1:3의 외측 난외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 3-6a: Rth 4,12.18-22
'3-6a: Rth 4,12.18-22' 라는 표시가 뜻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3-6 상반절과 룻기 4장 12절,18-22절은 관련이 있는 구절이므로 참조하라는 것이다.

신약성서의 어떤 문서의 외측 난외에서 그 문서의 어느 곳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명칭을 생략하고 장과 절만을 표시한다. 그리고 같은 장 안에서 어느 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을 생략하고 절만 표시한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0절의 외측 난외에 6,1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1절을 가리킨다. 마태복음 2장 12절의 외측 난외에는 22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것은 마태복음 2장 22절을 가리킨다.

절(節) 표시 다음에 붙어 있는 P는 그 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을 찾아가 보면 거기에 공관복음 병행구절이 적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71절의 외측 난외에 Mt 26,14p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 26:14-16절과 그것에 병행구절을 이루는 막 14:10-11과 눅 22:3-6을 함께 참조하라는 뜻이다.

감탄부호(!)는 그것이 붙어 있는 성서 구절의 외측 난외에 그 구절과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절들이 가득 표시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절의 외측 난외에 공관복음 병행구절이 제시되어 있고 그 밑에 H 4,15!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것은 히 4:15는 마 4:1-11과 막 1:12-13과 눅 4:1-13의 관련구절이며 거기에는 또 관련구절들이 더 표시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즉 히 4:15는 관련구절들 또는 암시구절들의 복합체를 대표하는 구절로서 제시된 것이다.

구약성서의 전거 표시는 특별히 달리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히브리어 성서(*Biblia Hebraica*)의 본문과 장절에 따라 표시한다.

℞ 는 70인역 그리스어 구약성서(Septuginta)를 가리킨다. 이 경우에 때때로 특정한 사본들의 별다른 일기들을 또한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 (A) 는 Codex Alexandrinus 사본(02번 사본)에 수록된 Septuaginta를 가리킨다. 그것은 신약성서의 그 본문은 Codex Alexandrinus 사본의 Septuaginta에 있는 한 읽기에 일치한다는 것을 뜻한다.

Aqu, Symm, Theo는 각각 Aquila, Symmacus, 또는 Theodotion이 번역한 그리스어 구약성서를 가리킨다.

구약성서의 직접적 인용은 본문 안에서도 이탤릭체로 두드러지게 인쇄되어 있으며 난외에서도 그 전거 표시가 이탤릭체로 인쇄되어 있다. 예를 들면 마 2:6의 외측 난외에 *Mch 5,1.3*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것은 마가 5장 1절과 3절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직접적으로 인용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마 4:4의 난외에는 *Dt 8,3; Sap 16,26*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신명기 8장 3절이 직접적으로 인용되어 있으며 솔로몬의 지혜서 16장 26절은 마 4:4에 암시적인 관련구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외측 난외에 제시하는 참조 구절은 해당 구절과 수평적인 위치에 표시된다.

수직선(∥)은 동일한 구절에 관련된 구절들의 표시가 끝마쳤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드시 요청된다. 즉 어떤 구절에 상당히 많은 수의 관련 구절들을 표시할 때에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해당 구절과 같은 높이에 나란히 배열할 수 없어서 줄을 바꾸어

계속해서 나열한 것이 그 다음 절의 관련 구절 표시란까지 침범했을 경우이다(마 6장 9절과 10절의 외측 난외주를 참조하라).

높이 올려 찍은 점(·)은 같은 절의 다른 부분에 관련되는 구절들의 표시 사이를 나눈다.

성서 구절의 장과 절을 표기할 때에 콤마(,)는 장을 표시하며 점(.)은 동일한 장 안에서 여러 절을 나열하는 경우에 절을 표시한다. 세미콜론(;)은 동일한 문서 안에서 장들을 나눌 때에 사용된다.

(*그리스어 성서 및 독일어 성서의 장절 표시 방법과 한국어 성서 및 영어 성서의 장절 표시 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1절을 표기할 때에 한국어에서는 각각 마 5:1이라고 하며 영어에서도 Mt 5:1이라고 쓴다. 이와 달리 그리스어 성서에서는 M 1,5로, 독일어에서도 Mt 5,1이라고 표기한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을 표기할 때에는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각각 마 5:3,10 그리고 Mt 5:3,10이라고 쓴다. 이와 달리 그리스어 성서와 독일어에서는 M 5,3.10 그리고 Mt 5,3.10이라고 쓴다.)

s/ss (= sequens/sequentes)는 그 다음의 한 절 또는 몇 절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가리킨다(이것은 영어 또는 독일어에서 사용되는 *f./ff.*에 해당한다). 즉 마태복음 5장 1-2절을 그리스어 성서에서 표기할 때에 M 5,1s라 하며 5장 3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몇 절을 표기할 때에는 5,3ss라 한다. (마 6:5의 외측 난외주를 참조하라. 거기에 23,5sp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5-6절과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병행절들을 참조하라는 것을 뜻한다.)

app는 그 구절에 속한 비평 자료를 관련 구절 안에 포함시킨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마 11:15의 난외주에 13,9p.43; 25,29app라고 표시되어 있다. 25,29app는 마 25:29의 비평 자료란에 제시된 것이 마 11:15에 관련구절을 이룬다는 것을 뜻한다.

의문부호(?)가 어떤 구절 표시 앞에 놓여 있으면 그것은 그 구절과 본문의 해당 구절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워 보인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마 1:2의 외측 난외에

2-17: L 3,23-38

1 Chr 1,34 · Gn

25,26; · 29,35

라고 표시되어 있다. 첫째 줄은 눅 3:23-38이 마 2:-17에 병행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와 셋째 줄은 마 1:2와 관계가 있는 구약성서의 관련구절들을 가리킨다. 1 Chr 1,3과 Gn 25,26 사이에, 그리고 Gn 25,26과 29,35 사이에 높이 올려 찍은 점(·)으로써 분리되어 있다. 그것은 그 구절들이 마태복음 1장 2절의 다른 부분들과 각각 관련된다는 것을 뜻한다. 25,26에는 성서의 문서 이름이 표시되어 있으나 29,35에는 문서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25,16과 29,35 사이에 세미콜론(;)만 찍혀 있다. 이 세미콜론은 29장 39절이 25장 16절과 마찬가지로 창세기(Gn)에 속한 것임을 나타낸다.

또 마 1:20/21의 외측 난외에는

18! | Gn 17,19

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은 마태복음 1장 20절과 관련이 있으며 창세기 17장 19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내측 난외에 이탤릭체로 표기된 아라비아 숫자(1 2 3 4 등등) 사본들에 표기되어 있는 장들의 구분을 나타낸다. 장 구분 표시에서 주의할 것은 각 문서의 맨 첫 구획에는 장 표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여기에 예외는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그리고 몇몇 서신들이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1장 23절에서 1장이 시작하여 28절에서 끝난다. 또 마태복음은 2장 1절에서 1장이 시작하여 13절에서 끝난다. 즉 막 1:1-22와 마 1:1-25는 둘 다 장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각 복음서의 내측 난외에는 정자체(正字體)³⁰로 쓴 아라비아 숫자와 로마 숫자가 위 아래로 세워져 표시되어 있다.

(보기를 들면 1 2
III X 등등이다.)

아라비아 숫자는 각 복음서의 문단 또는 단락을 지칭하는 번호이며 로마 숫자는 그 각 단락이 다른 복음서의 단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복음서의 단락을 유형별로 분류한 번호이다. (이 체계에 대한 해설은 카프리아[Caprian]에게 보낸 유세비우스[Eusebius]의 편지에 잘 나타나 있으며 복음서의 분류도표는 84-89쪽에 실려 있다.) 유세비우스는 각 복음서를 작은 의미 단위로 세분하여 번호를 달았다. 그리고 모든 단락들을 다른 복

30) [역자 주] ‘정자체’(正字體)는 이탤릭체가 아닌 보통 글씨체, 즉 여기서는 명조체(明照體)를 가리킨다.

음서에 있는 단락들과의 내용적 관련성에 근거하여 열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I에서 X까지 번호를 붙였다. 다시 말하면 아라비아 숫자는 단락으로 분할된 토막 토막의 번호이며 로마 숫자는 각 단락을 다른 복음서의 단락과의 관계성에 따라 분류한 유형 번호이다. 유세비우스는 I, II, III, IV, V, …X에 속하는 단락들을 도표로 작성해서 제시하고 그 도표를 각각 Canon I, Canon II, …Canon X으로 명명했다. Canon I은 모든 네 복음서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병행단락들을 가리킨다. Canon II-IV번은 어느 세 복음서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병행단락들을 가리키며 Canon V-IX은 어느 두 복음서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병행단락들을 가리킨다. Canon X은 네 복음서 가운데 각각 어느 하나에만 들어 있는 특수 자료를 가리킨다. 각 복음서의 매 단락을 지칭하는 아라비아 숫자와 각 단락의 유형별 성격을 분류한 로마 숫자는 언제나 문단 또는 단락이 시작하는 곳의 내측 난외에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마 1:1의 내측 난외에

1

III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1번 단락(마 1:1-16)은 정경 분류표 III번에서 병행단락들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경 분류표 III번(87쪽)을 참조하면 마태복음의 1번 단락은 누가복음의 14번 단락(= 눅 3:23-38)과 요한복음의 1번, 3번, 5번 단락(= 요 1:1-5; 1:9-10; 1:14)과 병행을 이룬다는 것을 뜻한다.

마 1:17의 내측 난외에는

2

X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2번 단락(마 1:17)은 정경 분류표 X번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2번 단락은 마태복음서에만 있는 특수 자료이다.

본문 안에 찍혀 있는 별표(*)는 사본에 표시되어 있는 장 구분이나 유세비우스가 제시한 단락 구분이 Nestle-Aland 27판의 문단 구분이나 장 구분과 다르게 나누어진 곳을 가리키기 위하여 붙여져 있다(예를 들어 눅 2:48; 딤후전 5:4 참조).

유세비우스가 고안한 단락의 번호 달기와 복음서의 분류 번호 달기에 관한 복음서의 상호 대조적 연구 체계는 복음서에 대한 주목할만한 연구 업적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은 유용하다. 왜냐하면 그 체계는 많은 사본에 사용되었으며 거기서 그것은 연속 본문을 그 순서의 파괴 없이 그 내용적 성격에 따라서 분류·조직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본들을 대조 조사하는 데 그것은 꼭 필요한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이 비평본의 사용자에게도 역시 유용할 것이다.

V. 부록

부록 I: 그리스어 사본과 라틴어 사본의 목록

<부록 I>에 있는 목록표는 본판에 사용된 모든 사본들을 망라한다. 소문자 사본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그 번호가 이중적으로 붙여졌거나 a, b, c 따위의 부호가 덧붙여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소문자 사본들은 이제 알란트(K. Aland)가 발행한 *Kurzgefaßte Liste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제2판에 매겨져 있는 새 번호가 붙여졌다(예를 들면, [2ap]: vide 2815 참조). 그러나 본판의 비평 자료란에서는 옛 번호가 아직 보유했다.

상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부호가 사본 번호 앞에 붙여서 표시된다

*는 일등급 상비 증거들에 붙인다.

(*)는 이등급 상비 증거들에 붙인다.

[*]는 사본 전체가 아니라 사본의 어떤 부분들이 일등급 또는 이등급 상비 증거들인 경우에 그 사본 번호 앞에 붙인다. 그러나 사본 목록표의 넷째 칸에서 사본의 내용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 해당 부분들을 * 또는 (*)를 붙여서 표시한다. 이 경우에 *가 표해진 부분은 일등급 상비 증거이며 (*)가 표해진 부분은 이등급 상비 증거이다(692쪽에 수록되어 있는 P/025 사본 참조).

e a p r은 사본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나타낸다(e = 복음서들, a = 사도행전과 공동서신들, p = 바울 서신들, r = 요한계시록을 가리킨다).

act, cath는 사도행전과 공동서신들 사이를 구분해야 필요가 있을 경우에 각각 사도행전 및 공동서신들을 가리킨다.

vac. (vacat = 결하다)는 공백 자리를 표한다. 사본의 내용 가운데서 결손된 부분의 범위를 정확하게 장절로 표시하고 그 앞에 이 약어를 붙인다(W/032 사본 참조). 그러나 본문의 범위가 근소한 몇 조각만 남아 있는 사본들의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간결성을 위하여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시한다. 남아 있는 내용을 표시함에 있어서 한 절 안에 단 하나의 글자만이라도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절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실은 비평 자료란에 상비 증거들을 제시한 자리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 (= 결함이 있는)는 비상비 증거들에 있어서 지적된 내용 범위의 보존 상태가 불완전함을 표시한다. 이 표는 내용 범위의 표시 뒤에 붙인다(본보기로 X/033: eK† 참조).

K는 총괄적 내용 표시 부호 뒤에 붙인다. 그것은 하나의 주석서 사본임을 가리킨다.

l은 비잔틴 교회의 성서 독법에 입각하여 복음서 본문으로 편집한 성구집이다.

성구집을 지칭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특수한 약자를 덧붙이기도 한다.

l'는 Apostolos(사도)의 본문(즉 사도행전, 공동서신, 바울 서신)으로 편집한 성구집이다.

l^a는 사도의 본문과 복음서의 본문으로 편집한 성구집이다.

U-l은 대문자로 쓴 성구집이다.

le는 한 주간의 나날(εβδομάδες)에 읽도록 편집한 성구집이다.

lesk는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까지의 주간에 나날이 읽을 것과 다른 주간의 토요일과 주일(σάββατοκυριακαί)에 읽을 것을 담은 성구집이다.

lsk는 단지 토요일과 주일에만(σάββατοκυριακαί) 읽을 것을 담은 성구집이

다.

lesI (Jerus.)는 예루살렘 규정에 입각하여 선별한(*selectae*) 날들에 읽을 것을 담은 성구집이다.

비잔틴 사본의 총괄적 목록표(713쪽 <<ad m pertinent>>를 보라)에 수록된 사본들에 대하여 다음과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 제시한 모든 사본들은 비잔틴적 본문 유형(Koine)에 속한다. 그렇지만 비평 자료로 제시되는 각 곳에서 그들이 **M**의 본문을 제공한다는 추론을 앞의 사실에서 끌어 낼 수 없다. 코이네(Koine) 사본들도 역시 그들의 각각의 대본들을 완전무결하게 복제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M**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비평 자료란에서 표시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 그리스어 성서의 편집 원칙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8쪽에 기술된 이따금 인용되는 사본들에 대한 해설 참조). 그렇지만 언급된 사본들은 일반적으로 **M**과 일치한다고 상상해도 된다.

따라서 비잔틴 사본의 목록표는 본판에서 확장하지 아니했다. 그것은 또한 의식적인 조치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목록표를 확장했다 하더라도 비평 자료에 아무런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코이네(Koine)에 속하는 사본들의 범위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저서를 참조하라.

K. Aland (ed.), *Text und Textwert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Katholische Briefe* (ANTT 9-11), *Paulinische Briefe* (ANTT 16-19), *Apostelgeschichte* (ANTT 20-21).

부록 II: 근소한 차이가 나는 변이형들(Variae lectiones minore)

이 부록은 이번 판에 새로이 첨가한 것이다. 비평 자료란에서 변이형을 제시할 때에 제시된 변이형과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는 사본을 괄호로 묶어서 표시했다(12쪽 참조). 이 부록에서는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풀어서 제시했다. 사용자는 괄호에 묶인 사본의 차이나는 글발을 알기 위해서 <부록 II>에서 그것이 나타난 문서의 장, 절과 그것을 인도한 비평 부호를 찾아가 보면 된다.

부록 III: 다른 비평본들(Editionum differentiae)

이 부록은 현대에 간행된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아주 중요한 비평본들이 이 Nestle-Aland 27판과 비교하여 본문 판단을 어떻게 다르게 했는지를 개관하게 해 준다. 장절 표시 및 비평 부호는 비평 자료란에서 문제삼고 있는 곳을 가리킨다.

다음과 같은 간행본들을 점검했으며 T, H, S, V, M, N 이라는 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했다.

- T Tischendorf, *Editio octava critica maior*, 1869/72;
- H Westcott/Hort, 1881;
- S von Soden, 1913;
- V Vogels, 1922 (⁴1955);
- M Merk, 1933 (¹⁰1968);
- B Bover, 1943 (⁵1968);
- N Nestle/Aland, ²⁵1963).

Westcott/Hort의 간행본을 언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해서 말해야 한다.

H 는 난외에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대안적 읽기를 제시하지 아니한 Westcott/Hort 본문이다.

(H) 는 난외에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대안적 읽기를 제시한 Westcott/Hort 본문이다.

h 는 Westcott/Hort 판의 난외에 제시된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하나의 대안적 독법이다.

[] 는 어느 간행본이 그 본문에서 하나의 읽기를 각괄호에 넣어서 제공했을 경우에 그 간행본을 묶는 부호이다.

기술 실례들

Mt 1:6^T V: Vogels 의 간행본은 Nestle-Aland 27판의 Mt 1:6에 표시가 있는 자리에 그것에 관련한 비평 자료란에 제시된 ὁ βασιλεύς를 첨가한다는 뜻

이다.

Mt 1:7/8^r *bis* VB: Vogels와 Bover 의 간행본은 (Mt 1:7과 1:8에서) 'Αόαφ 대신에 두 번' Αόα로 읽는다는 뜻이다.

Mt 1:5^r *bis* SVMB *ut* M : von Soden, Vogels, Merk, Bover 의 간행본은 M 과 일치하여 두 번 Βοοῖ로 읽는다는 뜻이다.

Mt 4:2^l TMN *ut* x : Tischendorf, Merk, Nestle 25판은 여기서 x와 함께 καὶ τεσσαράκοντα ἑκτας로 읽는다는 뜻이다.

Mt 1:25^o [HN]: Westcott/Hort 의 비평본과 Neste 25판은 여기서 o^o를 생략하지만 그들의 본문에는 [o^o]로 표기되었다는 뜻이다.

Mt 1:24^o TS; [HN] *ut txt*: Tischendorf와 von Soden은 여기서 'Ιωσήφ 앞에 'o를 생략하지만 Westcott/Hort와 Nestle 25판은 [o]'Ιωσήφ으로 읽는다는 뜻이다.

부록 IV: 인용되었거나 암시된 것의 출처(Loci citati vel allegati)

이 부록에는 구약성서, 구약외경, 그리고 비기독교적 그리스 저술가들로부터 인용한 것과 그러한 것을 암시해 주는 것에 대한 색인표가 담겨 있다. 이 색인표는 이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외측 난외에 제시된 전거들을 총괄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인용된 것은 *이탤릭체*로 표기되었으며 암시된 것은 *정상체*로 표기되었다.

장 매김과 절 매김은 *Biblia Hebraica* 에 따랐다. Septuaginta³¹⁾를 인용한 것과 Septuaginta를 암시한 것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Biblia Hebraica* 의 장절 매김 방법이 바탕을 이룬다(다만 그리스 본문으로만 전승된 것은 예외이다). 구약성서의 문서에서 *Biblia Hebraica* 의 장절 매김이 Septuaginta 또는 다른 번역들과 다른 경우에는 이 차이점의 대조표를 인용 목록표 앞에 제시되었다.

부록 V: 부호, 기호, 약어(Signa, Sigla, Abbreviations)

31) [원문의 각주 번호 11] A. Rahlfs 가 발행한 간행본에 따름.

이 부록에서는 서문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부호와 약어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붙였다. 라틴어 약어는 원래의 라틴어로 풀어썼다.

카피안에게 보낸 유세비우스의 편지와 대조표 I-X

유세비우스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카피안에게 문안한다.

알렉산드리아의 암모니오스는 많은 노력과 열정을 바쳐서 4복음서 공관서³²⁾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은 적절한 것이었다. 그는 마태복음에다가 나머지 복음서에서 뜻이 같은 단락을 옆에 배치했다. 그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세 복음서의 일관된 순서가 파괴되어서 그것들을 연속해서 읽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나는 암모니오스의 연구와는 별도로 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각 복음서의 개개의 단락이 진리에 대한 사랑에 촉발되어 같은 것을 진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나머지 세 복음서의 전체적 내용과 순서를 유지하면서도 복음서들 사이에 그러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열 개에 이르는 대조표를 당신에게 제시하는 바이다. 그 가운데서 제1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가 같은 것을 진술하는 단락들을 지시하는 숫자를 제시한다. 제2표는 마태, 마가, 누가의 세 복음서가, 제3표는 마, 누가, 요한의 세 복음서가, 제4표는 마태, 마가, 요한의 세 복음서가, 제5표는 마태, 누가의 두 복음서가, 제6표는 마태, 마가의 두 복음서가, 제7표는 마태, 요한의 두 복음서가, 제8표는 누가, 마가의 두 복음서가, 제9표는 누가, 요한의 두 복음서가 같은 것을 진술하는 것을 표시한다. 제10표는 네 복음서가 각각 독자적으로 무엇을 기록한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위 대조표이다.

이 대조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각 복음서에 무슨 숫자가 앞에 놓여 있는데 1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에 2, 3 이라는 숫자가 연속하면서 문서의 끝에 이르기까지 각 단락 앞에 놓여 있다. 각 숫자 밑에 붉은 색으로 쓴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그 위에 있는 숫자가 그 10개의 대조표 중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그 글자가 I이면 그것은 제1표에, II이면 제2표에, 이런 식으로 제10표까지 표시된다.

32) [역자주] 이것은 마태복음서를 기본 틀로 하고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 끌어 온 동일한 내용의 단락들을 마태복음서의 해당 단락 옆에 나란히 적어 놓은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마태복음서를 축으로 하여 만든 네 복음서 대조 성경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공관복음서 대조표> 또는 <네 복음서 대조표>와 다른 것이다. 이것은 또한 타티안(Tatian)이 만든 <디아테사론>(Diatessaron)과도 다르다. <디아테사론>은 네 복음서 통일 복음서이다. 즉 네 복음서를 조화적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복음서로 만든 종합 복음서이다.

그래서 당신이 네 복음서 가운데 어느 것이나 하나를 펼쳐서 어느 장을 상세히 연구하고 다른 복음서에서 어느 것이 유사한 것을 진술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거나 또는 같은 것을 다루고 있는 특정한 단락을 보고 싶으면 당신이 다루고 있는 그 단락에 붙어 있는 붉은 색으로 쓴 글자가 지시하는 대조표 안에서 그 수를 찾아 보면 된다. 당신은 대조표의 목록을 보고 얼마나 많은 단락이 또는 다른 복음서의 어느 단락이 당신이 추구하는 단락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지를 곧 알 수 있게 된다. 대조표에서 당신이 찾아보려고 하는 숫자에 나란히 적혀 있는 다른 복음서의 숫자를 찾아서 각 복음서의 그 해당 단락을 펼쳐보면 당신은 그 단락들이 유사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대조표 I: 네 복음서 병행

Mt	Mc	Lc	Ioh	Mt	Mc	Lc	Ioh	Mt	Mc	Lc	Ioh
8	2	7	10	98	96	116	120	220	129	261	88
11	4	10	6	98	96	116	129	244	139	250	141
11	4	10	12	98	96	116	131	244	139	250	146
11	4	10	14	98	96	116	144	274	156	260	20
11	4	10	28	133	37	77	109	274	156	260	48
14	5	13	15	141	50	19	59	274	156	260	96
23	27	17	46	142	51	21	35	276	158	74	98
23	27	34	46	147	64	93	49	280	162	269	122
23	27	45	46	166	82	94	17	284	165	266	55
70	20	37	38	166	82	94	74	284	165	266	63
87	139	250	141	209	119	234	100	284	165	266	65
87	139	250	146	211	121	238	21	284	165	266	67
98	96	116	40	220	122	239	77	289	170	275	126
98	96	116	111	220	129	242	85	291	172	279	156
294	175	281	161	314	195	291	166	332	210	318	197
295	176	282	42	314	195	291	168	334	212	321	201
295	176	282	57	315	196	292	175	335	214	324	199
300	181	285	79	318	199	300	176	336	215	317	198
300	181	285	158	320	200	302	178	336	215	319	198
302	183	287	160	320	200	302	180	343	223	329	204
304	184	289	170	325	204	310	184	348	227	332	206
306	187	290	162	326	205	311	188	349	228	333	208
306	187	290	174	326	205	313	194	352	231	336	209
310	191	297	69	328	206	314	196	352	231	336	211
313	194	294	172	331	209	315	197				

대조표 II: 세 복음서 병행

Mt	Mc	Lc	Mt	Mc	Lc	Mt	Mc	Lc	Mt	Mc	Lc
15	6	15	94	86	97	179	99	197	251	146	255
21	10	32	94	86	146	190	105	195	253	148	204
31	102	185	103	1	70	192	106	216	258	150	257
32	39	79	114	24	41	193	107	121	259	151	258
32	39	133	116	25	42	193	107	218	264	155	156
50	41	56	116	25	165	194	108	152	269	154	228
62	13	4	116	25	177	194	108	219	271	42	230
62	13	24	121	32	127	195	109	220	278	160	263
63	18	33	122	33	129	198	110	221	281	163	268
67	15	26	123	34	147	199	111	173	285	166	265
69	47	83	130	35	82	201	112	222	285	166	267
71	21	38	131	36	76	203	114	270	296	177	280
72	22	39	135	38	78	205	116	224	296	177	284
72	22	186	137	44	167	206	117	232	301	182	286
73	23	40	143	57	90	208	118	233	308	189	305
74	49	85	144	59	12	217	127	240	312	193	299
76	52	169	149	66	35	219	128	241	316	197	293
79	29	86	149	66	43	223	130	243	317	198	295
80	30	44	153	69	36	225	134	245	322	202	309
82	53	87	164	79	144	226	133	244	338	218	322
82	53	110	168	83	95	229	135	137	339	219	325
83	54	87	168	83	206	229	135	246	340	220	327
83	54	112	170	85	96	242	137	237	342	222	323
85	55	88	172	87	98	242	137	248	344	224	328
85	55	114	174	91	99	243	138	249	346	225	330
88	141	148	176	93	101	248	143	209	353	232	337
88	141	251	178	95	102	248	143	253	354	233	338
92	40	80	178	95	217	249	144	254			

대조표 III: 세 복음서 병행

Mt	Lc	Ioh	Mt	Lc	Ioh	Mt	Lc	Ioh	Mt	Lc	Ioh
1	14	1	64	65	37	111	119	148	112	119	87
1	14	3	90	58	118	112	119	8	112	119	90
1	14	5	90	58	139	112	119	44	112	119	142
7	6	2	97	211	105	112	119	61	112	119	154
7	6	25	111	119	30	112	119	76	146	92	47
59	63	116	111	119	114						

대조표 IV: 세 복음서 병행

Mt	Mc	Ioh	Mt	Mc	Ioh	Mt	Mc	Ioh	Mt	Mc	Ioh
18	8	26	204	115	135	279	161	72	307	188	164
117	26	93	216	125	128	279	161	121	321	201	192
117	26	95	216	125	133	287	168	152	323	203	183
150	67	51	216	125	137	293	174	107	329	207	185
161	77	23	216	125	150	297	178	70	329	207	187
161	77	53	277	159	98	299	180	103	333	211	203
204	115	91									

대조표 V: 두 복음서 병행

Mt	Lc	Mt	Lc	Mt	Lc	Mt	Lc	Mt	Lc	Mt	Lc
3	2	46	153	68	105	119	126	183	198	240	141
10	8	47	134	78	108	125	62	187	199	241	175
12	11	48	191	84	111	127	128	197	272	255	202
16	16	49	150	86	109	128	132	213	235	256	205
25	46	51	59	93	145	129	130	221	181	257	213
27	48	53	125	95	160	132	81	228	139	261	207
28	47	54	54	96	182	134	120	231	179	262	212
30	49	55	170	96	184	138	168	231	215	265	157
34	194	57	61	102	69	156	57	232	142	266	155
36	162	58	60	104	71	158	226	234	136	266	157
38	53	60	171	105	193	162	161	236	135	267	158
40	52	61	64	107	73	175	200	237	138	270	229
41	55	65	172	108	115	182	187	238	140	272	231
43	123	66	66	110	118	182	189				

대조표 VI: 두 복음서 병행

Mt	Mc	Mt	Mc	Mt	Mc	Mt	Mc	Mt	Mc	Mt	Mc
9	3	145	60	165	80	224	131	275	157	309	190
17	7	148	65	169	84	246	140	282	164	311	192
20	9	152	68	173	89	247	142	286	167	330	208
22	11	154	71	180	100	250	145	288	169	337	217
44	126	157	72	189	103	252	147	290	171	341	221
77	63	159	73	202	113	254	149	292	173	347	226
100	98	160	76	214	120	260	152	298	179	350	229
139	45	163	78	215	124	263	153	305	185		

대조표 VII: 두 복음서 병행

Mt	Ioh	Mt	Ioh	Mt	Ioh	Mt	Ioh
5	83	19	32	120	82	207	101
19	19	19	34	185	215		

대조표 VIII: 두 복음서 병행

Lc	Mc	Lc	Mc	Lc	Mc	Lc	Mc	Lc	Mc
23	12	27	28	89	56	103	97	277	216
25	14	28	17	91	61	247	136	335	230
27	16	84	48	100	75				

대조표 IX: 두 복음서 병행

Lc	Ioh	Lc	Ioh	Lc	Ioh	Lc	Ioh	Lc	Ioh
30	219	274	227	303	186	307	190	340	213
30	222	274	229	303	190	312	182	340	217
262	113	274	231	307	182	312	186	341	221
262	124	303	182	307	186	312	190	341	223

대조표 X: 마태 특수 단락

2	33	56	106	136	181	210	235	319
4	35	75	109	140	184	212	239	324
6	37	81	113	151	186	218	245	327
13	39	89	115	155	188	222	268	345
24	42	91	118	167	191	227	273	351
26	45	99	124	171	196	230	283	355
29	52	101	126	177	200	233	303	

대조표 X: 마가 특수 단락

19	43	58	70	81	90	94	104	132	213
31	46	62	74	88	92	101	123	186	

대조표 X: 누가 특수 단락

1	31	106	149	176	201	236	278	308
3	50	107	151	178	203	252	283	316
5	51	113	154	180	208	256	288	320
9	67	117	159	183	210	259	296	326
18	68	122	163	188	214	264	298	331
20	72	124	164	190	223	271	301	334
22	75	131	166	192	225	273	304	339
29	104	143	174	196	227	276	306	342

대조표 X: 요한 특수 단락

4	31	58	81	108	134	157	181	212
7	33	60	84	110	136	159	189	214
9	36	62	86	112	138	163	191	216
11	39	64	89	115	140	165	193	218
13	41	66	92	117	143	167	195	220
16	43	68	94	119	145	169	200	224
18	45	71	97	123	147	171	202	226
22	50	73	99	125	149	173	205	228
24	52	75	102	127	151	177	207	230
27	54	78	104	130	153	179	210	232
29	56	80	106	132	155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의 내용 및 구조적 특징에 관한 고찰

박철우

(호서대학교 신학부 겸임교수, 구약학)

1.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의 목적 및 활동 개요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는 세계 성서 번역자들을 돕는 많은 자료들을 출판하고 있는데, 그 중 7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자료들 중 하나가 ‘PIR 중간 보고서’(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 on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ual Project)이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1969년 유진 나이다를 위원장으로 하고 6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히브리어 구약 본문 프로젝트’(Hebrew Old Testament Textual Project, 이하 HOTTP)라는 연구를 시작하여 1년에 한 번씩 모여 11년 동안 히브리어 성서의 난해 본문 약 5,000여 곳을 검토하였다.

1973년부터 1980년 사이에, 5권의 ‘중간 보고서’가 나왔고, 현재까지 ‘최종 보고서’ 3권이 바르텔레미(D.Barthélemy)에 의해 편집 출판되었다. 그리고 이 최종 보고서의 해설서의 출판이 진행중에 있다(*Textual Handbook on Isaiah*, Jan de Ward, 1994).

이 보고서는 키텔히브리성서(BHK)나 슈투트가르트히브리성서(BHS)에서 본문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본문들, 즉 난해 본문들을 뽑아내어 그 해결 방안을 번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본문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뽑은 본문들은 ①히브리어 본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것, ②현재의 대표적 번역본인 영어표준개역(RSV, 1952), 불어역예루살렘성서(JB, 1956, 신판 1973), 개정된 루

터역 3판(RL, 1971), 새영어성서(NEB, 1970), 그리고 불어역에큐메닉성서(TOB, 1975) 등이 난해 본문으로 취급한 것들이다(PIR Vol. 1. p.V).

1.1. 이 위원회에서는 히브리 본문의 발달 과정을 네 국면으로 구분한다(PIR. Vol. 1. pp.VI - VII).

(1) 제1 국면 - 구전 또는 문서로 전승된 문학 본문으로서, 문학분석(literary analysis)으로 밝힐 수 있는 본래의 본문(original text).

(2) 제2 국면 - 현존하는 본문으로서 본문 비평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는 최초의 본문, 즉 '가장 초기의 것으로 증명된 본문(the earliest attested text)'이다.

(3) 제3 국면 - A.D 70년 직후 유대교 학자들이 정리한 히브리어 구약 자음 본문(consonantal text)이다. 즉 일반적으로 원 마소라 본문(Proto - Massoretic Text)이라고 하는 국면이다.

(4) 제4 국면 - A.D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확정된 마소라 본문(Massoretic Text)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본문상의 문제가 있는 본문들을 취급함에 있어 어떤 표현이 제2 국면에 해당되는 표현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1.2. 중간 보고서(PIR)의 편집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1) 해당 문제 본문의 장절이 나오고

(2) 마소라본문(MT)이 주어진다

(3) 그 다음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본문 이독이나 추정 본문을 준다.

이 히브리어 표현이 각괄호(square brackets)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증거 본문이 없는 관계로 본문이 재구축된 것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히브리 본문 형성 단계에서 제2 국면 즉 가장 초기의 것으로 증명된 본문 앞에는, 그 개연성의 정도를 표시하는 기호(A, B, C, D)가 나온다.

즉 히브리어 본문 형성 과정에서 제2 국면의 본문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 A로 표현하고, B는 약간의 의혹이 있는 경우, C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 D는 매우 의심스럽고 개연성이 아주 낮은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문제 본문의 성격은 아래 요소들을 구별하여 규정한다.

1.3. 평가 기준이 되는 세 요소(Factors of evaluation : 이에 대한 설명은 뒤쪽 2.3.3. ‘최종 보고서 약어 해설’ 참조)

(1) 한 본문 전통에서만 발견되는 異讀(Narrow basis for a variant form of the text) ; 예를 들어 헬라어역이나 시리아어역이나 라틴어역 중 오직 한 번 역에만 나타나는 이독.

(2) 여러 본문 전통에서 두루 나타나기 때문에 이본의 반영인 것 같으나, 실은 같은 해석의 경향을 보이는 이독(Deceptive broad basis for variant form of the text tradition).

(3) 이전의 한 본문 형태에서 생겨난 이독(Dependence of variety of text forms upon one earlier form). 이 경우 열쇠 본문(key)을 찾는 것이 중요함.

1.4. 수정된 본문의 수정 요인들

1.4.1. 서기관이나 번역자들의 의식적 수정

- (1) 본문의 단순화(Simplification of the text = easier reading).
- (2) 병행 본문에 동화(Assimilation to parallel passages).
- (3) 만족스러운 번역을 위해 해당 언어 구조에 맞게 재조정하는 경우 (Translational adjustments to the text).
- (4) 해석상의 필요에 의한 수정(Interpretative modifications).
- (5) 언어학적 자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야기된 것(Misunderstanding of linguistic data).

1.4.2. 무의식적 또는 기술적 실수

(1) 역사적 자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야기된 것(Misunderstanding of historical data).

(2) 비슷한 문자, 단어 또는 문장이 실수로 생략되는 경우(Accidental omission of similar letters, words, or sentences).

(3) 동일한 문자들을 실수로 반복하는 경우(Accidental repetition of identical sequences).

(4) 기타 서기관의 다른 실수들(other scribal errors).

(5) 서로 다른 본문을 융합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conflate reading and

doublets).

난해 본문을 해석한 내용을, 난해 본문 옆 또는 아래 기록했던 것을 후대 번역자나 필경사가 본래의 본문으로 오인하여 생기는 본문 융합 또는 중복어.

1.4.3. 그 이외의 요인들

- (1) 추론적 본문(conjectural form of the text).
- (2) 설명할 수 없는 본문들(Inexplicable texts).

2. HOTTP의 설립 배경과 연구 결과.

2.1. HOTTP의 설립 배경.

비록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시작된 것은 1969년에 와서이나, 그 이전에 이와 유사한 시도는 있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Vol I. pp 65 - 66, 이하 CTAT로 표기).

1720년 할레(Halle)에서, 그리고 1753년 파리(Paris)에서, 미카엘리스(J. H. Michaelis)와 우비강(Houbigant)에 의해 각각 히브리어 성서가 출판되었다.

그 후 미카엘리스(J. D. Michaelis)는 1956년 9월20일 괴팅겐(Göttingen)에서, 특히 구약 성서의 다양한 비평적 읽기를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비평적 프로젝트를 주창했다. 그러나 몇 달 후, 7년 전쟁이 일어났고, 따라서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1920년 폴쯔(Paul Volz)는 구약 성서의 원문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의했다.

1935년 괴팅겐(Göttingen)에서 개최된 구약학자들의 국제적 모임에서 폴쯔는 미카엘리스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해 '구약 본문 비평연구 계획'(Arbeitsplan für die Textkritik des Alten Testaments)을 제시했다. 그는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인 본문 비평 전문지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비평 규칙을 세우고, 검증하고 비판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하였다. 이때 구약 성서 본문 비평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이 막 행해진 참이었다. 그러나 몇년 후 2차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이 계획이 무산되었고, 폴쯔도 사망하였다.

폴쯔가 전문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던 해에, 니베르크(Henrik Samuel

Nyberg)는 독자적으로, 호세아 연구(Studien zum Hoseabuche)에서 구약 본문 비평의 방법론적 문제를 고찰하였다(‘une contribution a le clarification du probleme de la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그리고 제2차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되어, 사해 사본들이 발견되었고, 이것은 뜻밖에 고대 구약 본문의 상태와 본문의 역사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하였다.

이제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인, 거대한 방법론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9년에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제안한 계획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문화권의 6명의 개신교와 가톨릭 주석가들이 수용하였다.

이 연합회는 신약 번역자들에게 본문 비평을 돕는 비평적 작업을 막 끝낸 상태였다.

이것은 쿠르트 알란트(Kurt Aland), 매튜 블랙(Matthew Black), 까를로 마르티니(Carlo M. Martini), 브루스 메쯔거(Bruce M. Metzger)와 알렌 비크그렌(Allen Wikgren) 이렇게 5명의 위원들에 의해서 1,440개의 난해 본문에 행해진 작업이었다.

이제 이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후원하는 150개 이상의 구약 성서 번역위원회에 이와 유사한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 위원회는 최근의 번역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약 5,000개의 난해한 마소라본문(MT)에 대한 비평적 판단을 요구하였다.

구약 히브리어 성서의 본문 분석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수용한 바르텔레미(Dominique Barthelemy), 홀스트(Alexander R. Hulst), 로핑크(Nobert Lohfink), 맥하디(William D. McHardy), 피터 뤼거(H. Peter Rüger), 샌더스(James A. Sanders) 이 6명의 학자들은 이미 마소라본문(MT)의 공헌을 완성할 수 있게 하는 여러 증거 본문들을 연구한 사람들이었다. (쿰란 사본들, 헬라이어역본과 시리아어역본과 타르굼.)

그리고 이들은 히브리어 성서 편집과 성서 번역을 통해서 이미 본문의 문제들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었다. 이들은 슈트트가르트히브리 성서(BHS), 네델란드어새번역(Nieuwe Vertaling), 영어새번역성경(New English Bible), 미국새번역성경(New American Bible), 불어역에큐메니성경(Traduction Oecumenique de la Bible), 독일어공동번역성경(Einheitsübersetzung)과 관련된 작업을 하였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고찰하고자 했다.

특히 구약 성서의 본문 비평의 관점, 실제 작업과 방법론에 관한 포괄적 검

토를 하고자 했다.

1969년 독일 아놀드샤인에서 6인들의 첫 번째 모임을 가진 이후, 이 위원회는 1970년부터 1979년까지 한번에 4주씩 10회에 걸쳐서, 유진 니이다(Eugene Nida)를 위원장으로 하고, 두 명의 서기 아드리안 쉐커(Adrian Schenker)와 톰슨(John A. Thompson)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독일의 프로이텐슈타트(Freudenstadt)와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스(St. Andrews)에서 모였다.

이 위원회는 번역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가장 많이 보급된 번역 성경들의 각주나 본문 해석에 나타난 난해한 본문들을 그들의 작업의 출발점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이 성경들이 RSV, J. RL. NEB였다(후에 TOB도 포함되었음).

2.2. 중간 보고서 출판.

그들의 연구 결과가 1973년부터 1980년까지 5권의 'Compte rendu Preliminaire et Provisoire sur le travail d'analys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Hebreu(PIR)'.

Vol. 1 : le Pentateuque, 317p, London, 1973.

Vol. 2 : Livres Historiques, 556p, Stuttgart, 1976.

Vol. 3 : Livres Poetiques, 620p, Stuttgart, 1977.

Vol. 4 : Livres Prophetiques I, 355p, New York, 1979.

Vol. 5 : Livres Prophetiques II, 443p, New York, 1980.

2.3. 최종 보고서 출판.

2.3.1. 최종 보고서의 내용 및 구조적 특징.

1982년부터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라는 제목으로 최종 보고서를 출판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5권으로 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편집자는 스위스 프리부르크 대학교 주석 교수인 바르텔레미(Dominique Barthélemy)이고 제1권에서는 마소라 본문(MT)의 역사서 본문으로서 961개의 난해 본문을 다루고 있고, 1982년 출판되었다.

이 1권은 위원회의 10년 동안의 작업과 3년 간의 출판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1982년에 출판된 책이다.

피터 뤼거(H. Peter Rüger)는 본문 증거와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며 발표하였고, J.A. 샌더스(James A. Sanders)는 쿨란 자료들, 바르텔레미(Dominique Barthélemy)는 19세기까지의 주석 역사, 로퐁크(Nobert Lohfink)는 금세기의 주석에 관한 자료들, 홀스트(Alexander, R. Hulst)와 맥하디(William D. McHardy)는 소장학자들의 제안들에 관한 비평적 조언을 담당했다(CTAT. Vol. 1, p, IX).

그리고 이어서 제2권은 1986년에 출판되었다. 2권의 편집자는 역시 바르텔레미(D. Barthélemy)이고, 이 책에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800개의 난해 본문을 다루고 있다(CTAT. Vol. 2, p, XI).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총무는 이사야, 예레미야와 애가와 관련하여 RSV, J123, RL와 NEB에 마소라본문(MT)을 바꾼 경우들을 뽑았다. 이러한 경우들 중, 이 위원회는 685개의 난해 본문들을 선택하였다. 이 경우들을 다룬 결과들이 1979년에 뉴욕에서 출판된 중간 보고서(PIR) 제4권에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불어역에큐메닉성서(TOB)의 각주에 나타난 수정 본문도 참고하여 800개의 난해 본문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제2권의 중요한 특징은 1권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비평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1권에서는 본문 비평 장치에 언급된 증거 본문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평이 있었다. 그래서 위원회에 의해서 내려진 본문 선택(choix textuel) 앞에 고대 증거들(les temoins anciens)에 관한 소개를 다루었다.

이 최종 보고서의 목적이 번역자들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제안하는 부분을 설정하였다(interpretation proposee). 최종 보고서 제 2권과 제 3권의 본문 편집 구조는 다음과 같다.

- ① 본문 비평 장치(Apparat critique)
- ② 최초 번역문의 선택(Options de nos traductions)
- ③ 수정의 기원(Origines de la correction)
- ④ 고대 증거 본문(Les temoins anciens)
- ⑤ 본문 선택(Choix textuel)
- ⑥ 해석적 제안(Interpretation proposee)

각 최종 보고서의 서두에 본문 비평 장치(apparat critique : ①번 문제)의 구조에 관해 소개한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 제2권부터, 서론에서 이 다섯 개의 내용(②-⑥번 문제)을 상세하게 소개하는데, 제2권에서는 특히 위의 ②③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options de nos traductions, origine de la correction). 그리고 제3권에서는 ‘증거 본문들’(④번: les temoins textuels =

les temoins anciens)을 다룬다.

이 위원회는 본래 RSV, J, RL, NEB, TOB에 나타난 수정을 바탕으로 난해 본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RSV와 NEB가 개정되어 NRSV(New Revised Standard Version)와 REB(Revised English Bible)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제3권의 출판 준비가 이미 너무 진행되어 여기에는 참고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4권과 5권에서는 이 최근의 두 번역의 선택도 참고가 될 것이다 (CTAT. Vol. 3, p, XIX).

제3권은 1992년에 출판되었다. 제3권에서 에스겔, 다니엘과 12소예언서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것은 중간 보고서(PIR)의 제5권에 해당된다.

이 중간 보고서(PIR) 제5권에서는 883개의 난해 본문을 다루었으나 이 최종 보고서 제3권에서는 1075개의 난해 본문을 다룬다(CTAT. Vol.3, p, XVII). 이 책 역시 제2권과 마찬가지로 편집자는 바르텔레미(D. Barthelemy)였다 (CTAT. Vol. 3, p, XIX).

2.3.2. 최종 보고서의 본문 비평 장치(Apparats critiques)의 구조 (CTAT. Vol. 1, pp, XVI - XVII).

2.3.2.1. 자료의 순서

1) 성서의 장절

2) “cor”(correction) - 이 약어는 위원회가 마소라본문(MT) 대신에 다른 표현을 선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위원회가 가장 오래된 표현이라고 결정한 표현이 나온다.

4) 이렇게 결정된 표현에 등급을 매긴다.

A =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B = 약간의 의문을 갖게 하나 매우 큰 가능성을 갖는 것.

C = 가능하긴 하나 상당한 의심이 가는 곳.

D = 약간의 가능성만을 갖고 있으며, 불확실한 것.

5) 이 표현을 지지해 주는 증거 본문의 약자들.

“bas”(base)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런 직접적 증거 자료는 없으나, 다른 읽기(les autres lecons)들이 나오게 된 배경적 표현으로만 간접적으로 검증되는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crrp”(corrompu) - 이 읽기(reading)를 지지하되, 이미 훼손된 상태로만 남아 있는 본문을 가리킬 때.

6) 두 개의 사선이 나오는데, 이것은 채택된 읽기(reading)를 여기에서 갈라져 나온 다른 읽기(reading)와 구분해 준다. 가끔 화살표로 나오는데, 이것은 한 읽기(reading)가 다른 읽기(reading)에서 갈라져 나온 것임을 나타낸다.

7) 각 읽기(reading) 또는 유사한 읽기(reading)들은, 위원회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채택한 읽기(reading)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정 요인들을 먼저 언급한다.

이 요인들을 언급한 다음 (:) 표기가 나온다.

예문1) Josh 19:2

cor וְשָׁמַע [B] G // assim 2b a : M g V S T וְשָׁבַע

MT에서는 וְשָׁבַע로 되어 있으나, 70인역과 1 ch 4,28을 바탕으로 וְשָׁבַע 대신에 וְשָׁמַע로 수정한다(cor).

그리고 그 가능성 등급(자료의 순서 2.3.2.1.4에 해당)은 [B] 에 해당된다.

assim 2ba는 Jos 19,2 ba 와 동화되어 וְשָׁבַע가 되었음을 설명한다(자료의 순서 2.3.2.1.7에 해당)

8) 그리고 나서, 이 읽기(reading)를 지지하는 증거 본문들의 약자가 나온다. 그리고 이것들은 한 개의 사선에 의하여 약간만의 차이가 있는 증거 본문들이 이와 구별되어 나온다. 마찬가지로 고대 사본의 약자 앞에 콜론(:)과 수정 요인이 언급된다.

예문2) Jos 19:10

וְעִיר [C] M g (V) T // err : G וְעִיר(?) / err : g(S) וְעִיר

9) i. 그 다음 MT의 2차적 형태가 인용된다. 번역본의 읽기인 경우, 그 읽기가 직접 인용되거나, “Clav”(clavis)라는 기호 아래, 번역자에게 영감을 주었을 히브리 표현을 소개한다.

예문3) Josh 21:35

cor רִמְנָה [B] bas // err : M gV T רִמְנָה / usu : g S

clav רִמְן / homtel : G om

2.3.2.2. 이독(les variantes)을 특징짓는 요인들을 가리키는 약어들

“lacun”(lacune) - 문제의 구절이 언급된 증거 본문에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abst”(abstention) - 번역된 증거 본문들이 본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예를 들어, 관사의 유무를 위해서 라틴어 번역을 사용할 수 없다든지, 동사의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기 위한 라틴어와 헬라이어 번역을 사용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경우).

- “incert”(incertain) - 증거 본문들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 “lit”(litteraire) - 가끔 본문의 차원보다 문학적 차원에서, 어떤 읽기(reading)가 다른 것들과 다른 경우
- “transf”(transfere) - 어떤 표현이 필사자나 번역자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 옮겨진 것을 가리키는 경우

2.3.3. 최종 보고서의 약어 해설.

본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들은 중심으로 살펴본 약어들(CTAT. Vol. 1, pp, XVII - XX)

le facteur 1. (étroitesse de la base d'une variante textuelle) : 어떤 본문이 한 가지 전통에만 나타나면(예를 들어 타르굼, 시리아어역, 라틴어역 등), 여러 전통에 나타나는 것을 본래의 본문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le facteur 2. (largeur trompeuse de la base d'une variante textuelle) :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많은 전통에 나타나는 본문이라 할지라도, 이 전통들이 초기의 필경사나 번역자들에 의해서 수정된 본문을 따른 것으로서 동일한 해석적 경향을 가진 것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이 필경사나 번역자들에게 우연적으로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spont”(spontane) 기호를 사용하여 이 상황을 설명한다.

le facteur 3. (dependance de plusieurs formes textuelles a l'égard d'une forme unique plus primitive) : 본래의 본문이 매우 난해한 경우, 서로 다른 필경사나 번역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본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러한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 본문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이 핵심 본문을 바탕으로 다른 이독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le facteur 4. (simplification du texte) : 난해 본문을 단순화시키는 경우
“facil”(facilitation)

- facil - graph (facilitation graphique)
- facil - semant (facilitation semantique)
- facil - styl (facilitation stylistique)

facil - synt (facilitation syntaxique)

“schem”(scheme) -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 구절을 단순화하는 경우

“usu”(usuel) - 희귀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표현에 의해서 대체되는 경우

le facteur 5. (assimilation à des passages paralleles) - 병행 구절과의 동화.

“assim” (assimilation)

Par ex.

Ich. 11, 15 : “assim 2S 23, 13G : g”

g(grecque secondaire) de Ich. 11, 15는 2S. 23, 13의 고대 헬라이어 역본(“G”)에 동화된 것임을 나타낸다.

“assim - graph” (assimilation graphique)

“assim - ctext” (assimilation au contexte)

“assim - int” (assimilation interne)

assimilation, a l’interieur de la tradition textuelle.

“harm” (harmonisation) - 모순의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

“harm - synt” (harmonisation syntaxique)

“harm - ctext” (harmonisation au contexte)

le facteur 6. (alterations textuelles requises par la traduction) : 번역상의 필요에 의해서 야기된 수정

“transl” (translationnel) - 번역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요구된 수정인 경우

“lic” (licence) - 번역 과정에서 수정된 경우로서 우리가 그 수정 이유를 간파할 수 없는 경우

“paraphr” (paraphrase) - 이러한 번역상의 자유로운 수정이 문학적 전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transcr” (transcription) - 고유명사를 다른 언어로 음역할 때 오는 수정

le facteur 7. (modification du texte pour des motifs d’exegese) : 주석적 이유에 의해서 야기된 수정.

“exeg” (exegese) - 주석상의 원인.

“expl” (explicitation) - 함축적인 간결한 표현을 번역자가 설명한 경우

- “abr” (abreviation) - 줄임
 - “abr - styl” (abreviation stylistique)
 - “abr - elus” (abreviation elusive) - 난해하게 만드는 자료를 없애 버리는 경우
- “ampl” (amplification) - 확대
 - “ampl - styl” (amplification stylistique)
 - “ampl - midr” (amplification midrashique)
- “emph” (emphase) - 번역자가 강조 표현을 사용한 경우
- “attenu” (attenuation) - 의미를 약화시키는 경우
- “modern” (modernisation) - 해석자가 시대에 맞지 않은 표현을 그 시대에 맞게 수정하는 경우.
 - “modern - graph” (modernisation graphique) 지리적 수정
 - “midr” (midrash) - 번역자가 미드라쉬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경우
 - “euphem” (euphemisme) 완곡어법
 - “theol” (theologique) 신학적 고려에 의한 수정

le facteur 8. (언어학적 차원에서의 오류)

- “ign - ling” (ignorance linguistique)
- “ign - lexic” (ignorance lexicographique)
- “ign - gram” (ignorance grammaticale)
- “ign - synt” (ignorance syntaxique)
- “ign - styl” (ignorance stylistique)
- “ign - vocal” (ignorance de la vocalisation)

le facteur 9. (역사적 자료에 대한 오류)

- “ign - hist” (ignorance historique) - 역사적 자료에 대한 오류
- “ign - geogr” (ignorance géographique) - 지리적 자료에 대한 오류
- “ign - real” (ignorance des realia) - 사회학적, 또는 건축 등의 자료에 대한 오류

le facteur 10. (유사한 문자, 단어, 문장의 우연한 생략)

- “hapl (ogr)” (haplographie) 중자탈오.
- “hom” (homeoarcton ou homeoteleuton) 유사문두 또는 유사문미
- “homarc” (homeoarcton) 유사문두

“homtel” (homeoteleuton) 유사문미

le facteur 11. (표현의 반복)

“dittogr” (dittographie) 중복오사

le facteur 12. (기타 서기관들의 실수)

“err” (erreur) 실수

“deform” (deformation) 변형

“deform - int” (deformation interne) - 특별한 본문 전통 안에서의 변형.

“err - graph” (erreur graphique)

“perm” (permutation) - 배치 전환

“err - divis” (erreur de division)- 단어 안에서 문자들을 나누는 데서 나타난 오류

“err - vocal” (erreur de vocalisation)

le facteur 13. (확대된 표현이나 이중어)

“dbl” (doublet) - 이중어

“confl(at)” (conflatio) - 확대된 표현, 즉 두 개의 증거 본문을 병렬한 경우

“mixt” (mixte) - 확인된 두 개의 표현을 혼합한 것

“glos” (gloses) - 주해적 첨가.

“substit” (substitution) - 대체.

“substit - synt” (substitution syntaxique)

“substit - lexic” (substitution lexicographique)

“substit - vocal” (substitution vocalique)

“rest” (restauration) - 복원

“rest - vocal” (restauration vocalique)

“const” (construction) - 어떤 구절을 새로 구축하면서 그 표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int” (interne) - 특별한 본문의 전통 안에서 일어난 일.

“elus” (elusive) - 문제점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일.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쾨타」 연구

-다양한 증거 본문들을 중심으로-

김경래

(전주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구약학)

1. 들어가는 글

신구약 성서를 통하여 원본, 즉 저작자의 제1문서라고 할 수 있는 문헌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단지 원본을 베끼고 또 베끼기를 거듭한 사본들과 고대에 다른 언어로 번역된 역본들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역본들 역시 최초의 원본은 현존하지 아니하며, 단지 그 사본들만이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고대 또는 중세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사본들을 통하여 구약 성서를 대하게 된다. 오늘날 성서학자들이나 성서 번역자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서는 특정 사본 내지 다양한 사본들을 기초로 하여 편집된 간행본들이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의 본문에 있어서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는 유대인이 전수해온 마소라 성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세기에 이르러 간행된 대표적인 히브리어 성서 간행본으로는 BHK¹⁾와 BHS²⁾를 들 수 있다. BHK 3판과 BHS의 기초가 되는 레닌그라드 사본은 아론 벤 아셀의 마소라

1) 키텔의 BHK(Kittel's Biblia Hebraica)는 1909년에 처음으로 빛을 보았으며, 히브리어 본문은 1524/25년에 간행된 야콥 벤 하임의 「제2람비성서」(*Biblia Rabbinica, A reprint of the 1525 Venice Edition Edited by Jacob Ben Hayim Ibn Adoniya, Introduction by Moshe Goshen-Gottstein, Jerusalem: Makor Publishing Ltd, 1972*)의 마소라 본문을 취하였다. 이 본문은 BHK 2판(1912)까지 사용되다가, BHK 3판(1937)에 이르러서는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교체된다.

2) BHK 3판(1937)에 이어 간행된 BHS(*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66/77) 역시 레닌그라드 사본을 본문으로 취한다. 특별히 콰란 사본의 발견으로 인하여 BHS의 본문비평 장치는 대폭 수정 및 보완된다.

사본으로서³⁾ 주후 1008년에 속하는 사본이다. 한편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에서는 알렘포 사본⁴⁾을 기초로 하여 1965년부터 장기적인 계획하에 ‘히브리대학교 성서’(Hebrew University Bible; 이하, HUB) 출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대표적인 세 간행본은 모두 하나의 사본을 본문으로 삼고 난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록해 두는 ‘외교적 편집’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⁵⁾.

최근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의 주선으로 새로운 히브리어 성서 간행본 출판을 위한 지평이 열리고 있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타’(Biblia Hebraica Quinta; 이하, BHQ)라고 불리게 될⁶⁾ 이 간행본은 ‘히브리어 구약 성서 본문 프로젝트’(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이하 HOTTP)⁷⁾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이미 여러 차례 BHQ 편집위원회의 모임이 열렸고, 새로운 히브리어 성서 편집을 위한 견본판도 나왔다⁸⁾.

3) 보다 정확하게 말하여, ‘레닌그라드 사본’은 아론 벤 아셀의 마소라 성경을 참조하여 수정한 사본으로서(주후 1008년),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마소라 성경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4) 마소라 성경을 얘기할 때 주후 10세기에 활동한 아론 벤 아셀의 사본을 빼놓을 수 없다. 아론 벤 아셀은 ‘카이로 예언서 사본’을 남긴(주후 895년) 모세 벤 아셀의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의 사본보다 더 유명한 마소라 성경 사본을 남긴 사람이다. ‘알렘포 사본’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 사본은 주후 93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서 구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1947년 시리아에서 일어난 반 유대인 소요로 인하여 전체의 사본지일을 분실하였다. 이제까지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필자의 기억에 의하면, 최근에 이스라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소실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분실로 보도한 바 있음) 부분으로서, 처음 부분은 창1:1-신28:26이며, 마지막 부분은 아가3:12부터 시작하여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에 이른다. 이 사본은 시리아의 알렘포 회당에 보관되었으나 지금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5) 영어로 이를 diplomatic edition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히브리어 사본 및 고대 번역본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이독들이 난외에 수록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인 방식으로, 여러 사본들과 고대 번역본을 검토 편집자가 최초의 ‘원문’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본문으로 삼는 편집 방식을 가리켜 ‘절충식 편집’(eclectic edition)이라고 한다.

6) 여기에서 quinta라 함은 Biblia Hebraica의 다섯 번째 판이라는 뜻이다. 1937년에 나온 BHK를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이라고 불렀고, 1967/77년에 나온 수정판은 BHS라고 불렀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기획하는 이 새판을 ‘제5판’(quinta)으로 부르는 이유는, BHS를 4판으로 보고 그것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때문인 것 같다(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도서출판 두란노, 1996, 109쪽 각주).

7) 1969년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의 주도 아래 시작된 HOTTP는 11년 동안 작업을 하여, 히브리어 구약에서 본문 비평의 대상이 되는 약 5000여 곳의 본문을 검토하고, 1973년부터 1980년까지 그 중간 보고서를 다섯 권으로 낸 바 있다. 그리고 1992년부터 현재까지 3권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으며, 앞으로 두 권이 더 나올 예정이다(민영진, op. cit., 110쪽).

8)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민영진, op. cit., 110-119쪽과 민영진, “BHQ 사무엘기-편집에 대한 제언과 효과적 사용을 위한 안내”(「목원성서연구지」 창간호, 1996) 1-40쪽을 참조할 것.

최근 성서학계와 구약 성서 번역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BHQ는 BHK, BHS, HUB 등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편집’ 방식에 입각하여 BHK 3판과 BHS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레닌그라드 사본(B19A)을 기초로 하여 편집될 예정이다. BHQ는 대체로 BHK 또는 BHS와 비슷한 편집 방식을 취하지만, 하박국서 1장의 견본 편집을 통하여 볼 때 달라진 점으로는, 본문 윗부분 난외 여백에 전에 없던 대마소라 주기가 있다는 것, 본문 아랫부분 난외 여백에 위의 대마소라 주기의 내용을 영어로 설명해 놓은 난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본문 비평 장치의 내용이 더 풍성해진 것 등이다⁹⁾.

1947년 이래로 콤란을 비롯한 사해 여러 지역에서의 고대 성서사본 발견은 성서학자들에게 큰 자극을 주어 성서사본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BHQ의 달라진 점에서 보듯이 본문 비평 장치를 위한 풍성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구약 성서의 여러 증거 본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BHQ 이해와 적절한 사용, 더 나아가서는 보다 더 건전한 판단에 입각한 본문 비평 장치의 마련을 위한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BHQ의 본문 비평 장치에 동원되는 여러 증거 본문들을 학문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피상적인 소개를 지양하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관찰해보고자 한다. 이들 증거 본문들의 역사적 맥락은 본서에 나란히 게재된 필자의 다른 논문인 “구약 성경 본문 전래과정에 대한 고찰”에서 소개하고 있다.

2. BHQ의 증거 본문들

히브리어 구약 성서 본문 연구에 있어서 단순히 후대인들에 의하여 발견됨으로 인하여 현존하고 있는 사본들만을 가지고 논한다는 사실은 그 출발부터가 이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현존하는 사본들을 반드시 이제까지 생성된 모든 증거 본문들을 위한 대표적인 증거로 보아야 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증거들만을 가지고 성서 본문 연구를 착수하여, 마치 그것들이 성서 본문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인양 가정하고 이 작업을 진행하여

9)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113쪽.

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들 다양한 증거 본문들 중에는 그 전체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본을 통하여 온전하게 전해 내려오는 것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단편적으로 조각 사본들을 통하여 전해지거나 또는 타문헌에 언급되거나 인용되는 정도로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증거 본문은 애초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기록된 사본들만으로 알려진 경우가 있는가 하면¹⁰⁾, 어떤 증거 본문은 아마도 그 최초의 사본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경우도 있다¹¹⁾.

히브리어 구약 성서의 비평적 편집에 있어서 편집자의 추정을 통하여 나온 가상적 본문을 책정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그것은 본문 내지 본문 비평 장치 마련을 위하여 편집자가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과제가 현존하는 모든 증거 본문들을 비교 분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여러 증거 본문들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BHK 또는 BHS의 본문 비평 장치 가운데서 몇몇 증거 본문상에 (특별히 고대 역본에) 나타나는 이독에 대한 잘못된 평가와 남용, 마소라 성서의 난해 본문에 대한 편집자의 어설픈 제안과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여러 증거 본문들을 둘러싼 사본학적 판단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해 준다.

HOTTP 위원회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의 발달과정’을 네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1) 문학 분석(literary analysis)을 통하여 밝혀지는 “본래의 본문”(original texts), 2) 본문 분석(textual analysis)을 통하여 밝혀지는 “가장 초기의 것으로 증명된 본문”(the earliest attested text), 3) 주후 70년 직후에 유대교 학자들이 권위 있게 정리한 히브리어 구약 자음 본문 = ‘원(原) 마소라 본문(Proto-Massoretic text), 4) 주후 9-10세기 경에 마소라 학자들이 확정한 마소라 본문¹²⁾. 현존하는 다양한 사본들간에 존재하는 얽히고 설킨 상호관계를 감안할 때, 이러한 분류는 성서 본문의 시대별 특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차라리 몇몇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

10) 예를 들어 마소라 본문의 전통은 아주 오래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그 사본적 증거로서는 주후 9세기 이후의 것들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

11) 쿨란 일대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사본들은 그 특성상 각각 초기의 기록에 비교적 가까운 증거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을 ‘본래의 원문에 가깝다’거나 또는 ‘더 신빙성이 있다’는 뜻으로 오해하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쿨란 일대에서 발견된 여러 사본들의 경우 훨씬 후기에 기록된 마소라 성서 본문보다 졸속한 본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2) 이에 대하여는 민 영진, “구약 성서의 번역 대본”, 「그말씀」(1994.6), 88-98쪽을 참조할 것.

기점을 기초로 하여 본문 전송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에 속한 사본들을 연대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1. 에스라에서 헬레니즘 시대 초기까지(주전 6-4세기)

성서 구절을 담고 있는 모든 문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1979년 예루살렘의 힌놈 골짜기 옆 비탈에서 발견된 두 개의 은편자 두루마리 조각으로서, 여기에는 민수기 6장의 일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대략 주전 7세기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¹³⁾. 고대 히브리어체로 기록된 이 두루마리 조각의 발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약 성서 본문이 성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온 것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부터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유대인의 분류법에 의하면 구약 성서는 토라(=율법), 예언서, 성문서로 구분된다. 구약 성서는 극히 일부를¹⁴⁾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 성서는 본래 자음만으로 기록되었으며 글씨체는 현대 인쇄된 모양의 정방형과는 다른 고대형의 글씨체였다. 이런 고대 히브리어체는 사마리아인들이 전수해온 사마리아 오경의 필체와도 비슷한데, 쿨란에서 발견된 몇몇 사본에서¹⁵⁾ 그 모양을 엿볼 수 있다. 주전 6-4세기 중에 기존의 구약 성서 본문에 대한 필체 전환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추측해볼 수 있는 바는, 얼마든지 오류가 끼여들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달렐’(דלל)과 ‘레쉬’(לש), ‘베트’(ב)와 ‘카프’(כ) 등 서로 비슷한 글자의 변화는 아마도 이런 과정 중에 쉽게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때 활동한 이들이 바로 마소라 학자들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다. 서기관은 히브리어로 ‘소펠’, 그리스어로 ‘그람마투스’라고 일컫는다. 히브리어 ‘소펠’은 ‘왕실의 고위 관직중의 하나인 사관’ 또는 ‘율법의 기록

13) G. Barkai, Ketef Hinnom - *A Treasure Facing Jerusalem's Walls*, Jerusalem, 1986.

14)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은 창31:47의 두 단어(“예갈 사하두타”), 렘 10:11, 스4:8-6:18, 7:12-26, 단2:4-7:28이다.

15) 쿨란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 중 고대 히브리어 체로 기록된 사본으로는 레위기 사본이 다섯, 창세기 사본이 둘, 출애굽기 사본이 둘, 신명기 사본이 둘, 민수기 사본이 하나, 욕기 사본이 하나로 도합 열 셋이나 된다(1QpaleoLev, 1QpaleoNum, 1QpaleoLev^b, 2QpaleoLev, 4QpaleoGen¹, 4QpaleoEx¹, 4QpaleoEx^m, 4QpaleoDeut^r, 4QpaleoDeut^s, 4QpaleoJob^c, 6QpaleoGen, 6QpaleoLev, 11QpaleoLev).

자'라는 뜻으로 구약 성서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¹⁶).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온 이후에 서기관들(복수형 '소프림')은 율법에 대한 합법적 해설자인 동시에 수호자의 구실을 하였다. 서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율법의 글자 하나 하나를 센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이들은 레11:42의 '배'(יַמָּ)라는 단어의 세 번째 글자 '와우'(ו)가 토라의 가운데 글자라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들 서기관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고대 히브리어체를 정방형의 아람어체로 바꾼 것은 바로 이들 서기관들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콤란에서 발견된 고대 히브리어체 사본들의 연대가 대략 주전 3-1세기에 속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글씨체의 변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확립된 듯하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8)는 예수님의 말씀은 늦어도 예수님 당시인 주후 1세기까지는 이미 구약 성서의 기록에 있어서 아람어체가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였다는 증거가 된다¹⁷).

서기관들의 활동은 글씨체를 바꾼 일만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낱말을 띄어 쓰면서 특별히 몇몇 단어들을 더 분명히 구분하고자 몇 글자의 종지형을 창안해낸다¹⁸). 또한 서기관들은 일반인들이 율법을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직 모음 부호가 고안되어 사용되기 이전에 이미 몇몇 자음 글자를 모음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¹⁹).

2.2. 주전 3세기에서 주후 70년까지

2.2.1. 콤란 사본²⁰)

16) 관직의 뜻으로 쓰인 예로는 삼하8:17; 20:25; 왕하12:11(10); 18:18,37; 렘52:25 등이 있고, 율법이나 다른 글을 기록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인 예로는 렘36:26; 스7:11 등이 있다.

17) 고대 히브리어 체의 경우 예수님이 '짐'이라고 말씀하신 글자 '요드'(י)는 가장 작은 글자가 아니다. 그것은 정방형의 아람어체인 경우에 가장 작은 글자에 속한다.

18) 종지형을 가진 히브리어 글자로는 '멤'(מ/ם), '눈'(נ/ן), '짜디'(צ/ץ), '페'(פ/ף), '카프'(ק/ך) 다섯 글자가 있다.

19) 모음으로 사용된 글자로는 '와우'(ו), '헤'(ה), '요드'(י), '알렐'(ל) 등이 있다.

20) 김경래, 「유대인의 보고(寶庫)」(전주대학교 출판부, 1977) 28-32쪽 참조.

앞서 언급한 주전 7세기의 은편자 두루마리 조각 외에, 현존하는 구약 성서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제2성전 시대²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 대다수의 고대 사본은 쿠파에서 발견된 것들로서 주전 3세기-주후 1세기 사이의 것들이다.

쿠파 사본은 하나의 단일 사본이 아니다. 쿠파 사본은 1947년 이후 사해 북서안에 위치한 쿠파 일대에서 발견된 여러 종류의 사본군을 의미한다. 그 중에는 성서 사본들도 있고 비성서 사본들도 있다. 처음에는 베두인(사막 지대의 유목민)에 의하여 우연히 발견되었으나, 나중에는 학자들의 전문적인 발굴 내지는 베두인들의 도굴에 의하여 점차 빛으로 드러난 고대 사본들이다. 이들 발견된 사본들의 대부분은 현재 예루살렘 내의 이스라엘 박물관과 록펠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아직까지 많은 사본들이 출판되지 않았으나 모든 사본에 대한 간략한 묘사는 이미 이루어졌고 가장 중요한 사본들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미 출판되었다. 따라서 학자들 간에 이미 이 새로운 문서들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처음 사본들이 학계에 소개된 이후로 사해 사본에 대한 연구는 활기를 띠어 많은 학자들이 쿠파 공동체와 이들의 문서 활동 배경에 대하여 그리고 신약 시대와 초대 기독교의 배경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여기서는 성서 사본에 대하여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쿠파에서 발견된 성서 사본들의 상태와 범위는 사본마다 다르다. 제1동굴에서²²⁾ 발견된 이사야 사본(1QIs^a)의²³⁾ 경우 66장 전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다른 사본들의 경우 종종 작은 조각만 발견되었을 뿐이다. 에스더서만 제외하고 구약 성서의 모든 책이 전부 또는 일부 조각의 형태로 모두 발견되었다. 게다가 이제까지 그리스어나 다른 언어로만 알려졌던 몇몇 외경과 가경이 히브리

21)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제2성전 시대라 함은 대략 에스라 때부터 시작하여 주후 70년 제2성전이 파괴되기까지의 시대를 뜻한다.

22) 쿠파 동굴의 번호는 학자들에 의하여 편의상 지정된 것이다.

23) 이사야 사본(1QIs^a)에 관하여는 김경래, 「구약 성경의 맥을 따라서」(도서출판 대장간, 1977), 305-310쪽을 참조할 것. 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는 모두 5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54쪽의 문서를 위하여 17장의 양피지를 삼베실로 꿰매어 연결하였는데, 각 양피지의 평균 높이는 26.2cm 이며 그 길이는 다양하다. 이 두루마리는 그 전체 길이가 7.34m에 이른다. 이 성서 사본이 기록된 연대는 보통 주전 2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 이사야 사본(1QIs^a)은 시간상으로 비록 주후 10-11세기에 필사된 마소라 사본들보다 1000여년이나 앞서 있는 중요한 고대 사본이긴 하지만 그 필사(筆寫)의 정확도에 있어서는 실제로 후자보다 훨씬 못한 사본이다.

어 또는 아람어로 기록된 조각 사본으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제11동굴에서 발견된 시편 사본(11QPs^a)의²⁴⁾ 경우, 성서에 포함된 몇몇 시편 외에도 소위 말하는 외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들과 심지어는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시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가장 많은 사본들이 발견된 동굴은 제4동굴이다. 이곳 4동굴에서 발견된 성서 사본들의 수만²⁵⁾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고대 사본들이 쿤란에서 발견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 11; 출애굽기 11; 레위기 4; 민수기 2; 신명기 18; 여호수아 2; 사사기 2; 사무엘상 3; 열왕기상 1; 이사야 15; 예레미야 3; 소선지서 7; 시편 17; 욥기 3; 잠언 2; 룻기 2; 아가 3; 전도서 2; 예레미야 애가 1; 다니엘 5; 에스라 1; 역대기 1. 대부분의 경우 조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글씨체를 통하여 서로 다른 사본임을 구분할 수 있다.

쿤란에서 발견된 사본들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를 들어서 1QIs^a의 경우 맨 앞의 숫자 1은 동굴 번호를, 영어 글자 Q는 쿤란을, Is는 이사야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영어 글자 ^a는 제1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 사본 중 첫 번째 것임을 가리킨다. 쿤란 사본의 대부분은 정방형의 아람어체로 쓰여졌는데 일부는 고대 히브리어체로 기록되었다. 이들 고대 히브리어체의 사본들은 특별히 ‘옛날의, 고대의’라는 뜻을 가지는 영어 글자 paleo를 덧붙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4QpaleoEx^m은 쿤란 제4번 동굴에서 발견된 출애굽기(Ex) 사본들 중 열세 번째(^m) 것으로서 고대 히브리어체로 쓰인(paleo) 것이다.

쿤란에서 발견된 성서 사본들은, 나시 파피루스²⁶⁾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제2성전 시대에 성서 문서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가 된다. 쿤란 사본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제2성전 시대에 구약 성서 본문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전승으로 전수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고고학과 역사적 증거들을 통하여 볼 때, 쿤란 공동체는 대략 주전 150년에서 주후 68년 사이에 쿤란 일대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쿤란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이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쿤란 공동체의 초창기 주민들이

24) 11QPs^a에 관하여는 김경래, 「구약 성경의 맥을 따라서」(도서출판 대장간, 1977), 262-265쪽을 참조할 것.

25) P.W. Skehan, "The Biblical Scrolls from Qumran and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Biblical Archaeologist* 28(1965) 87-100.

26) 주후 1-2세기의 사본으로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결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1903년에 출판됨).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음이 분명하겠기 때문이다. 글씨체의 분석에 의하여 가장 오래된 콤파 사본은 대략 주전 3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콤파에서 발견된 성서 사본은 모두 11개의 동굴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 성서 사본들의 특색은 마소라 성서와 비교하여 얘기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제1, 2, 3, 5, 6, 8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들은 미세한 일부 차이점만을 제하고는 대체로 마소라 성서와 동일한 본문을 보여준다. 어떤 사본들은 마소라 성서의 전승을 반영하면서도 몇몇 큰 차이점을 보여준다(예: 11QPs^a). 어떤 사본들은 비록 마소라 성서의 전승에 기초하고 있으나 비교적 자유로운 필사 활동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이런 류의 사본은 2차적인 내용이 많이 삽입되어 있고 또 문법 및 문맥상 어려운 부분을 삭제하기도 한다(예: 1QIs^a). 어떤 사본들은 칠십인역 또는 사마리아 오경과 유사점을 보여준다²⁷⁾. 이들 외의 다른 사본들은 독립적 성격을 보여준다²⁸⁾.

2.2.2. 그리스어 칠십인역 성서²⁹⁾

주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흥왕하여 당시 말하는 ‘세계’를 정복한 일은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을 이룬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울러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 문화’를 온 세계에 뿌리는 일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는 삼시간에 헬라화되어 그 후 수백 년간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거의 공동 운명을 나누게 된다. 이때 유대인도 이 헬라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벗어나지 못한다. 헬라 세계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은 또 다시 타의 또는 자의로 본토를 떠나 헬라 세계 구석구석으로 흩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헬라 세계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다. 사도행전에 기술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우리는 주후 1세기 얼마나 넓은 지역에 유대인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지를 엿

27) 콤파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들 중에 몇몇은 사마리아 오경과 더불어 뚜렷하게 확장 현상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학계에서는 사마리아 오경이 이들 사본들 중 하나를 받아 전수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사본으로는 4QpaleoExodusm, 4QNumb, 4QDeutn, 4Q158, 4Q364-367 등이 있다. 다만 이들 사마리아 선조 사본들 중 어느 하나도 사마리아 오경의 분과적 목적에 의한 확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마리아 오경에 나타난 분과적 목적의 확장은 전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8) 예를 들어서 11QpaleoLeva, 4QDeutj,n, 4QJosh, 4QJudga, 5QDeut, 등은 마소라, 칠십인역, 사마리아 오경의 세 가지 그룹과는 다른 독특성을 보인다(더 자세한 정보는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1992, 114ff.를 참조할 것).

29) 김경래, 「유대인의 보고(寶庫)」(전주대학교 출판부, 1977) 22-25쪽 참조.

볼 수 있다.

주전 4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헬라 세계 안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역시 알렉산드리아의 디아스포라였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 지중해변에 위치한 도시로서 전 헬라 세계를 통하여 손꼽히는 헬레니즘 도시였다. 헬라화의 물결 이전에도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 드문 드문 들어온 일이 있었으나 이때처럼 대규모의 유대인이 이주하여 커다란 디아스포라를 형성한 적은 없었다. 주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을 기념할 목적으로 알렉산드리아를 세울 때, 그는 이 새 도시 안에 특별히 유대인을 위한 구역을 설정해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완전한 시민권까지 허락하였다. 주전 323년 비록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요절하였으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이집트 통치를 계승한 프톨레미 왕조 하에 계속 번영을 누렸다.

이들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유대교의 독특한 종교 및 문화 유산을 지키는데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헬라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노출된 나머지 점점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당대의 공용어인 그리스어를 모어로 대치하기 시작하였다. 언어의 변화는 그들의 고유 종교 유산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장애물이 되었다. 유대인은 책의 민족으로서 성서라는 그들의 경전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도를 배웠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종교적 생존에 위기를 느낀 알렉산드리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드디어 ‘거룩한 말씀’을 자기들의 일상 생활 언어인 그리스어로 옮길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런 필요의 결과가 바로 소위 말하는 칠십인역 성서의 탄생이다³⁰). 먼저 주전 3세기에 모세의 토라가 번역되었으며, 그리고 다음 세기까지는 네비임(= 예언서)과 케투빔(= 성문서)이 모두 완성됨으로서 유대인의 경

30) 사실상 칠십인역의 유래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략 주전 100년 경의 문서로 간주되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영어 번역으로는 R.H. Charles, *The Apocrypha and Pseudepigrapha of the Old Testament in English*, vol.II, Oxford, 1913, pp. 94-122를 참조할 것)는 칠십인역의 유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 하겠다. 비록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그 안에 몇 가지 점은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번역은 토라 곧 모세 오경만을 뜻한다. 적어도 이 토라 부분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전 3세기에 번역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번역은 왕립 도서관의 필요보다는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구약의 나머지 부분인 전후기 예언서와 성문서는 아무리 늦어도 주전 2세기까지는 이미 다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다. 참고적으로 필로(*De Vita Mosis*, II, v-vii, 25-44), 요세푸스(「유대인 고대사」 제12권 12-118절), 주후 2세기 이후의 기독교 교부들(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 에피파니우스, 어거스틴 등) 역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내용을 알고 있었던 듯 하다.

전인 구약 성서는 오랜 은둔을 깨고 그리스어라는 옷을 입고 그 당시의 ‘세계’에 노출된 것이다. 이는 실로 이스라엘과 헬라 세계의 접촉이라는 점에서 역사상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에서 칠십인역은 히브리어 성서 못지 않게 권위 있는 성서로 존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헬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칠십인역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였을 것이다. 비록 콤란에서 칠십인역 사본이 몇 점 발견되긴 하였으나 이스라엘 내의 회당에서 칠십인역이 쓰인 일이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칠십인역을 대대적으로 환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도 시대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칠십인역은 실로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헬라 세계 유대인의 성서가 되었던 것이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이후 약 6세기 동안 이 칠십인역은 헬라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초대 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칠십인역은 우선 헬라계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성서로서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개종자들까지 복음을 위해 준비시켰으며, 그리스어라는 새로운 종교 언어를 창출하여 그리스어로 기록된 복음의 진파를 가속화시켰다.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칠십인역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였고, 칠십인역에 기초한 번역 작업으로 기독교의 복음은 헬라 세계의 경계를 넘어 전진한다.

그러다가 주후 4세기부터 세계 정치 판도의 변화로 칠십인역의 중요성은 점점 상실되어 동방 정교회에서만 사용으로 국한된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오늘날도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성서 문서를 대변할 뿐 아니라, 동시에 가장 오래된 역본으로서 고대의 성서 해석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칠십인역은 신약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문헌으로서 신약 연구에도 아주 중요하다.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 자연히 같은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된 칠십인역을 편리한 인용 도구로 삼았겠고, 또 용어 설정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신약 성서의 부분 부분마다 칠십인역에 대한 지식을 반영한다. 오늘날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칠십인역의 가치는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그리스어 사본은 크게 대문자로 쓰여진 것과 초서체 소문자로 쓰여진 것들로 나누인다. 대문자로 쓰인 사본들은 대략 주후 3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걸쳐 있고, 초서체 소문자로 쓰인 사본들은 대략 주후 9세기에서 시작하여 16세기 인쇄술이 발명되기까지 걸쳐 있다. 칠십인역의 전체 사본 수는 모두 400개 가까이에 이르지만, 그중 구약 성서 전체를 담은 것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사본으로는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을 들 수 있다.

2.2.2.1. 알렉산드리아 사본

주후 5세기에 기록된 사본으로 현재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급 피지에 대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낱장의 크기는 32cm x 26.3cm이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담은 사본으로서, 구약 중 손상된 부분은 창14:14-17; 15:1-5, 16-19; 16:6-9; 삼상12:18-14:9; 시49:19-79:10 등이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모두 네 권의 책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첫 세 권은 도합 639쪽의 낱장에 구약을 담고 있다. 한 면에 두 열로 기록되었으며 몇 권의 외경이 포함되어 있다.

2.2.2.2. 바티칸 사본

주후 4세기에 기록된 사본으로 현재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급 피지에 대문자로 기록되었으며 역시 신구약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 첫 부분의 손실로 현존하는 사본은 창46:28에서 시작된다. 그 외에 손실된 부분으로는 삼하2:5-7, 10-13; 시105(106):27-137(138):6 등이 있다. 바티칸 사본의 총 759쪽 중에서 617쪽이 구약을 담고 있다. 한 면에 세 열로 기록되었으며 역시 외경을 포함하고 있다.

2.2.2.3. 시내 사본

주후 4세기에 기록된 사본이다. 대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낱장의 크기는 38cm x 34.3cm이다. 이 사본의 대부분은 1844년과 1859년 두 차례에 걸쳐 시내 산의 카타리나 수도원에서 티센도르프에 의하여 빛을 보게 되었다. 한 면에 네 열로 기록되었으며 외경도 포함되었다.

2.2.3. 사마리아 오경의 선조 사본과 사마리아 오경

20세기 중반에 들어와 새로이 발견된 성서 사본들(특별히 콤파 사본들)은 성서 사본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그 중에서도 소위 ‘사마리아 오경의 선조 사본들’(pre-Samaritan texts)이라고 불리는 사본들의 발견은 사마리아 오경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를 불러일으켰다. 이들 사마리아 선조 사본들에는, 비록 사마리아 오경의 분과적 요소들은 찾아볼 수 없으나, 사마리아 오경과 유사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다. 이로 보건대,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선조 사본들과 유사한 사본 하나를 취하여 거기에 나름대로의 편집적 변화를 삽입시킨 것으로 보인다.

사마리아 오경과 유대인이 전수해 온 마소라 성서를 비교해 보면 내용상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몇 가지 현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차이란 성서 본문 전래 과정에서 곧잘 생길 수 있는 오류가 아니라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성서 본문에 긴 구절을 첨가시켰거나 또는 일부를 바꾸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편집적 내용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확장’이라고 한다.

사마리아 오경의 확장 현상은 성서 사본 비평학에 있어서 잘 알려진 사실 중의 하나이다. 사마리아 오경의 사본들 중 가장 오래 된 것은 대략 주후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보존 상태만을 통해서 볼 때 다른 사본들에 비하여 결코 오래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종래의 많은 성서학자들은 사마리아 오경에 나오는 확장 현상이 상당히 후대의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콤파 사본들의 발견과 그 연구로 인하여 이러한 확장 현상은 이미 주전 2세기를 전후하여 유대인 가운데 존재하였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오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확장 현상은 대부분 사마리아 분과 고유의 것이 아니다. 제2성전 시대(주전 제6세기 말 - 주후 70년)에 이미 그러한 특성을 지닌 오경 사본들이 유대인 중에 상당히 배포되어 있었으며, 사마리아인들이 그러한 사본들 중 하나를 자기들의 모범 사본으로 삼은 후, 후에 자기들의 분과적 요소와 다른 필요한 요소를 첨가하였음에 틀림없다.

콤파에서 발견된 성서 사본들 중에 몇몇은 사마리아 오경과 더불어 뚜렷하게 확장 현상을 보인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사본으로는 4QpaleoExodum, 4QNumb, 4QDeutn, 4Q158, 4Q364-367 등이 있다. 이들 사마리아 선조 사본들 중 어느 하나도 사마리아 오경의 분과적 목적에 의한 확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마리아 오경에 나타난 분과적 목적의 확장은 전적으로 사마리아인들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마리아 선조 사본들과는 달리, 사마리아 오경 가운데는 사마리아인들이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서 문헌에 삽입시켰거나 바꾸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분파적 내용이 담겨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을 예배 중심지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전인 사마리아 오경 안에도 이를 지지하는 내용을 삽입시킨 것이다. 이러한 분파적 내용이 언제부터 사마리아인들의 경전에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주전 2-1세기로 본다³¹⁾.

사마리아 오경의 간행본으로는 von Gall의 *A. Der Hebräische Pentateuch der Samaritaner*(Giessen, 1918)와 사마리아인인 A. & R. Sadaqa가 편집한 *Jewish and Samaritan Version of the Pentateuch*(Holon, 1961-1965) 등이 있다.

2.3. 주후 70년에서 주후 8세기까지

2.3.1. 콤란 외 사해 일대에서 발견된 사본들

콤란 사본과 더불어 ‘사해 사본’ 또는 ‘유다광야 사본’이라는 보다 넓은 범위의 이름 아래 불리는 다른 사본들 중에서, 사해 근처 맛사다에서 발견된 성서 사본들은 주후 73년 이전의 것이며³²⁾, 와디 헤벨과 와디 제엘림, 그리고 와디 무라바아트 등지에서³³⁾ 발견된 성서 사본들은 주후 130년 이후의 것들로서, 사실상 마소라 성서와 동일한 성서 문서들이다. 이는 주후 70년을 전후하여 유대인 사이에 구약 성서 사본이 통일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좋은 증거가 되기도 한다.

31) Kyung Rae Kim, *Stud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Septuagint*(「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의 관계 연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예루살렘, 1994, pp. 9-14.

32) 맛사다 사본에 관한 정보로는 Y. Yadin, *Masada, First Season of Excavation, 1963-1964*(Heb.; Jerusalem 1965) 115-117; Y. Yadin, *Masada*(Jerusalem / Tel Aviv / Haifa 1966) 168-191; S. Talmon, "Fragments of Scrolls from Masada," *Eretz Israel* 20(1989) 278-286(Heb. with Eng. summary) 등을 볼 것.

33) 와디 헤벨에서는 창세기, 민수기, 시편의 조각 사본이, 그리고 Wadi Murabbat에서는 토라, 이사야, 12소선지서의 조각 사본이 발견되었다(DJD II [Oxford 1961] 1-3, 88 참조). 한편 이와 비슷한 부류의 조각 문서 사본들이 약 200,000점 가량 1890년대 옛 카이로의 Fustat 회당 게니사에서도 발견되었다(M.C. Davis, *Hebrew Bible Manuscripts in the Cambridge Genizah Collections*, vols. 1-2, Cambridge 1978, 1980; I. Yeivin, *Genizah Bible Fragments with Babylonian Massorah and Vocalization* [Heb.; Jerusalem 1973] 참조).

2.3.2. 아람어 성서(타르굼)의 등장³⁴⁾

주전 588년 유다 왕국이 망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게 되면서 이들은 서서히 당대의 국제언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를 일상 생활 언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아람어는 유대인의 언어이자 구약 성서의 언어이기도 한 히브리어와 아주 유사한 자매 언어로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배우기에 힘든 언어가 아니었다³⁵⁾.

일반적으로 바벨론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아람어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간주된다. 이 무렵에 기록된 에스라서와 다니엘서에는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히브리어 부분과 나란히 놓여 있다³⁶⁾.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 백성까지 아람어를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아람어가 유대인들 가운데 위세를 떨치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서를 아람어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아람어 통역 내지 해석은 회당 예배로 서서히 파고들다가 결국은 성문화되어 소위 말하는 아람어 타르굼을 이루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아람어 타르굼은 진정한 의미의 번역이라기보다는 종종 번역문 사이사이에 해설문을 덧붙인 자유로운 의역에 해당한다.

쿰란에서 발견된 ‘읍기 타르굼’은 대략 주전 200년 경에 처음 문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아람어 성서의 문자화는 늦어도 이미 주전 3-2세기에 시작된 셈이 된다. 이러한 작업은 대략 주후 7세기까지 계속된다. 이처럼 ‘타르굼’은 하나의 통일적인 성서 역본이 아니다. 그 시대도 다르거니와 역자 또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다양한 종류의 ‘타르구뎀’('타르굼'의 복수형) 전승이 전해진다. 모세 오경만의 아람어 역본을 두고 볼 때, 온켈로스의 타르굼은 비교적 문자적 번역을 시도한데 반하여, 일명 ‘가짜 요나탄 타르굼’이라고도 불리는 ‘에루살렘 타르굼’은 온갖 주석적 요소로 가득 차 있어서 주석가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타르굼이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

34) 김경래, 「유대인의 보고(寶庫)」(전주대학교 출판부, 1977) 20-21쪽 참조.

35) 사실상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아람어를 사용하였으며(창31:47의 ‘여갈사하두다’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이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낸 야곱으로서도 아람어를 익숙하게 구사하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이스라엘)부터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모두 구사한 셈이다. 앗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폐망시키고 남왕국 유다의 대부분까지 정복한 무렵, 곧 히스기야 왕 때에 일반 백성은 아람어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왕궁의 고위 관리들은 아람어를 능히 이해하고 구사할 줄 알았었다(왕하18:26-28; 사36:11-13). 따라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익히기는 아주 쉬운 일이었다.

36) 에스라와 다니엘 중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은 스4:8-6:18; 7:12-26; 단2:4-7:28이다.

의 타르굼을 온켈로스에게 돌리는 것처럼, 구약 성서의 둘째 부분인 예언서의 타르굼은 요나탄에게로 돌린다.

2.3.3. 칠십인역 외 다른 그리스어 역본들

칠십인역이 초대 기독교의 손으로 옮겨져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이들에 의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자연히 칠십인역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7:14의 번역을 들 수 있다. 히브리어 ‘알마’를 ‘처녀’의 뜻을 가진 ‘파르테노스’라고 번역한 칠십인역은 그릇되었으며 마땅히 ‘젊은 여자’라는 뜻의 ‘네아니스’로 번역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유대인들은 더욱더 ‘책의 민족’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책’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는 동시에 그들이 표준판으로 여기는 사본을 보호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기독교의 성서인 칠십인역에 포함된 외경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주후 2세기 칠십인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비단 기독교와의 적대적 관계나 외경 문제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칠십인역은 당시 유대인 중에 표준 성서로 받아들여진 성서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칠십인역이 구시대의 전승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점차 의심을 받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점차 칠십인역의 사용을 기피하였다. 따라서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일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아퀼라, 테오도티온, 씬마쿠스의 그리스어 번역본들이다.

아퀼라는 폰투스 출생의 이방인이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자신의 점성술을 포기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교회에서 출교된 후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다. 그는 랍비 아키바의 제자로서 유대인의 성서 해석을 배우는데 진념한다. 그의 번역의 목적은 당시 이미 기독교의 성서로 받아들여진 칠십인역의 해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주후 130년 경에 완성된 그의 번역은 유대인 사이에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다. 그의 스승들은 시편 45:3(2)의 “인생보다 아름다워”라는 말로써 그를 극구 찬양하였다. 아퀼라의 번역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속 인기를 누렸고, 유대인 랍비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식적 번역이 되었다. 기독교에서는 자연히 개종자의 번역을 좋아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오리겐이나

제목 같이 후기에 히브리어 성서를 연구한 이들은 아퀼라의 번역의 충실성을 높이 평가한다.

아퀼라는 ‘문자의 노예’였다. 그는 히브리어 원문의 한 자라도 놓치지 않고 자 모든 글자를 그리스어로 그대로 직역하였다. 그 결과 그리스어의 문학적 성격은 파괴되었으나, 히브리어의 뜻뿐만 아니라 순서 및 문자적 의미까지 고스란히 지켰던 것이다. 히브리어 표준 성서와 당대 유대인 랍비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충실성 때문에, 아퀼라의 그리스어 번역은 그 그리스어 문학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의 전적인 지지를 받는다.

아퀼라의 번역은 현재 그 전부가 남아 있지 않다. 일부가 조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아퀼라역은 그 지나칠 정도의 문자적 번역 때문에 오리겐과 제목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서 사본 비평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³⁷⁾.

테오도티온은 아퀼라보다 약 반 세기 이후에 히브리어 성서를 새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사람이다. 이레니우스에 의하면³⁸⁾ 테오도티온은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제롬³⁹⁾은 그를 에비온파로 본다. 어쩌면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한때 기독교를 받아들였었으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온 사람인 것 같다⁴⁰⁾.

테오도티온이 번역한 다니엘서의 그리스어역은 칠십인역 본래의 번역과 더불어 나란히 초대 교회에 유행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칠십인역의 다니엘서를 제치고 당당하게 칠십인역 안에서 자리를 굳히고 만다. 그는 독자적인 번역을 했다고보다는 기존의 칠십인역을 히브리어 표준 성서에 근거하여 다시 재편집한 듯하다.

주후 2세기(테오도티온 직후) 히브리어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또 한 사람이 있다. 이름은 쉘마쿠스이며 유대인 에비온파의 지도적 인물이었다는 듯하다⁴¹⁾. 그는 문자적 직역을 지양하고 히브리어의 정확한 의미를 그리스어로 옮

37) 아퀼라의 헬라어 역본에 대한 최근의 자료로는 Joseph Reider, *An Index to Aquila: Greek-Hebrew · Hebrew-Greek · Latin-Hebrew with the Syriac and Armenian Evidence*, (completed and revised by Nigel Turner),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vol. XII, Leiden, 1966을 참조할 것.

38) Irenaeus, *Haer.* iii. 21. I.

39) *De Vir.* III. 54.

40) S. Jellicoe, *The Septuagint and Modern Study*, 83-84.

41) 그러나 쉘마쿠스가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초대교회 교부들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다.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와(Eusebius, *Historia Ecclesiae* VI 17; *Dem. Evang.* VII. 1. 33) 제목은(Jerome, *De Vir.* III. 54; *Comm. in Hab.* III. 13; *Praef. in Job*) 그가 에비온파 내지

기는데 노력하였다. 번역에 있어서 그는 아퀼라의 번역을 많이 참고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그가 아퀼라나 다른 번역을 재편집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그는 독자적인 번역을 수행하였고, 당대 그리스어의 표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아퀼라, 테오도티온, 씬마쿠스의 번역본들은 극히 일부의 조각 사본만을 제하고는 거의 현존하지 않는다. 이는 이들 역본들이 칠십인역만큼 대대적인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

2.3.4. 오리겐의 헉사플라

오리겐(주후 186-253)은 몇 가지 그리스어 번역이 한창 진행되던 주후 2세기에 태어났다. 그는 젊어서부터 히브리어 연구에 정력을 쏟기 시작하였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하여, 박해를 피해 가이사라에 있는 동안 히브리어 공부를 계속하다가, 다시 이집트에 돌아와 구약 성서에 대한 집필을 시작한다.

오리겐은 히브리어 성서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칠십인역에 히브리어 표준 성서와 다른 점이 있음을 간파한다. 그러나 교회가 이미 알렉산드리아 성서 곧 칠십인역의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칠십인역을 변호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잠22:28의 “네 선조의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라는 교훈을 엄두에 두라고 권한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그리스어 번역을 내거나 또는 다른 역본들을 채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도 오리겐은 칠십인역과 히브리어 표준 성서의 차이점을 교회가 솔직히 배워야 하고, 아퀼라나 다른 유대인 역본들이 원문에 충실한 한 그 우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올바른 성서 문서와 그 원래의 뜻을 확인시켜 주는 도구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 결과로 생긴 것이 헉사플라이다.

오리겐은 당시 현존하던 모든 그리스어 역본들을 수집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섯 열로 나란히 배열한다. 그 순서는 히브리어 본문, 히브리어 본문의 그리스어 음역, 아퀼라, 씬마쿠스, 칠십인역, 테오도티온이다.

유대 기독교 이단에 속하는 것으로 믿은 반면, Epiphanius는(*De Mensuris et Ponderibus*, 16) 그가 본래 사마리아 현인이었는데 후에 유대교로 개종하고 다시 할례를 받은 후 번역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Alison Salvesen, *Symmachus in the Pentateuch*, *Journal of Semitic Studies*, Monograph 15, University of Manchester, 1991, p. v).

오리겐은 당시(주후 3세기) 현존하던 히브리어 성서의 순수성과 히브리어 성서와 차이점을 보이는 코이네 성서 부분의 오류를 가정함으로써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는 단지 이들을 배열해 놓은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다. 오리겐의 작업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다섯 번째 열의 칠십인역에 히브리어 표준 성서와의 모든 차이점을 특별한 부호들을 통하여 표시해 주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성서에 없는 것이 칠십인역에 나올 경우 부호로써 이를 표시했고, 그 반대로 칠십인역에 빠졌을 때 아퀼라나 테오도티온에서 보충한 후보충했다는 표시를 해 두었다. 또 칠십인역이 분명히 오류를 범했다고 간주되는 경우는 이를 수정하였다. 히브리어 성서와 순서가 다르다든지, 칠십인역에 빠져 있다든지, 칠십인역에 더해 있다든지, 그 외의 각종 차이점이나 번역상의 문제점들을 부호를 사용하여 모두 표기한 것이다.

헉사플라는 주후 240년 또는 245년에 완성되었다. 오리겐의 작업은 칠십인역을 거부하지도 않고, 유대인 교사들의 증거를 거절하지도 않은 중간 입장을 견지한 결과이다.

히브리어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이후로 그리스어 칠십인역은 전수 과정 중에 불가불 여러 오류를 담게 된다. 따라서 칠십인역의 재편집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주후 3-4세기 독립적으로 이런 시도가 생긴다.

헉사플라의 칠십인역은 주후 300년 경 팜필루스(주후 310년에 순교)와 가이사라 감독 유세비우스(주후 338년 사망)에 의하여 가이사라에서 복사되어 주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헤쉬키우스라는 사람이 당시 이집트에서 유행하던 성서를 수정하는데 종사하였다. 안디옥에서는 사모사타 출신의 루시안(311년 순교)이 칠십인역의 재편집 작업에 종사하였다. 하지만 이런 재편집 작업은 도리어 오류를 더 늘렸을 뿐이다.

2.3.5. 시리아어역 페쉬타

시리아 정교회가 전수해왔으며 ‘페쉬타’라고 일컬어지는 시리아어역 성서의 기원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페쉬타가 반영하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이 일반적으로 마소라 본문과 일치하거나 근접하는 것으로 보아⁴²⁾, 페쉬타는 마소라 본문이 어느 정도 정립되기 시작하는 주후 70년

42) 일부 학자들은 페쉬타가 칠십인역에서 번역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는 J.A. Lund, *The Influence of the Septuagint on the Peshitta* --- A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페쉬타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주후 5세기의 것이 있고, 나머지는 5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기록된 사본들이다.

2.3.6. 라틴어 구역과 제롬의 불가타

구역 성서가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된 것은 대략 주후 2세기 무렵의 일이다. 이를 후기에 제롬이 번역한 것과 구분하기 위하여 보통 라틴어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라틴어 구역은 직접 히브리어 성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 칠십인역을 다시 번역한 것이다. 주후 4세기 라틴어 구역의 사본들이 다양한 양태를 보이면서 교황은 라틴 성서 본문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청탁을 받게 된 성서학자가 보통 제롬이라고 불리는 유세비우스 히에로니무스이다.

이처럼 제롬은 본래 교황의 지시를 받아 당시 기존의 라틴어 구역 성서들을 칠십인역을 근거로 수정 재편집하는 작업을 시작한 사람이다. 제롬은 이 작업을 착수하기 전인 주후 380/1년 경에 이미 칠십인역의 번역 자체에 대하여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다⁴³⁾. 제롬은 칠십인역의 연구를 통하여 그것이 히브리어 성서와 다른 점이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는 칠십인역의 차이점들을 후대 필경사들이 범한 것과 번역자 자신들에 의한 것 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일부는 문체상의 이유로 일부는 성령의 권위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롬의 의견에 의하면, 칠십인역의 번역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번역 작업을 수행하였지만 단순한 기계적 도구로서 한 자 한 자 옮겨 쓴 것이 아니라⁴⁴⁾ 번역문에서의 문체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보였다. 따라서 문체상의 이유로 번역문에 일부 내용을 덧붙인 이는 하나님이나 번역자들이 되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번역문은 비록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으나 언어상의 차이점과 문체상의 이유 등으로 원문과 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롬의 견해는 성서 번역문이 원문을 대치하는 것이 아

Re-evaluation of Criteria in Light of Comparative Study of the Versions in Genesis and Psalms, unpublished dissertation, Hebrew University, Jerusalem, 1988을 참조할 것.

43) W. Schwarz, "Discussion on the Origin of the Septuagint", *Studies in the Septuagint: Origins, Recensions and Interpretations(Selected Essays with a Prolegomenon Studies)* (ed. S. Jellicoe), New York, 110-137.

44) 이런 견해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니요 보완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제롬은 라틴어 구역이 칠십인역에서 번역된 것이므로 히브리어 원문에서 거리가 멀어졌다고 언급하였다. 기존의 라틴어 성서 수정 작업을 계속하던 중 그는 칠십인역에 대한 견해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때로 히브리어 원문이 그리스어 번역문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린 그는 더 이상 칠십인역의 신비로운 기원이나 신적 영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사도들에 의하여 신약 성서에 인용된 구약 성서의 내용들이 칠십인역보다는 히브리어 원문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신약 성서와 히브리어 원문의 일치야말로 히브리어 성서의 권위를 완벽하게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제롬은 당시 교부들 사이에 퍼져 있던 칠십인역에 대한 전승이 아리스테아스가 기록한 내용과 불일치함을 간파하고, 그들 번역자들이 번역한 것은 모세 오경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제롬의 견해가 여기까지 미치자 그는 칠십인역의 신적 권위나 또는 그에서 번역된 라틴어 구역의 권위를 신빙하는 이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제롬은 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한 이후로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추진해 나갔다. 제롬은 칠십인역이 히브리어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라는 견해를 포기하였다. 그는 더 이상 그리스어 번역문이 영감된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각성은 그를 두 가지 결론으로 이끌었다: 1) 히브리어에서 직접 라틴어로 성서를 새롭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 2) 영감된 번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번역은 예언이 아니다. 성서 번역은 원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충분한 언어 지식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롬은 주후 390년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부터 새로운 번역을 시작하여 404년에 구약 번역을 완성한다. 제롬은 본래 외경의 번역을 원치 않았으나 주위의 요구에 못 이겨 유딧서와 토비트를 대충 번역한다. 처음에 제롬의 번역은 교회의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어거스틴과 같은 지도자가 반대했을 정도니 그야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제롬이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한 라틴역은 마침내 구 라틴역의 외경과 갈리칸 시편(제롬이 칠십인역을 기초로 구 라틴역을 다시 수정한 것)이 더해져서 불가타란 이름의 공인된 성서로 자리를 굳힌다⁴⁵⁾.

45) 그러나 불가타가 교회의 공식적 승인을 얻은 것은 1546년 4월 8일의 일이다(W. Schwarz, "Discussions on the Origin of the Septuagint", p.137 주).

2.3.7. 칠십인역에서 나온 다양한 역본들

교회에 이방인의 수가 유대인을 훨씬 초과하면서 교회의 지도층 역시 이방인 쪽으로 옮겨갔다. 이들 이방인들 중 히브리어를 해독할 줄 아는 이들은 거의 전무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당시 지중해 모든 지역과 유럽 세계까지 지배하던 헬라 문화의 언어, 곧 코이네 그리스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칠십인역은 교회 성서로서의 지위를 굳히기 시작하였다. 소위 말하는 이방인 교회는 칠십인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다.

주후 2세기 이후로 유대인 가운데 칠십인역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자 기독교의 교사들과 저술가들은 자연스럽게 알렉산드리아 성서에 더욱 귀착하게 되었다. 본래 칠십인역은 모세 오경에 국한되어 사용된 용어였으나, 주후 2세기 경부터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그들이 표준 성서로 받아들인 그리스어 구약 전체(이중에는 외경도 포함됨)를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되어 쓰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칠십인역이 오래 된 점과 또 복음 기자들과 사도들에 의하여 사용된 점을 들어서 칠십인역의 권위를 옹호하였다. 이들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나오는 칠십인역 유래의 전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더욱 미화시켰으며, 필로가 그랬던 것처럼 칠십인역의 영감이 결코 원문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칠십인역이 당대의 히브리어 성서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이들은 칠십인역의 오류가 전래 과정 중에 일어났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실제적인 오류가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미래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원문을 적합하게 변형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칠십인역이 초대 교회의 교리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터툴리안, 사이프리안, 클레멘트, 바르나바스, 저스틴, 이레니우스 등의 교부들에게 있어서 칠십인역은 교회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은 구약 성서였다. 다른 어떠한 번역이나 원문도 이처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히브리어 지식을 습득한 이들 조차도 이 전승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리겐은 칠십인역이 히브리어 성서와 다른 점을 간파하고 헉사플라를 통하여 그 둘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보통 쓰는 그리스어 성서를 가지고 설교와 주석을 하였다. 심지어 그는 자기 주석 체제를 잠22:28⁴⁶⁾의 칠십인역 본문에 기초하고 있다. 제롬은 그의 라틴어 역의 기초로서 히브리어 성서를 결정하기까지

46) “네 선조의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그의 결정은 결국 주위의 비난을 불러일으키었다. 어거스틴은 비록 제롬의 의도를 동정하긴 하였으나, 그것이 칠십인역의 권위를 실추시킴으로써 평신도를 불안케 할 의심스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방 교회에 미친 그리스어 칠십인역의 영향력은 이뿐만 아니라 주후 2-9세기 사이의 성서 번역을 살펴보다라도 잘 알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의 확장 및 선교 활동을 통하여 성서가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데, 제롬의 라틴역 불가타와 페쉬타라고 불리는 시리아어역만 제외하고 모두 칠십인역에서 번역되었다. 이처럼 칠십인역에 기초한 번역들로는 라틴어 구역, 이집트어(콥트어)역, 에디오피아어역, 아랍어역, 고트어역, 아르메니아어역, 조지아어역 등을 들 수 있다. 칠십인역은 오늘날까지도 동방 정교회의 구약 경전으로 쓰이고 있다.

2.4. 주후 9세기에서 10세기까지

2.4.1. 마소라 성서

중세의 모든 히브리어 성서 사본들을⁴⁷⁾ 조사 연구한 켄니코트(Kennicott)⁴⁸⁾와 드로시(de Rossi)⁴⁹⁾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주후 10세기 이후의 모든 히브리어 성서 사본이 비상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⁵⁰⁾. 이 모든 사본학적 증거들은 소위 말하는 마소라 성서를 대변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 성서 사본들의 일치는 비단 주후 10세기에서 시작되는 것은

47) 맛소라 본문 계열에 속하는 필사본으로는 6,000개 이상이 알려져 있다. 1540년 이전의 것으로는 2,700개 가량의 필사본이 존재하는데, 그 중 6개의 코텍스는 10세기의 것, 8개는 11세기의 것, 22개는 12세기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니사 조각 사본들 중 약 60개는 1200년 이전 것으로 알려져 있다(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23).

48) B. Kennicott, *Vetus Testamentum Hebraicum cum Variis Lectionibus* I-III, Oxford, 1776-80.

49) J.B. de Rossi, *Variae Lectiones Veteris Testamenti* I-IV, Parma 1784-88(1969년 재판: Amsterdam); *Scholia Critica*, 1798.

50) 켄니코트와 드로시 외에 주후 1100년 이후에 기록된 맛소라 사본들의 차이점을 수록한 책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Minhat Shay*(17세기에 Nozri의 Yedidyah Shelomo가 기록하였고, 1742-1744년의 Mantua 간행본을 필두로 하여 랍비 성서를 비롯 여러 성경 간행본에 수록됨); J.C. Döderlein & J.H. Meisner, *Biblia Hebraica*(Halle/Berlin 1818); C.D. Ginsburg, טב על-פי המסרה ועל-פי דרפוסים ראשונים עם הלופים ותרגומים ישנים תורה נביאים כתובים, מדויק הי והגהות מן כתבי יד עתיקים (London 1926; repr. Jerusalem 1970).

아니다. 주후 4세기 제롬이 라틴어 번역의 근거로 삼았던 히브리어 성서 역시 사실상 마소라 성서와 일치하는 것이며, 주후 3세기의 오리겐이 사용한 히브리어 성서 역시 마소라 성서 또는 제롬의 히브리어 성서와 다른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주후 2세기의 아퀼라역 역시 마소라 성서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아퀼라역과 마찬가지로 칠십인역을 개찬한 ‘카이게-테오도티온’(kaige-Theodotion)과 쉘마쿠스 역시 마소라 본문을 반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람어 타르굼, 미슈나와 탈무드에 인용된 구약 성서, 와디 헤벨과 맞사다 등지에서 발견된 사본들, 심지어 주전 3세기에서 주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쿵란 사본들 중 대략 60%나 차지하는 사본들을 통하여 보더라도 마소라 성서의 전승이 적어도 주전 3세기까지 올라감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이를 보통 ‘원 마소라 본문’(proto-Massoretic text)이라고 부른다.

구약 성서에 있어서 표준 성서의 본격적인 대두는 대체로 주후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시기 이전의 것으로 간주되는 사본들이(쿵란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사본들, 및 칠십인역과 사마리아 오경의 원본들) 다양성을 보이는 반면에 주후 70년(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해) 이후에 쓰인 모든 히브리어 성서 사본들이 예외없이 근소한 차이 말고는 전체적인 통일성을 보이기 때문이다⁵¹). 이러한 통일성은 일반적으로 서기관들과 마소라 학자들의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한 가지 강조하여야 할 점은 마소라 성서는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 새롭게 편집해낸 인위적 작품이 아니요 기존의 여러 성서 사본 중 가장 잘 전수된 사본 하나를 골라 그것을 표준 전승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유대인의 히브리어 표준 성서는 서기관의 바통을 이은 마소라 학자들의 노고를 통하여 더욱 확고하고도 안전하게 보존 전수된다. 히브리어 낱말 ‘마소라’는 ‘전통’을 의미한다. 마소라는 성서 본문의 정확한 전수를 위하여 성서 본문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주를 달거나 특별한 부호를 명기한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마소라 성서’이라고 함은 이들 유대인 마소라 학자들에 의하여 전수된 자음 성서 본문 내지는 그들에 의하여 보다 이용하기 편리하게 여러 가지 보조 수단(=마소라)들을 통하여 단장된 히브리어 구약 성서를 가리킨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는 본래 순수한 자음만으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 자체가 애초에 모음부호가 없이 자음 부호만으로 표기되는 언어였기 때문이다. 마

51) M.H. Goshen-Gottstein, "Hebrew Biblical Manuscripts: Their History and Their Place in the HUBP Edition", *Biblica* 48(1967), p.248.

소라 학자들은 표준 자음 성서의 본문만 전수한 것이 아니라, 모음 부호와 강세표를 고안하여 이를 자음 본문에 옷입히기도 하였다. 언제부터 모음 부호가 히브리어 성서 사본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까지 알려진 사본 중 최초로 모음 부호가 완전히 사용된 것은 주후 895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카이로 사본이다. 보통 인쇄된 히브리어 마소라 성서의 모음 체계는 티베리아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한편 히브리어의 강세표는 비단 음의 강약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내 낱말들 사이의 통사론적 관계를 규정하거나 또는 각종 구두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서기관들의 전통을 이어 계속적으로 구약 표준 성서를 보호하고자 수고한 마소라 학자들의 전통은 보통 서너 갈래로 나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며 오늘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통은 티베리아 마소라이다. 마소라는 대략 주후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걸쳐 히브리어 표준 성서 전수에 중대한 유대인 마소라 학자들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2.4.2. 벤 아셀의 코덱스

주후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걸쳐 티베리아에서 활동한 마소라 학자들 가운데 벤 아셀 가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벤 아셀 가문의 전승은 후에 보편적으로 채택되어, 오늘날 마소라 성서의 대명사가 되었다.

벤 아셀 가문의 한 사람인 모세 벤 아셀은 이미 주후 890-895년 경에 하나의 마소라 사본을 편집한 사람이다. 카이로 사본⁵²⁾이라고 불리는 이 사본은 히브리어 성서의 세 부분 중 예언서만을 포함하고 있다. 사본 내에 기록된 발문(跋文)에서 이 사본의 기록자는 자신을 모세 벤 아셀이라고 밝히면서, 이것을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제 827년에 티베리아에서 완성하였다고 말한다. 이것은 유대인 연대 계산법에 의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에 의하여 주후 895년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소라 성서를 얘기할 때 주후 10세기에 활동한 아론 벤 아셀의 사본을 빼놓을 수 없다. 아론 벤 아셀은 위에 언급한 모세 벤 아셀의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의 사본보다 더 유명한 마소라 성서 사본을 남긴 사람이다. ‘알렘포 사본’(⌘ 또는 A로 표시함)⁵³⁾이라고 불리는 이 성서 사본은 주후 10세기 전반기

52) F. Pérez Castro, *El codice de Profetas de el Cairo*(Madrid 1979-). Facsimile edition: D.S Loewinger(Jerusalem 1970).

에 기록된 것으로서 구약 성서 전체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1947년 시리아에서 일어난 반 유대인 소요로 인하여 전체의 사본지일을 잃게 되었다. 이 사본은 시리아의 알렙포 회당에 보관되었었으나 현재 이스라엘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 히브리 대학에서 편찬 중인 구약 성서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레닌그라드 사본’⁵⁴⁾은 아론 벤 아셀의 마소라 성서를 참조하여 수정한 사본으로서(주후 1008년), 성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마소라 성서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사본은 기독교 학자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BHS, BHQ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들 외에 벤 아셀 전통의 모음부기를 반영해 주는 10세기의 주요한 사본들로는 Codex B.M. Or. 4445 (B), Codex Sassoon 507, Codex Sassoon 1053 등이 있다⁵⁵⁾.

3. 나가는 글

히브리어 구약 성서는, 비록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문헌이 현존하지는 않지만, 히브리어 사본과 고대 역본들의 사본을 포함하여 방대한 분량의 필사본을 남기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분량의 자료는 자칫 잘못하면 구약 성서 편집자들을 혼돈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러나 구약 성서 전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다양한 사본들의 성격과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때, 구약 성서 문헌의 양적인 방대성은 편집자에게 방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히브리어 구약 성서의 전래 과정에 있어서 무수한 사본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원 마소라 본문’의 압도적인 위치를 알고 있다. 그리고 비록 여러 사본들 중에서 상당히 후기에 속하긴 하지만 성서 전수에 대한 집념과 필사 작업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마소라 본문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마소라 본문을 대표하는 벤 아셀의 코텍스는 BHK 3판 이후로 대부분 구약 성서 간행본들의 본문으로 채택되는 바, 그야말로 모든 필사

53) M. Goshen-Gottstein (ed.), *The Aleppo Codex, written by Shelomo ben Buyaa (the consonants only) and vocalized, accented and provided with Massoretic notes by Aaron Ben Asher in approximately 925 CE. The codex considered authoritative by Maimonides*(Jerusalem, 1976).

54) Facsimile edition: D.S Loewinger, *נביאים וכתובים כתב יד ליננדר B19A* תורה(Jerusalem 1970)

55)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46-47.

본들 중에 가장 훌륭한 필사본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벤 아셀의 코텍스 중에 선배격인 알렘포 코텍스는 아쉽게도 민족 및 종교의 차이에 따른 정치적 분쟁의 희생물이 되어 그 사본지 일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나마 알렘포 코텍스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레닌그라드 코텍스가 온전히 보존되어 내려온 것은 성서 사본학계의 복이라고 하겠다. BHQ 편집진이 이 레닌그라드 코텍스에 기초하고 외교적인 편집 방식을 채택하여 구약 성서의 다양한 증거 본문을 십분 활용, 훌륭한 본문 비평 장치를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모든 성서학자들과 번역자들이 만족해 할 만한 BHQ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구약 성경 본문 전래 과정에 대한 고찰

김경래

(전주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구약학)

1. 들어가는 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편집함에 있어서 본문 비평 장치(critical apparatus)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본문 비평 장치의 질이 그 간행본의 가치를 좌우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편집하여 출판된 BHK, BHS와 편집 중인 HUB(Hebrew University Bible), BHQ가 근래의 대표적인 간행본들인데, 이들의 가치는 그 본문이 아닌(사실상 이들의 본문은 동일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음) 본문 비평 장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두고 새로운 간행본을 시도하는 것이다.

좋은 본문 비평 장치는 구약 성경 사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본들에 대한 이해는 구약 성경 본문(text)의 전래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 과정을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는 각 사본들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로서 우리는 다양한 성경 사본들을 본문 비평 장치를 위한 자료로 사용함에 있어서 가치 설정에 있어서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알게 될 것이다. 콤파 사본 발견 이후로 우리 손에는 많은 고대 사본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사본의 가치는 단순히 그것이 기록된 시기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성경 전래 과정에서 그 사본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본문의 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는 일반적으로 그 사본을 기록한 서기관의 경향 내지 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성경의 각 책은 기록된 시기도 다르거니와 그 전수 과정도 다를 수 있다. 아울러 성경 본문이 전래되기 시작할 무렵 ‘책’(codex)이 아닌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대 사본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전체를 한뫼으로 보는 식의 취

급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칠십인역을 하나의 통일적인 사본 내지 본문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마소라 성경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볼 때, 칠십인역의 출애굽기는 칠십인역의 창세기와는 다르다. 후자가 마소라 성경과 같거나 비슷한 본문을 대변해 주는 반면, 전자는 마소라 성경과는 전혀 다른 히브리어 대본(Hebrew Vorlage)을 반영하고 있다. 칠십인역 예레미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보다 넓은 개념의 사해 사본 내지 보다 좁은 개념의 쿵란 사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해 사본 내지 쿵란 사본은 하나의 성경 사본도 아니요, 그렇다고 같은 종류 사본들의 집합체도 아니다. 물론 쿵란 외에 맛사다, 나할 헤베르, 와디 무라바아트 등지에서 발견된 사본들은 동일 집단, 곧 마소라 성경 계열에 속한 사본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쿵란 사본에 대하여는 이런 주장이 전혀 적절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칠십인역을 비롯한 여러 그리스어 역본들, 타르굼, 페쉬타, 불가타 등 각종 고대 역본에서 보이는 통일성의 결핍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 성경 전래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들에게 뚜렷한 몇몇 특징들을 기반으로 하여 편의상 이들을 각기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상 그리하는 것이지, 실제의 세부적인 연구에 있어서는 책별로,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내용씩(예를 들어, kaige-Theodotion) 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2. 구약 성경 본문에 대한 다양한 이론

일반적으로 성경 사본학이라는 학문 분과는 성경 본문의 최종적인 기록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그 연구를 시작한다. 본래 사본학은 하나의 원본을 가정하고 그 원본을 찾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런 시도는 이미 시그러지기 시작하고 단순히 현존하는(증거가 없이는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본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성경 본문의 전래 과정을 기술하는 것으로 만족하기에 이르렀다. 대략 17세기(1616년 사마리아 오경이 유럽 학계에 소개되면서 이 논쟁이 시작됨) 이후로 성경 학자들은 구약 성경의 최초 원본에 대한 논의에서 이견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몇몇 축을 이루는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 본문에 대한 이론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2.1. 드라가르데(P.A. de Lagarde)¹⁾

드라가르데는, Bauer, Eichhorn, Rosenmüller, Olshausen과 마찬가지로, 모든 마소라 계열의 사본은 하나의 원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동시에, 모든 칠십인역 사본들 역시 하나의 원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두 원본을 통하여 성경 일반에 대한 원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이론을 펼쳤다²⁾.

2.2. 칼레(P. Kahle)³⁾

칼레는 애초에 몇몇 초기/원시 문서들(pristine texts)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칼레는 이들을 vulgar 텍스트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성경 본문은 다양한 텍스트에서 출발하여 후에 통일성을 띠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와 비슷한 견해를 취하는 사람으로는 Barthélemy, Goshen-Gottstein, Talmon, Greenberg, Walters, Gerleman, Sperber, Nyberg, Lieberman, Kutscher 등을 들 수 있다.

2.3. 올브라이트(W.F. Albright)⁴⁾와 크로스(F.M. Cross Jr.)⁵⁾

올브라이트의 영향을 받아 크로스는 지역과 관련한 세 부류의 recensions 내지 families의 존재에 대하여 주장한다: 바벨론(마소라), 팔레스타인(사마리

1) P.A. de Lagarde, *Anmerkungen zur griechischen Übersetzung der Proverbien*, Leipzig, 1863.

2) 이를 영어로는 Urtext, 독일어로는 Urschrift 개념이라고 한다.

3) P. Kahle, *Untersuchungen zur Geschichte des Pentateuchtextes*, TSK 88 (1915), 399-439. (= *Opera Minora*, 1956, 3-37); *The Cairo Geniza*, 1947, 2nd ed.: Oxford, 1959; *The Hebrew Ben Asher Bible Manuscripts*, VT 1 (1951), 161-167.

4) W.F. Albright, *New Light on Early Recensions of the Hebrew Bible*, BASOR 140 (1955), 27-33.

5) F.M. Cross Jr.의 견해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53 A New Qumran Fragment Related to the Original Hebrew underlying the Septuagint, BASOR 132 (1953), 15-26.

1955 The Oldest Manuscripts from Qumran, JBL 74 (1955), 147-172.

1956 Le Travail d'Édition des Manuscrits de Qumran, RB 63 (1956), 49-67.

1958 *The Ancient Library of Qumran and Modern Biblical Studies*, New York.

1964 The History of the Biblical Text in the Light of Discoveries in the Judean Desert, HTR 57 (1964), 281-299.

1966 The Contribution of the Qumran Discoveries to the Study of the Biblical Text, IEJ 16 (1966), 81-95.

아 오경, 마소라의 역대기, 몇몇 쿨란 사본), 이집트(칠십인역 대본). 세 지방설(local texts theory)은 크로스가 발전시키고, 하버드 대학 그의 제자들은 이를 거의 그대로 추종하는 형편이다.

이 세 지방설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개찬(Palestinian recension)은 확장적이고(expansionistic) gloss 및 조화시키기 위한 첨가구(harmonizing additions)로 가득 차 있고, 이집트 개찬(Egyptian recension)은 길게 늘린 데(to be full) 비하여, 바벨론 개찬(Babylonian recension)은 보수적이고 간결한 편이다. 그리고 이들 세 family는 주전 5-3세기 동안에 발전된 것이라고 한다.

2.4. 탈몬(S. Talmon)⁶⁾

탈몬은 과거 다양한 성경 텍스트의 존재에 대하여, 세 지방설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대신 그는 역사적인 변화와 사회종교학적 상황(socio-religious conditions)을 통하여 구약 성경 전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마소라 본문, 칠십인역, 사마리아 오경이 이제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도 역시 유대교, 사마리아인, 초기 기독교의 세 종교적 집단에 의하여 그들의 경전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유다 광야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의하여 보존된 쿨란의 다양한 본문 전승(textual tradition)은 표준화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탈몬은 다수의 본문 전승이(textual tradition) 있었다고 주장한다.

2.5. 토브(E. Tov)⁷⁾

6) S. Talmon의 견해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1951 The Samaritan Pentateuch, *JJS* 2 (1951), 144-150.

1960 Double Readings in the Massoretic Text, *Textus* 1 (1960), 144-185.

1961 Synonymous Readings in the Textual Traditions of the Old Testament, *Scripta Hierosolymitana* 8 (1961), 335-383.

1963 Some Unrecorded Fragments of the Hebrew Pentateuch in the Samaritan Version, *Textus* 3 (1965), 60-73.

1964 Aspects of the Textual Transmission of the Bible in the Light of Qumran Manuscripts, *Textus* 4 (1964), 95-132.

1966 Pisqah Be'emsa Pasuq and 11QPsa, *Textus* 5 (1966), 11-21.

1970 The Old Testament Text,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I, From the Beginnings to Jerome* (eds. P.R. Ackroyd & C.F. Efans), Cambridge, 159-199.

1975 The Textual Study of the Bible - A New Outlook, *Qumran and the History of the Biblical Text* (eds. F.M. Cross & S. Talmon), Cambridge, MA/London, 321-400.

1989 *The World of Qumran from Within*, Jerusalem - Leiden.

7) E. Tov의 견해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

토브는 개괄적으로 개찬(recension) 내지 본문 유형(text-type)과 같은 용어

1977-8 Studies in the Vocabulary of the Septuagint - The Relation between Vocabulary and Translation Technique (Hebrew), *Tarbiz* 47 (1977-8), 120-138.

1978 The Nature of the Hebrew Text Underlying the LXX: A Survey of the Problems, *JSOT* 7 (1978), 53-68.

1980 The Hebrew and Greek Texts of Samuel (ed.), 1980 Proceedings *IOSCS* - Vienna, Jerusalem.

1981 *The Text-Critical Use of the Septuagint in Biblical Research*, *Jerusalem Biblical Studies* 3, Jerusalem.

1982 A Modern Textual Outlook Based on the Qumran Scrolls, *HUCA* 53 (1982), 11-27.

1982 Criteria for Evaluating Textual Readings: The Limitations of Textual Rules, *HTR* 75 (1982), 429-448.

1984 The LXX Additions (Miscellanies) in 1 Kings 2 (3 Reigns 2), *Textus* 11 (1984), 89-118.

1984 Did the Septuagint Translators Always Understand their Hebrew Text? *De Septuaginta, Studies in Honour of John William Wevers on his Sixty-fifth Birthday* (eds. A. Pietersma & C. Cox), Mississauga, 53-70.

1985 The Literary History of the Book of Jeremiah in the Light of Its Textual History, *Empirical for Biblical Criticism* (ed. J.H. Tigay), Philadelphia, 212-237.

1985 The Nature and Background of Harmonizations in Biblical Manuscripts, *JSOT* 31 (1985), 3-29.

1986 *A Computerized Data Base for Septuagint Studies*, *CATSS* vol. 2, *Journal of Northwest Semitic Languages Supplementary Series* 1, Stellenbosch.

1986 The Orthography and Language of the Hebrew Scrolls Found at Qumran and the Origin of These Scrolls, *Textus* 13 (1986), 31-57.

1986 The Nature and the Translation Technique of the LXX in the Past and Present, *Congress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ed. C.E. Cox), Jerusalem, 337-359.

1986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The World of the Bible* (ed. A.S. Van der Woude,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156-190.

1988 Hebrew Biblical Manuscripts from the Judaean Desert: Their Contribution to Textual Criticism, *JJS* 39 (1988), 5-37.

1989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Bible: An Introduction* (히브리어), Jerusalem,

1990 Renderings of Combinations of the Infinitive Absolute and Finite Verbs in the LXX - Their Nature and Distribution, *Studien zur Septuaginta - Robert Hanhart zu Ehren* (eds. D. Fraenkel, U. Quast & J. Wevers), Göttingen, 64-73.

1991 A New Understanding of the Samaritan Pentateuch in the Wake of the Discovery of the Qumran Scrolls,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Société d'Études Samaritaines* (eds. A. Tal & M. Florentin), Tel-Aviv, 293-303.

1992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Assen/Maastricht.

1992 The Textual Status of 4Q364-367 (4QPP), *The Madrid Qumran Congres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the Dead Sea Scrolls* (eds. J.T. Barrera & L.V. Montaner), vol. I, Leiden, New York, and Köln, 43-82.

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는 마소라 성경, 칠십인역, 사마리아 오경은 수많은 본문(text)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 사본들(texts)간의 상호 관계는 서로 얽히고 설킨 거미집과도 같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편집적(recensional) 활동의 특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찬(recension) 또는 본문 유형(text-type)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알려진 바대로 마소라 성경, 칠십인역, 사마리아 오경의 세 가지 그룹을 중점적으로 또 전부로 이야기해 왔지만, 그러나 쿨란에서의 발견으로 인하여 이러한 그룹 외에도 다른 부류의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쿨란에서 발견된 11QpaleoLeva⁸⁾, 4QDeutj,n, 4QJosh, 4QJudga, 5QDeut, 등은 이들 세 가지 그룹과는 다른 독특성을 보인다⁹⁾. 토브는 탈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전통’이 아닌 ‘개별적인 다양한 본문(texts)’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토브는 그 안에서도 서로 유사한 몇몇 사본들로 이루어지는 그룹,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오경과 ‘사마리아 오경의 선조 사본들’(pre-Samaritan texts)을 합하여 뚜렷한 유형을 보이는 한 그룹(one group which bears exclusive typological features)을 말한다. 이 후자의 그룹은 편의상 ‘사마리아 오경의 선조 사본’(pre-Samaritan text) 그룹이라고 불린다.

이처럼 다양한 본문(texts)을 주장하면서도 그는 탈몬이나 칼레 등과는 달리 하나의 원본이 있을 가능성을 농도 깊게 주장한다¹⁰⁾. 토브에 의하면, 성경 기록 과정의 종결과 더불어 하나의 본문(text) 또는 전승(tradition)이 산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원본(original)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비록 쉽지는 않지만 이것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본학이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책들 중 극히 일부는 문서 기록 단계, 즉 최종판이 나오기 전의 다른 판에서부터 전래가 시작된 듯한 인상을 준다.

3. 구약 성경 본문 전승 과정

8) David Noel Freedman, "Variant Readings in the Leviticus Scroll from Qumran Cave 11", CBQ 36 (1974) 525-534; D.N. Freedman and K.A. Mathews, *The Paleo-Hebrew Leviticus Scroll*, Winona Lake, 1985.

9) 더 자세한 정보는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1992, 114ff.를 참조할 것.

10) Ibid, pp. 174, 177, 189.

이상 몇몇 주요 이론들을 배경 삼고, 그리고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의 ‘구약 본문 프로젝트’(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위원회에서 제시한 ‘히브리어 본문의 발달과정’¹¹⁾ 및 이에 대한 토브의 이론을¹²⁾ 참고하여 필자 본인의 소견을 피력하여 보고자 한다¹³⁾. 필자는 편의상 이 과정을 대략 아래의 네 시기로 나누고자 한다:

- 1) 에스라에서 헬레니즘 시대 초기까지(주전 6-4세기)
- 2) 주전 3세기에서 주후 70년까지
- 3) 주후 70년에서 주후 8세기까지
- 4) 주후 9세기에서 10세기까지

11) HOTTP 위원회에서 제시한 히브리어 본문의 발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문학 분석(literary analysis)을 통하여 밝혀지는 “본래의 본문”(original texts), 2) 본문 분석(textual analysis)을 통하여 밝혀지는 “가장 초기의 것으로 증명된 본문”(the earliest attested text), 3) 주후 70년 직후에 유대교 학자들이 권위 있게 정리한 히브리어 구약 자음 본문 = ‘원(原) 마소라 본문(Proto-Massoretic text), 4) 주후 9-10세기 경에 마소라 학자들이 확정된 마소라 본문. 이에 대하여는 민영진, “구약 성서의 번역 대본”, 「그말씀」(1994.6), 88-98쪽을 참조할 것.

12) 토브는(특별히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1992, 29-36을 볼 것) 마소라 성경 자음 본문의 발전 3단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본문 전승에 있어서 내부적 차이를 보이는 단계(internal differences in the textual transmission): 이 단계의 시작은 불분명하고 끝은 2성전 파괴시(주후 70년)이다. 이 단계의 증거로서는 주전 3세기 중반에서 주후 68년에 이르는 쿨란 사본, 주전 73년 이전에 기록된 맛사다 사본들(맛사다 사본에 관한 정보는 Y. Yadin, *Masada, First Season of Excavation*, 1963-1964 [Heb.: Jerusalem 1965] 115-117과 Y. Yadin, *Masada* [Jerusalem / Tel Aviv / Haifa 1966] 168-191과 S. Talmon, “Fragments of Scrolls from Masada,” *Eretz Israel* 20 [1989] 278-286 [Heb. with Eng. summary]에서 볼 수 있음), 몇몇 고대 번역본(타르굼), 칠십인역의 초기 개찬(an early revision [recension] of LXX)인 kaige-Theodotion 등을 들 수 있다.

(2) Severus 두루마리를 제외하고 비교적 폭넓게 본문상의 일치를 보이는 단계(a relatively large degree of textual consistency except for the Severus Scroll): 이 단계는 2성전 멸망에서 주후 8세기까지에 해당한다. 이 단계의 증거로서는 바르 코크바 반란(주후 132-135) 이전에 기록된 Nahal Hever(창세기, 민수기, 시편의 조각 사본), Wadi Murabbat(토라, 이사야, 12소선지서: DJD II [Oxford 1961] 1-3, 88)의 문서들, 카이로 게니사(1890년대 옛 카이로의 Fustat 회당에서 발견한 200,000의 조각 문서 발견: M.C. Davis, *Hebrew Bible Manuscripts in the Cambridge Genizah Collections*, vols. 1-2 [Cambridge 1978, 1980]; I. Yeivin, *Genizah Bible Fragments with Babylonian Massorah and Vocalization* [Heb.; Jerusalem 1973]), 이 시대 몇몇 타르굼, 페쉬타, 칠십인역 수정판(Aquila, Symmachus, 헥사플라 제5판), 불가타, 람비 문헌, 피유티 등을 들 수 있다.

(3) 거의 전부 본문상의 일치를 보이는 단계(almost complete textual unity): 이 단계는 주후 8세기에서 중세 말까지에 해당하며, 증거로서는 마소라 주기를 갖춘 마소라 사본들(Massoretic manuscripts)과 중세 주석의 인용문 등을 들 수 있다.

13) 이 견해는 아직 완전한 단계의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3.1. 에스라에서 헬레니즘 시대 초기까지(주전 6-4세기)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는 이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¹⁴). 이미 토라는 그전에 완성되어 있었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들 중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가져갔었고, 또 에스라의 귀환 행렬시에 다시 그들의 손에 들려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졌을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후기 책들도 이 시기에는 모두 문자화되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구약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본은 전혀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주전 7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성경의 조각 문서로서(민수기 6:24-26이 담겨 있음) 은편자에 기록된 것이 1979년 예루살렘 힌놈 골짜기 근처에서 발견되었을 뿐이다¹⁵).

토브는 성경 병행문간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들어¹⁶), 이 시대 성경 사본의 상황이 그 다음 시기보다 더욱 유동적이었다고 본다¹⁷). 하지만 필자는 이 무렵 에스라를 비롯한 초기 서기관들의 영향과, 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유다의 정치 및 사회 상황으로 미루어 구약 성경 본문은 거의 큰 변화없이 전수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 논문의 뒤에 가서 이유를 밝히겠지만, 이 시기의 구약 본문은 얼마든지 ‘원(原) 마소라 본문’(proto-Massoretic text)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3.2. 주전 3세기에서 주후 70년까지

주전 330년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에게 무너진 이후로, 유대인은 전혀 새로운 역사적 국면으로 돌입하게 된다. 포용력 있는 헬레니즘 문화는 이스라엘 땅, 디아스포라 할 것 없이, 거칠 것 없는 세력으로 유대인들을 눌러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에게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이어 번역은 필연적인 사실이 되었고,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옛센파 등의 분열과 더불어, 성경 전수 과정에 있어서도 일대 혼란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쿨란에서 이 시대 구약 성경 본문의 실정을 엿보게 된다. 토브를 비

14) ספר מהיר בתורת משה (에스라 7:6).

15) G. Barkay, "The Priestly Benediction on the Ketef Hinnom Plaques," *Cathedra* 52 (1989) 37-76 (Hebrew).

16)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1(cjark) 1992, p.189.

17) *Ibid.*, p.169.

못하여 여러 학자들이 잘 지적한 대로, 쿵란에서 발견된 많은 사본들은 당시에(주전 3세기 중엽에서 주후 68년) 여러 종류의 다양한 구약 성경 본문들이 퍼져 있었음을 입증해준다. 마소라 본문과 비슷한 것, 칠십인역과 유사한 것, 사마리아 오경과 비슷한 것(pre-Samaritan texts), 쿵란 공동체의 독특한 사본들, 기타 독립적인 것 등 여러 부류의 사본이 쿵란에서 발견되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주류는 마소라 본문과 유사한 ‘원 마소라 본문’(proto-Massoretic text) 계열의 사본들이 차지한다. 토브에 의하면¹⁸⁾, 쿵란 사본의 60%가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한다. 게다가 ‘원 마소라 본문들’ 이외의 사본들에 나타나는 이독(異讀)의 대부분이 어느 하나(특별히, 원본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 마소라 본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다양성 가운데서도 하나의 ‘본래 본문’(original text) 존재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¹⁹⁾.

3.3. 주후 70년에서 주후 8세기까지

이 시기는 주후 70년의 대재난 이후에 각 종파간에 구약 성경의 본문이 단일화되고 고착화되는 시기이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하여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게 되는 사건은 유대인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다. 그 여파로 성경 보급 과정에 대한 그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 아닌가 한다. 종래의 자유분방한 분파간의 대립은 사라지고, 바리새파가 주축을 이루는 랍비 유대교로 굳어지면서 구약 성경 역시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으로 필사되어 갔을 것이다. 아마 유대인 가운데 표준 성경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가 아닌가 한다.

이 시기에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방인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자연히 헬라어 역본인 칠십인역을 그들의 표준 성경으로 삼았겠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오경의 선조 사본’(pre-Samaritan texts) 중의 하나를 취하여 거기에 자기들의 분파적 요소를 가미시킨 후 이를 자기들 표준 성경으로 전수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결국 구약 성경 본문은 서로 다른 세 종교 집단에 의하여 사회종교적인 틀 안에서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무렵 유대인에 의하여 기록된 사본들 중, Seberus 두루마리만 제외하고,

18) Ibid., pp. 115, 194.

19) 이 무렵 서로 다른 본문들에 대한 비교 분석과 그에 대한 평가는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Kyung Rae Kim, *Stud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maritan Pentateuch and the Septuagint* (사마리아 오경과 칠십인역의 관계 연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4.

나할 헤베르와 와디 무라바아트에서 발견된 사본들, 후기 타르굼, 랍비 문헌의 인용문 등 모두가 하나의 거의 동일한 본문을 반영하고 있다²⁰. 이 무렵 이루어진 유대교편의 헬라이어 번역본들(아퀼라, 쉬마쿠스, 테오도션) 역시 동일한 히브리어 본문을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오리겐의 헥사플라(Hexapla), 제롬의 불가타, 그리고 시리아어역 페쉬타²¹)와 같이 이 시기에 기독교 권에서 이루어진 작업들도 이미 통일된 히브리어 본문 방향으로의 조정 내지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3.4. 주후 9세기에서 10세기까지

이 기간은 제1기에 독점적인 지위를 점하였다가, 제2기에는 다양성 가운데 주류를 이루었으며, 제3기에 들어와서는 히브리어 표준 성경으로 자리잡게 된 ‘원 마소라 본문’(proto-Massoretic text)이 과거 서기관들의 바통을 이어받은 마소라 학자들에 의하여 확실하고도 안전한 옷을 입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때이다. 이후로 유대교, 기독교²²) 가릴 것 없이(사마리아인만 제외)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는 이 마소라 본문은 구약 성경의 모든 사본들 가운데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으로서 오늘날의 모든 간행본에서 본문의 자리를 홀로 지키게 된다²³).

4. 나가는 글: 단선식 및 다선식 과정²⁴)

성경의 전래 과정을 단선식으로(mono-linearly) 볼 것인지 아니면 다선식으로(multi-linearly) 볼 것인지 하는 문제는 이미 종전의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된 바 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전자의 견해를 취하는데, 그러나 전래 과정 가운데 비교적 미미한 다선식 변화는 인정한다.

20) E. Tov, *Textual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1992, pp. 33, 119-121, 195.

21) 일부 학자들은 페쉬타가 칠십인역에서 번역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는 J.A. Lund, *The Influence of the Septuagint on the Peshitta --- A Re-evaluation of Criteria in Light of Comparative Study of the Versions in Genesis and Psalms, unpublished dissertation*, Hebrew University, Jerusalem, 1988을 참조할 것.

22) 특히 기독교 편에서는 종교 개혁의 결과로 더욱 인정을 받게 된다.

23) 특정 사본의 내용을 그대로 본문에 두고 각종 이본에 대한 정보는 각주에 별도로 다루는 방식의 편집 방식을 가리켜 ‘외교적 편집’(diplomatic edition)이라고 부른다.

24) 단선식 및 다선식 과정이란 표현은 영어의 mono-linear process versus multi-linear process에서 옮긴 것이다.

이상 고찰해 본 대로 마소라 본문은 주후 8-9세기에 갑자기 생겨난 구약 성경 본문이 아니다. 이미 그것은 ‘원 마소라 본문’으로서 처음부터 주류를 이루며 전수되어 내려왔다. 다만 주전 3세기 중엽에서 주후 70년 사이의 시기에 ‘원 마소라 본문’은 다양한 사본의 조류에 묻히어 후기 학자들로 하여금 온갖 상상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에도 ‘원 마소라 본문’은 사실상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약간 옆으로 퍼져 그 이전과 그 이후보다 약간 더 넓은 선의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성경 번역의 문화적 과제

-이빨 같은 절벽과 사라진 여관-

고세진

(이스라엘 예루살렘대학 성경고고학 교수)

1. 서론

대한성서공회의 주문(注文)은 “성경고고학의 연구 결과가 성경 본문 연구에 어떤 빛을 던져 주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성경 번역에 반영시켜야 하는지를” 논하라는 것인데 학문이 별로 깊지 못한 필자로서는 주제가 좀 크다고 생각되지만, 그 동안 성경 번역에 늘 관심이 많았기에 지면이 허락하는 데까지 이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¹⁾

성경고고학이 성경 본문 연구에 던지는 빛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본문을 조명(照明)하고 그 본문의 언어학적 연구에 보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성경고고학의 어떤 자료가 성경 본문의 어떤 부분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크게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자기의 신학적 성향이나 학문적 경향에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성경 본문을 부정하거나 증명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예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고고학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고고학의 오용(誤用)에 가까운 것이다. 왜냐하면 고고학 자료는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고고학 자료는 대개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이곳 저곳에서 진행된 발굴 결과가 나오면서 보완되므로 선불리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위험천만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1) 필자는 성경이 어지러운 사람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따라서 성경 번역 사업이야말로 인류에게 빛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스라엘 예루살렘대학(Jerusalem University College)에 확장으로 부임하고 제일 먼저 실천한 사업이 성경번역학위과정을 설치한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Wycliff 성경번역회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의 특징은 갖가지 성경번역 모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고 총체적으로 성경본문을 다루게 교과과정이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즉, 언어학적(linguistic) 훈련만이 아니라 성경의 원어들(히브리어와 헬라이어)을 배우며 성경 본문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의 문화를 배우게 한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고고학을 포함한 어떤 학문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위치와 권위를 견지하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고고학을 논하는 것은 이 말씀을 좀더 잘 이해하여 보자는 각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 이상의 시간적인 심연이 가로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피도 역사도 공유하지 않는 인종적 차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리적 차이, 정치적 차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적 차이, 사상적 차이, 따위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들을 묵어서 간단하게 대별하자면 결국 고대 근동의 문화와 현대 한국의 문화라는 두 벽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화의 장(場)이 되는 근동과 한국이라는 지리적 상황이 각자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에서 고대의 문서인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에게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²⁾

“성경 번역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 풍습, 문학, 역사, 신학을 총망라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아울러 우리의 언어와 언어현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요구되는 종합적인 학문이며 예술이라 할 수 있다”(손석태 교수의 말. 민영진 1996 : 557).

물론 성경을 번역 또는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으뜸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언어를 터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원어들(히브리어나 헬라어 따위들)을 배우고 또 언어학(Linguistics)의 진수를 터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안고 있는 한계 때문에 어떤 본문을 오역할 가능성은 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언어는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만 따로 떼어서 다루는 것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떤 본문들은 언어적인 번역에서 그쳐서는 아니되며 두 번째 단계로 당시의 문화적 상황(언어를 배태하게 한 그 모든 배경)을 고려하여 봄으로써 그 일차적인 번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제시

2) 문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내린 다음과 같은 문화의 정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Culture = an *integrated system of learned behavior patterns* that are characteristic of the members of any given society. Culture refers to the *total way of life* of particular groups of people. It includes everything that a group of people *thinks, says, does, and makes* - its *customs, language, material artifacts* and *shared systems of attitudes and feelings*. Culture is *learned and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Kohls 1979: 17).

하고 싶은 성경고고학과 그 주변 학문을 성경 번역에 사용하는 응용법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은 이러한 자료들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자기가 다루고 있는 본문의 문화적 진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본문의 의미를 언어가 표면적으로 내포하는 것 이상으로 터득할 수 있다면 성경 번역의 과제를 과오없이 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동고고학(또는 성경고고학)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근동의 지리적 상황에 간혀서 화석이 되고 만 고대 문화의 잔재들을 파헤쳐서 그 감추어진 비밀의 암호를 풀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고학은 결국 문화탐구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고고학 자료들 중에는 간접적으로 성경을 조명하는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어떤 성경 본문과 연결되는 것도 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고고학은 지리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고 성경고고학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지리적인 연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문화의 기본 요소는 지리적 상황이며 또한 고고학의 무대는 지리와 지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고고학을 말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지리학을 병행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지리학은 고고학의 바탕이 되기도 하고 주변 학문이 되기도 한다. 그러기에 고고학 연구를 넓게 보면 지리학 연구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면, 성경고고학이나 그 주변 학문들이 이루고 있는 연구결과를 성경 번역에 어떻게 반영하며 이용할 수 있는가를 필자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리려고 한다. 구약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서 정확한 언어이해는 그 언어의 무대이었던 지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분명해진다는 것을 살펴보겠는데, 성경고고학이란 구체적인 지리적 상황을 바탕에 깔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를 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겠는데 거기에서는 뜻이 모호한 어떤 낱말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그 기능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 고고학 자료를 비롯하여 지리, 풍습, 따위의 문화적 자료들을 음미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자. 민영진 박사의 최근 저서(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에도 다음에 논하려는 성경 본문들을 다룬 적이 있다는 암시가 없으니 일단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 예문의 어떤 특정한 낱말을 어떻게 고고학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가를 논하였지만, 그 예문 전체를 새롭게 번역한 문안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그 예문들 속에는 넘어야 할 다른 문화적 과제들이 있으므로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문장 전체를 번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오직 어떤

특정한 낱말과 그것의 “분위기”가 그 예문들이 번역되었을 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논하기로 한다. 이 작은 논문에서는 개역 성경과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을 한글 성경번역본의 대표로 삼아 사용하였다.

2. 본론

2.1. 첫째 예 : 언어와 문화(지리)의 상관성 - 이빨 같은 절벽

사무엘상 14장은 연일 블레셋 군대에게 밀리면서 전쟁에서 지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의 진중에서 용감한 두 군인들이(요나단과 그의 부하)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적진을 혼란시키고 이스라엘 군(軍)에게 전세(戰勢)를 만회할 틈을 제공하는 흥미진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어느 번역본으로 읽든지 간에), 결과는 요나단의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잘 분간이 안된다. 이 본문의 일부를 한글 번역문들로 읽어 보자.

먼저 개역 성경을 읽어 보자.

사무엘상 14:4-5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14:13-14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이십인 가량이라.

그런데 이 본문을 표준새번역(1993년판)으로 읽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무엘상 14:4-5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들어 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

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계바를 바라보고 있었다. 14:13-14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거릿소 한 쌍이 만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사람은 스무 명쯤 되었다. (이 본문의 고딕체와 띄어쓰기는 표준새번역 원문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 본문을 공동번역(1977년판)에도 “날카로운 돌기둥이 둘 있었다”(사무엘하 14:4)고 하며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올라갔다. 그의 무기 당번도 그의 뒤를 바짝 따랐다”(14:13)라고 번역되어 있다.

상황 전개를 이렇게 한국어 번역문들로 읽어 보면, 전투의 장면이 상상하기가 어렵다. 정신을 가다듬고 몇 번 읽어 보고 나면, 전장(戰場)의 모습이 어설프게나마 다음과 같이 느껴진다. 즉, 넓은 평지의 북쪽에는 블레셋 군이 진을 치고 남쪽에는 요나단의 이스라엘 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각 진영 앞에는 하도 유명하여 이름까지 붙어 있는 큰 바위가 하나씩 서 있다. 이 바위들은 그 생김새가 기둥 같다. 그런데 기습작전을 벌이는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그 바위들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14:13)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 간 것 같다. 이런 전투 상황을 영화로 찍어서 비쳐 본다면, 전혀 기습을 한 것 같지 않고 무슨 곡예 장기 자랑이나 희극(喜劇)을 연출한 것 같다. 도대체 기습을 하는 군인들이 높은 바위 위에는 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겠는가? 적에게 노출되기 십상인데. 더구나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 원문에서 주목하여야 할 낱말들은 이 상황 전체인 14장 안에 나타나고 있는 두개의 동사와 한 개의 명사이다. 즉 “건너간다”(1, 4, 6, 8절)는 동사와 “올라 간다”(9, 10a, 19b, 12a, 12b, 13절)는 동사와 “바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센 하셀라”(4, 5절)라는 명사이다. 한글 성경들을 보면 모두 이 말들이 어떻게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도록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

이 두 동사들과 명사 하나가 사건의 현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낱말들은 한글 성경 번역문들에는 원문 이해에 걸림돌처럼 나타나고 있다. 즉, 개역 성경에는 두 바위들이 일어서 있다고 했지만 왜 본문이 그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건너가고” 또 “손발로 붙잡고 올라가고”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딜 건너가

고 무엇에 올라갔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표준새번역은 한 술 더 떠서 이 바위들이 “치숫아” 있다고 원문에 없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그 뜻을 분명히 하려고 의역(意譯)을 했지만 결과는 오역이 되고 번역문의 내용은 여전히 모호하기만 하다.

여기에서 “센 하셀라”를 바위로 번역하고 만 것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원문 석의를 하고 또 기존의 영문 번역본들이나 다른 나라 말로 된 번역 성경들을 참조했겠지만 그 결과는 오역이 되고 만 것이다. 번역자들은 “센 하셀라” 중에서 “하셀라”와 연결되어 있는 “센”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는 문제에 걸리고 만 것이다. 그 이유는 도대체 이 둘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번역자들이 하였던 고민과 과정을 한번 더듬어 보자. “센”은 “치아(齒牙)” 또는 이빨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고, “하셀라”는 “그 바위”로 직역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둘을 합치면 “그 바위 치아”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바위 치아”가 양쪽에 하나씩 있으니 무슨 뜻인가? 언어 분석은 여기에서 멎고 만다. 도대체 바위 치아가 양쪽에 하나씩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던 번역자들은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의역(意譯)하였다.

험한 바위(개역)

거대한 기둥처럼 치숫아 있는 바위(표준새번역)

날카로운 돌기둥(공동번역)

만약에 어떤 번역자가 “양쪽에 하나씩 있는 바위 이빨들” 이라고 직역을 하고 나서 이는 마치 사람이나 짐승이 입을 벌리고 두 줄의 이빨을 드러낸 것과 같이 가파른 바위 절벽이 하늘을 향하여 수직으로 열려 있다는 것과 같다는 상상을 할 수 있었다면, 이 본문의 오역 또는 넘겨짚은 의역으로 생긴 오역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센 하셀라”는 “(바위) 절벽” 또는 “낭떠러지”라고 번역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양쪽에 절벽이 하나씩 있으니 결국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 지형은 하도 험하기에 사람들은 이 양쪽 절벽에 각각 하나씩 별명을 붙여 주었던 것이다.

이제는 왜 요나단이 적진을 향하여 “손발로 기어올라” 갔어야 했는지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의 줄병과 함께 적진 앞에 놓여 있는 깊은 계곡을 “건너가려고” 손발로 절벽을 기어 내려갔다가 다시 기어 “올라갔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이 “절벽” 또는 “낭떠러지”란 번역은 올바른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 전장(戰場)의 지형을 답사할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때의 군인들은 사라졌지만, 그 때의 그 “바위 치아들”은 지형의 일부이니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사건의 현장에 가보자. 사진 1을 보면, 당장 “절벽” 또는 “낭떠러지”라는 번역이 잘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진은 믹마스(북쪽 마을)와 게바(남쪽 마을)를 갈라놓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 이름은 지금 아랍어로 “와디 수웨이니트”라고 하는데 동서로 흐르고 있다. 이 와디의 북쪽에는 고대의 믹마스 마을이 있었고 남쪽에는 게바가 있었다.³⁾ 이 사진은 믹마스 쪽에서 남쪽을 보고 찍은 사진이다. 즉, 남쪽인 게바에서 북쪽인 믹마스로 건너오려면 이 절벽을 내려와야 했던 것이다.

사진 2는 남쪽에서 북쪽 절벽을 보고 찍은 것이다. 절벽의 하반부는 사진 밑으로 보이지 않고 절벽의 상반부만 보인다. 이제 골짜기(와디 수웨이니트)의 밑바닥에 내려온 요나단은 이번에는 절벽을 기어올라가야 했던 것이다. 그러면 믹마스 마을에 있었던 블레셋 진지로 쳐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리적 상황을 알고 보면, 이 본문의 원어인 “센 하셀라”를 쓴 원저자(히브리 사람)의 표현이 우리에게겐 어렵게 들려도 그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겐 적절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첫째로 성경 원문을 바로 석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차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의 무대가 되는 지역의 지리나 지형에 대한 지식이 성경 번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즉, “바위”라고 한글 성경들 속에 어물쩍 번역되어 히브리어 낱말 “센 하셀라”를 한글로 바로잡으려면 이렇게 두 단계(原語와 지리)를 거쳐서 “절벽” 또는 “낭떠러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즉, “센 하셀라”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의역을 한 것이 첫째 문제이다. 둘째는 번역자들은 이 사건이 벌어졌던 곳의 지리적 상황에 대하여는 기초적 지식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성경 번역자가 번역하려는 본문의 현장 즉 지리적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번역자는 일차적으로는 성경 원어에 능통하여야 되겠고 부차적으로는 성경지리학을 섭렵할 필요가 있겠다.

3) 지금 게바는 퇴락한 작은 마을이지만 믹마스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마을이다. 두 마을 모두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 점령지구 안에 있다.

2.2. 둘째 예 : 언어와 문화(주거구조)의 상관성 - 사라진 여관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번역해야 할 본문이 사건발생 당시의 언어, 역사, 지리(지정학적 위치), 고고학적 자료(풍습이나 경향성) 따위를 종합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런 경우 번역자는 일차적으로 중요한 언어적 또는 언어적(言語的)인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른 자료들 특히 고고학적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 번역의 신빙성을 타진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마리아와 요셉에게 방을 내어 주지 않았던 “여관” 주인은 국제적으로 야단을 맞곤 한다. 그리고 짐승 우리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설교하는 감상적(感傷的)인 설교가들도 있게 마련이다. 과연 예수님은 부모들이 여관에 들 수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단계의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작업은 언어(헬라어), 베들레헴의 지정학적 위치, 고고학적 자료를 다 참고하여야 하는 일이다.

누가복음은 그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이 본문을 한글 성경으로 읽어 보자. 먼저 개역을 읽어 보면 다음과 같다.

누가복음 2:4-7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막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본문이 표준새번역(1993년판)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누가복음 2:4-7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본문의 고딕체와 띄어쓰기는 표준새번역 본문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 본문이 공동번역(1977년판)에도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는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다”라고 되어 있다.

이 본문은 사관(개역) 또는 여관(표준새번역과 공동번역)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축들이 있는 우리 안에서 기거하게 되었고 따라서 아기 예수는 거기에서 태어나 구유(가축의 먹이통)에 누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한글 번역들은 올바른 것이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상황을 바로 전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사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면 “카타뤼마”인데 이 낱말은 “묵어 가는 곳”, “음식 먹는 곳”, 또는 “손님 방(객실)” 따위로 이해되는 장소를 가리킨다. 이 낱말을 개역 성경은 “사관”으로 표준새번역과 공동번역은 “여관”으로 번역하여 놓고 있는 것이다. 사관이나 여관이란 한국말은 서로 바꾸어 쓸 수도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상은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이 말을 (아래에서 보듯이) 개역 성경이 다른 두 곳에서 (막14:14, 눅22:11) “객실”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 한 일이며, 다른 번역들은 타당하지 않다. 애석하게도 개역 성경은 누가복음 2:7을 번역할 때에만 “사관”이라고 오역을 하고 말았다. 그러면 이 낱말(카타뤼마)을 좀더 추적하여 보자.

이 낱말(카타뤼마)은 마가복음 14:14와 누가복음 22:11에도 나온다. 즉, 마가복음 14:14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드실 유월절 만찬 장소가 “카타뤼마”인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객실”로 번역하였고 공동번역은 그냥 “방”이라고 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표준새번역을 보면 이 말을 “사랑방”이라고 하고 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11 역시 “카타뤼마”를 쓰고 있으며 개역 성경은 이 낱말을 “객실”이라고 하고 있으며 공동번역은 “방”, 표준새번역은 “그 방”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카타뤼마”를 사관이라고 한번(눅2:7), 객실이라고 두 번(막14:14, 눅22:11) 번역하고 있다. 공동번역은 여관이라고 한번, “방”이라고 두 번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새번역은 “카타뤼마”를 여관(눅2:7), 사랑방(막14:14), 그리고 그 방(눅 22:11)이라고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표준새번역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공동번역은 개역 성경을 베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좀 전에 말한 바대로 여기에서 “객실”이라는 개역 성경의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든다.

사관(舍館), 객실, 여관, 사랑방, 그 방, 방. 이 말들은 한국말에서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게 문제이다. 즉 한글판을 읽는 사람이 어떤 문화적인 연상(聯想)을 할 것인가를 번역자는 물어야만 한다. 사관은 여행자가 묵는 곳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의 손님 접대용 장소일 수 있다. 사관은 또 돈을 내고 묵는 곳

일 수도 있고 무료로 묵어 갈 수도 있는 곳이다. 객실은 여관의 한 방일 수도 있고 여염집의 방일 수도 있다. 여관이라면 그야말로 여행자가 돈을 치르고 묵어 가는 곳이다. 사랑방은 여염집의 방인데 주인이 손님을 만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이 곳에서 묵어 간다면 돈을 낼 생각은 안해도 좋을 것이다. 그 방이란 어떤 성격의 방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특정한 방을 가리키는 말일 뿐이다. 어떤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인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마가복음 14:15절에는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다른 낱말인 “아나기이온”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역과 표준새번역은 “다락방”이라고 하며, 공동번역은 “큰 이층방”이라고 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22:12에서 반복되면서 “아나기이온”이 나오고 있는데, 개역과 표준새번역은 이 낱말을 역시 “다락방”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공동번역은 “이층의 큰 방”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들에는 “아나기이온”이 “다락방” 또는 이층에 있는 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만찬 장소를 찾는 사건 속에는(막14:14-15, 눅 22:11-12)에서는 예수님이 “카타뤼마”를 찾으니 어떤 사람이 “아나기이온”을 내 주게 된다는 이야기다. 즉 “카타뤼마 = 아나기이온”이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을 다시금 음미하여 보면, “카타뤼마”는 형체가 아니라 어떤 질(質)을 의미하는 것 같다. 즉, 어떤 방이던 손님이 들면 객실이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아나기이온”은 그런 손님을 모시는 특정한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즉 일정하게 어떤 위치에 어떤 형체를 갖추고 있는 장소인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손님이 오면 자동적으로 “아나기이온”에 들게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카타뤼마(객실)”가 될 “아나기이온”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보면, 이 두 낱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여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여관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게 표식이 붙어 있던지 알려져 있었을 것이니 이렇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따라 가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라”(막14:14, 눅22:11)라는 어려운 주문(注文)을 달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나기이온”을 “다락방”이라고 한 번역이 잘되었는가? 번역자는 다시 한국 독자가 일으킬 문화적 연상(聯想)을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다락방을 영어 성경들을 모두 upper room이라고 하고 있다. 한국 말에서 다락방이란 침실이나 거실에 붙어 있는 작은 공간으로써 이불이나 집기들을 두거나 하는 곳이며 사람이 들어 가서 활동하며 생활하게 설계된 곳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락방”을 별로 잘 된 번역이라고 여길 수는 없다.⁴⁾ 차라리 공동번역이

말하고 있듯이 “이층에 있는 방”이 좀 설명적이긴 하지만 실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된다.

다락방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또 하나 있다. 사도행전 1:13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다락(개역)에 또는 다락방(표준새번역)에 모였다고 한다. 이 말의 원어는 “휘페르온”인데 이것은 다락(방)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2층에 있는 방 또는 2층(에 있는)집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그 방에서는 사람이 120명 정도 모여서 집회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사도행전 1:15). 그런 장소를 다락 또는 다락방(개역과 표준새번역)이라고 번역한다면 오역이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층방”(공동번역)이 더 잘 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된다.

헬라어에도 보편적으로 여관을 가리키는 말이 있다. 헬라어에서 길손이 돈을 내고 묵어 가는 여관은 “판도케이온”이라고 한다. 이 말은 아무나 모두(판) 받아들인다(테코마이)는 어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주막(酒幕)”으로 번역되어 있고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에는 여관(旅館)으로 되어 있다. 즉 누가복음 10:34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초죽음 된 사람을 “판도케이온”에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는 것이 나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의 “여관”이 개역 성경의 “주막”이라는 말보다 잘 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 이유는 주막이라는 곳은 술을 팔기도 하고 길손이 묵어 가게 방도 내주는 영업집인데 2,000년 전의 이스라엘 상황보다 19세기 조선의 산골길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헬에 있었던 것은 “판도케이온”이 아니라 “카타루마”이었다는 이야기다. 즉, 베들레헬에 있었던 것은 여관(또는 사관)이 아니라 객실이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객실에 들어 가야 했는데 못 들어 갔기 때문에 가축 우리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객실과 가축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 문제로 들어 가기 전에 우리는 위에 한 논의를 정리해 보자. 아래 도표

4) 영어 성경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upper room”을 생각하여 보자. 영어성경은 “아나가이온”이나 “휘페르온”을 모두 “upper room”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용어는 서양식 다락방인 attic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현대에는 거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하였던 유월절 만찬 장소 또는 오순절 성령강림 장소를 일컫는 명사로 고착되어 있다. Attic은 이층에 있는 방이 아니며 지붕 밑에 있는 작은 공간으로써 대개 물건을 저장하는 장소이며, 서양 건물의 구조상 attic을 변경하여 생활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웅장한 집안이라도 별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번역자들은 attic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층을 뜻하는 “upper room”이라는 말을 쓴 것이다. 그래서 NIV는 아예 “upstairs to the room”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한글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격에 맞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더구나 120명 가량이 모일 수 있는 장소(사도행전 1:15)이었다면 이것은 “이층에 있는 큰 방”이라고 풀어 쓰는 것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 편하다. 아니면 아예 “2층집”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는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 낱말들을 정리한 것인데 참고로 영어 성경 두 가지 (NIV와 NASB)의 번역들도 살펴보았다.

	개역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NIV	NASB
카타뤼마	눅 2:7	사관	여관	여관	the inn the inn
	막 14:14	객실	방	사랑방	guest room guest room
	눅 22:11	객실	방	그 방	guest room guest room
아나카이온	막 14:15	다락방	큰 이층방	다락방	upper room upper room
	눅 22:12	다락방	이층의 큰 방	다락방	upper room upper room
판도케이온	눅 10:34-35	酒藪	여관	여관	an inn an inn
휘페르온	행 1:13	다락	이층방	다락방	upstairs to upper room the room

우리는 여기까지 언어의 단서들을 따라 왔으나 막다른 골목에 막히고 말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곳, 그 때의 인습, 베들레헴의 지리학적 고찰(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그 당시 서민들의 가옥구조를 알려주는 고고학적인 자료 따위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이 번역들을 검증하여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옛날에 베들레헴은 국제도로는 물론이고 모든 중요 간선도로에서 벗어나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물론 베들레헴은 지금도 산악 지방의 중앙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다.) 즉 여관이 있을 만한 곳이 못된다는 말이다. 페르시아 시대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지역에는 대상로(隊商路)가 잘 발달하게 되었고 이 길들을 따라서 숙박업소들(caravansaries)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국제 도로도 아닌 중앙 산악 지방 도로에서도 동쪽으로 벗어나 있었고, 이 마을의 동쪽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버티고 있었으니 이 마을을 통과하여 다른 곳으로 갈 곳은 없었다. 베들레헴에 온 사람은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가서 중앙 산악 지방 도로(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만나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다.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러니 그 사정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이 마을에 특별한 불일이 없이 그냥 지나가느라고 여기를 들어 왔던 사람들은 아주 희귀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옛날의 여관이 발굴되었다는 고고학 보고도 없다.

둘째로, 자기의 친척이 있는 연고지에 가서 여관에 들어 간다면, 친척과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친척집에 무슨 사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관습은 동서양이나 고금을 막론하고 해당이 된다. 더구나 가족 중심적인 고대 동양 사회의 일원이었던 요셉은 여관이 아니라(설령 그 근처에 일급 여관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연히 자기 친척집을 찾아갔을 것이다. 그 당시 마을들은 씨족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문의 식구가 방문을 오면 묵어 보낼 수 있는 집이 있었다. 그걸 “객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객실은 늘 비워 둘 수도 있겠고 손님이 없는 동안에는 그 마을의 씨족 식구들이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에 요셉 일가는 여관이 아니라 어떤 집에 있었다(마태 2:11). 이것을 여관 마구간에 있다가 셋 방을 얻어 들어갔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된다.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부터 “어떤 집”에 들어갔던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한 아래의 세 번째 요점이 중요하다.

셋째로, 객실의 구조를 생각하여 보면 이렇다. 이것은 로마 시대의 팔레스타인 마을의 고고학적 자료를 알아야 될 것이다. 농촌이 아닌 곳에 있는 큰 집이라면 2층이 있는 석조가옥일 경우가 많았으니 그런 건물 안의 2층에 있는 한 방을 비워서 손님이 묵을 수 있도록 해 둔 객실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 방 중에서 위층에 있는 방 하나를 객실(카타뤼마)로 썼다면 이는 윗방(아나기이온)이라고 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작은 건물 하나가 단칸방 자체로 되어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客室(손님이 머무는 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客舍 또는 客住(손님이 머무는 집)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독립된 객사인 경우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그 당시(성지의 로마 시대)의 일반 가옥 구조는 일단 들어 가면 일층은 가축들이 사는 곳이고 계단을 타고 조금 올라 가면 단칸방에 사람이 생활하게 되어 있었다.

그 때에 가축들은 큰 재산이었으므로 늘 가까이서 보호할 수 있어야 했으므로 “아랫방”을 우리로 삼아서 길렀던 것이다. 물론 가축인 양이나 염소는 낮에는 밖에 내놓아 풀을 뜯게 하였으므로 가축이 항상 우리(또는 아랫방)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촌에서는, 우릿간이 한국 농촌에서처럼 사람이 사는 집에서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방 밑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이 구조가 이해된다. 이 그림은 독일학자 구스타브 달만(Gustaf Dalman)이 20세기 초에 베들레헴을 비롯한 산악 지방에 있던 민가(民家)를 연구할 결과를 가지고 단면으로 그려 놓은 것이다. 이것을 보면 서민 가옥구조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2 역시 20세기에 베들레헴이나 예루살

렘 주변을 비롯한 산악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서민가옥을 도면화한 것이다. 그러면 이 그림들이 예수 당시의 서민가옥 구조도 대표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렇다.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의 고고학 자료를 집대성하여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의 가옥구조에 대한 책을 낸 바 있는 Y. Hirschfeld 교수는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발굴하여 본 결과 현대 농촌 서민들의 가옥구조는 로마 시대나 비잔틴 시대의 가옥구조와 비슷하다고 결론을 내렸다.⁵⁾ 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From the standpoint of building methods and materials, the traditional rural dwelling in the Hebron hills, as in other areas of the country that have not, until recently, been deeply affected by industrial technology, is the continuation of an ancient tradition”(Hirschfeld 1995:17).

마태복음 2:11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계신 “집”에 들어 갔었다고 한다. 예수께서 처음 태어나셨던 그 우릿간의 그 집에 그대로 계셨던 것이라면 아랫방인 우릿간에서 윗방인 거실로 옮기셨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왜 그런 생각이 가능하냐 하면, 호적하러 왔던 사람들이 다 가고 나니 그 객사(客舍)가 비게 되었으므로 예수 일가가 독차지를 하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카타뤼마를 여관으로 번역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관으로 번역을 해 버리면, 예수 일가가 여관에 들려고 했다가 못하고 가축 우릿간에 가 있다가 어떤 집으로 갔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헛돌게 된다. 그게 아니라 집 구조상으로 볼 때에 처음부터 어떤 집에 들어 가서 그냥 계시다가 동방박사들을 맞을 때까지 쪽 그 집에 계셨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말한 가옥구조는 가난한 평민들의 집인데, 방이 여러 개 되는 큰 집들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경제와 살림살이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난한 평민들의 집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에 더 크거나 화려한 가옥들의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넷째로,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많은 손님들로 붐볐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5) Y. Hirschfeld 교수가 발굴한 베들레헴과 헤브론 주변에 있는 산악 지방의 고대 마을들은 Beit Kahil, El-Jab'a, Taffuh, Bani Naim, Dura, Yatta, Susiya 등 여러 곳이다(Y. Hirschfeld 1995:144).

서 위에서 말한 두 번째 요점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여기 저기서 요셉처럼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으니 각자 자기 연고 씨족에게로 찾아갔을 것이다. 다윗 가문에도 들이닥친 사람들이 많아 이미 모든 객실들이 차버렸을 것이다. 어떤 길손들은 노독(路毒)으로 지쳐서 벌써 잠이 들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난 친척들과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술판을 벌이거나 무슨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몇 곳에 있는 객실들이 단칸방으로 된 집들인데다가 이렇게들 어지러운 상황으로 만원(滿員)인데 요셉이 정혼한 임신녀와 들이닥쳤으니, 씨족 중에서 손님 방 배정과 접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난감하였을 것이다. 이미 와서 윗방(객실)에 자리 잡고 죽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과 마리아를 들일 수도 없고 하여 그는 우선 우릿간 한 쪽에 새로운 짚을 깔고 요셉과 마리아를 모셨을 것이다. 아니면 객실이나 객사가 아니라, 어떤 집의 아랫방(즉 우릿간) 한 쪽을 다듬어서 요셉과 마리아를 모셨을 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건 복작대는 윗방보다는 차라리 아랫방인 우릿간이 어찌면 임신한 약혼녀를 데리고 온 요셉에게는 더 한갓지고 마음이 편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다.

아랫방이 우릿간이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때에 짐승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다. 비록 아기 예수가 구유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때에 가축들이 옆에 있었다는 증명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객실이 늘 비워 두던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손님이 왔을 때에만 비워서 내 주는 곳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후자의 경우이거나, 객실이 아닌 어떤 사람 친척집 아랫방(우릿간)에 들었었다면 거기에는 가축들(대개 양들과 염소들)이 있었을 것이다.⁶⁾

자, 이제 우리는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이라는 말을 “객사(客舍) 윗방에” 또는 “객실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원어 석의로 보던, 고고학적 자료로 보던, 이 말을 여관(旅館)으로 번역하는 것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기 예수가 우릿간에서 태어났을 때에 친척들은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고 미안해하기보다는 옥동자가 태어났다고 기뻐하였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사는 윗방을 가축이 있던 아랫방과 다른 차원으로 차별대우하는 관념이 없었던 것

6) 공동번역이 “말구유”에 아기 예수를 눕힌 것으로 번역을 한 것(눅2:7)은 큰 오역이다.

이다. 우선 집 안에 들어서면 짐승들의 그 냄새 자체가 집 안 전체(윗방과 아랫방)를 하나의 세계로 묶어 주고 있었던 것이다.

3. 결론:

지금 까지 우리는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적 또는 원어적 연구는 고고학과 그 주변 학문들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크게는 어떤 번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작게는 어떤 번역 작업에서 겪는 모호한 점을 조명하여 준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며 동시에 언어 없이는 그 어떤 문화도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어의 기술자는 또한 그 언어를 배태시키고 그 언어의 영향을 받았던 그 문화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자기가 다루는 언어로 기록된 문장을 더욱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만족할 만한 번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성경 번역자가 다루는 문서는 일반 문서, 즉 어떤 오역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영혼이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문서들과는 다르다. 성경 번역자가 이룩하여 놓은 번역문들이 성경으로 인쇄가 되면 그것은 설교의 기초가 되고 기도의 기둥이 되며 삶의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번역자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따라서 성경 번역자는 원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일생을 걸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번역자는 계속하여 발표되는 성경고고학(또는 근동고고학)의 연구결과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현장에서 출토되는 자료들은 성경 시대의 지리, 언어, 관습, 일상생활의 도구들, 국제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고방식 따위를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이다. 성경 번역자는 이런 것들을 보조 자료로 하여 자기가 다루는 원어와 본문을 더 가치 있는 번역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진 1. 요나단의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서로 마주 보고 대치 하여 경계선이 되었던 골짜기 와디 수웨이니트. 이 사진은 믹마스 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바라 본 것이다. 요나단은 이 절벽을 타고 골짜기의 밑으로 내려 왔던 것이다. 이 사진을 찍으려고 필자는 믹마스 쪽으로 돌아서 여러 시간을 걸어야 했다.



사진 2. 와디 수웨이니트 골짜기 밑에 내려갔던 요나단이 북쪽에 있는 믹마스에 가려고 올라갔던 절벽. 이 사진은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다. 절벽의 윗 부분만 이 사진에 담겼다.



그림 1. 20세기 초기에 있었던 산악 지방(팔레스타인) 서민가옥의 단면도. 이 단면도를 보면 아랫방과 윗방으로 나뉘어져 있다. 윗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아랫방은 바닥을 파서 지면(地面)의 위치보다 약간 낮게 되어 있다. 이 아랫방이 가축을 두는 곳이다.

ㄱ) 굴뚝 ㄴ, ㄷ) 상자 모양으로 된 곡식저장 통(흙으로 만든 것인데 한국 쌀통 비슷하여 위에서 곡식을 넣고 밑에 있는 구멍으로 필요한 양만큼 꺼낸다) ㄹ) 채광구 ㅁ) 다듬지 아니한 벤치(긴 의자 식으로 늘어놓은 돌 또는 바위를 대충 깎아서 긴 의자로 만들어 놓아서 앉게 한 자리) ㅂ) 계단. (이 그림은 Gustaf Dalman 1964:그림 72를 기본으로 하고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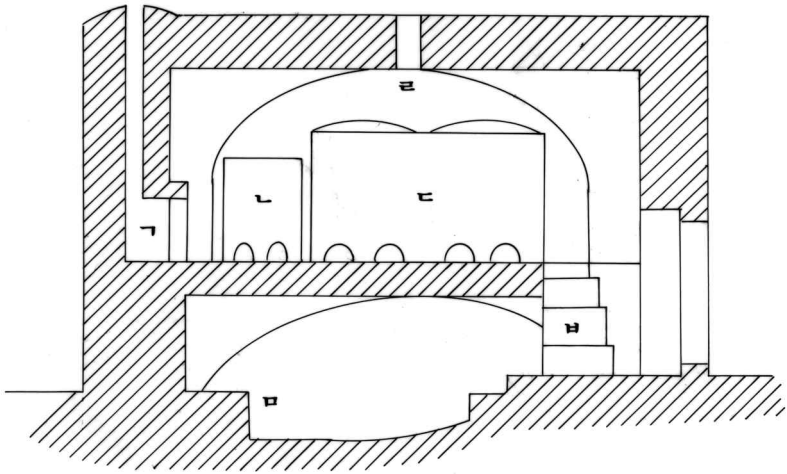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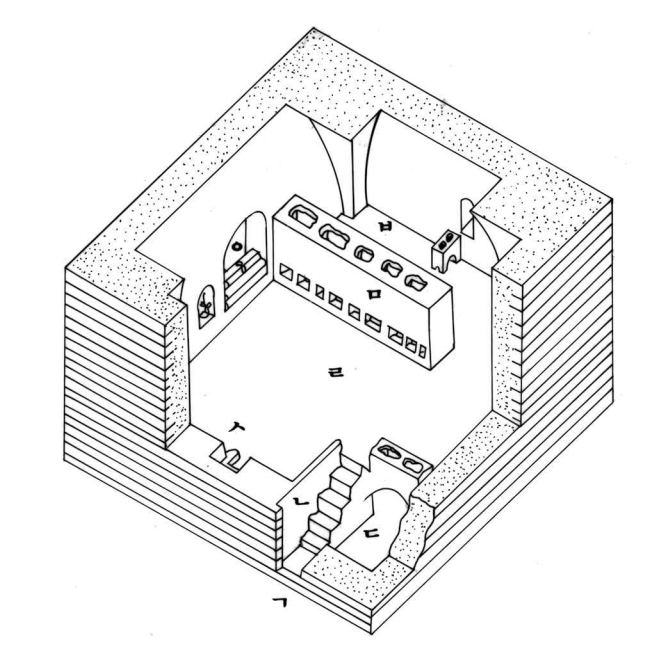


그림 2. 예루살렘 북쪽 라말라 근처에 있는 서민 가옥. 역시 윗방과 아랫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ㄱ) 입구 ㄴ) 계단 ㄷ) 아랫방(가축 우리로 사용하며 동시에 농기구를 두는 곳) ㄹ) 거실(단칸방) ㅁ) 곡식 저장통(진흙으로 긴 상자 모양이 되게 만들었다. 위에서 곡식을 넣고 아래에 있는 구멍으로 필요한 양만큼 꺼낸다. 이 통이 방을 갈라놓는 칸막이 구실도 겸한다) ㅂ) 음식 보관장소 ㅅ) 불 때는 곳(한국식으로 말하자면 화로 구실을 함) ㅇ) 이부자리를 개어 놓는 곳(이 그림은 Suad Amiry and Vera Tamari 1989:22를 기본으로 하고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참고도서

- 공동번역 성서(외경포함).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56(1960년 66판 발행).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년 초판본.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 The Greek New Testament edited by Kurt Aland, et. al. Second edition. United Bible Societies. 1966.
- The Holy Bible(New International Version). Nashville: Holman Bible Publishers. 1986.
- New American Standard Bible. Chicago: Moody Press. 1960.
- Suad Amiry and Vera Tamari. The Palestinian Village Home. London: British Museum. 1989.
- Gustaf Dalman. Arbeit und Sitte in Palastina. Vol. VII. Hildesheim: Georg Olms Verlagsbuchhandlung. 1964.
- Yizhar Hirschfeld. The Palestinian Dwellings in the Roman and Byzantine Period. Jerusalem: Franciscan Printing Press. 1995.
- L. Robert Kohls. Survival Kit for Overseas Living for Americans Planning to Live and Work Abroad. Chicago: Intercultural Press. 1979.

Abstract

The Korean Bible Society has asked the writer to expound on this theme: “What light does archaeological research (in the Middle East) shed on the study of Biblical texts, and how can one utilize it (archaeological research) in translating Biblical texts into a target language (more specifically, the Korean language)?”

The writer’s basic assumption is that archaeology and its cognate sciences are not the final word on the meaning and translation of the text. Rather, they first of all play a supplementary role in linguistic and textual studies and in the illumination of the text. The translator of Biblical texts can always benefit from using such archaeological studies to the extent that they enable him/her to understand the text better and/or to examine linguistically ambiguous words, phrases, or expressions in an appropriate cultural context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translation.

Two examples are given in order to illustrate the proposed process of using cultural elements or contexts can be understood through archaeological research, including geographical observations. The first text is from First Samuel 14:4-14. The second text is from Luke 2:4-7. The result is that a correct translation can be ensured first through textual and linguistic study and second by verification of archaeological, cultural, and historical data. (SeJin Koh. Associate professor of Near Eastern Archaeology, Jerusalem University College, Jerusalem, Israel)

기존 번역의 개정을 위한 본문비평

- 삼상 1:1-11 중심의 예비 조사 -

민영진

(대한성서공회 부총무 구약학)

1. 머리말

기존 번역을 개정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할 몇 가지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첫째 필요는, 기존 번역이 나온 지가 이미 오래 되어서, 그 번역을 사용하는 이들의 현재 언어와 번역 성서에 반영된 과거 언어 사이에 차이가 많이 생겨, 의사 전달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둘째는, 기존 번역에는, 그것이 번역되던 당시의 본문 연구와 본문 비평 연구 결과는 반영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새롭게 발전된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 연구가 밝혀낸 결과를 번역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번역의 성격 자체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번역을 개정하기보다는 새로운 번역을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존 번역에 대한 개정이 기존 번역의 번역 성격까지 바꾸려 한다면, 기존 번역의 번역 성격을 깡그리 바꾸지 못하는 한, 개정의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새로 번역을 하느니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번역의 번역 성격이 형식일치의 번역이라면 개정도 그러한 원칙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내용동등성 번역을 개정할 경우라면 개정도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번역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는 것은 이미 개정의 범위를 지나 새로운 번역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쓰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은, 신약이 1900년에 번역이 되었었고, 구약이 1911년에 번역되고, 두 차례 개정된 신약과 합본되어 「성경전서」로 나왔고, 그후 곧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 1938년에는 「성경전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 1952년에는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른 표기

를 채택하여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여 1961년에 최종 편집을 완료하여 출판하기까지 이 이름을 쓰고 있다. 1980년대에 「개역」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1990년 초에 이것에 대한 감수 작업이 이루어져 1995년에 「신약전서 개역 개정판」이 나왔으며, 이제 1997년에는 구약 감수가 끝나는 대로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 나오게 된다. 「개역」의 지속적인 개정은 지금까지 「개역」 자체의 번역 성격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루어져 왔다. 즉 「개역」 자체가 보여주는 형식일치의 정도(程度)와 내용 동등성의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은 앞으로도 이것이 사용되는 한 일정한 시기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는, 개화기에 번역되었고, 지난 한 세기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거듭해온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61)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이 어느 계기에 집중적으로 “본문 비평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정”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 조사의 성격을 지닌 연구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본문 비평이란 본문의 전송 과정에서 생긴 와전(訛傳)된 본문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다. 히브리어 구약성서의 경우는 본문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곳을 어렵잡아 세어보면 약 5천여 곳에 달한다¹⁾. 문제가 되는 이러한 본문에 대하여 한 세기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계속해 온 것 중의 하나가 바로 1906년에 나오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네 번이나 크게 개정을 거듭해 온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의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작업이다. 1906년에 처음 나왔던 루돌프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는 20세기 초에 나온 것으로서 본격적인 본문 비평 장치(Critical Apparatus)를 가진 편집이었다. 이것을 오늘날은 편집자 이름의 머리글자를 따서 BHK라고 부르며, 첫 판은 BHK1이라고 표기하고, 1909년에 나온 2판은 BHK2라고 한다²⁾. 처음 두 판은 「제2 랍비성서」³⁾를 기본 본문(base text)으로 사용했었다. 1937년에 나온 것은 3판이며, BHK3이라고 표기한다⁴⁾. 이 3판부터 레닌그라드 마소라 사본 B19A를 기본

1) Jan de Waard and Eugene A.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New York, 1986), p. 12: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has involved an analysis of some five thousand different textual problems in the Old Testament in which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meaning.”

2) R. Kittel (ed.), *תורה נביאים וכתובים* *Biblia Hebraica* (Lipsiae: J. C. Hinrichs, 1906¹, 1909²)

3) *Biblia Rabbinica*, A reprint of the 1525 Venice Edition Edited by Jacob Ben Hayim Ibn Adoniya, Introduction by Moshe Goshen-Gottstein (Jerusalem: Makor Publishing Ltd, 1972).

4) R. Kittel (ed.), *תורה נביאים וכתובים* *Biblia Hebraica*, Adjuvantibus W.

본문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1967/77년에 나온 히브리어 성서의 새로운 비평적 편집은 슈투트가르트에서 출판된 것이라 하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트엔시아」(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라고 부르고⁵⁾, BHS로 표기한다. 이것이 제 4 판에 해당된다. 세계구약학계와 성서번역학계에서는 지금 한창 준비 중에 있는 비평적 편집이 출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곧바로 출간될 예정인, 새로 편집되어 나올 그 히브리어 성서는 그 이름은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쿼타」(Biblia Hebraica Quinta)이다⁶⁾. “퀀타”(quinta)라 함은 루돌프 키텔(Rud. Kittel)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가 나온 이래 다섯 번째 판이라는 뜻으로서, BHS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제5판(editione quinta)이라고 한다. 이상 다섯 차례에 걸쳐 간행되는 히브리어 성서의 비평적 편집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히브리어 성서의 본문 비평을 집중적으로 해 왔으며, 아직도 미해결의 문제가 많이 남기는 했어도, 히브리어 본문 회복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BHQ 편집위원회에서 시험용으로 출간한 「건본 하박국서」⁷⁾와 「건본 사무엘기」⁸⁾에 관해서는 우

Baumgartner, G. Beer, J. Begrich, F. Buhl, J. Hempel, F. Horst, M. Noth O. Procksch, G. Quell, Th. H. Robinson, W. Rudolph, H. H. Schaefer, Textum Masoreticum Curavit P. Kahle, Editionem Tertiam Denuo Elaboratam ad Finem Perdixerunt, Editionem Septimam Auxerunt et Emendaverunt, A. ALT et O. EISSFELDT, Württembergische Bibelanstalt Stuttgart, 1937.

5) Karl Elliger and Wilhelm Rudolph, eds., תורה נביאים וכתובים,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quae antea cooperantibus: A. Alt, O. Eissfeldt, P. Kahle ediderat, R. Kittel, Edidit Funditus Renovata, adjuvantibus H. Bardke+, W. Baumgartner+, P. A. H. de Boer, O. Eissfeldt+, J. Fichtner+, G. Gerleman, J. Hempel+, F. Horst+, A. Jepsen, F. Maass, R. Meyer, G. Quell. Th. H. Robinson+, D. W. Thomas+, cooperantibus H. P. Rüger et J. Ziegler, Textum Masoreticum curavit H. P. Rüger, Masoram Elaboravit G. E. WEIL,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1967/77.

6) *Biblia Hebraica*/ editione quinta/ cum apparatu critico novis curis elaborato/ communiter ediderunt/ Yohanan Goldman, Arie van der Kooij, Gerard Norton,/ Stephen Pisano, Adrian Schenker, Stefan Schreiner./ Jan de Waard, Richard Weis/ Deutsche Bibelgesellschaft.

7) *Biblia Hebraica Editio Quinta Funditus Renovata HABAKKUK 1, An Introduction, Sample Text and Commentary*, offered for reaction and response,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2). BHQ 「건본 하박국서」와 BHQ의 편집 역사와 활동 전반에 관해서는 민영진, “히브리어 구약성서 BHQ”, 「그말씀」 1994년 7월호, 92-99쪽, 「건본 하박국서」 평가에 관해서는, 민영진, “BHQ 하박국서 건본: 평가와 제안”, 「최의원교수 은퇴기념논문집」(1997년 여름).

8) 1995년 7월 16-21에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있었던 15차 세계구약학회(XVth Congr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에서 BHQ 사무엘기 건본 페이지가 배부되었다. 이것에 대한 소개와 논의에 관해서는 민영진, “BHQ 사무엘기: 편집에 대한 제안과 효과적 사용을 위한 안내”, 「목원성서연구지」 창간호(목원성서연구회, 1996.3), 1-40쪽.

리 나라 학계에 소개한 바가 있다.

히브리어 구약성서 본문 프로젝트 위원회가 펴낸 「중간 및 예비보고서」⁹⁾를 따르면, 히브리어 성서의 본문 발전 단계는 네 가지 국면으로 대별된다. (1) 첫째 국면은, 구전과 기록 단계에서 형성된 본문으로서, 문학 분석(literary analysis)을 통하여 밝혀지는 “본래의 본문”(original texts) 형성 단계, (2) 둘째 국면은, 본문 분석(textual analysis)을 통하여 밝힐 수 있는 “가장 초기의 것으로 입증되는 본문”(the earliest attested text)의 출현 단계, (3) 셋째 국면은, A.D.70년 직후에 유대교 학자들이 권위 있게 정리를 한 히브리어 구약 자음 본문(consonantal text)이다. 흔히 “원(原) 마소라 본문”(Proto-Massoretic text)이라고 부르는 본문의 출현 단계, (4) 넷째 국면은, A.D.9세기 내지 10세기경에 마소라 학자들(Massoretes)이 확정한 “마소라 본문”(Massoretic text)의 출현 단계 등이다. 본문 비평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둘째 국면의 것, 곧, 본문 분석을 통하여 “가장 초기의 것으로 입증되는” 본문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다섯 번의 새로운 편집을 시도해 온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의 연속적인 개정 편집과 이것에 병행하여 나온 히브리어 구약성서 본문 프로젝트의 「중간 및 예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¹⁰⁾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여 마소라 본문이 지닌 문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보고, 그것을 우리의 기존 번역 개정 작업에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을지를 논의해보는 시도를 해 보려고 한다.

삼상 1: 1-11의 우리말 「개역」의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¹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²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³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9) Barthélemy, Dominique, A. R. Hurst, Norbert Lofink, W. D. McHardy, H. P. Rüger, and James A. Sanders (eds.), *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 on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5vols., United Bible Societies, London, 1973-1980, Vol., I, pp. VI-VII. 이하 PIR로 인용할 것임.

10) Barthélemy, Dominique (ed.), *Critique Textuelle de l'Ancien Testament*, 3vols., Fribourgh/ Göttingen/ United Bible Societies, 1982-1992. 이하 CTAT로 인용될 것임.

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⁴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⁵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⁶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므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⁷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⁸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⁹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¹⁰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¹¹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위의 우리말 번역은 다음과 같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번역이다.

¹ויהי אֵלֶּשׁ אֶחָד מִן־הַרְמָתִים צוֹפִים מֵהַר אֶפְרַיִם וְעַמּוֹ
 אֶלְקָנָה בְּיִרְחָם בְּן־אֵלִיהוּא בְּתַחֲחוּ בְּן־צוּף אֶפְרַתִּי:
²וְלוֹ עֲתִי נְעִיִם עִם אַחַת חַנָּה וְעַם הָעֲנִיּוֹת פָּנְנָה וַיְהִי
 לַפָּנָה יָלִידִים וְלַחַנָּה אֵין יָלִידִים: ³וְעֵלָה הָאֵלֶּשׁ הוּא
 מַעִירוֹ מִיָּמָם יָמִימָה לְהַעֲתוֹת וְלִנְבַח לַיהוָה צְבָאוֹת
 בְּעֵלָה וְעַם עֲנִי בְנֵי־עֲלֵי חֲפְנֵי וּפְנֹחַס כְּהֹנִים לַיהוָה:
⁴וַיְהִי הַיּוֹם וַיִּנְבַּח אֶלְקָנָה וַנִּתֵּן לַפָּנָה אֶשְׁתּוֹ וְלִכְלֵ־
 בְּנִיָּה וּבְנוֹתֶיהָ מְנוֹת: ⁵וְלַחַנָּה יָתֵן מְנָה אַחַת אֶפְיָם כִּי
 אֶת־חַנָּה אָהַב וַיְהוֶה סָגֵר רַחֲמָה: ⁶וְכַעֲסָתָה צְרַתָּה גַם־
 כַּעֲסָ בַעֲבוּר הָרַעֲמָה כִּי־סָגֵר יְהוָה בַּעַד רַחֲמָה: ⁷וְכֵן
 יַעֲשֶׂה עֲנָה בְּעֵנָה מִדֵּי עֲלָתָה בְּבֵית יְהוָה כֵּן תַּכְעֲסֶנָּה
 וְתִבְכֶּה וְלֹא תֹאכַל: ⁸וַיֹּאמֶר לָהּ אֶלְקָנָה אֵי־שָׁה חַנָּה לְמָה
 תִּבְכִּי וְלָמָּה לֹא תֹאכְלִי וְלָמָּה יָרַע לְבַבְךָ הַלּוֹא אֲנִכִּי
 טוֹב לְךָ מֵעֲשֶׂרָה בָּנִים: ⁹וְתִקַּם חַנָּה אַחֲרַי אֲכַלָּה בְּעֵלָה
 וְאַחֲרַי עֲתָה וְעֲלֵי הַכֶּהֵן יֵשֵׁב עַל־הַכֹּסֵא עַל־מְנוֹת
 הַיֵּכֶל יְהוָה: ¹⁰וְהָיָא מֵרַת נִפְשָׁה וְתַתְּפִלַּל עַל־יְהוָה

ובכה תבכה: וְתָדַר נָדָר וְתֹאמַר יְהוָה צְבָאוֹת
אִמְרָאָה תִּרְאֶה בְּעֵינֵי אִמְתְּךָ וְזָכַרְתִּי וְלֹא־תִשְׁכַּח
אֶת־אִמְתְּךָ וְנִתְּתָה לְאִמְתְּךָ זָרַע אֲנָשִׁים וְנִתְּתִיו לַיהוָה
כְּלִימֵי חַיִּיו וּמִוְרָה לֹא־יִעְלֶה עַל־רֵאשׁוֹ:

위의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은 「제2랍비성서」¹¹⁾, 할레비 레테리스의 「히브리어 성서」¹²⁾, 그리고 레닌그라드 사본¹³⁾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밖에 다른 히브리어 사본이나, 같은 사본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문맥과의 비교에서는, 본문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마소라 본문 형성 이전에 있었던 어떤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 대본으로 하여 번역된 아람어역 타르굼¹⁴⁾, 그리스어 칠십인역¹⁵⁾, 시리아어역 페쉬타¹⁶⁾, 라틴어역 불가타¹⁷⁾ 등과의 본문 비교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문법적 고찰을 하고, 이어서 우리말 독자를 위하여 우리말 「개역」의 번역을 히브리어 본문과 대조하여 두 본문의 차이를 밝히려고 한다. 「개역」 번역을 중심해서는, 「개역」의 번역 성격, 곧 번역 과정에서 발생한 원문 삭제와 우리말 첨가와 원문 구조의 변경 정도를 살피고, 히브리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는, 마소라 본문 자체가 지닌 본문 비평상의 여러 문제를 유형별로 구별하여 문제의 성격을 보면서 원문 회복의 가능성을 살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본문 비평이 논의하고 있는 문제들을

11) *Biblia Rabbinica*, A reprint of the 1525 Venice Edition Edited by Jacob Ben Hayim Ibn Adoniya, Introduction by Moshe Goshen-Gottstein (Jerusalem: Makor Publishing Ltd, 1972).

12) Meir Halevy Letteris (ed.), *ספר תורה נביאים וכתובים*, Berlin: Bi-Dfus ha-Adon Trowitzsch & Sons, 1886.

13) BHK³(1937), BHS(1967/77), BHQ(2002년 출간 예정) 등의 기초 본문에 사용된 11세기 사본. 이 사본 전체의 투명 필름(transparencies)이 대한성서공회의 성서학문헌정보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다. 이 투명 필름 사본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 이들은, 자료실이 규정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자신들의 연구를 위하여 이 사본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

14) Alexander Sperber (ed.), *The Bible in Aramaic*, 19 vols. Leiden: E.J.Brill, 1959-1987.

15) Alfred Rahlfs and others, *Göttingen Septuaginta: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Societatis Litterarum Goettingensis editum*, 1931-1977.

16) S. P. Brock (ed.), *The Old Testament in Syriac Peshitta Version*, Leiden: E.J. Brill, 1987.

17) *Biblia Sacra iuxta Vulgatam Versionem: Aduvantibus B. Fischer OSB, J. Gribomont OSB, H.F.D. Sparks, W. Thiele; Recensuit et brevi apparatu instruxit R. Weber OSB*, Württemberg Bible Society, 1969¹, 1975².

정리하고, 그러한 본문 비평의 결실을 우리의 개정이나 번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의 연구 과제로 다시 제시하려고 한다.

2.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문법적 고찰¹⁸⁾

여기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어형분석(morphological analysis)을 위주로 하여, 히브리어 본문 자체의 이해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는다. 매절마다 거기에 나오는 낱말을 모두 열거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그대로 열거하고, 그 낱말의 문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그 낱말의 사전상의 뜻, 문자적인 뜻을 그대로 직역하여, 참고로 제시한다. 때로는 그러한 의미 제시가 실제 번역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방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어 자체의 성격 이해를 위해서 그 배경을 들여다 보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아래 설명에서는 오웬스를 따라 각 히브리어 낱말을 BDB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BDB의 쪽 수 표시를 괄호 안에 해 놓았으며, 그 낱말과 관련된 문법 설명을 위해서는 오웬스를 따라 게제니우스-카우취의 히브리어 문법의 항목 번호를 표시하여 찾아 볼 수 있게 하였다.

1절

ויהי - 접속사 ו와 동사 יהי가 결합된 와우 연결법(waw consecutive), 게제니우스-카우취(GK) 49bN, היה(BDB 224), יהי 단순능동 미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 게제니우스-카우취(GK) 49bN, 뜻은 “있었다”

איש - 명사 남성 단수, “한 남자”(35)

אחד - 형용사 남성 단수, GK 125b, “어떤”(25), “...의 아들”(119)

מן - 전치사, “로부터”

רמתים צופים - 정관사 ה + 땅 이름 고유명사 רמתים צופים(928), רמתים צופים의 본문비평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더 다루어

18) *BibleWorks for Windows 3.5* CD-Rom. Published by Hermeneutika, 1997; *Translator's Workplace 2.0* CD-Rom. Published by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1996; *Paratxt Windows 4.0* CD-Rom. Published by The United Bible Societies, 1997; John Joseph Owens, *Analytical Key to the Old Testament*, 4 Vol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9-1992 등은 모두 구약성서의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형태를 잘 분석하고 설명해 준다. 여기에서는 이들 자료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하여 문법 형태를 밝힌다.

진다.

- מהר - 전치사 מ + 명사 הר(249)의 명사 남성 단수 הר(249)의 구성형, “...의 산지(山地)로부터”
- אפרים - 사람 이름 고유명사(68), “에브라임”
- ועמו - 접속사 ו + 명사 남성 단수 מ3 +)1027(ש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 접미사, “그리고 그의 이름은”
- אלקנה - 사람 이름 고유명사(46), “엘가나”
- בך - 명사 남성 단수(119) 구성형, “...의 아들”
- ירחם - 사람 이름 고유 명사(934) “여로함”. בן־ירחם은 “여로함의 아들”
- בך - 명사 남성 단수(119) 구성형, “...의 아들”
- אליהוא - 사람 이름 고유 명사(45), “엘리후”. בן־אליהוא는 “엘리후의 아들”
- בך - 명사 남성 단수(119) 구성형, “...의 아들”
- תחו - 고유 명사 “도후”(1063)
- בך - 명사 남성 단수(119) 구성형, “...의 아들”
- צוף - 사람 이름, 혹은 장소 이름 고유 명사 “숲”(847)
- אפרתי - 형용사, 족속을 나타내는, “에브라임 사람”(68)

2절

- ולו - 접속사 ו + 전치사 לו + 3인칭 남성 단수 여격 접미사 ו, “그리고 그에 게는 (있었다)”
- שתי - 수를 나타내는 명사 여성 양수(兩數 dual, 1040) 구성형, “둘”
- נשים - 명사 여성 אשה(61)의 복수, “아내들”
שתי נשים “두 아내”
- שם - 명사 남성 단수(1027)의 구성형, “...의 이름”
- אחת - 형용사 여성 단수(25), GK 134, “하나”. אחת שם은 “하나의 이름” 곧 “한 여자의 이름”
- חנה - 사람 이름 고유 명사(336), “한나”
- ושם - 접속사 ו + 명사 남성 단수 ם1027(ש)의 구성형, “그리고 ...의 이름”
- השנית - 정관사 ה + 수를 나타내는 명사 여성 נית1041(ש), “둘째”
- פננה - 고유 명사(819), “브닌나”
- ויהי - 와우 연결법(waw consecutive), 접속사 ו + 동사 היה(224)의 칼 능동태 미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 GK 149o, “있었다”
- לפננה - 전치사 לו + 사람 이름 고유명사 פננה(819), “브닌나”

- ילדים - 명사 남성 ילד(409)의 복수, “아이들”
 ולחנה - 접속사 ו + 전치사 ל + 고유 명사 חנה(336), “그런데 한나에게는”
 אין - 부정(否定), 구성형(34), “없다”
 ילדים - 명사 남성 ילד(409)의 복수, “아이들”

3절

- ועלה - 접속사 ו + 동사 칼 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 עלה(748), GK 112dd,
 “그가 올라갔다”
 האישי - 정관사 ה + 명사 남성 단수 איש(35), “그 남자”
 ההוא - 정관사 ה + 지시 형용사 남성 단수 הוא(214), “이…”, ההוא אישי는
 “이 남자”
 מעירו - 전치사 מן + 명사 여성 단수 עיר(746) + 남성 단수 소유격 접미사
 “그의 성읍으로부터”, “그가 사는 성읍을 떠나서”
 מימם - 전치사 מן + 명사 남성 יום(398)의 복수 ימים, “날들로부터”, “해(年)
 로부터”
 ימימה - 명사 남성 יום(398)의 복수 ימים + 방향을 나타내는 ה, “날들을 향
 해”, “해(年)를 향하여”, ימימה מימם은 “날들로부터 날들로 향해”, “해로
 부터 해로(from year to year)”, “매해(every year)”
 להשתחות - 전치사 ל + 동사 חה1005(ש)의 히트팔랄 부정사(不定詞) 구성형,
 “예배하려고”
 ולזבח - 접속사 ו + 전치사 ל + 동사 זבח(256)의 칼 부정사 구성형, “그리고
 제사 드리려고”
 ליהוה - 전치사 ל +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יהוה(217), “주님께”
 צבאות - 명사 צבא(838) 복수, “군대(軍隊)”. 하나님의 이름 יהוה와 결합되
 어, יהוה צבאות로 쓰일 때는 고유명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צבאות 자
 체 분석에서는 고유명사로 분류되기보다는¹⁹⁾ 일반명사로 분류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בשלה - 전치사 ב + 땅 이름 고유명사 לה1017(ש), “실로에서”
 ושם - 전치사 ו + 부사 ם1027(ש), “그리고 거기에”
 שני - 수를 나타내는 명사²⁰⁾ 남성 נים1040(ש)의 구성형 “...의 둘”

19) Owens' *Analytical Key to the Old Testament*에서는 고유명사(pr.n)로 분석되어 있
 다.

20) 수사(數詞)로 분류하기도 하고, 명사(名詞) 안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BDB는 이것을

- בני - 명사 남성 בן(119)의 복수형 בנים의 구성형, “...의 아들들”
- עלי - 사람 이름 고유명사(750), “엘리”, בני-עלי “엘리의 아들들”
- חפני - 사람 이름 고유명사 “흠니”(342)
- ופנחס - 접속사 ו + 사람 이름 고유명사 “비느하스”(810)
- כהנים - 명사 남성 כהן(463)의 복수 “제사장들”
- ליהוה - 전치사 ל +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יהוה(217), “주님께”

4절

- ויהי - 와우 연결법, 접속사 ו + 동사 칼 미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 היה (224), “그리고 그것은 ……이었다”
- היום - 정관사 ה + 명사 남성 단수 יום(398), GK126s, “그 날”
- וזבח - 접속사 ו + 동사 칼 미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 זבח(256), 와우 연결법, “그가 제사 드렸다”
- אלקנה - 사람 이름 고유명사(46)
- ונתן - 접속사 ו + 동사 칼 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 נתן(678), GK 112g, “그가 주곤 하였다”
- לפננה - 전치사 ל + 사람이름 고유명사 פננה(819), “브닌나에게”
- אשתו - 명사 여성 단수 אשה(61) + 3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 접미사, “그 남자의 아내”
- ולכל - 접속사 ו + 전치사 ל + 명사 남성 단수 구성형 כל(481), “그리고 …의 모두에게”
- בניה - 명사 남성 בן(119)의 복수 בנים의 구성형 + 3인칭 여성 단수 소유격 접미사, “그 여자의 아들들”
- ובנותיה - 접속사 ו + 명사 여성 בת(123)의 복수형 בנות + 3인칭 여성 단수 접미사, “그리고 그 여자의 딸들”
- מנות - 명사 여성 מנה(584)의 복수 “몫(portion)”

5절

- ולחנה - 접속사 ו + 전치사 ל + 사람이름 고유명사 חנה(336), “그런데, 한나에게는”
- יתן - 동사 נתן(678)의 칼 미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 과거 습관이 반복, “그

“명사, 남성”이라고 분석한다. 단수형이 없다.

는 주곤 했다”

מנה - 명사 여성 단수 (584), “몹”

אחת - 형용사 여성 단수 (25), “한”

אפים - 명사 남성 양수(兩數), 글자대로는 “얼굴들”(60), 본문비평 쪽을 볼 것. אפים가 아니고 אפס라면 명사 남성 단수 (67)

כי - 접속사(471) “때문에”

את - 직접 목적 앞에 붙는 표시(BDB: the mark of the accusative)

חנה - 사람이름 고유명사 “한나”(336)

אהב - 칼 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 (12), “그가 사랑하였다”

ויהוה - 접속사 ו + 하나님 이름 고유명사 יהוה “그런데, 주님은”

סגר - 칼 완료태(688)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닫으셨다”

רחמה - 명사 남성 단수(933) + 3인칭 여성 단수 소유격 접미사, “그 여자의 태”

6절

וכעסתה - 접속사 ו + 동사 피엘 완료 3인칭 여성 단수 כעס(494) + 3인칭 여성 단수 목적격 접미사, “그리고 그 여자(브닌나)는 그 여자(한나)를 성나게 하곤 하였다”

צרתה - 명사 여성 단수 צרה(865) + 3인칭 여성 단수 소유격 접미사, “그 여자의 경쟁자”

גם - 부사 (168), “역시”

כעס - 명사 남성 단수 (495), “분노”

בעבור - 전치사 ב + 명사 עבור(721). 이 명사는 늘 전치사 ב와 결합되어 בעבור 라고 하는 또다른 전치사를 형성한다. 뜻은 “때문에(for the sake of, on account of, in order that)”. 따라서 בעבור 자체를 “전치사 + 전치사”로 설명해서는²¹⁾ 안된다. 차라리 בעבור 자체를 하나의 전치사로 보는 것이 더 낫다.

הרעמה - רעם(947)의 히필 부정사 구성형 + 3인칭 여성 단수 목적격 접미사, GK 20h, 22s, 59g, “그 여자를 화나게 하려고”

כי - 접속사(471) “때문에”

סגר - 칼 완료태(688)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닫으셨다”

יהוה -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יהוה(217), “주님께서”

21) Owens' *Analytical Key to the Old Testament*가 한 것처럼.

- בעד - 분리를 뜻하는 전치사 (126), “away from, behind, about, on behalf of”. 그러나, 여기 **בעד רחמה ... סגר**는 “주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뜻의 숙어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 רחמה - 명사 남성 단수(933) + 3인칭 여성 단수 소유격 접미사, “그 여자의 태”
- וכן - 접속사 ו + 부사 כן(485), “그리고 그렇게”
- יעשה - 동사 עשה(793)의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GK 107e, “그가 올라갔다”
- שנה - 명사 여성 단수(1040), GK 123c, “해(年)”
- בשנה - 전치사 ב + 명사 여성 단수(1040), GK 123c, בשנה בשנה은 “매년 (year by year)”
- מדי - 전치사 מן + 명사 די(191 “만족, sufficiency, enough”)의 구성형. 여기에서는 이 둘이 합하여, 전치사의 구실을 한다. “자주(as often as, out of the abundance of)”
- עלתה - 동사 עלה(748)의 칼 부정사 구성형 + 3인칭 여성 단수 소유격 접미사, “그 여자의 올라감”
- בבית - 전치사 ב + 명사 בית(108)의 남성 단수 구성형, “...의 집 안에”
- יהוה -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יהוה(217), “주님”
- כן - 부사 כן(485), “그렇게”
- תכעסנה - 동사 כעס(494)의 히필 미완료태 3인칭 여성 단수 + 3인칭 여성 단수 목적격 접미사, “그 여자(브닌나)는 그 여자(한나)를 성나게 하곤 했다”
- ותבכה - 와우 연결법, 접속사 ו + 동사 בכה(113)의 칼 완료태 3인칭 여성 단수, “그리고 그 여자는 울었다”
- ולא - 접속사 ו + 부정사 לא
- תאכל - 동사 אכל(37)의 칼 미완료태 3인칭 여성 단수, “그리고 그 여자는 먹으려 하지 않았다”

8절

- ויאמר - 접속사 ו + 동사 אמר(55)의 칼 미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 와우 연결법,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 לה - 전치사 ל + 3인칭 여성 단수 여격 접미사, “그 여자에게”
- אלקנה - 사람이름 고유명사, “엘가나”(46)

- אִשָּׁה - 명사 אִשָּׁה(35) 남성 단수 + 3인칭 여성 단수 소유격 접미사, “그 여자의 남편”
- חַנָּה - 사람이름 고유명사 “한나”(336)
- לָמָּה - 전치사 ל + 의문사 מָּה, GK 37e, 102,1, “왜?”
- תִּבְכִּי - 동사 בָּכָה(113)의 칼 미완료태 2인칭 여성 단수, “당신은 운다”
- וּלְמָּה - 접속사 ו + 전치사 ל + 의문사 מָּה, GK 37e, 102,1, “그리고 왜?”
- לֹא - 부정사
- תֹּאכְלִי - 동사 אָכַל(37)의 칼 미완료태 2인칭 여성 단수, “당신은 먹는다”
- וּלְמָּה - 접속사 ו + 전치사 ל + 의문사 מָּה, GK 37e, 102,1, “그리고 왜?”
- יִרַע - 동사 רָעַע(949)의 칼 미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 “(그것이) 슬퍼하다”
- לְבַבְךָ - 명사 남성 단수 לִבְבִּי(523) + 2인칭 여성 단수 소유격 접미사, “당신의 마음”
- הֲלוֹא - 의문사 ה + 부정사
- אֲנִי - 인칭 대명사 1인칭 공통 단수, “나”
- טוֹב - 형용사 남성 단수 (373), “좋다”
- לְךָ - 전치사 ל + 2인칭 여성 단수 여격 접미사, “당신에게”
- מֵעֵשְׂרָה - 전치사 מן + 수를 나타내는 명사 עֵשְׂרָה(796), “열 보다”
- בָּנִים - 명사 בָּנִים(119)의 남성 복수형, “아들들”

9절

- וּתְקַם - 와우 연결법, 접속사 ו + 동사 קָם(877)의 칼 미완료태 3인칭 여성 단수, “그리고 그 여자가 일어났다”
- חַנָּה - 사람이름 고유명사 “한나”(336)
- אַחֲרַי - 전치사 (29) , “... 후에”
- אֹכְלָה - 동사 אָכַל(37)의 부정법 구성형²²⁾ + 3인칭 여성 단수 소유격 접미사, “그 여자의 먹음”, 여기에 관해서는 아래 본문비평을 볼 것
- בְּשֵׁלָה - 전치사 ב + 장소 이름 고유명사 שֵׁלָה(1017), “실로에서”
- וְאַחֲרַי - 전치사 (29) , “... 후에”

22) 삼상 1:9의 אֹכְלָה는, Benjamin Davidson이 그의 *The Analytical Hebrew and Chaldee Lexicon* (London: Samuel Bagster & Sons Ltd., 1967), p.24에서 잘 지적하였듯이, 부정법 연계형이라고 보아야 옳다. Owens가 히브리어 형태 분석에서 이것을 칼 완료 3인칭 여성 단수라고 한 것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Owens가 여기에서 GK 91e를 인용하였지만, 거기에서도 אֹכְלָה는 “the infinitive feminine termination”을 전제하고서 말하고 있다.

- שתה - 칼 부정사 독립격 (1059), GK 113e, “마심”
- ועלי - 접속사 ו (GK 141e) + 사람이름 고유명사 “엘리”(750)
- הכהן - 정관사 ה + 명사 남성 단수 כהן(463), “그 제사장”
- ישב - 동사 ישב(442)의 칼 능동 분사, “앉아 있는”
- על- - 전치사 “위”
- הכסא - 정관사 ה + 명사 남성 단수 כסא(490), “그 의자”
- על- - 전치사 “위”, “결”
- מנות - 명사 여성 단수 מנוחה(265)의 구성형, “...의 문지방”
- היכל - 명사 남성 단수 (228) 구성형 ., “...의 전(殿)”
- יהוה -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יהוה(217), “주님”

10절.

- והיא - 접속사 ו + 인칭대명사 3인칭 여성 단수(214), “그리고 그 여자가”
- מרת - 형용사 여성 단수 מר(600)의 구성형, “쓰라린(bitter)”, “쓴맛 (bitterness)”
- נפעל - 명사 여성 단수 (659), GK 128y. מרת נפעל는, 글자대로는 “영혼의 쓴 맛(bitter of soul)”, 뜻은 “몹시 괴로워하는(deeply distressed)”
- ותתפלל - 와우 연결법, 접속사 ו + 동사 פלל(813)의 히트파엘 미완료태 3인칭 여성 단수, “그리고 그 여자는 기도하였다”
- על- - 전치사, “에게”
- יהוה -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יהוה(217), “주님”
- ובכה - 접속사 ו + 동사 בכה(113)의 칼 부정사 독립격
- תבכה - 동사 בכה(113)의 칼 미완료태 3인칭 여성 단수, “그 여자가 울었다”. 부정사 독립격과 본동사가 결합되어 의미가 강조됨. ובכה תבכה는 “그 여자가 비통하게 울었다”

11절

- ותדר - 와우 연결법, 접속사 ו + 동사 דר(623)의 칼 미완료태 3인칭 여성 단수, “그리고 그 여자가 서약하였다”
- דר - 명사 남성 단수 (623), “서약”
- ותאמר - 와우 연결법, 접속사 와우 ו + 동사 אמר(55)의 칼 미완료태 3인칭 여성 단수, “그리고 그 여자가 말하였다”

- יהוה -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יהוה(217), “주님”
- צבאות - 명사 צבא(838) 복수, “군대(軍隊)”. 하나님의 이름 יהוה와 결합되어, יהוה צבאות로 쓰일 때는 고유명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צבאות 자체 분석에서는 고유명사로 분류되기보다는²³⁾ 일반 명사로 분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אם - 가정 접속사(hypothetical particle) (49)
- ראה - 동사 ראה(906)의 칼 부정사 독립격, GK 113o, 본동사에 선행하여 본동사의 뜻을 강조함.
- תראה - 동사 ראה(906)의 칼 미완료태 2인칭 남성 단수, “당신이 볼 것이다”
אם־תראה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본다면”
- בעני - 전치사 ב + 명사 남성 단수 (777)의 구성형, “...의 괴로움을(on the affliction of)”
- אמתך - 명사 여성 단수 אמה(51) + 2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 접미사, “당신의 여종”
- ותורתני - 접속사 ו + 동사 זכר(269)의 칼 완료태 2인칭 남성 단수 + 1인칭 공통 단수 목적격 접미사, “당신이 나를 기억하신다”
- ולא - 접속사 ו + 부정사 לא
- תשכח - 동사 שכח(1013)의 칼 미완료태 2인칭 남성 단수, “당신이 잊어버린다”
- את - 직접 목적 앞에 붙는 표시(BDB: the mark of the accusative)
- אמתך - 명사 여성 단수 אמה(51) + 2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 접미사, “당신의 여종”
- ונתתה - 접속사 ו + 동사 נתן(678)의 칼 완료태 2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당신이 주신다”
- לאמתך - 전치사 ל + 명사 여성 단수 אמה(51) + 2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 접미사, “당신의 여종에게”
- זרע - 명사 남성 단수(282) 구성형, “...의 씨”
- אנשים - 명사 남성 단수 איש(35)의 복수, “남자들”
- ונתתיו - 접속사 ו + 동사 נתן(678)의 칼 완료태 1인칭 공통 단수 + 3인칭 남성 단수 목적격 접미사, “그리고 나는 그를 바치겠습니다”
- ליהוה - 전치사 ל + 하나님의 이름 고유명사 יהוה(217), “주님께”
- כל - 명사 남성 단수 כל(481)의 구성형, “...의 모두”

23) Owens' *Analytical Key to the Old Testament*에서는 고유명사(pr.n)로 분석되어 있다.

- ימי - 명사 남성 יום(398)의 복수 ימים의 구성형, “...의 날들”
- חייו - 형용사 남성 복수 + 3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 접미어, 그의 생애“
- ומורה - 접속사 ו + 명사 남성 단수 (559), “그리고 면도가”
- לא - 부정(否定)
- עלה - 동사 עלה(748)의 칼 미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 “그것이 올라갈 것이다”
- על - 전치사, “위”
- ראשו - 명사 남성 단수(910) + 3인칭 남성 단수 소유격 접미사, “그의 머리”

3. 「개역」 번역의 성격

히브리어 본문과 우리말 「개역」의 번역을 가지고 대응어 대조를 해 보면 「개역」의 번역 성격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첨가된 요소와 삭제된 요소와 변경된 요소가 무엇인지 볼 수 있다. 아래 대조표에서 오른쪽 우리말 대응어의 아라비아 숫자는 우리말 「개역」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우리말 번역의 어순이다. 괄호 속에 있는 우리말은 히브리어 대응어가 없는 것으로서 번역자의 첨가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고, 각괄호(角括弧) 속에 있는 우리말은 사전적 의미의 대응어가 아닌 경우를 표시한다. 그런 경우에는 히브리어 대응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괄호 속에 밝혔다. 우리말 대응어가 없는 히브리어에다가도 문자적 의미를 괄호 속에 밝혔다.

<p>1절. יהי איש אחד(하나) מן הרמתיים(두 언덕) צופים(추프 사람들) מ(…로부터) הר אפרים ועמו(그리고 그의 이름은) אלקנה בן(…의 아들)</p>	<p>9. 있으니 8. (...라 하는) 자(가) 5. [에] 3. 라마다임 4. 소빔 (에) 2. 산지 1. 에브라임 7. 엘가나 11. 의 아들(이요)</p>
---	--

ירחם	10. (그는) 여로함
בן(…의 아들)	13. [의 손자(요)]
אליהוא	12. 엘리후
בן(…의 아들)	15. [의 증손(이요)]
תחו	14. 도후
בן(…의 아들)	17. [의 현손(이라)]
צוף	16. 솥
אפרתי	6. 에브라임 (사람)
2절. ולו(그리고 그에게)	1.그에게
תי2.	ט 두
נשים	3. 아내(가)
	4. 있으니
ם6.	ט 의 이름(은)
אחת	5. 하나
חנה	7. 한나(요)
ועם	9. 의 이름(은)
השנית(둘째)	8. [하나] ²⁴⁾
פננה	10. 브닌나(라)
יהי	13. 있고
לפננה(브닌나에게는)	11. 브닌나[는]
ילדים	12. 자식(이)
ולחנה(한나에게는)	14. 한나[는]
אין	15. 무
ילדים(자식들)	16. 자(하더라)
3절. ועלה ²⁵⁾	6. 올라가서
האיש	2. 사람이
ההוא	1. 이
מעירו(자기 성읍으로부터)	4.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²⁶⁾

24) “하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השנית는 문자적으로는 “둘째”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맥에서는 우리말로는 “하나”라고 번역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것은 번역이 철저한 직역을 피하고 우리말의 특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원문의 사전적 의미를 떠나 우리말의 관용적(慣用的)인 표현을 따르는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25) 여기 “와우 연결 완료태”는 습관적인 행위를 말할 때 사용된다. H. P. Smith,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p. 6.

מימם(날/해들부터)	3. 매년에 ²⁷⁾
ימימה(날/해들까지)	
להשתחות(경배하려고)	9. 경배하[며]
ולזבח(제사를 드리려고)	10. 제사를 드렸[는데]
ליהוה	8. 여호와께
צבאות	7. 만군의
בעלה	5. 실로에
ושם	18. 거기에
	19. (있었더라)
ני13.	ט 두
בני	12. 의 14. 아들
עלי	11. 엘리
חפני	15. 훙니
ופנחס	16. 와 비느하스(가)
כהנים	17. 제사장[으로]
ליהוה:	16. 여호와와

4절. ויהי(이었다)

היום(그 날)	3. 날에는
	4. (제물의)
וזיבח(제사를 드렸다)	2. 제사를 드리는
אלקנה ²⁸⁾	1. 엘가나(가)
ונתן } ²⁹⁾	12. 주고

26) מעירו의 문자적인 뜻은 “자기의 성읍에서부터”이다. 「개역」의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는 히브리어 מעירו에서 עירו(자기의 성읍) 앞에 붙어있는 “분리”를 뜻하는 전치사 מ의 뜻을 아주 잘 번역한 것이다. 달리, “자기의 성읍을 떠나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히브리어의 전치사를 우리말 동사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의 한 예이다.

27) 히브리어 מימם ימימה의 문자대로의 뜻은 “날들로부터 날들까지(from days to days)”, “해(年)로부터 해(年)까지(from year to year)”, 즉 “해마다(yearly)”를 뜻한다.

28) ויהי היום וזיבח אלקנה는 “하루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데...”라고 번역할 수 있다. “One day Elkanah sacrificed - ” Ralph W. Klein, *I Samuel*,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0 (Waco, Texas: Word Books, Publisher, 1983), p. 1. 달리,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던 어느 (특정한) 날 (One day when Elkanah sacrificed)”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P. Kyle McCarter Jr., *I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 Commentary*, The Anchor Bible (New York/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0), p. 59.

29) {괄호} 속에 들어 있는 4^b-7^b절은 삽입 구절, P. Kyle McCarter Jr., *I Samuel*, pp.

לפננה	7. 브닌나와
אלעחו	6. 그 아내
ולכלל-	8. 그 모든 11…에게
בניה	9. 자
ובנותיה	10. 너
מנות:	5. 분깃을 ³⁰⁾
5절. ולחנה	1. 한나에게는
יתן	3. 주니
מנה(뭇)	2. [잡절을] ³¹⁾
אחת(하나)	
אפים(얼굴)	
כי	4. [이는…함이라]
את-	6. 를
חנה	5. [그]
אהב	7. 사랑함이라
ויהוה	8. 그러나 여호와께서
סגר(닫다)	10. [못하게 하시니] ³²⁾
רחמה:(그의 자궁)	9. [성태치]
6절. וכעסתה	7. 9. 그를 … 격동하여
צרתה	5. 그 대적
	6. (브닌나가)
גם(역시)	
כעס(격동) ³³⁾	8. [심히]
בעבור(…하려고) ³⁴⁾	

49, 59-60; Ralph W. Klein, *1 Samuel*, p. 7-8.

30) 「개역」은 “제물의 분깃을”이라는 말이 번역자의 첨가라고 평가하여, 이것을 본문의 다른 글자에 비해 작은 글자로 편집하였다. 그러나 “분깃”은 מנות의 번역이고, 실제로 첨가된 것은 “제물의”라는 말 뿐이다. 우리말 「개역」에서 “분깃”은 본문의 활자 크기로 편집되어야 할 것이다.

31) אחת אפים מנה에 대한 잠정적인 번역

32) “여호와께서 성태(成胎)치 못하게 하시니”는 סגר רחמה ויהוה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다. 직역이라기 보다는 의역이다. 문자를 따라 번역한다면, “야훼께서 그 여자의 자궁을 닫으셨다”이다.

33) “격동으로 격동시키다”라는 것을 “심히 격동시키다”라고 번역한 것임.

34) בעבור הרעמה는 “한나로 하여금 번민케 하려고 (브닌나는 한나를 격동하였다)”. 우리말 『개역』 번역은 결과적으로 해석하여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라고 번역하였다.

הָרַעְמָה(그를 화나게 하려고)	10. [번민케 하더라]
כִּי	4. 하시므로
סָגַר(닫다)	3. [못하게]
יְהוּה	1. 여호와(께서)
בְּעַד(뒤에서)	
רַחֲמָה: (그의 자궁)	2. [그로 상태치]
7절. וְכֵן	9. 그 같이
יַעֲשֶׂה	10. 하매
וְנָה	ט [매]
בְּעֵנָה	2. 년에 ³⁵⁾
מְרִי(자주)	7. [때마다]
	8. (남편이) ³⁶⁾
	3. (한나가) ³⁷⁾
עֲלָתָה	6. 올라갈
בְּבַיִת	5. [집에]
יְהוּה	4. 여호와와의
כֵּן(그처럼)	
11. (브닌나가)	
{ תַּכְעֲסֶנָּה	12. 그를 격동시키므로
וּתְבַכֶּה	13. 그가 울고
וְלֹא	15. 아니하니
תֹּאכַל:	14. 먹지

35) הענה בענה의 문자적 의미는 “해 속의 해(year in year)”, 실제의 뜻은 “매년(year by year)”

36) MT의 וְכֵן יַעֲשֶׂה는 남성 대명사 “그(곧 ‘엘가나’)가 했다”이지만, 문맥을 고려한다면 여기 대명사는 브닌나를 가리키는 여성 대명사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남편이”라는 실명사 보다는 “브닌나가” 혹은 “그 여자가”라는 실명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문맥 전체의 논리적 모순을 없애는 구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시리아어역 페쉬타와 라틴어역 불가타(내포된 뜻)는 MT의 יַעֲשֶׂה를 תַּעֲשֶׂה로 읽는다. 그렇게 읽으면, “해마다 브닌나가 그렇게 하곤 했다..., 브닌나는 한나를 격동시키곤 했다”가 된다.

37) 동사 עֲלָתָה에 숨어 있는 요소를 밖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올라간 이들은 한나만이 아니고 엘가나의 식구 모두이므로, 한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올라가는 것이어야 문맥에 맞는다. 여기에 관해서는 뒤에서 논의되는 본문비평 부분을 볼 수 있다.

8절. ויאמר

לה
אלקנה
איעה
חנה
למה
תבכי
ולמה
לא
תאכלי
ולמה
ירע
לבבך
הלוא
אנכי
טוב
לך
מעשרה
בנים:

4. 이르되
3. 그에게
2. 엘가나(가)
1. 그 남편
5. 한나(여)
6. 어찌하여
7. 울며
8. 어찌하여
10. 아니하며
9. 먹지
11. 어찌하여
13. 슬프뇨
12. 그대의 마음(이)
20. 아니하뇨
14. 내가
19. 낮지
15. 그대에게
16. 열 18. 보다
17. 아들

9절. ותקם

חנה
אחרי
אכלה(떡음)
בעלה
ואחרי(또 후에)
עתה(마침)
ועלי
הכהן
יעב
על-
הכסא

7. 일어나니
6. 한나(가)
5. 후에
3. 먹고
1. (그들이)
2. 실로에서
4. 마신
8. (때에)
10. 엘리(는)
9. 제사장
17. 앉았더라
16. 에
15. 그 의자

על-	14. 곁
מזוזת	13. 문설주
היכל	12. 의 전
יהוה:	11. 여호와
10절. והיא(그 여자가)	1. [한나가]
מרת	3. 괴로워서
נפש	2. 마음(이)
ותתפלל	6. 기도하고
על-(위 에)	5. 께
יהוה	4. 여호와
ובכה(움)	7. 통곡하며
תבכה: ³⁸⁾	
11절. ותדר	1. 서원하여
נדר(서원) ³⁹⁾	
ותאמר	2. 가로되
יהוה	4. 의 여호와(여)
צבאות	3. 만군
אם-	5. 만일
ראה(돌봄)	
תראה	8. 돌아보(시)고
בעני	7. 의 고통(을)
אמתך(당신의 여종)	6. [주의] 여종
ותכרתני	9. 나를 생각하(시)고
ולא-	13. 아니하(사)
תשכח	12. 잊지
את-	11. 을
אמתך(당신의 여종)	10. [주의] 여종
ונתתה	15. 주(시)면
לאמתך(당신의 여종에게)	

38) 여기 미완료 시제는 계속 동작을 뜻한다. "she kept weeping bitterly". Henry Preserved Smith,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899), p. 10.

39) 히브리어로는 "서원을 서원하다".

זרע(의 씨)	
אנשים(남자들)	14. 아들(을)
ונתניו	15. 내가 19. 그를 21. 그리고
ליהוה	20. 여호와께
כל(모든)	
ימי(의 날들)	17. 평(平)
חיו(그의 생명)	16. 그의 18. 생(生)에
ומורה	22. 삭도(를)
לא	26. 아니하겠(나이다)
יעלה	25. 대지
על	24. 에
ראשו:	23. 그의 머리

3.1. 원문의 삭제(削除 subtractions)

- 1절 אחד(“하나”)
 ושמו(“그리고 그의 이름은”)
 4절 יהי(“...이었다”)
 5절 אחת(“하나”)
 6절 בעבור(“...하려고”)
 בעד(“뒤”)⁴⁰⁾
 7절 כן(“그렇게”)
 9절 ואחרי(“또 후에”): “먹은 후에, 마신 후에”를 “먹고 마신 후에”라고 번역함으로써, 두 번 반복되는 אחרי를 한 번만 번역하였다.
 11절 לאמתך(당신의 여종에게)

3.2. 우리말의 첨가(添加 additions)

히브리어의 문법 범주에는 없으나 우리말 표현에서는 필요한 문법 요소들이 첨가되어 있다. 위의 대조에서 볼 수 있는 괄호 속의 본문에 첨가 요소가 밝혀져 있다. “은, 는, 가, 이”와 같은 주격 조사(助詞), “여”와 같은 호격 조사, “이다”와 같은 지정사, “그”와 같은 대명사, “있다”와 같은 형용사(혹은 존

40) 거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뒤에서(behind)”. “문(דלת)”이나 “자궁(רחם)”을 닫는 동사 סגר와 함께 쓰인다. 요나 2:7은 문을 닫는 경우, 삼상 1:6은 자궁을 닫는 경우이다.

재사), 이밖에 동사, 명사, 명사구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첨가가 발견된다. 아래에서 괄호 속에 넣어서 표기한다.

- 1절 에브라임(사람)
 (…라 하는) 자(가)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증손(이요)
 현손(이라)
- 2절 아내(가)
 (있으니)
 이름(은)
 한나(요)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무자(하더라)
 브닌나(는)
- 3절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⁴¹⁾
 거기에 (있었더라)
- 4절 (제물외) 분깃(을)
- 6절 그 대적 (브닌나가)
- 7절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 8절 엘가나(가)
 한나(여)
 그대의 마음(이)
- 9절 (그들이) 실로에서
- 9절 (때에) 엘리(는)
- 10절 마음(이)
- 11절 여호와(여)

41) 여기 동사 “나와서”를 מעירו의 전치사 מ의 번역이라고 본다면 첨가가 아닐 수도 있다.

- 11절 돌아보(시)고
- 11절 고통(을)
- 11절 생각하(시)고
- 11절 아니하(사)
- 11절 아들(을)
- 11절 삭도(를)

3.3. 구문의 변경(變更 alterations)

3.3.1. 히브리어 둘 혹은 세 단어가 우리말로 한 단어로 번역된 예:

- 1절 הרמתים צופים “라마다임소빔”
- 3절 מימם ימימה “매년(每年)에”
- 5절 מנה אחת אפים “갑절”
- 6절 גם־כעס “심히”
- 7절 עונה בעונה “매년(每年)에”
- 10절 ובכה תבכה “통곡하다”
- 11절 ותדר נדר “서원하다”
- 11절 ראה תרא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다”
- 11절 זרע אנשים “아들”
- 11절 כל־ימי חייו “평생”

11절의 ראה תראה(라오 티르에)와 같은 것은 본동사에 같은 동사의 독립 부정사(獨立不定詞infinitive absolute)가 연결되어 나오는 강조어법으로서 우리말의 문법 범주에는 없는 요소이다. תראה는 “보다, 살펴보다, 주목(注目)하다, 고려하다” 등의 뜻을 지닌 동사의 2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태 형태이다. 여기에 독립부정사 ראה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본동사를 강조하는 부사어를 첨가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강조어법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진정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으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진정으로”는 순수한 “첨가”가 아니라 문법 구조의 “변경”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⁴²⁾. 10절의 ובכה תבכה (통곡하다)도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42) 가정법에서 쓰인 이러한 강조어법의 예는 민 21:2; 삼상 20:6.

3.3.2. 마소라 본문 이탈

본문 비평의 결과를 받아드린 번역도 보인다. 9절의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는 히브리어 **עָתָה וְאַחֲרַי אָכְלָה בְּעִלְוָה**의 직역이 아니다. 히브리어를 글자대로 번역하면, “실로에서 먹은 후에 그리고 마신 후에”이다. 주어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 않다. **אָכְלָה**와 **עָתָה**, 두 낱말 끝의 **ה**가 여성 3인칭 단수 소유격의 구실을 할 수도 있으나 마소라 본문은 **ה** 안에 “마피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한나가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고 번역하기도 어렵다. 맥카터와 클라인은 **אָכְלָה**의 **ה**에 “마피크”를 주어 “한나가 음식을 먹고 나서”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개역」은 **אָכְלָה**와 **עָתָה**의 주어를 엘가나의 식구 모두라고 생각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고 번역하였다. 이것은 마소라 본문의 **אָכְלָה**의 반영이 아니라 그리스어 칠십인역이 읽었을 **לֹא אֵין**의 반영이다. 이 번역은 결과적으로 마소라 본문을 이탈하여 칠십인역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3.3.3. 난해구의 잠정적 해결

난해구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전통적인 이해를 번역에 반영한 예가 보인다. 예를 들면,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에서 “갑절”이라는 표현은 영어 번역에 반영된, 전통적인 이해 “a double portion”을 번역한 것이지만, 히브리어 **אֶחָת אַפִּים מִנָּה**⁴³⁾의 번역이 아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one portion two-faced”라고 되니까 이것을 “a double portion”이라고 해 본 것일 뿐이다. 비록 **אַפִּים**이 양수(兩數)를 나타내는 형식(dual form)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단수(face)를 뜻하는 것임으로 “갑절의 몫”으로 번역될 수는 없다. **אֶחָת אַפִּים מִנָּה**에서 **אֶחָת מִנָּה**는 오히려 “한 몫”을 뜻한다. 문제는 **אַפִּים**이다. 이것은 “얼굴”을 뜻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준 것은 “얼굴의 한 몫”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석자들이 지적하듯이 히브리어 문법적 구조에 있어서도 대단히 예외적인 표현이다⁴⁴⁾. 이 동격 관계의 명사구를 직역하면 “한 몫, 즉 얼굴”이다.

43) 이것에 관한 연구로서는, D. Aberbach, “מִנָּה אֶחָת אַפִּים (1 Sam. 1:5): a new Interpretation”, *Vetus Testamentum* 24(1974), 350-53; F. Deist, “'Appayim(1 Sam. 1:5)<*Pym?”, *Vetus Testamentum* 27(1977), 205-9.

44) Henry Preserved Smith,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899), pp.

아랍어역 타르쿰은 “제일 좋은(choice) 몫”이라고 해석하였고, 유대교 랍비들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몫(a portion which could be accepted joyfully)”(Rashi), “한나의 분노를 풀기 위하여(to appease her anger) 준 몫”(Kimchi) 등으로 해석하였다⁴⁵⁾.

3.3.4. 문장 구조의 변경

문장 구조가 바뀐 예는, 대다수의 경우, 번역자가 번역문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표현하려고 시도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문장 구조의 변화를 지적하는 것은 번역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다만 원문과 우리말 번역 사이의 구조상의 차이를 밝히면서 히브리어 문장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문장 구조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확인해 볼뿐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절. 원문은 다음에서 보듯이 몇 개의 독립절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후의 아들이요, (엘리후는) 도후의 아들이요, (도후는) 솥의 아들인, 에브라임 사람이다.” 여기에 반해, 번역문은 복합문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솥의 현손이더라”라고 번역하여, 엘가나의 출신 지역과 그의 소속 가문을 먼저 밝히고, 그 후에 그의 조상들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조상을 서술하는 방법이 히브리어의 경우와 우리 어법의 경우가 다르다. 우리말에는 아버지와 그 윗대인 할아버지만만 아니라 그 윗대인 “증조 할아버지”와 그 윗대인 “현조 할아버지”라는 용어가 있고, 자손을 말할 때에도 자녀, 손자 손녀, 증손, 현손, 이렇게 용어가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그런 용어가 없으므로 윗대 조상을 말할 때에도 항상 “(아무개)의 아들”이라는 표현밖에 쓰지 못한다. 이러한 구문 구조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해 놓는다면 우리말로써는 의미가 전달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뜻이 전달될 수도 있다. 히브리어의 구조와 우리말의 구조가 상충할 때 히브리어 구조를 희생시키고 우리

7-8; P. Kyle McCarter, Jr., *I Samuel*, p.52;

45) S. Goldman, *Samuel: Hebrew Text & English Translation with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ondon/ New York: The Soncino Press, 1949), p. 3.

말 구조를 살린 것은, 현재 「개역」의 이 구절 번역이 번역으로서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실증한다.

2절.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를 “한나는 무자하더라”로 번역하였다. 여기 「개역」 번역은 우리말의 관용적(慣用的)인 어법을 한껏 살린 번역이다. “나는 돈이 없다” “그는 집이 없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와 같은 용법이다.

3절 “실로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곤 했다”를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로 번역하였다. 「개역」처럼 이렇게 목적을 결과로 번역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절절을 귀결절로 번역하면 문맥의 흐름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 「개역」 번역에서는 “올라가곤 했다”는 과거 행위의 반복이 잘 나타나 있지 않고, 단순한 일회적 과거를 묘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실로에 올라가서”라는 「개역」의 번역은 “실로”를 동사 “올라가다”라는 동사의 목적지로 해석한 것이 정확한 번역이나 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실로에서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려고(to worship and to sacrifice at Shiloh)” 혹은 “실로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to Yahweh of Hosts at Shiloh)”를 뜻하는 말이다.

4-7절. 4절 이하 7절까지의 히브리어 본문 안에는 다음의 번역에서 보듯이 긴 삽입구가 들어 있다. 「개역」의 어투와 문체와 본문 이해를 따라 그대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⁴하루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였는데, {그는 언제나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브닌나가 낳은 모든 자녀에게 주고 ⁵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곤 하였는데 그것은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한나의 태를 단으셨다. ⁶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단으셨으므로 그의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뇌케 하였다. ⁷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므로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곤 했다}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개역」의 번역은 4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의 문장이 지닌 삽입문의

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연결시켜 번역하였다. 여기 삼입 문장은 엘가나와 브닌나의 반복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고, 삼입 밖의 문장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던 어느 날 한나가 울면서 식음을 전폐한 것을 보고 엘가나가 그 여자를 달래던 것을 묘사한 것이다. 3절의 시작 **וועלה**는 와우 연결법이다. 와우가 완료태에 동사와 연결되어 습관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올라가곤 했다(he used to go up)”이다. 여기에 반해, 과거의 일회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는 접미사가 붙은 독립된 동사(independent suffixed verbs) 혹은 접속사와 결합된 접미사가 붙은 동사(prefixed verbs joined to the conjunction)가 사용되는데, 4절 서두 **ויהי היום וינבח אלקנ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던 어느 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절(前提節)은 단순 과거 설화(simple past narration)를 도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⁴⁶⁾. 귀결절(歸結節) 역시 같은 형태의 동사 연결을 보이고 있다. **ויהי היום וינבח אלקנה**(4^a)는 전제절이고 **ולא תאכל ותבכה** “그 여자는 울었고, 먹지도 않았다”(7^b)는 것은 귀결절이다. 귀결절의 **ותבכה**는 흔히 말하는 “역사적 시제(historical tense)”이다. 늘 반복되는 행위가 아닌 어떤 특정한 때에 생긴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다. 만일 한나의 울음과 식사 거절이 매년 반복되는 행위였다면 히브리어 구문 **תבכה** (she would weep)가 와야 한다⁴⁷⁾. 전제절과 귀결절 사이에 들어 있는, 과거의 습관적 행위의 반복을 말하는 동사의 구문 **ונתן**(he would give), **יתן**(he would give), **וכעסטה**(she used to provoke her), **יעשה**(he would do), **תכעסנה**(she would provoke her) 등의 동사가 연결되어 나오는 경우는 삼입 절로 보아야 한다⁴⁸⁾.

4.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본문 비평 문제

4.1. **ויהי איש אחד**(1절)

히브리어 사본 중에는 **אחד**가 없이 **איש**만 나오는 사본이 있다. 히브리어 구약의 주석의 일종인 미드라쉬 중에 「페씨크타 라바(큰 페씨크타, Pesiqta Rabba)에도 **אחד**가 없이 **איש**만 나온다. 그리스어역 사본들(G^{Mss}) 중에도

46) H. P. Smith,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p. 7.

47)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 p. 11.

48) H. P. Smith, *Samuel*, p. 7; H. W. Hertzberg, *I & II Samuel*, p. 21; P. Kyle McCarter Jr., *I Samuel*, pp. 59-60.

אָחַד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다.

BHS는, 위에서 보듯이, אָחַד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히브리어 사본과 고대역본을 확인하여 제시하고 있다⁴⁹⁾. 카일 맥카터는 칠십인역(G^B)의 ανθρωπος ης은 “한 사람이 있었다(there was a man)”를 뜻하는 히브리어 אִישׁ הִיא의 번역이라고 보고, 마소라 본문이 이것을 더욱더 일반적인 연결 형태인 אִישׁ וַיְהִי로 바꾸고, 거기에다가 אָחַד를 첨가시켜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and there was a certain man)”라는 뜻의 히브리어 관용구(慣用句) אָחַד אִישׁ וַיְהִי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본다⁵⁰⁾.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소개하는

וַיְהִי אִישׁ הַיָּם בְּאֶרֶץ שׁוּן אִיּוֹב שְׁמוֹ
이름은 욥이었다)

에도 אִישׁ הִיא가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드른 표현이고,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을 지닌 אָחַד אִישׁ וַיְהִי 라는 표현이 삼하 18:10; 사 9:53; 13:2; 왕상 13:11; 20:13; 왕하 4:1 등에서 보듯이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⁵¹⁾.

언어에 따라서는, 혹은 문맥을 조정하여 등장인물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거명할 경우에는, אִישׁ הִיא와 אִישׁ אָחַד וַיְהִי 사이에 아무런 의미상의 구별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말 「개역」에 반영되어 있다. 우리말 문법에서는 명사의 단수 복수 구별이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는데다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되는 경우에는 “엘가나라고 하는 어떤 한 남자”라는 표현 보다는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다”라는 표현이면 의미 전달이 충분하다. 그러나 히브리어 문맥을 따라, 아직 이름을 밝히기 이전이라면, אָחַד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약간의 뉴앙스의 차이를 나타낸다. אָחַד가 있으면, “라마다임소빔에 어떤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다”라는 뜻을 읽을 수가 있고, אָחַד가 없으면, “라마다임소빔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다”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뉴앙스의 차이가 우리말 독자들에게 얼마만큼 민감하게 느껴지는지는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이것은 의미론과 관련된 문제라기 보다는 히브리어 문장의 수사법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4.2. הַרְמָתִים צוֹפִים(1절)

그리스어 칠십인역(LXX^B)에는 Ἀρμαθαῖμ Εευφα라고 되어 있고, 시리아어역

49) BHS(1977) - > Ms Pes R G^{Mss} cf Jdc 13,2

50) P. Kyle McCarter, Jr., *I Samuel*, p. 51.

51)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 p. 1.

페쉬타에는 *rmt' ddwq*라고 되어 있고, 아람어역 타르굼에는 (*m*)*rmt' mtlmjdi nbjj*(라마타 밋탈미데이 네비아야)라고 되어 있다.

히브리어 지명 **רַמְתִּים צוֹפִים**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1) 이런 이름을 가진 지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2) 엘가나의 고향은 라마라는 곳이며(삼상 1:19), 여기 단 한 번 나오는 라마다임소빔과는 무관하다는 점, (3) 두 단어의 결합이 문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4) 이 부분에서 고대역들이 서로 다른 본문 형태를 보인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마소라 본문의 **רַמְתִּים צוֹפִי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문 전달 과정에서 와전(訛傳)이 생겼다고 볼 때, 본래의 본문이 무엇이었던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마소라 본문은 엘가나가 살던 마을 이름을 **רַמְתִּים צוֹפִים**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지명이 구약에서는 오직 여기에서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마소라 본문에 표기된 대로 **רַמְתִּים**은 정관사 **ה**와 **רָמָה**(언덕, height)의 양수형(兩數形, dual form) **רַמְתִּים**(두 언덕, two heights)이 결합되어 **רַמְתִּים**(the two heights)를 이룬 것이다. 구약에 나타나는 장소 이름 중에는, 생성 배경이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양수 형태를 가진 것들이 많다⁵²⁾. 본래는 보통명사로 불리다가, 그래서 정관사와 함께 쓰이다가 고유명사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BHK^{2,3}은 **רַמְתִּים**을 **רַמְתִּים**으로 고쳐 읽을 것을 제안하지만⁵³⁾, BHS에 와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시리아어역 페쉬타와 아람어역 타르굼과 그리스어 칠십인역이 마소라 본문과도 서로 다른 본문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엘가나가 살던 곳은 라마(**רָמָה**)이다(삼상 1:19)⁵⁴⁾. “라마다임”도 아니고, “라마다임소빔”도 아니다. 엘가나의 고향 “라마”가 현재의 어느 마을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예루살렘 북쪽 5마일 지점에 위치한 “에르 램(er-Ram)”, 베델 북서쪽 12 마일 지점의 “베트 리마(Beit-Rima)”, 베델 남서쪽 3마일 지

52) 예를 들면, 창 38:21의 “에나임(הַעֲנִים)”, 민 32:37의 “기라다임(קִרְיָתִים)”, 렘 48:22의 “벧디볼라다임(בֵּית־דְּבֹלָתַיִם)”, 사 15:5의 “호로나임(חֲרָנִים)”, 사 15:8의 “에글라임(אַגְלָיִם)” 등

53) BHK² - 1 prb **רַמְתִּים** (L^{1g} [ad 3] *Armat* = **רָמָה** ?)

BHK³ - 1 prb **רַמְתִּים**, al **רָמָה** ; cf 19 (L^{1g} [ad 3] *Armat* = **רָמָה** ?)

54) 라마가 **רַמְתִּים**이라고 기록된 것은, 앞의 **ה**는 지명 앞에 붙은 정관사이고, 뒤의 두 글자 **רָמָה** 끝에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ה**(the **ה** of motion)”가 붙을 때 발생하는 철자 표기의 변화에서 유래한 것이다. 삼상 1:19; 2:11; 7:17 등.

한 지명이 “가다(הֵלֵךְ)”, “오다(בוא)”, “돌아가다(שוב)”와 같은 동사의 목적지로 쓰일 경우에,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ה**가 쓰인다. 그 지명 자체가 **ה**로 끝날 때는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ה**는 **רָמָה**가 된다.

점의 “라말라(Ram-Allah)” 등 등의 여러 마을이 논의되고 있다⁵⁵⁾. 아랍어 타르굼은 “예언자의 생도들의 라마”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스미드가 생각하듯이⁵⁶⁾, 이해하기 어려운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대 해석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형태의 두 히브리어 단어의 결합은, 벨하우센 이래 여러 주석가들과 문법학자들이 지적하듯이⁵⁷⁾ 문법적으로 그 결합이 불가능하다. **צופים**이 **הרמתיים**과 동격의 위치에 오려면 성(性)이 맞아야 한다. **הרמתיים**이 여성이므로 거기에 동격으로 결합될 분사는 **צופות**가 되어야 한다. 또 **צופים הרמתיים**의 연결구조를 볼 때 **צופים**의 기능이 **הרמתיים**의 소유관계(초프족의 두 언덕, the two heights of the Zophites)가 될 수도 없다. **צופים**과 관련된 전통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는 그리스어 칠십인역의 히브리어를 재구성해서 본래의 원문을 회복해 보려는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고대역들마다 다른 본문 형태를 반영한다. 그리스어 칠십인역(LXX^B)의 Ἀρμαθαίμ Εἰφά εἰς ὄρους Εφραίμ (라마타임 출신의 ... 에브라임 산지의 숲 사람)을 히브리어로 되번역해 보면, 마소라 본문과는 다른 **מהר אפרים צופי הרמתיים**라는 본문을 읽었을 것 같은 단서가 있다. **צופ**(추프)는 엘가나의 선조의 이름이기도 하고, 사무엘이 한 때 살았던 장소의 이름 “에레츠 추프(ארץ צוף 추프의 땅)”이기도 하다(삼상 9:5). 그리스어역이 읽은 것처럼 히브리어 본문을 재구성하여 읽어보면, “라마타임에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에프라임 산지의 추프 사람이었다(Then there was a certain man of Ramathaim, a Zuphite of the hill country of Ephraim)”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마소라 본문의 **צופים** 끝에 붙은 **ם**은, 여러 본문 비평가들이 지적하듯이⁵⁸⁾, 그 다음에 이어지는 **מהר**의 **מ**에서 온 중복오사(重複誤寫 dittography)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צופים**에서 끝의 **ם**을 제거해 버려 **צופי**를 회복하고 **ו**를 “오”로 읽지 않고 칠십인역처럼 “우”로 읽으면, **צופי**(추피: 추프족 사람, a Zuphite)가 된다. 그러면 1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55) 보다 더 상세한 논의에 관해서는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 pp. 3-4.

56) Smith, Henry Preserved,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899), p. 6.

57)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 p. 1; Henry Preserved Smith,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p. 6.

58) 예를 들면,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 p. 1; Ralph W. Klein, *I Samuel*, p. 2; P. Kyle McCarter, Jr., *I Samuel*, p. 51.

라마다임 출신인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추프 사람(צופי, a Zuphite)이었고,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다.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다.

There was a certain man from Ramathaim,
a Zuphite⁵⁹,
from the hill country of Ephraim,
whose name was Elkanah, ...

BHQ는 지금까지의 견해와는 다른 견해를 표명한다. 마소라 본문의 צופים צופים에서 צופים(초핍)을 צופים(추핍)으로 모음화만을 달리할 것을 제안한다. BHQ는 마소라 본문과 오리겐이 교정한 그리스어 본문(gO)과 라틴어역 불가타(V)와 시리아어역 페쉬타(S)와 타르쿰(T[*midr*]: 타르쿰[미드라쉬]), 이상 다섯 자료에 같은 본문 형태 צופים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마소라 본문 형성 이전부터 자음본문 צופים이 일찍부터 히브리어 본문에 자리잡고 있었던 점을 상기시킨다. 그러면서 BHQ는 그리스어 칠십인역이 Ξεϕα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리스어 역자 앞에 놓여 있던 히브리어 본문에는 צופים에서 ם이 탈락된 צופי가 있었을 것을 가정한다. 그리스어역의 Ξεϕα는 히브리어 צופי의 번역인데, 이것은 מהר צופים에서 צופים의 ן과 מהר의 ן이 계속 이어서 나올 때 가끔 같은 글자가 탈락되는 중자탈오(重字脫誤, haplography)의 실수로 צופי만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본문 비평이 마소라 본문의 중복오사(重複誤寫, dittography)를 지적한 것에 반하여 BHQ는 칠십인역의 대본에서 발생한 중자탈오의 오기를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BHQ는 마소라 본문에 다음과 같은 교정(corrections)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צופים(초핍)을 צופים(추핍)으로 모음화 하라는 것이다⁶⁰. 히브리어 구약성서 본문프로젝트의 중간 보고서(PIR)는 마소라 본문의 צופים(초핍)이 히브리어 성서의 본문 형성 단계의 제 2단계인 “가장 초기의 본문으로 입증되는 본문(the earliest attested text)”에 속할 가능성은 C급(의심이 짙은 것)으로 분류한다. 마소라 본문이 צופים(추핍)을 צופים(초핍)으로 읽은 것은 역사적 자료를 잘못 이해한 데서 생겨난 이독(異讀, misunderstanding of

59) P. Kyle McCarter Jr., *I Samuel*, pp. 49, 51; Ralph W. Klein, *I Samuel*, pp. 1-2.

60) BHQ - צופים M gO V S T (*midr*) | G Ξεϕα via צופי(hapl) || cor צופים (=base) R + •

historical data)이라고 평가한다. 성서 본문의 저자가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누구나 잘 알 수 있었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에 대한 표현법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모호한 것이 되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후대의 독자들이 본문을 오해하여 달리 읽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이독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צופים(초핍)을 צופים(추핍)으로 모음화(母音化)만을 달리하여 읽고, 이것을 “from Ramathaim, <the Ramathaim> of the Zuphites”로 해석할 것을 권한다⁶¹⁾. BHQ도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이 제안을 따르면 다음과 같은 번역이 나온다.

추프족(צופים)에 속한 라마다임 출신인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다.
그의 이름은 엘가나였다.

There was a certain man from Ramathaim,
of (the) Zuphites⁶²⁾,
from the hill country of Ephraim,
whose name was Elkanah, ...

마소라 본문에서 중복오사(重複誤寫)가 발생하여 צופי여야 할 것이 צופים으로 잘못 기록되었으므로, 칠십인역을 따라 צופי(a Zuphite)로 읽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이나, 칠십인역의 대본에서 중자탈오(重字脫誤)가 발생하여 צופים(Zuphites)여야 할 것이 צופי(a Zuphite)가 되었으니 다시 צופים으로 고쳐 읽어야 한다는 제안 사이에는, צופים이나 צופי가 지명이 아니라 צופ(삼상 9:5)에서 유래한 “종족을 나타내는 명사(a gentilic)”로 이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4.3. ירחם(1절)

61) Barthélemy, Dominique, A. R. Hurst, Norbert Lofink, W. D. McHardy, H. P. Rüger, and James A. Sanders (eds.), *Preliminary and Interim Report on the Hebrew Old Testament Text Project*, Vol. 2(United Bible Societies, 1979), p. 146. 이하 PIR로 인용할 것임.

62) 같은 이해를 허츠빅에게서도 볼 수 있다. H. W. Hertzberg, *I & II Samuel, A Commentary*, Old Testament Library (London: SCM Press, 1964), p. 21: "There was a certain man of Ramathaim, of (the) Zuphites, of the hill country of Ephraim, ..."

그리스어 칠십인역(LXX^B)에는 $\text{Ιερεμε} / \text{ιηλ}$ 로 음역되어 있다. 이것은 히브리어 יְרֵמְיָאֵל (63)의 대응어이다. 고대 라틴어역 이탈리아(L^{Lg})에도 히브리어 יְרֵמְיָאֵל 이 반영되어 있다⁶⁴). 라틴어역 불가타, 시리아어역 페쉬타, 아람어역 타르굼등은 마소라 본문과 동일한 본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것이 본래의 본문인가? יְרֵמְיָאֵל 인가? יְרֵמְיָאֵל 인가? 모두 다섯 가지 자료 중에서 네 가지가 같은 형태의 본문을 반영하고 칠십인역 하나만이 다른 형태의 본문을 반영하는데, 번역자들은 이런 경우에는 쉽게 다수 자료의 읽기를 따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본문 전승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의 히브리어 대본이 서로 다른 본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본문 전승을 대표한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다수 고대역들이 따르는 읽기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4.4. אֱלִיָּהוּא (1절)

대상 6: 12에서는 같은 인물이 אֱלִיָּאֵב 로 나오고, 대상 6: 19에서는 אֱלִיָּאֵל 로⁶⁵) 나온다. 이것 역시 본문 비평의 문제가 아니고 자료비평의 문제이다. 그러나 고대역들 사이에 이독(異讀)이 없다는 것은 여기 마소라 본문의 읽기가 오래 전부터 읽혀져 왔음을 뜻한다. 대상 6장에서 보이는 이독은 자료비평에서 추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4.5. תַּחֲו (1절)

칠십인역(G^L)에는 $\Theta\omega\epsilon$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상 6:19(「개역」 34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תַּחֲו 의 번역이다⁶⁶). 위에서 다룬 יְרֵמְיָאֵל 과 $\text{Ιερεμε} / \text{ιηλ}$ 의 문제와 같은 성격의 것이다.

4.6. $\text{בְּיָצוֹף אֶפְרַתִּי}$ (1절)

63) 대상 2:25,26,27 “여라므엘”

64) BHK² - G^B L (cf L^{Lg} ad 27,11) יְרֵמְיָאֵל

65) BHK²,3 - I Ch 6,12,19 *Eliab, Eliel*

66) GL $\Theta\omega\epsilon = \text{תַּחֲו}$

마소라 본문에는 “에브라임 사람 솥의 아들”이라는 명사절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어 칠십인역(LXX^B)은 “나셉 에브라임에(εν Νασειβ Εφραιμ: 나셉 에브라임에 있는)”⁶⁷⁾라고,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구로 되어 있다. 어찌면 이것은, BHK³이 지적하듯이⁶⁸⁾, 마소라 사본에서 볼 수 있는 אפרים בנציב가 칠십인역 번역자의 히브리어 대본에는 אפרים בנציב으로 오기되어 있었던가, 아니면, 번역자가 이렇게 잘못 읽었던가 하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BHK²는 칠십인역이 마소라 본문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기만 하는데, BHK³는 그것이 히브리어 אפרים בנציב의 번역이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리스어 번역을 히브리어로 되번역(retroversion)해 놓았다. 그러나 오늘날 본문 비평에서는 이것을 서로 다른 히브리어 본문의 반영이라고 보기보다는 유사 글자의 혼동에서 온 오기의 결과로 생긴 이독(異讀)이라고 판단하여 본문 비평의 대상으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4.7. אחת(2절)

많은 히브리어 사본에는 정관사 ה가 첨가된 האחת로 나온다.

השנית ... האחת라고 해야 문법적으로 더 잘 맞는다. 긴스백이 편집한 히브리어 구약⁶⁹⁾도 האחת를 취하고 있다. 비평적 편집본들은 האחת로 정관사를 붙여 읽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⁷⁰⁾. 히브리어 본문 편집에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번역에 있어서는 השנית ... האחת라고 이해하고서야 번역이 가능하므로 번역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4.8. בני-עלי 3(절)

마소라 본문의 בני-עלי는 “엘리의 두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리스어 칠십인역에는 Ηλει και οι δυο υιοι αυτου(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다. 바로 9절에 엘리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 엘 리가 언급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번역자에게서 온 것일 수도 있는데 다가, 더 중요하게는

67) BHK²의 본문비평장치에 지적되어 있다. BHK² - G^B εν Νασειβ Εφραιμ.

68) BHK³ - G^B εν Νασειβ Εφραιμ (בנציב אפרים).

69) Christian David Ginsburg (ed.), *The Old Testament*, Vol. I-IV, London, 1908-1926.

70) BHK² - Var^G האחת

BHK³ - l? c Var^G האחת

BHS - nonn Mss האחת cf Vrs

다른 고대역의 지지가 없으므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마소라 본문을 고치기는 어렵다.

4.9. ולכל-בניה ובנותיה (4절)

히브리어 본문의 뜻은 “그 여자가 낳은 모든 아들들과 딸들에게”이다. 칠십인역(G^B)에는 다만 και τοις υιοις αυτης(그 여자의 아들들)이라는 말만 있고 “그 여자의 딸들”이라는 말은 없다⁷¹⁾. 스미드는 칠십인역의 짧은 본문을 본래적인 것으로 보고, 마소라 본문을, 본래의 것이 아닌, 2차적으로 확대된 본문으로 본다⁷²⁾. 맥카터 역시 같은 판단을 하고 있으나⁷³⁾, 클라인은 이것이 마소라 본문의 확대인지, 아니면, 딸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삭제시킨 짧은 본문을 칠십인역자가 번역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⁷⁴⁾.

4.10. אפים כי (5절)

그리스어 칠십인역에는 πλην ουτι(except that, save that, “...밖에는”)로 되어 있고, 그리스어 심파쿠스역과 테오도션역에는 αλλα(그러나)라고 되어 있다. 불가타에는 tristis(무겁게, 많이), 시리아어역에는 a'epa(두 몫, double portion), 타르굼에는 ארי בחר(백히르 아레이: chosen portion, 특별히 뽑아 놓은 몫, 좋은 몫)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 אפים은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스어 칠십인역의 πλην ουτι는 히브리어 원문이 אפים였음을 시사한다. 본문 비평가들은 אפים אפת를 칠십인역을 따라 אפט אפת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⁷⁵⁾. 이렇게 읽으면, 전체 문맥의 뜻은, 엘가나가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여러 몫의 제물을 주었지만, 아이가 없는 한나에게는 오직 한 몫만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제물의 몫은 한 몫밖에 주지 않았어도 엘가나는 하

71) BHK²³ - G^B και τοις υιοις αυτης

72) H. P. Smith,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p. 7.

73) P. Kyle McCarter Jr., *I Samuel*, p. 51.

74) Ralphs Klein, *I Samuel*, p. 2

75) H. P. Smith,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p. 7; BHK²³ - l c G (πλην ουτι) אפט אפת; BHS는 칠십인역의 번역과 אפט의 용례가 나오는 삼하 12장 14절을 참고해 볼 것을 제시한다. BHS - G (G^L + κατά προσωπον) ..., πλην ουτι cf 2S 12,14 .

나님이 태를 달아서 아기를 못 갖게 하신 한나를 브닌나를 사랑하는 것 보다 더욱 사랑했다는 것이다.

BHQ는 위에서 보듯이 마소라 본문 외에도 서로 다른 본문 형태가 고대 역본들에 나타남을 지적하고 각 본문 형태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두 몫”으로 번역한 시리아어역과 “좋은 몫”으로 번역한 타르굼과 “많은 몫”으로 번역한 라틴어역 불가타는 모두 난해한 히브리어를 해석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고, 칠십인역의 $\pi\lambda\eta\nu\ \sigma\tau\iota$ 히브리어 כי אפס (cf. 2 Sam 12:14; Am 9:8, but because)를 번역하고, 동시에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구절을 $\pi\lambda\eta\nu\ \sigma\tau\iota$ 앞에 선행시키면서, 2절에 근거하여 내용을 확대하고, 엘가나가 아기가 없는 한나에게 오직 “한 몫”만을 준 것을 정당화하려 한 것 같다고 본다. 심마쿠스와 테오도션은 $\pi\lambda\eta\nu$ (…하는 외에)을 $\alpha\lambda\lambda\alpha$ (그러나)로 수정하였다. 심마쿠스와 테오도션처럼 읽으면, 엘가나는 한나에게 아이가 없다고 해서 겨우 한 몫만을 주었는데, “그러나” 엘가나는 브닌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뜻이 된다. 루시안의 그리스어 개정판의 $\pi\lambda\eta\nu$ 은 אפס 의 반영이다. 그러나 $\kappa\alpha\tau\alpha\ \pi\text{ροσσωπ}\text{ον}$ (얼굴을 따라)이라는 말을 첨가한 것을 보면, אפס 도 번역하려 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이중 번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BHQ는 지적한다⁷⁶).

히브리어 구약성서 본문 프로젝트 중간보고서(PIR)는 마소라 본문의

$\text{כי אחת אפים כי אחת אפים}$ 가 히브리어 본문 발달의 제 2단계에 속한 본문일 가능성을 B급(타당성에 약간 의심이 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כי אפס אחת אפס 로 읽을 것을 권한다⁷⁷).

4.11. $\text{גם־כעס} \dots \text{וכעסתה}$ (6절)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text{גם־כעס} \dots \text{וכעסתה}$ 는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번민케 하더라)” 라는 뜻이다.

BHK³는 타르굼의 번역을 따라 כעס (화를 내다)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⁷⁸).

76) BHQ - כי אפס M | $\pi\lambda\eta\nu\ \sigma\tau\iota$ G (ign-lex+ampl) | $\alpha\lambda\lambda\alpha\ \sigma'-\theta'$ (substi-lex) | *tristis* V (interp) | *a'epa double (portion)* S (interp) | *בחיר ארי* *chosen portion* T (interp) R. (Commentary) S (“double portion”), T (“chosen portion”) and V (“sad”) have all attempted to interpret the text. G ($\pi\lambda\eta\nu\ \sigma\tau\iota$) seems to have read כי אפס (cf. 2 Sam 12:14; Am 9:8) as well as preceding it with the phrase, “for she had no child”, an amplification based on v. 2 and a justification for Elkanah’s giving her one portion only. $\sigma'-\theta'$ modified $\pi\lambda\eta\nu$ to $\alpha\lambda\lambda\alpha$, while gL added $\kappa\alpha\tau\alpha\ \pi\text{ροσσωπ}\text{ον}$, an attempt to render אפס , thus resulting in a double translation, since gL preserved $\pi\lambda\eta\nu$ as well.

77) PIR, p. 146.

כעס는 명사 “격동”이다. 피엘형 כעס로 읽으면,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시켰고, 그래서 한나는 화를 내었다(카에쓰)는 말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나로 하여금 번민케 하려고”라는 목적절과의 연결이 어려워진다. 현재의 히브리어 본문의 구조에서는 “브닌나가 한나로 하여금 번민케 하려고 한나를 격동시키면 한나는 화를 내곤 했다”는 의미를 읽어내기가 어렵다. BHS 역시 시리아어역 페쉬타와 아랍어역 타르굼과 라틴어역 불가타가 כעס를 동사로 읽고 있음을 지적하기는 하지만⁷⁹⁾, 그러한 고대역을 따라 마소라 본문을 수정하라는 제안은 하지 않는다.

4.12. הרעמה(6절)

히브리어 הרעמה는 그 문법적 형태를 볼 때 רעם의 히필형 부정사에 여성 3인칭 단수 목적격 접미어가 붙은 것이다. 이 동사의 뜻은 “천둥치다(thunder)” “천둥소리를 내다(make the sound of thunder)”. 히필형에서는 “천둥을 일으키다(cause thunder)”이다. 현재의 문맥에서는 그 의미가 잘 맞지 않는다. 칠십인역(G^L G^{Lg})은 εἰσοθνευειν(경멸하다, 무시하다, to set naught)이라는 대응어를 보이고 있다.

BHK²는 G^L과 G^{Lg}를 따라 마소라 본문의 הרעמה를 הרפמה(to reproach her, 그 여자를 흠잡으려고)로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⁸⁰⁾. BHK³은 הרפמה로 읽을 것을 권하지만 הרעיבה(배고프게 하다, cause to be hungry)라고도 읽을 수 있음을 제안한다⁸¹⁾. 드라이버는 같은 썸어의 아랍어에서는 이 낱말이 “화나게 하다(to anger)”의 뜻이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마소라 본문을 수정하려 하지 않는다⁸²⁾.

4.13. וכן(7절)

마소라 본문의 히브리어 וכן(그리고 그렇게) 한 히브리어 사본과 칠십인역 일부와 라틴어역 일부에는 접속사 “와우”가 없이 다만 כן이라고만 되어 있다⁸³⁾. 번역에서는 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으나 히브리어 성서의 비

78) BHS - 1 c T כעס

79) BHS - STV verb

80) BHK² - 1 frt הרפמה(cf G^L L^{Lg} εἰσοθνευειν)

81) BHK³ - 1 frt הרפמה(cf G^L L^{Lg} εἰσοθνευειν); prps הרעיבה

82)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 p. 10.

83) BHS - Ms כן cf G^O L^{93.94}

평적 편집에서는 정확한 표기를 결정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4.14. תַּעֲשֶׂה(7절)

마소라 본문대로 읽으면, 엘가나가 매년 제사 때마다 한나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이는 행위를 하니까(תַּעֲשֶׂה),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곤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반해, 시리아어역 페쉬타의 'bd' hwt pnn는 “브닌나가 그렇게 했다”라고 번역하여, 여기 동사 תַּעֲשֶׂה의 주어가 엘가나가 아니라 브닌나라고 이해한다. BHK²는 תַּעֲשֶׂה를 תַּעֲשֶׂה로 읽으라고 제안한다⁸⁴. 이것은 시리아어역 페쉬타와 라틴어역 불가타(내포된 뜻)를 따르는 독법이다.

그리하여 וְכֵן תַּעֲשֶׂה로 읽으면, “그리고 브닌나가 해마다 늘 그렇게 하곤 했다..., 그렇게 브닌나는 한나를 격동하였다, and so used she(Peninnah) to do year by year ..., so (namely) used she to vex her” 라는 뜻이 나온다. 이 경우 두 번째 כֵן은 첫 번째 것의 반복일 뿐이다⁸⁵.

BHK³는 תַּעֲשֶׂה를 תַּעֲשֶׂה로 읽으라고 제안한다⁸⁶. 이미 19세기에 오토 테니우스⁸⁷와 올리우스 벨하우센⁸⁸이 이런 읽기를 제안했다. 이렇게 고쳐 읽으면 “해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브닌나는 것처럼 한나를 격동하곤 했다, so was it done year by year ..., so (namely) did she vex her”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수동형을 사용한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음을 드라이버는 지적한다⁸⁹. BHS는 시리아어역에 나타난 'bd' hwt pnn라는 이독만을 지적한다⁹⁰.

4.15. תַּעֲלֶה(7절)

마소라 본문의 תַּעֲלֶה는 “그 여자(곧 한나)가 올라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칠십인역(G^{Mss})의 대응어 αναβηναι αυτον는 “그(곧 엘가나)가 올라가는 것”

84) BHK² - 1 תַּעֲשֶׂה

85)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 p.11.

86) BHK³ - 1 תַּעֲשֶׂה

87) Otto Thenius, *Die Buecher Samuelis in the Kurzgefasstes exegetisches Handbuch zum A. T.*, ed. 1, 1842; ed. 2, 1864. cited from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 p.11.

88) Julius Wellhausen, *The Text of the Books of Samuel*, 1871. cited from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 p. 11.

89)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 p. 11.

90) BHS - S 'bd' hwt pnn'

을 뜻한다. 여기에 반해, 불가타의 *ascenderent*는 “그들이 올라가는 것”이다. 불가타역의 히브리어대본에는 **עֲלִיתָם**(알로탐: 그들이 올라가는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BHK^{2,3}는 **עֲלִיתָהּ**를 불가타역을 따라서 **עֲלִיתָם**으로 읽을 것을 권한다⁹¹⁾.

4.16. בבית (7절)

여러 히브리어 사본에 전치사 **ב**가 없이 다만 **בית**라고만 표기되어 있다⁹²⁾.

칠십인역에는 *εις* ... (…로)라고 되어 있고, 시리아어역에도 행동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I* …)가 있고, 아랍어역 타르굼에도 전치사 (*I* …)가 있고, 라틴어역 불가타에는 *templum*(성전으로)이라고 되어 있다.

히브리어 명사 **בית**가 “올라가다”라는 동사의 목적지로 사용될 때에 여기 마소라 본문에서처럼 **בית** 앞에 전치사 **ב**가 붙어 **בבית**가 되는 것은 문법적으로 예상로운 것이 아닌데다가, 40여개 이상의 히브리어 사본들이 **בית**를 보이고 있는 점과 위에서 본 고대역들이 오히려 전치사 **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마소라 본문 편집에 있어서 **בבית**를 **בית**로 바로잡는 것이 옳은 것이다.

4.17. חנה(9절)

칠십인역에는 마소라 본문의 **חנה** 다음에 *και ειπεν αυτω Ιδου εγω κυριε και ειπεν αυτη*(한나가 엘가나에게 대답하였다. “네, 여보.”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하였다, And she said to him, “Here I am, lord.” And he said to her)가 더 있다. 칠십인역 번역자가 이런 긴 요소를 번역 과정에서 첨가시켰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이것이 번역자의 첨가가 아니라 본래부터 있던 것이라면 왜 이러한 본문이 빠졌는가를 설명하기도 어렵다.

4.18. (בשלה) כָּלָה(9절)

마소라 본문의 **אכלה**의 행위자를 한나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그 때까지

91) BHK^{2,3} - 1 c V **עֲלִיתָם**

92) BHK² - 34 MSS **בית**

BHK³ - 42 MSS T **בית**

BHS - mlt Mss citt **בית**, G *εις* ... , ST *I* ..., V *templum*

는 한나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다가 18절 이후에 그가 먹는다는 말이 나오므로, 본문 비평자들은 칠십인역을 따라 한나를 제외한 한나의 일행이 먹은 것으로 이해한다⁹³). 칠십인역 (G^{Op})에는 (μετα) το φαγειν αυτους (그들이 먹은 후에, after they ate)라고 되어 있다.

4.19. **בְּשֵׁלָה (אֲכָלָה)**(9절)

한나가 포함된 엘가나 일행의 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로 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맥에서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갑자기 필요도 없는 잉여적 표현인 “실로에서”라는 지명이 등장한다는 것이 어색하다. **בְּשֵׁלָה**에 관해서는 마소라 본문의 읽기를 수정할 것을 말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다.

4.19.1. **הַבְּשֵׁלָה**

이렇게 읽으면, “삶은 고기(the boiled meat)”라는 뜻이 나온다. 2:13의 **בְּשֵׁל**, 2:15의 **מִבְּשֵׁל**에서 이런 추측을 해 본 것이다. 벨하우센이 제안했고 스미드, 드라이버, 허츠백 등이 받아들인 수정안이다⁹⁴).

4.19.2. **בְּלִשְׁכָּה**

이렇게 읽으면, “방에서, 객실에서, 홀에서, 식당에서(hall, dining chamber)”가 된다. 이것은 클로스터만의 수정이다⁹⁵). PIR도 같은 제안을 한다⁹⁶). 이런 생각의 근거는 9장 22절의 **לִשְׁכָּתָה**(리슈카타: 방에서)이다.

4.19.3. **בְּשֵׁלִי**

이렇게 읽으면, “조용히, 혼자서(privately, quietly)”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생각은 삼하 3장 27절의 **בְּשֵׁלִי**의 용법에 근거해 있다. 맥카터는 이것은 순전히 철자법상의 혼란에 기인된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⁹⁷).

93) BHK²³ - 1 frt **בְּשֵׁלָה אֲכָלָה**, cf G

94)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 p. 12; H. W. Hertzberg, *I & II Samuel*, p. 22, H. P. Smith, *Samuel*, p. 9-10.

95)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 p. 10.

96) PIR, p. 147.

히브리어 **בשלה אכלה ואחרי**를 다 수정하는 제안도 있다.

בלשכה (한나는 자기 음식을 (먹지 않고) 식당에 그대로 두었다, and left her food (uneaten) in the (dining-)chamber)라고 읽자는 것이다. 엘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했다는 1장 18절의 내용과 그리스어 칠십인역 번역에 근거하여 클로스터만⁹⁸⁾이 이런 제안을 했고, 부데⁹⁹⁾가 받아들인 바 있다.

4.20. **ואחרי שתה**(9절)

이 구절이 칠십인역에는 없다. 그 대신 *και κατεστη ενωπιον κυριου*(그리고 그 여자는 주님 앞에 섰다, and she stood before the Lord)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 BHK^{2,3}는 그리스어 칠십인역을 **לפני יהוה ותתיצב**라고 히브리어로 되번역하여(retrovert) 제시하고, 마소라 본문에 있는 **ואחרי שתה** (마신 후에)는 지워버리고, 칠십인역이 읽은 것대로 본문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다¹⁰⁰⁾. 이것은 오토 테니우스, 벨하우젠, 클로스터만, 드라이버 등이 받아들인 것이다. BHK^{2,3}도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왜 **לפני יהוה ותתיצב**와 같은 본문이 히브리어 본문에서 삭제되었는가? **ואחרי שתה**와 **לפני יהוה ותתיצב** 사이에서 발생한 유사문미 탈락(類似文尾脫落, homoioteleuton)이라는 설명은 좀 구차스럽다¹⁰¹⁾.

BHS는 **ואחרי שתה** 라는 말이 칠십인역에 없다는 것, 그것 대신에 *και κατεστη ενωπιον κυριου*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만을 기술할 뿐이다¹⁰²⁾.

PIR은 **ואחרי שתה**가 “가장 최초의 것으로 입증되는 본문”에 속할 가능성을 B급(타당성에 약간 의심이 가는 것)으로 분류하고,

ואחרי שתה ותתיצב לפני יהוה(그리고 그 여자는 제주(祭酒)를 마신 후에 주님 앞에 섰다, and after having drunk, and she stood before the LORD)로 읽는 경우나 칠십인역의 **לפני יהוה ותתיצב**(그리고 그 여자는 주님 앞에 섰

97) P. Kyle McCarter Jr., *I Samuel*, p. 53.

98) “Klostermann’s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and Kings, forming part of the *Kurzgefasster Commentar zu den Heiligen Schriften Alten und Neuen Testamentes*, edited by Strack and Zockler(1887).” in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 pp. VIII, 12.

99) K. Budde, *Die Buecher Samuel erklart*, 1920 (in Marti’s *Kurzer Hand-Commentar zum A. T.*). cited from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 ..., pp. XV, 12.

100) BHK^{2,3} - dl et ins (cf G) **ותתיצב לפני יהוה**

101) P. Kyle McCarter Jr., *I Samuel*, p. 53.

102) BHS - >G⁰¹; G + *και κατεστη ενωπιον κυριου*

다, and she stood before the LORD)를 “난해구를 쉽게 만듦으로써 생겨난 이독(simplification of the text)”으로 평가한다¹⁰³).

BHQ도 이 본문이 지닌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마소라 본문과 오리겐과 루시안의 그리스어역 개정본과 (라틴어역 불가타와) 타르굼은 **וְאֶחָדֵיהֶן**와 같은 본문 형태를 반영한다. 그리스어 칠십인역에는 이 내용이 없다. 시리아어역 페쉬타에는 “그 여자가 주의 집으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더 첨가되어 있다. 이것은 시리아어역의 확대이다. 그 근원은 칠십인역으로까지 소급된다고 본다¹⁰⁴).

BHQ는 그리스어 칠십인역의 내용이 더 만족스럽다고 본다. 칠십인역의 내용은, 한나가 실로에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일어나서 주 앞에 섰는데, 그 때 제사장 엘리는 주의 전 문지방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마소라 본문의 경우는 “실로에서 식사를 마친 뒤에”라는 말 다음에 곧 이어지는 “(제사술을) 마신 뒤에”라는 말이 나와 문장의 전체 구조가 이상한데, 칠십인역이 이러한 이상하게 배치된 문장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칠십인역의 읽기가 더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그리스어 번역문과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관계가 한 본문에 대한 상이한 이해나 번역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한, 서로 분리된 두 본문 전승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찌면 마소라 본문의 읽기가 난해(難解) 본문이므로, 더 본래적인 본문일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¹⁰⁵).

4.21. על-יהוה(10절)

BHK와 BHS는 많은 사본들이 여기에서 **על**(위에) 대신에 **אל**(에게)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⁰⁶. 구약에서 **על**과 **אל**의 혼용은 자주 발견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על**보다는 **אל**이 더 보편적으로 쓰인다. 여기 **על**은 **אל**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103) PIR, p. 147.

104) BHQ - **וְאֶחָדֵיהֶן** M gOL (V) T | > G (lit) | + and she went up to the house of the Lord S (ampt → G) R + •

105) BHQ: Commentary - G's reading is more satisfying since it avoids the awkwardly-placed mention of Hannah's drinking after the mention of Shiloh. S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xt of G and M cannot be explained by a textual accident, there are probably two separate literary traditions present here. The text of M may well be the more primitive since it is the *lectio difficilior*.

106) BHK² - l c 26MSS **אל**

BHK³ - l c 29MSS **אל**

BHS - mlt Mss cit **אל**

4.22. ולא־תשכח את־אמתך(11절)

마소라 본문의 ולא־תשכח את־אמתך(당신의 여종을 당신이 잊지 않으신다면)이 칠십인역(G^B)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이 잉여의 표현인데다가 칠십인역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이 부분을 삭제하라는 제안도 있다¹⁰⁷). 그러나, BHK, BHS, BHQ등은 이 구절을 본문 비평의 대상 구절로 다루지 않는다.

4.23. ונתתיו ליהוה ... על־ראשו(11절)

여기에서는 서로 다른 세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마소라 본문이 지닌 본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도록 한다.

4.23.1. 마소라 본문

ונתתיו ליהוה כלימי חייו ומורה לא־יעלה על־ראשו

(저는 그의 한평생 그를 주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Then I will give him to the Lord for all the days of his life,
and no razor will not touch his head.)

4.23.2. 4QSama

① 4QSam^a의 본문 공백

מורה [] נתתיו ל
[] לא־יעבור ע

② 4QSam^a의 재구성(reconstruction)¹⁰⁸)

ונתתיו ל[פניך נזיר עד יום מותו ויין ועכר לא ישות ו]מורה
לא־יעבור ע[ל־ראשו]

107) Smith, Henry Preserved,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 & T. Clark, 1899), p. 10.

108) 맥카터가 재구성한 4QSam^a. P. Kyle McCarter Jr., *I Samuel*, p. 54.

(Then I shall set him before you as a Nazirite
until the day of his death, and wine and strong drink
he will not drink, and a razor will not touch his head.)

(그 아이가 죽는 날까지 그 아이를 당신께 드리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못 마시게 할 것이며,
면도기를 그의 머리에 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3.3. GB

① 그리스어 본문

και δωσω αυτον ενωπιον σου δοτον εως ημερας Θανατου αυτου
και οινον και μεθυσμα ου πιεται και σιδηρος ουκ αναβησεται
επι την κεφαλην αυτου

(Then I will give him to you till the day of his death
and he shall drink no wine nor strong drink and no razor
will not touch his head)

(그 아이가 죽는 날까지 그 아이를 당신께 드리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못 마시게 할 것이며
면도기를 그의 머리에 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② 그리스어역의 히브리어 대응 본문 재구성¹⁰⁹⁾

ונתתיו לפניך נזיר עד יום מותו ויין ושכר לא ישת ומורה
לא יעלה על ראשו

(Then I shall set him before you as a Nazirite
until the day of his death, and wine and strong drink
he will not drink, and a razor will not touch his head.)

109) 맥카터가 재구성한 칠십인역의 히브리어 대본 McCarter Jr., P. Kyle, *I Samuel*, p. 53.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당신께
나실인으로 드리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못 마시게 할 것이며
면도기를 그의 머리에 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4QSam^a의 본문은 마소라 본문보다는 더 길고, 본문 형태에 있어서 칠십인역에 가까운 본문을 보이고 있다. BHQ는, 삼상 1:11 하 반절이 마소라 본문에는 על־ראשו ... ונתתיו (I will give him to the Lord for all the days of his life, and no razor will ever be used on his head,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과는 달리 4QSam^a는 [···]ע מורה לא יעבור [···]ל[···] ונתתיהו 라고 읽어, 마소라와는 다른 본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소라 본문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과 타르굼이 다함께 ליהוה (야훼께) 라고 하는 같은 형태의 본문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리스어 칠십인역은 ενωπιον σου δοτον 이라고 해석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마소라 본문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과 타르굼은 다함께 כל ימי חי (그가 사는 모든 날들) 라고 하는 같은 형태의 본문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리스어 칠십인역이 εως ημερας θανατου αυτου και οινον και μεθυσμα ου πιεται (그가 죽는 날까지 그리고 그는 포도주나 강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till the day of his death and he shall drink no wine nor strong drink)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본문을 반영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것을 BHQ는 칠십인역이 문맥을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한다¹¹⁰).

「새미국성서(NAB)」, 「영어새개역표준역(NRSV)」과 같은 현대의 몇몇 번역은 칠십인역, 혹은 4QSam^a의 긴 본문을 그들의 번역에 반영시켰다. NRSV는, 심지어 칠십인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재구성된 4QSam^a를 따라, “나실인으로 (as a Nazirite)” 라는 말까지 첨가하였다. 맥카터는 그의 「사무엘기 주석」에서 4QSam^a의 빈 칸의 길이를 고려하여 거기에 “나실인으로”라는 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¹¹¹).

110) BHQ - על־ראשו ... ונתתיו M | [···]ע מורה לא יעבור [···]ל[···] ונתתיהו 4QSam^a • ליהוה M V S T | ενωπιον σου δοτον G (interp) | ante conspectum tuum La • כל ימי חי M V S T | εως ημερας θανατου αυτου και οινον και μεθυσμα ου πιεται G (ampl-ctxt)•

111) P. Kyle McCarter Jr., *I Samuel*, p. 53-54.

4.24. ליהוה(11절)

한나의 서약이 마소라 본문과 불가타와 시리아어역과 타르쿰이 다함께 3인칭인 주님께(ליהוה, to the Lord)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즉 같은 본문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그리스어 칠십인역은 2인칭의 주님께 직접 하는 것(ενωπιον σου, before you, 당신 앞에)으로 되어 있다. BHQ는 ενωπιον σου δοτον(당신 앞에 바치는 자)을 칠십인역의 “해석(interpretation)”이라고 평가한다¹¹²).

4.25. כליימי חייו(11절)

사무엘의 헌신 기간이 마소라 본문에는 “그의 한 평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칠십인역에는 “그가 죽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다. 또 칠십인역에는,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아이에게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게 하겠다는 전형적인 나실인의 서약(삿 13:5; 16:17)에 영향을 받은 교정의 흔적이 있다. εως ημερας θανατου αυτου (till the day of his death) + και οινον και μεθυσμα ου πιεται (and he shall drink no wine nor

strong drink). 드라이버는, 칠십인역 번역자가 여기에서 마소라 본문과는 다른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번역자가 사무엘의 헌신을 더욱더 완전하게 나타내 보려는 구상에서 민수기에 나타난 요소들(민 3:9; 6:3; 18:6)을 사용하여, 마소라 본문과 같았던 히브리어 본문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한다¹¹³. BHQ 역시 라틴어역 불가타와 시리아어역 페쉬타와 아람어역 타르쿰이 마소라 본문과 동일한 본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칠십인역만 다른 본문 형태를 반영하는 것은 칠십인역이 히브리어 본문의 문맥을 확대하여 해석한 결과로 평가한다¹¹⁴).

4.26. יעלה(11절)

쿰란의 제 4 동굴에서 발견된 사무엘기상 1:11절에서 판독이 가능한 조각에 보면, 마소라 본문의 יעלה(야알레) 자리에 יעבו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¹⁵).

112) BHQ - ליהוה M V S T | ενωπιον σου δοτον G (interp)

113) S. R. Driver, *Notes on the Hebrew Texts* ..., p. 13.

114) BHQ - כלי ימי חייו M V S T | εως ημερας θανατου αυτου και οινον και μεθυσμα ου πιεται G (ampl-ctxt).

עָלָה는 עלה의 미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로서 “올라가다”를 뜻하는 말이다. “면도기가 머리 위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머리털을 면도로 밀어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עָבַר는 עבר의 미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로서 “지나가다”를 뜻하는 말이다. “면도기가 그의 머리 위를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머리털을 면도로 밀어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BHQ가 지적하듯이 4QSam^a가, 마소라 본문의 עלה와는 달리, עָבַר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읽기 중에서 어느 것이 원문의 반영이냐고 묻는다면, 그 질문은 오직 한 원본의 전승만을 전제한 것이다. 히브리어 성서의 본문 형성과 그 전승의 역사에서 다양한 본문 형태가 있었던 것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마소라 본문에 반영된 사무엘기의 히브리어 본문과 쿰란 제 4 동굴에서 발견된 사무엘기의 본문이 서로 다른 계열의 본문을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עלה와 עָבַר가 면도기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유사하게 쓰이고 있는 예를 민수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6:5). 이것은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성서를 편집한 성서 문필가들의 문체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성서 본문사에서는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문체를 통해 편집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번역에서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번역이 가능하듯이, 히브리어 본문 자체의 역사에서는 본문 전승의 매개자나 매개 집단에 따라 문체를 달리하여 편집되거나 어휘가 교체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¹¹⁶). 이런 차이가 우리말 번역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5. 맺는말

1) 위의 조사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우리말 「개역」에 반영된 번역은 대체적으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난해한 곳에서는 전통적인 추측 번역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마소라 본문이 문맥과 잘 맞지 않는 곳에서는 마소라 본

115) BHQ - עלִירָאוּ ... וּנְתַתּוּ M | [···] עָבַר לֹא עָבַר וּנְתַתּוּ לְ[···] מִרְחָה לֹא עָבַר

4QSam^a •

116) 히브리어 본문사에 있어서 문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에 관한 연구, 특히 본문 형성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본문을 형성시키고, 본문을 보존하고 전승시킨 초기 성서 문필가들의 활동에 관해서는 Shamaryahu Talmon, “The Textual Study of the Bible - A New Outlook,” in F. M. Cross and S. Talmom(eds), *Qumran and the History of the Biblical Text* (Cambridge, Mass. 1975), pp. 321-400.

문을 떠나 칠십인역을 따르기도 한다.

(2) 우리말 「개역」이 번역 성격에 있어서 형식일치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천 언어의 삭제, 수용언어의 첨가, 본문 비평 결과의 수용, 원천언어의 문장 구조 변경 같은 일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히브리어 구약성서 형성의 마지막 단계인 마소라 본문을, 마소라 본문 형성 이전, 곧 기원전 100년 이전의 본문 전승과 대조해 볼 때, 여러 유형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았다. 이 차이들은 ① 구전이 기록 전승으로 옮겨질 때부터 서로 다른 본문 전승들이 있었다는 것, ② 히브리어 본문의 전달 과정에서 본문의 와전이 발생하였다는 것, ③ 히브리어 사본에서나 번역본에서 난해한 본문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다는 것, ④ 번역과정에서 번역자가 첨가나 삭제나 변경을 가했다는 것 등을 반영한다.

(4)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계열의 한 세기에 걸친 본문 비평은, 본문 비평의 목적과 방법의 변천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 비평이 추적해 올라갈 수 있는 본문은 히브리어 구약 본문 형성의 네 단계 중에 제 2 단계인 “가장 최초의 것으로 입증되는 본문”이어야 한다. 이것은 본문 비평이 단순히 본문의 와전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본문을 찾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히브리어 구약성서를 번역할 경우에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번역에 정확하게 반영하면 된다고 하는 항간의 상식과는 다른 것이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은 히브리어 본문의 네 국면 가운데서 네 번째의 것이고, 본문 비평은 히브리어 본문 형성의 두 번째 단계인 “가장 최초의 것으로 입증되는 본문” 곧 기원전 100년 이전의 본문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 비평은 기원후 100년 이후의 마소라 본문이 기원전 100년 이전의 본문과 다를 경우 후자를 택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한다.

(5) 히브리어 성서의 문본문 비평을 위해, 기원전 100년 이전의 히브리어 본문 전승을 반영하는 고대역을 사용할 때, 번역자에게서 기인된 2차적 해석이나, 수용언어의 문법 범주에 맞추기 위한 번역자의 조정의 결과에 기인하는 “유사 이독(類似異讀 pseudo variants)”은 진정한 이독이 아니므로 본문 비평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6) 히브리어 성서 번역자는, 본문 비평을 위해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HK, BHS, BHQ) 외에 “히브리어 구약성서 본문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7) 마소라 본문의 본문 비평에 있어서, 기원전 100년 이전의 사해사본이 중요한 실마리를 많이 제공한다는 사실과, 히브리어의 성서의 다양한 본문전

승이 사해사본에서 확인된다는 사실은 본문 비평에 있어서 사해 사본의 중요성을 한층 더 잘 말해주고 있다.

2) 우리말 「개역」의 다음 번역은 아래와 같이 번역 자체를 다시 고쳐볼 필요가 있는 것들로서 논의 문제로 제시해 본다.

(1) “하나의 이름은 ... 하나의 이름은”(2절)

- “첫째의 이름은 ... 둘째의 이름은”

(2)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3절)

-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그리로) 올라가곤 하였는데”

(3)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4절)

- “하루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데”

(4) “그 모든 자녀에게”(4절)

- “브닌나가 낳은 모든 자녀에게”

(5) “제물의 분깃을”(4절)

- “(제물의)분깃을”

(6)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5절)

-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시니”

3) 우리말 「개역」의 다음 번역은 아래와 같이 본문 비평의 결과를 반영시켜 볼 필요가 있는 것들로서 논의할 문제로 제시해 본다.

(1) “라마다임소빔”(1절)

- “소빔족에 속한 라마다임”

(2)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5절)

- “한나에게는 한 뭉만을 주었지만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였다”

(3)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7절)

- “매년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4) “남편이 그같이 하매”(7절)

- “브닌나가 그같이 하매”

(5)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9절)

- “그들이 방에서 먹고”

(6) “한나가 일어나니”(9절)

-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니”

(7)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11절)

-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나실인으로 드리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며 면도기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4) 우리말 「개역」 번역에서 이미 본문 비평의 결과를 받아들인 것.

9절의 אכלה와 שתה의 주어를 엘가나의 식구 모두라고 생각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고 번역한 것은 마소라 본문의 אכלה의 반영이 아니라 그리스어 칠십인역이 읽었을 אכלם의 반영이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번역은 결과적으로 마소라 본문을 이탈하여 칠십인역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개역」 번역이 본문 비평의 결과를 받아들인 예는 이것 말고도 구약 안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¹¹⁷⁾.

117) 『개역』의 난외주에 보면, “히, …”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에는 …”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고, 이런 경우 대다수는 그리스어역을 따라 마소라 본문을 이탈하고 있다.